

'94 3/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統 一 院
南北會談事務局

'94 3/4分期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발행일 : 1994년 10월 24일

발행처 :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홍보협력관실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산 3-25

(02)734-4323, 735-8766

인쇄처 : 문성인쇄(주) 738-7434

目 次

I. 統一政策 關聯記事 / 3

- 對北政策, 民族共同體 統一方案, 北核問題 / 3

II.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 101

1. 1次會議 再開 / 101
2. 1次會議 合意 / 129
3. 平壤·베를린 專門家會議 開催 / 169
4. 2次會議 進行 / 205

III. 金日成 死後 關聯記事 / 261

- 金日成 葬禮, 權力承繼 遲延 등 / 261

IV. 南北 關聯動向 / 349

- 弔問 波紋·康明道 歸順, 北 人權實態 등 / 349

附 錄 / 423

I. 統一政策 關聯記事

○ 對 北 政 策

“金대통령 頂上회담원칙 언급”

“弔問 언급 말라 관계자에 지시”



클린턴대통령 김泳三大통령

韓美정상회담 金日成死後 첫 전화회담
 金泳三大통령이 15일(우) 김대중대통령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합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정권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정권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정권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정권을 추진하고 있다.

北韓의 상황 변화의 대해 양이도 주목할 의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합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정권을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정권을 추진하고 있다.

“南北정상회담원칙 언급”

李총리 여전조성되면 다시 추진

李鴻九부총리 겸 통일외교안보차관보는 11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여전조성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여전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여전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여전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金日成사망의 충격과 위기를 극복하고 후계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金瑗基 金民培기자>

이런 것처럼 양측은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자”고 강조했다. <金大錫기자>

“정상회담 북상황 보며 추진”

통일안보 조정회의 통해 “북한이 남북, 대미 관계와 관련해 입장을 보인 것은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면 뉴욕 실무접촉이 재개될 것이라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이날 회의에선 정상회담에 대한 더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안기부와 외무부로부터 김 주석 사망 뒤의 북한 동향과 미국 등 각국의 반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강태호 기자

「北 현실」인정 對話 주도 布石



정부입장 답변 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11일 국회의무 통일위에서 金日成북한주석의 사랑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石東律)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執權者 누가 되든지 상대” 긍정자세 선회 北 체제 안정과 맞물려 成事 시일 걸릴 듯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南北정상회담 재추진 배경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사망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점을 맞고 있다. 북한 金日成의 사망으로 예측하기 힘든 남북관계 상황하에서 현재까지 金日成 주석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등 심장마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 볼때 金日成 주석 사후 북한은 예정된 정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 우려할만한 특별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상황변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주석직을 비롯한 권력승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당분간 북한은 현 권력구조를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대내외 및 대남정

李총리 南北관계 발언 (요지)

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기존체제와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권력구조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통일정책의 기본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결집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예측하기 힘든 북한의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갈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념혼란 차단」 의지 표명

정부 對北 입장 정리 배경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金日成 과거 「가벼운 언급」 수준 水位문제 등 고심 후 적어 엮보여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人權 對北 정책 우선 과제

정부 방침 "7천만 민족안전에 主導權 행사"

金日成 습이로 韓半島 상황 변화 판단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종합統一정책」 추진

상반기 國政평가보고회

정부는 19일(금요일) 대통령 직속, 유해 하반기연도 국가평의회 주재하에 94년 상반기 국정평가보고회를 유한 사회기과위원회가 본회의를 개

對北정책 실패의 이유

解説

정부가 앞 다투어 추진해 온 94년 상반기 「종합統一정책」 실패의 이유를 유한 사회기과위원회가 본회의를 개

보통신방구축및 국제화·개발정책 대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정리로 대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과 북한 핵문제에

관련 정부 기관의 「核」 정책 실행을 위한 중

대한 「核」 정책 실행을 위한 중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일보기자>

장기 기본계획 수립·추진 ▲공공서비스의 체계적 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에 추진할 주요 시책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간교

통발성과 관련, 고속철도·신용융입시설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 지하철도공사에 계속 시행키로 했다. ▲화물수송체제의 개편을 위해선 유해 하반기에 ▲수도권과 부산권에 내륙화물기지 조성공사 착공 ▲항

만수출입 화물 전산망 시범서비스 실시 ▲수원·천안·대전 전라선을 전철화하는 등 추진할 주요 시책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간교

통발성과 관련, 고속철도·신용융입시설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부산·대구·인천지역 지하철도공사에 계속 시행키로 했다. ▲화물수송체제의 개편을 위해선 유해 하반기에 ▲수도권과 부산권에 내륙화물기지 조성공사 착공 ▲항

核투명성 확보 전제로 北韓경수로 지원 확인

베트남과 김정일의 이견 좁힌다

베트남과 김정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23일(수요일) 오전 10시(북한시간)에

베트남과 김정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23일(수요일) 오전 10시(북한시간)에

베트남과 김정일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이 23일(수요일) 오전 10시(북한시간)에

<중앙일보기자>

北변화 「모든 가능성」에 신축대응

「國政브리크」로 북변 움직임을 지켜

양측의 대변인들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변의 움직임에 대해 신축대응할 방침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북변의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변의 개혁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변의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변의 개혁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행방 임박” 분석... 대화주력

북변의 개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변의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변의 개혁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변의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북변의 개혁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투명성 보장” 지속적 노력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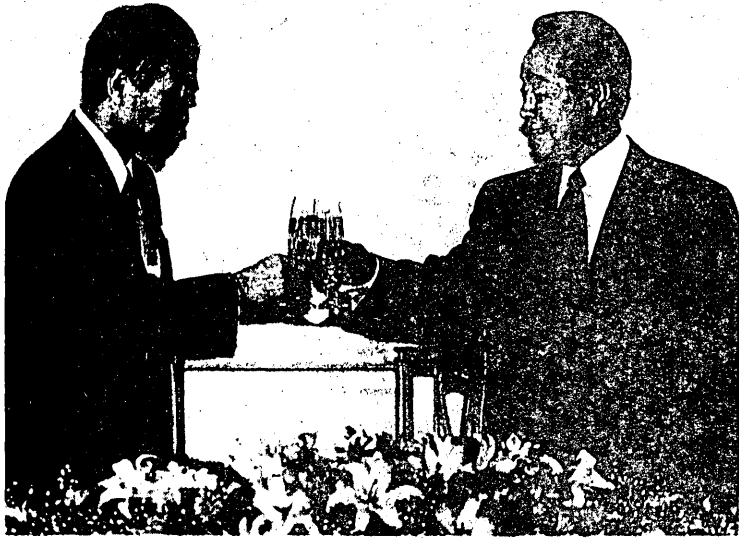
북변의 핵투명성 보장에 대해 양측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변의 핵투명성 보장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변의 핵투명성 보장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



金泳三大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李榮德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국정평가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李鐘遠기자>

北核 투명성 확보 共感

韓·日정상회담 兩國협력관계 재확인



金泳三大통령과 무라이야마 도미히치 日本총리가 23일 저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禹鍾元기자>

“北韓경수로로 지원 용의” “과거 시련·고통을 겪어 반성” 사할린 동포 귀국 조속해결 합의

【서울 23일路透電】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무라이야마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이야마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路透電】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무라이야마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이야마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路透電】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무라이야마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이야마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1994. 7. 26

“韓·日 긴밀협력” “북한 핵무기-미사일 개발”

【서울 23일路透電】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무라이야마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이야마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23일路透電】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김대중-무라이야마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무라이야마 총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사할린 동포의 귀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韓日頂上회담 무승부 오겠다

▶김포회담=북한의
 김포회담이 양측은 각각 11일과 12일 각각 11시간과 10시간 동안 계속된 후 양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을 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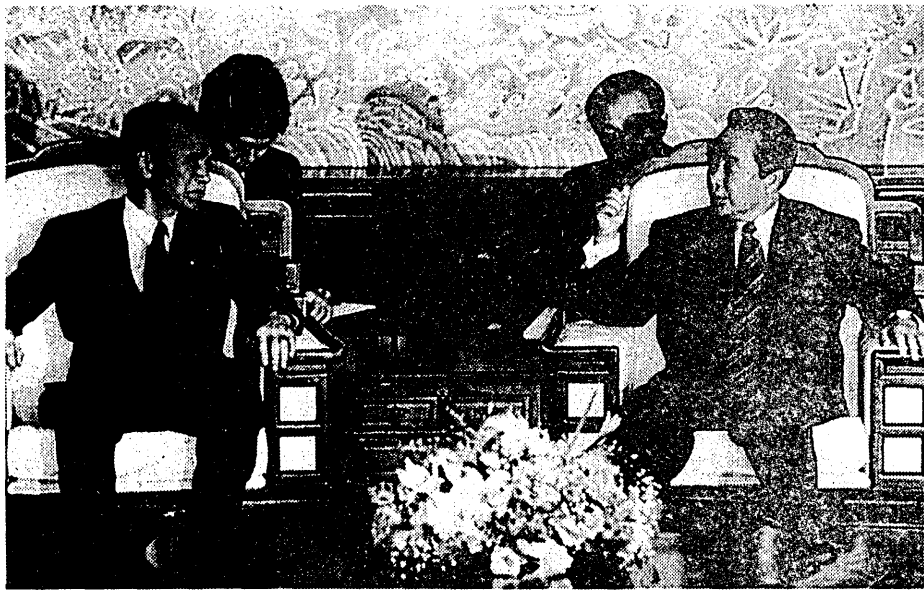
▶평양회담=북한의
 김포회담이 양측은 각각 11일과 12일 각각 11시간과 10시간 동안 계속된 후 양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을 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평양회담=북한의
 김포회담이 양측은 각각 11일과 12일 각각 11시간과 10시간 동안 계속된 후 양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을 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김포회담=북한의
 김포회담이 양측은 각각 11일과 12일 각각 11시간과 10시간 동안 계속된 후 양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을 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貿易불균형 해소 노력을"

▶김포회담=북한의
 김포회담이 양측은 각각 11일과 12일 각각 11시간과 10시간 동안 계속된 후 양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을 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김포시에서 23일 오후 회담에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喜市)인
 동생리와 韓日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양국관심사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金周晚기자>

金周晚記者 韓日頂上 회담 이면서

韓日頂上 회담 이면서
 김포회담이 양측은 각각 11일과 12일 각각 11시간과 10시간 동안 계속된 후 양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을 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北側의 “인민군”은 어떤 것인가?

김포회담이 양측은 각각 11일과 12일 각각 11시간과 10시간 동안 계속된 후 양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90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휴전선을 따라 회담을 진행했다.

정정수 기자

남북정상회담 새국면

김 대통령·김정일 비서 일단 재추진 희망 정부 "북 공식입장 밝혀야"...시기 불투명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이후 삼사여부가 불투명해졌던 남북 정상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23일 방한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낸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또 김 주석의 사망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 방북했던 박보희(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일 김정일 당비서와 단독면담했을 때 김 당비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정해진 원칙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박 사장의 이런 전언은 구체적인 검증은 거쳐야 하는 한계는 있지만 김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당비서를 포함한 북한의 지도부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김 대통령과 박 사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남북한 쌍방은 조문논쟁이나 남한 비방제거 등 최근의 난기류에

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일단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김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남북한의 책임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주석 사망 이후 "아쉽다"는 짝막한 말로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피력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던 김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 북한당국이 정상회담

의 재추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할 경우 최근 교착상태에 빠졌던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대한 남북한 쌍방의 긍정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김 주석의 사망으로 연기된 정상회담의 성사 시기는 여전히 안개 속에 묻혀 있다.

우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박 사장의 전언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을 주체적으로 재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보희 사장이 전달한 김정일 당비서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김용순의 명의로 정상회담의 연기를 통보해 온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아직 후계체제를 공식적으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고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원칙은 유효하다는 공식입장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였다. 그는 이와 관련해 "김 대통령이 '북한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한 것은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해 새로운 제안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대의 관심사인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북한이 권력승계작업을 공식적으로 완료한 뒤 후계자가 남쪽에 공식창구를 통해 재추진 방침을 통보할 경우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남북대화 및 개방노선을 추구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할 경우 정부는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을 위한 실무협상을 먼저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남쪽과의 교류 확대와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이른바 '개방파'들을 주축으로 재편될 경우 모양과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먼저 제의하더라도 국내의 반발여론을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언제쯤 재추진되나

관심끄는 조기성사 여부

정정수 기자

"연기"제의한 平壤측서 공식조치 취해야 직간접으로 개최 희망...北의지가 열쇠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쯤 재추진되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방한한 무라야마 총리와 정상회담을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 호응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일 김정일 당비서와 단독면담했을 때 김 당비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정해진 원칙대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우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박 사장의 전언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을 주체적으로 재추진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박보희 사장이 전달한 김정일 당비서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북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김용순의 명의로 정상회담의 연기를 통보해 온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대의 관심사인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는 북한이 권력승계작업을 공식적으로 완료한 뒤 후계자가 남쪽에 공식창구를 통해 재추진 방침을 통보할 경우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남북대화 및 개방노선을 추구하는 인물들을 요직에 대거 등용할 경우 정부는 관망자세에서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을 위한 실무협상을 먼저 제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남쪽과의 교류 확대와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이른바 '개방파'들을 주축으로 재편될 경우 모양과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먼저 제의하더라도 국내의 반발여론을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北韓 週內 重要 발표 예상”

“權力승계 순조로 언뜻”

“李洪九부총리 겸총리보고 최고회의 소집공고는 없다”

李洪九부총리 겸총리 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 장담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은 현재 순조로운 듯 하나 아직 최고인민회의의 수렴을 기다려야 한다”는 “민중중앙통신”의 발언

국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 “북한의 현재 대남비판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또 “朴普熙(박수희)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집권부의 임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류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주판의 회”를 이끌며 “북한인민지원군”의 현안과 관련 “북한은 대남의 대화선을 더 이상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러나 향후

적절한 날짜에 제헌헌장 소에서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부총리는 이밖에도 북한에 대한 輕水爐(중수로)의 대항선 “모든 것이 북한 의 핵무장정부는 전체 북아 하지만 이는 민족의 정적인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金學淳기자>

▽서울신문 1994. 7. 27

「3 단계 3 기조」 現통일안 세부절차 내용 대폭 손질

정 부

정부가 현행 「3 단계 3 기조」 통일방안안안의 기초와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절차와 내용 대폭 보완한 새 통일안안을 26일 발표했다.

李洪九부총리 겸총리 장관은 지난 5월 평壤에서 판문점 회담을 통해 합의한 「3 단계 3 기조」에 대한 4 단계 3 기조로 수정된 통일안안을 발표하고, “북한은 대남의 대화선을 더 이상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대남비판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또 “朴普熙(박수희)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집권부의 임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류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주판의 회”를 이끌며 “북한인민지원군”의 현안과 관련 “북한은 대남의 대화선을 더 이상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러나 향후

▽서울신문 1994. 7. 26

최부총리 겸총리 보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 장담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은 현재 순조로운 듯 하나 아직 최고인민회의의 수렴을 기다려야 한다”는 “민중중앙통신”의 발언

국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부총리 “북한의 현재 대남비판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또 “朴普熙(박수희)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집권부의 임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류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주판의 회”를 이끌며 “북한인민지원군”의 현안과 관련 “북한은 대남의 대화선을 더 이상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러나 향후

▽문화일보 1994. 7. 23

‘情報한계’ 統一院의 고민



정부는 통일안안을 총괄 추진부처인 통일원은 지난 9일 북한 金日成(김일성) 사망 발표 이후 노무나 바꿨다. 통일원이 자정을 넘기거나 철안무부를 하는 것이 예상되었다. 통일원 내부에서 20일 金日成의 추도대회가 끝난 뒤 신임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바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통일원은 “북한은 대남의 대화선을 더 이상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러나 향후

정부는 통일안안을 총괄 추진부처인 통일원은 지난 9일 북한 金日成(김일성) 사망 발표 이후 노무나 바꿨다. 통일원이 자정을 넘기거나 철안무부를 하는 것이 예상되었다. 통일원 내부에서 20일 金日成의 추도대회가 끝난 뒤 신임 장관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바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통일원은 “북한은 대남의 대화선을 더 이상 닫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러나 향후

동북아 「동북아 안보대화」 협의체

韓외무·아세안포럼연설 南·北·美·日·中·러 참여

亞太안보협력력 5원칙 제안 中외무

核비보유등 3원칙 재천명 日외무



韓界洲외무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아세안 포럼에서 열린 18개국 안보장관 회의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ABO)을 위한 5원칙을 제안했다. 이는 핵비확산, 핵무기 보유 금지, 핵무기 사용 금지, 핵무기 실험 금지, 핵무기 수출 금지 등이다. 한국은 이 5원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의 기초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 5원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의 기초로 삼고 있다.

【서울 25일 특파원 특보】 아세안 포럼에서 열린 18개국 안보장관 회의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ABO)을 위한 5원칙을 제안했다. 이는 핵비확산, 핵무기 보유 금지, 핵무기 사용 금지, 핵무기 실험 금지, 핵무기 수출 금지 등이다. 한국은 이 5원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의 기초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이 5원칙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협력의 기초로 삼고 있다.

남북대화-북미회담 동시 추진돼야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 곧 실무협의 시작

한외무 방콕 기자간담회

【방콕=김성호 기자】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콕을 방문중인 한승주 외무장관은 27일 숙소인 방콕시내 샹그리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대화가 북-미 3단계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남북대화가 북-미 회담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남한이 남북대화를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조건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의

고위관료들이 참가하는 실무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한·미·일 세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주도로 두 차례 모임틀 열어 다자안보대화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 때문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핵문제가 해결된 뒤 북한을 참여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동북아의 정치·안보문제 협의 틀에 자국을 포함시켜 주는 데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교류확대

확대외무회담 폐막

【방콕=김성호 기자】 지난 25일부터 타이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이 27일 아세안 6개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동아시아 회원국이 아니면서 대화 상대국으로 참가하고 있는 7개국의 개별회담을 끝으로 폐막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이날 아세안 6개국과 한국의 개별회담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지위를 점차 높여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 장관은 또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학술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세안이 제안한 ‘아세안 프롬오션센터’의 서울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콕 회담에서는 18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을 공식 출범시키고 경제협력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다음 아세안 지역안보포럼과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은 내년 브루나이에서 열린다.

對北정책 전면 조정을

與野, 「核彈보유증언」 대책 촉구

「과거투명성」구명 최우선돼야

증거없는 '침보' 정부 소극적 해명 비판

민주·外統·정포위 등 각 소집 여구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外統·정포위 등 각 소집 여구는 정부의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정부는 핵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업법원인 안소법무인

기업법원인 안소법무인...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partially obscured by a graphic)



기업법원인 안소법무인...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南北대화 先제의 고려

정부 北·美회담 北변화 파악 주력

▽동아일보 1994. 8. 6

“한국형輕水爐 지원” 입장전달

통일정책조정회의 拉北者송환 대책 등 논의

北조건부 연립동처리 반대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北·美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 이후의 북·미 3단계 회담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의된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영될 것으로 보고 변화
 상향평준화 방안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제 의향도 방양도 배제
 치양기로 했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와 부한 의무자 구할
 제의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南北赤회담 재개 제의키로

정부 12일 對北전문 拉北者-이산가족문제 논의

정부는 8월 12일 남북 정상회담 제의의 23주년 기념을 맞아 대韓 정상회담을 위한 美英勸誘제 명의로 高相文 씨 등 10명 사설위원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南北 정상회담의 재개를 北韓에 제의하기로 했다.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삼가주고 할말만 단교한 판문점 회담소설처럼 이산가족문제 해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의할 예정이다.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수의 북한중앙위원회 남북자 및 이산가족문제와 입찰제인할 수 있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점룡인정판주제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북한인민군사수용을 위한 대책을 3단계 北·美회담의 대의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단계 회담이 북·미 3단계 회담을 전제로 하는 3단계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北 電通文 접수 동물연 거부

시간 4일부터 연락관 교체통보에 "후에 보자"

拉北者문제 회의 무적인드스 달북자

북한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째 뚜렷한 이유없이 우리측의 對北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연락사무소 북측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對北연락사무소의 우리측 발신 20명(통화 17명, 전수물 3명)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 북측은 "북측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對北연락사무소의 우리측 발신 20명(통화 17명, 전수물 3명)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 북측은 "북측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4일간 對北연락사무소의 우리측 발신 20명(통화 17명, 전수물 3명)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 북측은 "북측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眞本永기자〉

北의 전통문접수 거부는 평화협정 구급 이니행아

민간 차질 때문이 아니다. 북측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측은 전통문접수물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측은 전통문접수물을 거부하고 있다. 북측은 "북측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南北 창구」 5일째 異狀

北側 연락사무소 電通文 거부 속셈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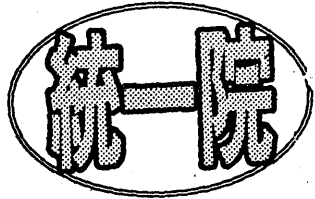
對南 지휘체계 공백 가능성 北·美회담 「韓國배제」계산도 정부는 "고시승환싸고 단선어음, 필사"

북한이 북측연락사무소 對南 지휘체계 공백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북측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북한이 북측연락사무소 對南 지휘체계 공백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북측은 "북측의 전화통신 전수물 거부하고 있다"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직수기구」 추진

조직대폭보강...對北정책 총괄



【서울 7일 특보】 통일원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실은 내각을 이끄는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을 위한 것이다. 통일원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韓宗鎔기자〉

「종합統一정책」청사진 발표

【서울 7일 특보】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실은 내각을 이끄는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을 위한 것이다. 통일원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적극적」-「실용적」-「상호공존」 3대원칙 기본축

北체제 유지 經協案도 제시

【서울 7일 특보】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실은 내각을 이끄는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을 위한 것이다. 통일원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金대통령 8·15경축사

【서울 7일 특보】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실은 내각을 이끄는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을 위한 것이다. 통일원의 조직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직수기구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원 내각에서 통일원 위상을 극대화하는 수직·수평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흡수통일 기회유면 실현”

李부총리 北정권 붕괴상황엔 불가피

李洪九 통일부총리는 8일 서울에서 열린 ‘94 통일포럼’을 바라지 않
지만 기회가 온다면 실현
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입
장이라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도봉구 수유
2동 통일연수원에서 열린
북괴등 흡수통일의 상황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를 거
이 말했다. 李부총리는 이
말이 듣고 나서 피할 수

있을 그런 문제가 아니다』
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또 독일 통
일 당시 쾰른 바이체커 대동
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
면서 ‘연연 회색을 치르다
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자
유를 줄 기회가 온다면 우
리는 기꺼이 그 회색을 치
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그리
나 ‘이들 기율이 저가 부
합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
안을 채택, 실천해야 한다
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는 반대한다면서 이는 인
간의 존엄성·민주·복지 등
한반도의 평화·통일 추구를
하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李부총리는 이어 제한적
개발 및 고립 탈피 시도를
북한의 다른 변화 가능성
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
고 있다며 ‘이 대해서는
민족 전체의 부리차원의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통일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
다. <具龍幸기자>

금강산 無비자「관광特區」검토 拉北·비전향長期囚 교환 시사

「차세대정치의 대화」권재와 北대표 박영

北韓의 한 대표자는 국
제사면의가 北韓정치범수
용소에 수용돼 있다고 밝
힌 拉北인사들을 韓國에
일부러 영입하겠다는 제1

차 북아시아 차세대정치인
회의의 참가자인 朴鍾雄의
원(民自)이 7일과 8일
北韓대표단과 가진 회담의
서 北韓측이 이같이 인장
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을 통해 발표했다.
차의원이 회담에서 만난
北韓측대표 金榮奎(金榮奎)는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국정부가 인노적 차원에서
李(模)노인을 北(北)로 송환
해간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北韓도 이에 상응, 前수로
영고교사 高相文씨 등 拉北
인사들을 즉각 송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朴(鍾雄)은 威
세한 金(榮奎)은 비전향장기
수용소를 가리키면서 ‘40
년 전일이 먼저 해결돼야
10년 전일이 풀릴게 아니

나고 말해 간접적으로 남
북인사들의 존재를 시인
비전향장기수와 교환송환
할 의사를 시사했다는 것.
차의원은 또 北韓에서
방파의 전면교섭을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金(榮奎)이
밝혔다고 전했다.
차의원에 따르면 金(榮奎)은
『蘇聯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불리한 이
상 北韓도 무형상대를 자
본주의국가로 돌려수박의
없다고 말하고 ‘전쟁의
관정자인 민간인의 인권관
심점을 많이 불만도이기
위해 노년선언문을 무비자
「한정」으로 지정하기 방
안과 전향장기수 등으로 안
다」고 발표했다.

南北정상회담 원칙 유효 北核해결돼야 관계개선

宋동일원 차관

【워싱턴 7일路透電】宋(宋)大
韓(韓)원차관
은 5일 南
北정상회담
개선 원칙
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
의 입장을
라고 밝혔
다.
宋(宋)차관
은 이날 워신
턴에서 사
흘간 일정
으로 시작
된 제10차
美(美)지역
회의에서 北
韓의
급격한
정체변화에도 불
구
남(南)북(北)관계
진전이 이뤄지
기 어렵고 긴장조
가
남(南)북(北)관계
진전이 이뤄지
기 어렵고 긴장조
가

있을 그런 문제가 아니다』
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또 독일 통
일 당시 쾰른 바이체커 대동
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
면서 ‘연연 회색을 치르다
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자
유를 줄 기회가 온다면 우
리는 기꺼이 그 회색을 치
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그리
나 ‘이들 기율이 저가 부
합의 붕괴를 앞당기는 방
안을 채택, 실천해야 한다
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는 반대한다면서 이는 인
간의 존엄성·민주·복지 등
한반도의 평화·통일 추구를
하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
했다.
李부총리는 이어 제한적
개발 및 고립 탈피 시도를
북한의 다른 변화 가능성
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
고 있다며 ‘이 대해서는
민족 전체의 부리차원의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통일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말했
다. <具龍幸기자>

남북적십자회담제의

韓赤姜英勳총재 총재·부총재급... 拉北·離散등 논의

姜英勳 대한적십자사총재는 12일 동선호 신원홍 관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포함한 4박5일간의 남북 적십자회담을 92년 합의했던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 실험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사총재 또는 부총재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관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부총재에 제의했다.

우리측 적십자사가 대 표단이 아닌 총재 등 핵심자담 회담을 제의한 것은 처음이다.

姜총재는 이날 대한적십자사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제의의 23주년을 맞아 발표한 300쪽을 통해 '23년전 송고한 인도주의 정신아래 남북적십자회담을 태동시킨 선인자의 뜻을 되새기면서 시급한 과제를 협의해나가는 전

기 마련을 위해 쌍방의 총재 또는 부총재가 아무런 조건없이 회담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姜총재는 '지금까지 남북회담은 오지 못하는 우리측 인원이 동선호 신원홍을 비롯해 무려 4백명

이 넘고 최근 공개된 국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姜총재는 이어 남북이 산가족들의 서신교환 및 상봉, 남북적십자대표접촉에서 구체적 절차까지 합의한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 등이 지

지정했다.

정부는 국자는 이번 제 의를 계기로 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전망과 관련해 '북측이 내부사정 등을 고려해 우리 제의에 대해 수긍을 해줄지 여부를 논의'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방송을 통해 79년 남북원고相文씨 등 남북사총환 요구 파위와 같은 점들의 對北 인권정책이 '터무니없는 잔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제의를 수락할 확률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적십자회담이 92년 8월 7일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위한 8차 실무대표 접촉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姜英勳 韓赤총재 일문일답

— 이번의 총재 또는 부총재 회담이 단지 새로운 형식의 제의를 하겠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사전담인 전직으로 북측에 달렸다. 그러나 이번이 과거와 다른 점이 국제사면의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한 정전협수용소의 있다. 이것을 확인해줬다. 것이다.

우리가 부총재회담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수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수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수 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수 있다.

이것이 새 형식의 회담을 전의한 것이다.

— 남북사총환이란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북측 대응을 기다린 것입니까?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재활을 위한 해를 것과 하루 수 수가 북측의 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전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가족들을 북측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부탁이 있을 때 관련서류를 북측 적십자사에 보냈다. 대한 적십자사는 부총재회담을

— 북측의 당의 신원홍 장을 우리측의 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전지를 발송했다. 또 다른 가족들을 북측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부탁이 있을 때 관련서류를 북측 적십자사에 보냈다. 대한 적십자사는 부총재회담을

北의 새 체제 맞춰 새 형식 제의

미전향자 송환요구인 人道차원서 대응

북한은 북측의 송환요구인 人道차원서 대응

북한은 북측의 송환요구인 人道차원서 대응

북한은 북측의 송환요구인 人道차원서 대응

南北 적십자회담 일지

- ▲71. 8. 12 한적, 남북적회담 제의
- ▲71. 9 ~ 72. 8 관문점 예비회담 25회 개최
- ▲72. 8 ~ 73. 7 본회담 7회 개최
- ▲73. 8 북측, 모든 남북대화 중단 발표
- ▲84. 9. 29 ~ 10. 4 북적 제공 수재물자 인수
- ▲85. 5 ~ 12 본회담 재개, 3회 개최
- ▲86. 1 북측, 팀스피리트 훈련 구실로 회담 중단발표
- ▲85. 9. 20 ~ 9. 23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서울·평양)
- ▲89. 9 ~ 90. 11 제 2차 남북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과 제11차 본회담 재개위한 실무대표접촉 8회 개최...결렬
- ▲91. 4. 2 한적, 제11차 남북적회담 5월초순 개최 제의
- ▲92. 5. 7 제 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합의
- ▲92. 6. 5 ~ 8. 7 남북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 ▲92. 8. 8 한적 총재, 남북이산가족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무조건 이행 촉구
- ▲92. 10. 29 한적, 제11차 남북적회담 재개 촉구, 11. 3 북적 거부
- ▲94. 5. 9 한적, 회담재개 촉구
- ▲94. 8. 12 한적, 남북적책임자회담 제의

南北대화 재개 민간차원 타진

赤十字총재회담 제의 배경

姜英勳(姜英勳) 대한적십자사총재 이번 제의는 지난달 30일 국제사면위원회(이하 '사면위')의 북한 정국변수용소 실태발표이후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바탕한 것이다. 또 송민석(宋民錫) 대한적십자사총재가 지난 27일 '민간차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사안인 '민간차원 대화 재개'를 제의했다.

특히 이번 제의에서 남북적십자사총재 및 부총재간 실무회담을 갖자는 것이 주목할 대목이다. 남북이 지난 71년 이후 1백여차례 진행된 적십자사 회의에서 양측 최고책임자의 직접 만남이 한번도 없었다. 이번 제의는 회담의 성사 여부를 떠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남북자선총재회담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회담결과 과정에서 수용되는 시간을 줄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남북적십자사총재는 지난 71년 첫 회담을 가진 이후 서로간의 정치적 상황의 따라 중립과 재개를 거듭 해왔다. 85년 한창 회담이 진행중이던 때 남북 적십자사총재가 회담을 중단했다.

그러나 송민석(宋民錫) 부총재가 공신출방하지 않고 있는 북한상황을 감안, 우선 적십자회담 재개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간차원의 접촉이 북한에 먼저 시작될 경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의 이번 제의에 대해 북한이 과연 긍정적으로 응징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최근 남북자로 알려진 高相文(高相文) 俞成根(俞成根)의 가인북자언론을 주장한 기자회견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또 국제사면위 발표 이후 수세에 몰린 북한이 송민석(宋民錫) 부총재의 미전향장기수용체를 다시 거론하며 가인북자언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적십자사는 북한이 적십자회담의 응징을 정하여 대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拉北者방치안된다” 여론크고 작용 北자극 안하며 국제적 명분 추적

北,人權역공세 강화...후유여부 불투명

姜英勳(姜英勳) 대한적십자사총재가 27일 이산가족 상회 방문을 남북자선총재회담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의 거부로 중단됐다. 그러나 92년 1월 이산가족 상회와 함께 8월 남북 간 교류회담을 위한 부수회담이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속에서 회담에서 보인 북한측 태도

적십자회담이 국제적으로 우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회담은 적십자회담이 추진되면 남북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제의는 송민석(宋民錫) 부총재의 對南전략 방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북한이 어떤 단계에 이를지 주목된다.

(崔東植)



對北경협-核 분리추진

北·美회담 진전따라 종래 연계방침 철회

▽조선일보 1994. 8. 14

企業人 3國접촉은 코리안영웅

時機성길로 南北공동위 조기개최도

경수로로支援은 「차관」형식으로

정부는 北·美회담 결과 하다고 보는 빠른 시일내에 ...
 이르면 3단계 결함판 ...
 김일성 사망 직후 ...

이러한 ...
 정부도 ...
 차관을 ...

이러한 ...
 정부도 ...
 차관을 ...

이러한 ...
 정부도 ...
 차관을 ...

남북당사자대화필수

절루 美에 연락사무소개설등 협의 추구

정부는 北·美관계 개선 및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
 이와 관련, 韓昇洲외무장관은 13일 ...
 정부도 ...
 차관을 ...

I. 統一政策 關聯記事

- 民族共同體 統一方案

“北核투명성 보장엔 경수로등 지원” 「민족발전 공동계획」 제시

「화해·연합거처統」 3단계로 北人權개선·억류자 해결촉구



◇金泳三大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족발전 공동계획」 수립등을 제시하고 있다.

金대통령, 광복 49주년 慶祝辭

金泳三大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투명성 보장엔 경수로등 지원”을 제시하며 “민족발전 공동계획” 수립을 통해 이념의 벽을 허물고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면서 “북한이 안정속에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가면 남북정부와 국민간의 민족연대사, 협조와 지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외의 기본철학 및 미래사상이 되도록 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1994. 8. 16

진정한 의미의 광복은 민족주의가 꽃피고 번영의 열매를 맺을 때이다. 남북이 화해·연합의 길을 걷고, 민족의 단결을 다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金대통령, 남북적정 평화사 (약)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북한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화해·연합의 길을 걷고, 민족의 단결을 다지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입니다.

金대통령은 “이념이 남북대립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을 이제 끝내자”고 강조했다.

통일方向 北에 선택요구

남북통일이 실현된 통일체方案 내용

남북통일이 실현된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분	우리 측	북한 측
명칭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고려연방제방안)
기본철학	자유민주주의 (인간중심)	주체사상 (계급중심)
방안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1민족 1국가 통일국가 (민족사회건설 우선 (민족통일→국가통일))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 국가체제조립 우선 (국가통일→민족통일)
과도체제	남북연합	없음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 의의	자유·복합·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없음
통일주체	민족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對南적화포기·개방동참 촉구 체제자신감 바탕 공격적내용

남북통일이 실현된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49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대중 삼대통령이 추경호 민주노동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남북통일이 실현된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통일이 실현된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체方案은 1994년 8월 16일 발표된 통일체方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적 統一정책」대전환

송두팔팔의 8.15
경축사상서 통일
의기투합한 200만
국민의 열망과
정신기세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중전 「3단계」 보완 새 方案 발표 의미

송두팔팔의 8.15
경축사상서 통일
의기투합한 200만
국민의 열망과
정신기세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송두팔팔의 8.15
경축사상서 통일
의기투합한 200만
국민의 열망과
정신기세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守勢」입장 탈피... 「主導」강력의지 「예기치않은」상황「대처」... 흡수통일도 배제안해 대화 진전 따라 經協 속도 조절



송두팔팔의 8.15
경축사상서 통일
의기투합한 200만
국민의 열망과
정신기세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송두팔팔의 8.15
경축사상서 통일
의기투합한 200만
국민의 열망과
정신기세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민족발전 共同계획」내용 원가

송두팔팔의 8.15
경축사상서 통일
의기투합한 200만
국민의 열망과
정신기세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경공업등 合作사업 본격 추진

송두팔팔의 8.15
경축사상서 통일
의기투합한 200만
국민의 열망과
정신기세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다.

경제포럼에
관한
특별
면담

核統委 재개 내달 제의

政府, 北韓에

기업인訪北 허용 검토

기업인訪北 再開도 타진

【서울 15일 연합뉴스】 핵통일위원회 재개 제의에 대해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서도 타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15일 연합뉴스】 핵통일위원회 재개 제의에 대해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서도 타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핵 구명돼야 經協·대화”

정부 美에 「南北·北美연계」도 강조키로

“경수로 한국형 채택 韓·美양해” 韓일부

【서울 15일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통일위원회 재개 제의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서도 타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15일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통일위원회 재개 제의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서도 타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15일 연합뉴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통일위원회 재개 제의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업인 방북 허용에 대해서도 타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방북을 통한 남북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인 방북을 검토하고 있다.

北, "非核化공동선언 이행"

核통제 쫓겨 개되며 南北 대화 "물꼬"

<한반도 非核化 공동선언>

1.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전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선언의 발효일후 1개월 이내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북한이 핵통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 위원회는 남북 양측이 합의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선언은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발효된다.



北-美가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14차례나 열렸으나 임시회담만 벌인 채 진전이 없었던 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가동등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가 관심이다. 92년 4월 1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핵통제공동위 2차회의.

경수로지원 받으려 北적극 임할듯 상호·특별수출차 이견...타결까진 먼길

북한이 핵통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 위원회는 남북 양측이 합의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선언은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발효된다.

북한이 핵통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 위원회는 남북 양측이 합의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선언은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발효된다.

북한이 핵통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 위원회는 남북 양측이 합의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사찰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이 선언은 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발효된다.

金대통령-클린턴 「電話회담」서 합의

美-北합의 반대시 관철

개방유도도 北지원 용의

“金正日 체제 불안정”의견일치

【서울 17일 AP통신】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17일 오전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개방유도를 위한 지원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17일 오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막고, 개방유도를 위한 지원에 합의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투명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김정은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미신고시설 특별사찰-투명성 확인후 北에 경수로 지원

▽한국일보 1994. 8. 16

北에 잉여電力 공급 검토

「민중발전공동체계획」따라 經協등 실천방안 착수

정부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수를 통해 「민중발전공동체계획」구상을 설명함에 따라 이 공동체계획에 의해 추진될 부처별 남북협력사업의 선정과 북한제안 및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민중발전공동체계획의 일환으로 금강강하역 발전소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高素成 기자】

"경수로美·日도 분담해야"

李부총리 韓國전담 논리 不當

"東北亞평화「費用」마땅"

국민지지 필요...國會동의 검토

李洪九부총리의 점토인원 장관은 17일 북한에 대한 경수로지원(우라늄)만 부담해서 안되고, 미국, 일본 등 有關係國도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부총리가 이날 기자들은 그 동안 북한과의 협

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조가 한반도평화에 이르기까지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李부총리는 이날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

상에서 NPT체제의 유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 왔으므로, 그 같은 목표가 충족되지 않는 이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 일련을 포함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점

東北아시아의 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해오던 김대중총리의 발언은 경수로지원을 둘러싸고 이같은 李부총리의 발언은

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李부총리는 "경수로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의 지지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면서, "합리적인 측면에서 현재 정책 방향을 수정할 여지가 없으며, 북한과의 대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대화를 제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眞實기자>

면도 감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수로 지원은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포함한 핵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받으면 남북관계의 대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대화를 제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4. 8. 18

이 부총리 '남북경협 단계 허용' 발언 의미

박중언 기자

이홍구 통일부총리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핵문제와 남북 경제협력의 연계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발언은 최근 핵-경협 연계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계 등에서

는 등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의 핵-경협 연계정책에 가뜰이나 불만을 가져온 경제계는 북-미회담의 합의로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무역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경제부처와 경제계에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계개선을 약속한 이상 이미 핵-경협 연계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미·일의 '평

으로 빚어진 신공안 분위기로 인해 남북관계의 탈출구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였다.

이렇게 경색된 분위기는 현재도 크게 바뀌지 않아 실제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남북 정상회담 등 정부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히 못박았다. 따라서 북한핵의 과거 문제가 현재·미래 동결과는 별개로 천천히 풀려나갈 경우 정부로서는 경제협력 부분 말고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미·일 주도권 우려 실리 찾기

재계불만·부처이견 정리...강성입장 뒤섞여 실현 불투명

불만을 드러내고 정부부처 사이의 이견이 노골화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데다 정부가 그동안 핵투명성이 보장되기 전에는 경협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거듭 천명해온 것에 비춰볼 때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부총리가 남북경협 문제를 교조적으로 말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 대목은 정부의 이런 변화조짐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물론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핵투명성 확보'라는 전제가 여러차례 강조되긴 했으나 무게중심은 상당부분 경협 단계적 허용쪽에 옮겨와 있었다. 정부의 이런 조심스런 방침 선회는 향후 정부의 입지를 넓히

양선점'을 우려해 경협 연계고리 해제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일단 정부방침에 융통성을 부여해 이런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부처간 이견의 증폭을 막는 것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북-미관계가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일본과의 수교교섭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경우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만 핵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려 실리를 잃을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의 대북 정책이 지나치게 강성을 띤 데 대한 반작용도 하나의 요소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이후 남쪽에서는 '조문논쟁'

그럼에도 이 부총리는 경제계나 경제부처에서 제기되는 핵-경협 분리론이 지나치게 선급하다고 지적하는 등 우려섞인 견해도 나타나 정부의 방침이 완전히 조율돼 최종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님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경제계가 북한진출을 마치 서부개척이나 보물찾기쯤 되는 것으로 여긴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영대 차관도 간담회 뒤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제부처에서 밝힌 대북 전기공급 계획에 대해 "전혀 얘기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경협과 관련한 정부방침은 북-미회담의 전개양상에 따라 또다시 심한 파열음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李洪九 통일부총리 기자간담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이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北·美회담 결과로 야기된 제반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李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차 북·미회담이 열린 후까지도 北·美회담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北·美 수교까지 인정될까”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北·美회담이 진행되면서 北·美 수교까지 인정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인 이인제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미 수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洪九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이 1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北·美회담 결과로 야기된 제반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金世九기자>

이 장관은 "북·미 수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미 수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南北관계 개선없이는 불가능한 일 頂上회담 北 거론때까지 기다릴것 최근 對北정책 강경으로 볼수 없어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北·美회담이 진행되면서 北·美 수교까지 인정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인 이인제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미 수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미 수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미 수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17일 특파원 특보】 北·美회담이 진행되면서 北·美 수교까지 인정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인 이인제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북·미 수교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문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잇단 「統一대비」 강조...뭔가 있나

송대통령 귀향길 발영 주파

송대통령이 귀향길에 오르며 "귀향길에 오르는 동안은 국민과 함께 있을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신남강-송진강 이상說 4개월전 10배 정파파괴 퍼뜨린 「북아의 感」 2페이지만

신남강-송진강 이상說 4개월전 10배 정파파괴 퍼뜨린 「북아의 感」 2페이지만.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韓國型경수노조관철”

송대통령 黨務회의 주재 北 특별사찰 받아야 지원

▽경향신문 1994. 8. 19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송대통령은 21일 오후 1시 15분 서울에서 출발한 귀향길에 올랐다.

北국적자 事案別구제

정부방침 영주귀국문호 점차 확대

▽조선일보 1994. 8. 23

實態 파악 후 立法 등 조치

재외국민정책 직접귀순과 구별 定着지원

법무공무원장 파씨는 귀순 허용

정부는 24일 북한으로 탈출하여 영주귀국한 재외국민의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북한 국적자들의 국내 체류문제의 관련, 통일원 외무부 법무부 법무부 교육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 유무관계자도 구성된 「재외국민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반적인 상황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중국 교포들의 영주귀국문제와 관련해 인도적 측면과 대내외의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영주귀국 문호를 확대하기로 원천적인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무관계자는 「불법체류 북한국적자 등 북한탈출자들을 과감히 수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지만 이는 정부의 對北정책과도 연결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새로운 처리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안별로 귀순 허용 여부를 심사, 「선별처리」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북한국적 관련 다룬 범죄 지원률 부중학교들에게 북한에서 여, 영주귀국을 허용하면 직접 귀순한다 북한 주민 귀순정보보통법에 따른 점

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 날 북한법률상으로 위장 귀순한 북한 국적의 중국 교포 차문덕씨(48)의 귀순을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鄭熙景기자

“中、金正日 건강異常 판단”

“金시신 처리 결말 못 내듯”

金德龍의원

여권소식통

중국 지도부는 金日成의 사후 한 달이 지나도록 권력승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金正日의 건강상태에 문제를 다루는 고위 외교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중국은 조속한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라고 있으나 金正일의 건강문제에 인접한

조기 체제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건강이상에 대해서는 중국 최고위 정부를 통해 서화인된 것으로 들었 다면서 「중국어 그러나 북한내 권력승계가 늦어지

고 있는 것이 내부 권력부쟁이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錢其琛(중국의외무장관) 지난달 韓昇洲의무장관을 만나 金正日成의 시신처리문제가 북한내에서 결말이 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金民培기자〉

통일 안보회의기구一元化

部處 혼선막고 정책 효율성 제고

黨政, 개편안 확정

1994. 8. 25

統一院에 南北회담사무국 흡수

【서울 25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통일부 내각회의에서 통일부 산하에 남북회담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 8. 17

법정검토

【서울 17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통일부 내각회의에서 통일부 산하에 남북회담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4. 8. 17

統一院의 南北회담사무국 흡수

관계장관 회의

【서울 25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통일부 내각회의에서 통일부 산하에 남북회담사무국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사무국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남북회담사무국을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면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은 赤化야욕 안버릴것”

◆대통령 강경

【서울 25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北정세」 시각

【서울 25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북한異常」 정보 축적된듯

【서울 25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돌발사태 대비” 등 강조 이어 「전단살포」도 주저없이 공개

각계 보고 분석 「종합판단」 가능성

【서울 25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서울 25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서울 25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2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체제가 변질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韓國중심 통일 강조

李부총리 "北核 평화볼모 삼지말라"

北군부, 변화양상 가능성

어제 寬動토론회



◇李洪九부총리

정책의 새지평이라는 기
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
조하고 "우리의 평화유지
노력을 볼모로 삼는 시의
는 북한 핵활동의 과거와
확언했다.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은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는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는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太熙
(북한부)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는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통일원의 對北觀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는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는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는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洪九 부총리(전 통일연
장관)는 26일 북한의 핵개
발 정책을 유리의 평화유지
라프이라고 전제하되 "북제
사회의 미분노 또한 우리
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이로
받지할 수 없다"는 신의라
고 북한측에 경고했다.

李洪九부총리 寬敎를 립언설

유지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이 지난 7월 말인 7월 26일 판문점 회담에서 남한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남한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남한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은 26일 밤 판문점 회담에서 남한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북한의 판도를 살펴본 후 남한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한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남한에 대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北韓 큰 혼란 있다고 볼 수 없다”

金正日건강·체제안정속단 어려워 對北경협은核해결후 단계적 허용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이 26일 밤 판문점 회담에서 북한의 현상과 對北정책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金錫錫기자>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金正日 黨政軍장악... 큰 혼란 없다”

북부총리 관할부처의 영미기업법

북부총리 관할 부처인 통일외교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 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일외교부 부총리인 김일남은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은 북한 당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부총리 관할 부처인 통일외교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 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일외교부 부총리인 김일남은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은 북한 당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北韓 체제 안정이 南北관계에 도움 건강과 권력승계 별개 더 지켜보아야 홍수통일일안해 北 돌발상황엔 대비

북부총리 관할 부처인 통일외교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 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일외교부 부총리인 김일남은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은 북한 당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부총리 관할 부처인 통일외교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 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일외교부 부총리인 김일남은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은 북한 당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李洪九 부총리 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정환 기자)

북부총리 관할 부처인 통일외교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 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일외교부 부총리인 김일남은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은 북한 당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부총리 관할 부처인 통일외교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 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일외교부 부총리인 김일남은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은 북한 당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부총리 관할 부처인 통일외교부, 26일 서울에서 열린 회견에서 영미 기업법 제정 문제를 놓고 북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통일외교부 부총리인 김일남은 회견에서 “영미기업법 제정은 북한 당내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北人權 최악... 통제 더 강화”

安企部, 情報委보고 장애인 斷種·공개處刑자행

“國土45% 주민활동규제”

金正日승계 이상징후없어

金應安기부장은 26일 국 회정보위에서 북한내부의 동향과 관련, 「현재金正日의 모든 권력수용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金正日의 金日成 애국가시간인 1백일이 지날 때까지 체제출범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金應安기부장은 「향간에는 평양에 反金正日전단 이 뿌려졌다는 이유로金正日체제의 붕괴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하나 이는 확대 보도했다고」辛偉원장이 밝혔다.

해설이라며 「아직까지金正日체제의 출범이 난 관에 불확실하다는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辛偉원장이 덧붙였다.

金應安기부장은 「북한은 정치·사회분야에서 金日成 사망준비에서 벗어나기위해 사망이전의 체제도들 아가기위해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며 「金正日체제는 출발하면서 더 개방적일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내적으로 더욱 억압적이고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내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金應安기부장은 「그러나 「북한에서는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의 심판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應安기부장은 이어 「철저한 여행허가제와 함께

후전선·영변핵시설·군사시설을 비롯한 북한전체의 45%를 주민활동규제로 지정, 주민활동을 극도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金日成 사망사실조차 은폐하고 있으며 나경이 목사 등이 등을 격리수용, 괴임을 강요해 斷種시키려는 비인간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辛相佑정보위원장은 「辛偉원장이 회의가 끝난 뒤 여야간사 협의를 거쳐 대외공개키로 한 안기부 보고사항을 전제, 회의 내용중 일부를 보도자에게 발표했다.

실시하는 일을 맡도록 하되, 운영은 국민적 통합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기관의 통합문제는 그동안에도 정권권과 학계 등에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부처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서 해당부처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도 「부처간, 당정간 협의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른 시일 안에 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오태규 기자

▽한겨레신문 1994. 8. 29

외교·안보·통일 관련 연구기관 통합 검토

당정, “연구 일관성 없고 업무 중복”...해당부처 반발 큰 변수

정부와 민자당은 전방위 외교시대와 통일 준비 등 본격적인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무부, 국방부, 통일원에 흩어져 있는 외교·안보·통일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외무부 산하의 외교안보연구원과 세종연구소,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 통일원 산하의 민족통일연구원이 통합대상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통일·외교·안보 관련 연구의 중요성이 한반도 주변정세의 급변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도

이들 연구기관들이 부처마다 흩어져 있어 일관성 있는 연구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경영관리 차원에서도 업무의 중복으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한계 때문에 최근 외교·안보·통일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에서도 이들 기관의 정책적인 기여도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통합될 경우 독일 내무성 산하의 시민교육기관인 ‘연방정치교육센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통합기관은 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편찬, 감사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을 맡도록 하되, 운영은 국민적 통합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 기관의 통합문제는 그동안에도 정권권과 학계 등에서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부처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서 해당부처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도 「부처간, 당정간 협의와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이른 시일 안에 통합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오태규 기자

탈출 안고 동향한다는 점에서 상황이 틀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辛偉원장이 전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정 보위원회의 제정을 위해 5명(民主3명·民主2명)으로 하는 운영규칙기 초소위를 구성했다. 【嚴盛植기자】

「北국적자」永住 허용방침

不法체류 中동포 관계부처 협의 거쳐 국적 인정

정부는 27일 불법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를 영구체류자로 인정할 방침을 밝힌 뒤, 「북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7일 「외국인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하여, 「북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민족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우선 국내에 체류중인 북한 국적자를 영주권자로 인정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韓英淑(인·李英淑씨) 55·이산 부모 8월 26일자 31면(노년)에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를 영주권자로 인정할 방침을 밝혔다.

가관립지침가정영신부절 차가 끝나고 27일 북한 영주권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인정할 방침을 밝혔다.

왔다. 현재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를 영주권자로 인정할 방침을 밝혔다.

중상영주권 인정기간 취업을 위해 입국한 것이 판명되면 영주권을 취소할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영주권자를 허가한 북한 국적자를 영주권자로 인정할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중동포가 주 북한 국적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전제 조건으로 인정할 방침을 밝혔다.

점액 커튼수 철회한보꽃

美·獨시찰후 情報委 안팎

신경민은 27일 북한을 방문한 뒤,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점액 커튼수 철회한보꽃.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회의前 道청상치 여부등 점검 北정세 관련 김일성노의 오간등

김일성노의 오간등.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회의前 道청상치 여부등 점검.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北정세 관련 김일성노의 오간등.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北국적자」의 영주권을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統一기금」 96년 신설

정부방침 北 갑작스런 붕괴 대비

예산반영... 민간출연·차관검토토

南北협력기금도 5백50억이 될 증액

정부가 北 韓의 붕괴에 대비해 각 지역별로 5천억 원씩 5백50억 원의 「統一기금」을 신설한다. 또 민간출연과 차관검토토

예산반영 등 후속행동도 추진한다.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統一기금」 신설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1996년 「統一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199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간출연과 차관검토토

이 기금은 「統一기금」에 예산반영 등 후속행동도 추진한다.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統一기금」 신설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1996년 「統一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199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간출연과 차관검토토

▽경향신문 1994. 8. 30

南北대화 사무국 강화 部處 전문가 파견키로

【서울 28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統一기금」 신설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1996년 「統一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199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간출연과 차관검토토

【서울 28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統一기금」 신설 관련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1996년 「統一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1996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간출연과 차관검토토

김근태의 黨政綱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1. 남북 대화의 틀을 마련한다. 2.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 3. 남북 협력을 증진한다. 4. 남북 단결을 도모한다. 5. 남북 화해를 추진한다. 6.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 7.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8. 남북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9. 남북 협력을 통한 사회 교류를 증진한다. 10. 남북 협력을 통한 인력 교류를 증진한다.



조직 확대 직원들 "축각"

화물적 對北정책 기대속 일반-별정직 갈등 속임이

북한에 대한 정책은... 1. 남북 대화의 틀을 마련한다. 2.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 3. 남북 협력을 증진한다. 4. 남북 단결을 도모한다. 5. 남북 화해를 추진한다. 6.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 7.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8. 남북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9. 남북 협력을 통한 사회 교류를 증진한다. 10. 남북 협력을 통한 인력 교류를 증진한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1. 남북 대화의 틀을 마련한다. 2.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 3. 남북 협력을 증진한다. 4. 남북 단결을 도모한다. 5. 남북 화해를 추진한다. 6.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 7.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8. 남북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9. 남북 협력을 통한 사회 교류를 증진한다. 10. 남북 협력을 통한 인력 교류를 증진한다.

統一院 「몸집」 커진다

정파와 대립... 1. 남북 대화의 틀을 마련한다. 2.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 3. 남북 협력을 증진한다. 4. 남북 단결을 도모한다. 5. 남북 화해를 추진한다. 6.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 7.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8. 남북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9. 남북 협력을 통한 사회 교류를 증진한다. 10. 남북 협력을 통한 인력 교류를 증진한다.

黨政 新 提 案 的 意 義

북한에 대한 정책은... 1. 남북 대화의 틀을 마련한다. 2.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 3. 남북 협력을 증진한다. 4. 남북 단결을 도모한다. 5. 남북 화해를 추진한다. 6.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 7.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8. 남북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9. 남북 협력을 통한 사회 교류를 증진한다. 10. 남북 협력을 통한 인력 교류를 증진한다.

情報力 강화·예산 증액 "산림부" "정금 엘리크로·국·환·통" "統一대포"

북한에 대한 정책은... 1. 남북 대화의 틀을 마련한다. 2. 남북 교류를 확대한다. 3. 남북 협력을 증진한다. 4. 남북 단결을 도모한다. 5. 남북 화해를 추진한다. 6. 남북 통일을 지향한다. 7. 남북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8. 남북 교류를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9. 남북 협력을 통한 사회 교류를 증진한다. 10. 남북 협력을 통한 인력 교류를 증진한다.

“北·美합의문 한국형 지칭”

경수로 지원 핵특명 보장돼야 과거 핵규명 韓美간 입장 확고

합의문이 1994년 8월 31일 11시 30분경 서울에서 체결된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문은 1994년 8월 31일 11시 30분경 서울에서 체결된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문은 1994년 8월 31일 11시 30분경 서울에서 체결된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 1994. 8. 31



◇서울외교부 부장관이 30일 국회외교위원회의에서 김대중대사와 담담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주환기자)

외교안보팀 不協和 질다

책임자간 “판소리” 국민불안 초래 “韓美공조 앞서 팀워크회복 급선무”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은 신기원안보팀장과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기원안보팀장은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은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책임자간 ‘판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불안 초래하고 있다. 책임자간 ‘판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불안 초래하고 있다. 책임자간 ‘판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불안 초래하고 있다.”

국외외장 北核대침 등 논의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은 신기원안보팀장과의 대화에서 드러나고 있다. 신기원안보팀장은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은 국민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책임자간 ‘판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불안 초래하고 있다. 책임자간 ‘판소리’를 하고 있어 국민불안 초래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4. 9. 1

“합의문”이 11시 30분경 체결된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문은 1994년 8월 31일 11시 30분경 서울에서 체결된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문의 체결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합의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갑작스런統一」 대비책 준비

정부 귀순자는 難民 규정... 法제정등 추진

정부는 북한에서 외상직 무한 상환의 발령장까지 발급된 부장급과 중령급 장교를 포함하여 귀순자를 難民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에서 외상직 무한 상환의 발령장까지 발급된 부장급과 중령급 장교를 포함하여 귀순자를 難民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과 귀순자 수가 유관사회의 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과 같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귀순자 수가 유관사회의 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에서 외상직 무한 상환의 발령장까지 발급된 부장급과 중령급 장교를 포함하여 귀순자를 難民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에서 외상직 무한 상환의 발령장까지 발급된 부장급과 중령급 장교를 포함하여 귀순자를 難民 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과 귀순자 수가 유관사회의 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과 같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귀순자 수가 유관사회의 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주민 탈출대비 中國 국경에 軍증강

북파-북이민 퍼다

북파-북이민 퍼다.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한 주민 탈출 대비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파-북이민 퍼다.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한 주민 탈출 대비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파-북이민 퍼다.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한 주민 탈출 대비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파-북이민 퍼다.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한 주민 탈출 대비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파-북이민 퍼다. 중국 국경에 군증강. 북한 주민 탈출 대비 중국 국경에 군증강.

「北붕괴」 대책 있나 없나

대통령-부총리, 「돌발사태」 잦은 언급

북붕괴 대책. 대통령-부총리, 「돌발사태」 잦은 언급. 북한 붕괴 시 대처 방안 논의.

예산확보 안되면 口頭禪 그칠 가능성

예산확보 안되면 口頭禪 그칠 가능성. 북한 붕괴 시 대처 방안 논의. 예산 확보 중요성 강조.

北에 「對話구걸」 안겠다

고위급회담 南韓배제 對美직거래전략 다각 대응

북한의 미국과의 협상 대화가 평壤산 재개되기 전에 일단 중단된 채 해빙 전향에 구상하면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협상 대화는 사실상 배제시키고 평壤산 재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위급회담은 이 경우 양측간의 협상 대화의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평壤산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평壤산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고위급회담은 이 경우 양측간의 협상 대화의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평壤산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평壤산 재개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전북-인간평화

“한반도 평화체제 南北협상 통해야”

전북군정협의 軍事停戰 委員會 提議하면서 「停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새로운 평화체제의 첫걸음으로 「停戰委員會」를 구성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새로운 평화체제의 첫걸음으로 「停戰委員會」를 구성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새로운 평화체제의 첫걸음으로 「停戰委員會」를 구성할 수 있다.

베트남, 한반도 非核化 지지

年内 서울서 兩國 정상회담

韓베트남總理 8월 25일 佛 經 協 會 的

【상하이=뉴시스】베트남이 8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베트남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베트남이 韓정치의

베트남이 韓정치의... (베트남이 한국 정치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주최협정」이 남북당사자문제

한국배제한美·北관계 개선 반대

인미커전회의의 전파-인간화정전

한미커전회의의 전파-인간화정전

해 美-北관계 개선에 추진

九부회담인정 북핵문제

전인 북한 핵 부문의 화

북한측의 협상 의지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統一인미커전회의의 비의도

美-北관계 개선에

「韓美外交특집」대책 모색

과거核규명「실질적 조치」에 비중 특별사찰·경수로 연계수준 초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美-北관계 개선에

북한인민군 지휘관들의 사생활

북한인민군 지휘관들의 사생활에 대해 북한 매체가 최근 보도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인민군 지휘관들의 사생활이 매우 단정하고 청결하며,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적 훈련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인민군 지휘관들은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적 훈련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인민군 지휘관들은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적 훈련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 3국 순방 마친 주총리 문답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 지적 잇따라

북·중·일 원 북情勢 “感嘆”

北·美·中 관계 급변 불투명한 안의 대응

북·중·일 원 북情勢 “感嘆”

북·중·일 원 북情勢 “感嘆”

평화협정 제기 가능성도 “杞憂”일축 南北대화 ‘무조건적’ 낙관도 문제

북·중·일 원 북情勢 “感嘆”

북·중·일 원 북情勢 “感嘆”

I. 統一政策 關聯記事

○ 北 核 問 題

南北·美北관계 연계

韓외무 오늘訪美 구체 방안 美와 협의

核투명성 실질조치 강조 「평화협정 공세」 共助 논의 클린턴에 金대통령 메시지 전할 듯

韓景福외무장관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韓美간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5일 출국한다. 韓장관은 7일 크리스토퍼 피셔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과 美·北관계 개선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 재개되는 3단계 美北회담에서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실질 조치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韓장관은 平壤·원산간 연락사무소 설치 이전에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실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韓장관을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10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총회에 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로버트 길러치 국무차관

북·도이치 국방부장관 등 미·북·고위 관계자들을 연쇄 접촉할 예정이다. 특히 히도이치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중국의 군사

정전위 철수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대해 집중 협의, 현장 전협정 체제가 유용함을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도 분명히 할 방침이다.

또 한쪽으로는 판철을 위한 韓·美 공식관행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朴斗植기자>

▽문화일보 1994. 9. 6

金대통령 내년 유엔연설

金正日도 초청계획... 頂上대좌 주목

金대통령은 내년 10월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에 참석, 총회에 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 로버트 길러치 국무차관

▽세계일보 1994. 9. 7

北核투명성 보장돼야 경수로 교체 지원 가능

韓日의원외맹합동공동회의 성명

【도쿄=연합】韓日의원외맹합동공동회의 6일 도쿄에서 日·韓의원외맹합동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재일 한국인 동포의 법적 지위, 한·일 경제 협력을 위한 교류의 개황의 등 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폐막했다.

한·일 공동회의는 성명에서 「한·일 양국이 진정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핵연료로 바꾸기 위해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韓界의 두 장관의 위신
 관제자들의 '韓界의 美
 美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한다면 韓美간 23일
 재개된 예정인 고위급 회
 당의 양자 韓美양국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일반
 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
 조하기 위한 '다소'의례
 적인 방문'이 아니겠나
 는 것이다.

이것이 국무부측 방문
 에는 韓美간 공조관계가
 예전과 다름없는 원만한
 유지되고 있어 새롭게 정
 책상의 조율을 필요로 하

韓외무訪美 내심 큰부담

는 문제가 없다는 미국측
 기본입장이 담겨 있다.
 최근 한국의 배제되고 있
 는 가운데 美북한 관계
 개선의 속도가 너무 빨리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우려적인 문제제기
 를 하고 있는 한국측 분위
 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측이 표면
 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은 이와 어찌됐든, 최근 북
 한의 핵무장정수로 지원
 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북핵문제가
 다시 미묘한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韓美양국
 이 왜선이다. 사실 내심
 미국측이 큰 부담을 느끼
 는 것이다.

과거 북핵문제가 절정

美-北 핵 신탁대처 실패할 듯

는 문제점이 없다는 미국측
 기본입장이 담겨 있다.
 최근 한국의 배제되고 있
 는 가운데 美북한 관계
 개선의 속도가 너무 빨리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
 라는 우려적인 문제제기
 를 하고 있는 한국측 분위
 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측이 표면
 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은 이와 어찌됐든, 최근 북
 한의 핵무장정수로 지원
 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북핵문제가
 다시 미묘한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韓美양국
 이 왜선이다. 사실 내심
 미국측이 큰 부담을 느끼
 는 것이다.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정수로 지원하면 南北대화도 저절로 입장

對北 韓 강경분위기도 움 안된다" 기본구도

韓國型 통일모델 찾는다

민중주체자문족, 통일모델찾는다

민중주체자문족의 위
 원장 金鎭載(金鎭載)는 7일 주
 상 相玉前의 부장관 申東元前
 서 李大鎔前의 부장관 申東元前
 서 李大鎔前의 부장관 申東元前
 서 李大鎔前의 부장관 申東元前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核 통일여건조성에 최대장애

“北-美연락사무소 개설 南北대화와 연계안해”

輕水爐 한국국형 관철

韓일미-갈루치 합의 「核투명성」보장 대폭 양보

「非核化위한 南北대화」北-美합의문에 명시키로

한겨레 9월 6일 보도에 의거
北-美 합의에 따라 韓일미-갈루치 합의에
대폭 양보

【서울 7일 = 박정호 기자】 韓美 양국은 7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에서 北-美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는 1994년 9월 12일 발효된다. 합의는 1994년 9월 12일 발효된다. 합의는 1994년 9월 12일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한겨레 9월 6일 보도에 의거
北-美 합의에 따라 韓일미-갈루치 합의에
대폭 양보

北-美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한국일보 1994. 9. 7

뒤늦은 韓美공조 復元타진

訪美韓일미-갈루치 합의

北-美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北이 「한미배정전함」 거둬내듯 아전전함

「한미배정전함」 거둬내듯 아전전함

北-美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北-美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北-美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北-美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 9월 7일 서울에서 양국 합의를 체결했다.

한반도 非核化 선언 이행 구체 방안 韓·美, 北·美 회담서 마련 합의

北·美 연락사무소 설치前 과거 핵 규명 文書보장도

兩國의무회담 한국형경수로관철 공동노력

【워싱턴=高泰成기자】防
美중인 韓美회담의무회담의
7일(현지시간) 워싱턴
리스토퍼퍼머부총장과의 회
담을 갖고 오는 28일 재개
되는 北美3단계고위급 회
담에서 한반도비핵화선언
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담하게 합의할
것이다.

韓美 양국은 또 북한 핵
의 과거부담의 확대에
경수로지원의 가동과
점점 재확인하고 핵규정
수도지원의 관철을 위해
공통노력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협상이 재
개되어 있다고 보고 北美
3단계회담에서 구체적인
재개방안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을 갖고 韓美 양

국장은 회담에서 「북
한문제 해결의 전과정에서
韓美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북한
반도체핵실험의 중단

제네바에서의 北美간 합의
문에도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노획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 양국은 「北美간
제개선의 속도를 대폭
국내는 미국의 부속국가
인식을 충분히 전했었다」
면서 「미국과 북한의 협
조관계는 핵규정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우
하러 있다」고 말했다.

韓美 양국은 「北美간
제개선의 속도를 대폭
국내는 미국의 부속국가
인식을 충분히 전했었다」
면서 「미국과 북한의 협
조관계는 핵규정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우
하러 있다」고 말했다.

이제 회담에서 양국 의
무회담에서 北美간 회담
제의 관련, 北美간 회담
무선 협조, 양자 회담
비핵화선언의 이행과 북한
핵의 확산을 위한
결정된 조약들이 양국
간에서 이행된다면 북한
정권의 안전과 한반도
이념 안정된다.

韓美 양국은 또 북한 핵
의 과거부담의 확대에
경수로지원의 가동과
점점 재확인하고 핵규정
수도지원의 관철을 위해
공통노력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협상이 재
개되어 있다고 보고 北美
3단계회담에서 구체적인
재개방안이 마련되었다
기자회견을 갖고 韓美 양

국장은 회담에서 「북
한문제 해결의 전과정에서
韓美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북한
반도체핵실험의 중단

제네바에서의 北美간 합의
문에도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노획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 양국은 「北美간
제개선의 속도를 대폭
국내는 미국의 부속국가
인식을 충분히 전했었다」
면서 「미국과 북한의 협
조관계는 핵규정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우
하러 있다」고 말했다.

韓美 양국은 「北美간
제개선의 속도를 대폭
국내는 미국의 부속국가
인식을 충분히 전했었다」
면서 「미국과 북한의 협
조관계는 핵규정 이행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우
하러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4. 9. 7

北 평화협정 공세

韓美 양국은 또 북한 핵
의 과거부담의 확대에
경수로지원의 가동과
점점 재확인하고 핵규정
수도지원의 관철을 위해
공통노력기로 합의했다.

美에 "신중대응" 주문

韓의무 "北서협의 요구하면 거부해달라" 클린턴면담때 金대통령 메시지 전할 듯

韓美 양국은 또 북한 핵
의 과거부담의 확대에
경수로지원의 가동과
점점 재확인하고 핵규정
수도지원의 관철을 위해
공통노력기로 합의했다.

韓美 양국은 또 북한 핵
의 과거부담의 확대에
경수로지원의 가동과
점점 재확인하고 핵규정
수도지원의 관철을 위해
공통노력기로 합의했다.

韓國배제 대응 「팀 카드」 재등장

韓의무-美국방·외통·농·경과

韓美관계가 악화되면서,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南北대화·연락사무소 설치 병행 강조

“평화협정 서부, 美안수 어렵게 일어서”

북한이 韓美관계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韓美관계의 미래

韓美관계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은 낙관적이지 않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韓·美·외무장관회담 발표문

美·韓·외무장관회담 발표문

韓美외무장관회담이 8일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美·韓·외무장관회담 발표문

美韓외무장관회담이 8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담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美韓외무장관회담이 8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담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美의 韓국 배제 대응책으로 '팀 카드'가 재등장하고 있다.

클린턴 "北核과거 규명 기우"

"연락소·경수로보다 우선" 재확인

韓외무, 金대통령 메시지 전달

【워싱턴 8일 홍경기 기자】북한 핵무기 개발이 차기 미국 행정부(클린턴)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클린턴은 메가톤급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이날 방북을 전후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경제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을 북한에 보내서 핵 시설의 파괴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北、脫走승환범 포공射殺"

金대통령

【평양 8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북한이 탈북한 승환범을 포공으로 쏘아 죽였다고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30분경 서울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는 "북한이 탈북한 승환범을 포공으로 쏘아 죽였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美 "北평화와 협성 요구 不應"

美北南北관계 균형추구

韓외무 "경수로 채택 「한국형」의 代案 없다"

【워싱턴 8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협성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협성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에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를 협성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韓-美 北核대응책 「교통정리」

韓외무 訪美 결산

韓昇洲외무장관의 8일(한국시간 9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미 국무부에서의 회담이 막을 내렸다. 韓외무부의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회담은 韓昇洲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부 장관인 로버트 로빈슨이 주관했다. 회담은 韓昇洲 외무장관의 1차 방문으로,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南北대화-경수로등 共助를 재확인 韓國배제 불안감 덜어... 北반이 주목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北韓과 美國의 관계가 나날이 개선되고 있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韓昇洲(左)와 로버트 로빈슨(右)의 회담 모습. (AP통신)

韓외무 기자간담 내용

韓昇洲외무장관의 7일(한국시간 8일) 기자간담 내용이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韓昇洲외무장관의 7일(한국시간 8일) 기자간담 내용이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韓昇洲외무장관의 7일(한국시간 8일) 기자간담 내용이다.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北核과거 점진적규명 일장

“평화협정이 논의대상 아니다” 못박아

美北核과거 점진적규명 일장.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北核과거 점진적규명 일장.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北核과거 점진적규명 일장. 韓昇洲 외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교통정리는 어디까지나 韓美사이에만 있었다. 점차 협상사태인 北韓이 남이었다. 특히 북 韓이 가장 꺼리는 특별사찰과 남북대화, 한류협정수로 채택에 대해 韓美간의 입장차이가 시시각각을 전하고 있다.

□ 이홍구 부총리 발언 무엇을 뜻하나

정상회담 합의분위기 되살리자

강경일변도는 국제 고립만 자초 위기의식 반영

북한과 직거래 미국에 불만...대응책 마련 시사

박중언 기자

이홍구 통일부총리의 7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거듭 강조한 점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 첫머리부터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한승주 외무장관의 미국방문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유지와 통일"이라며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여러차례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또 핵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책적 사고에 불균형이 왔으며 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그동안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물론 이 부총리의 이 발언은 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핵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 김일성 주석 사후 정부의 태도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색시키는데 큰 몫을 했던 점과 비교하면 쉽게 드러난다. 실제 정부는 최근

까지 "체제경쟁은 끝났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서 나타난 체제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갑작스런 통일이 올 수도 있다"는 북한 붕괴 가능성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뿐 남북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었다. 정부당국자 가운데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조차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 부총리의 이 발언은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강경책만으로는 남북한 문제를 바람직하게 풀어나갈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화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문제를 의면하려 한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대화개를 위해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두달전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된 때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홍구 통일부총리가 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정부의 공식 대북청구인 자신과 한 장관이 북한을 비방하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정상회담 파트너였던 김용순 담비서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등 대화개를 바라는 진심을 북한측이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최근 남한 정부를 따돌리려는 미국측에 대한 불만 또한 뚜렷하게 담겨 있었다. 이 부총리는 "미국도 핵문제 해결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사자에 의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미국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경우 우리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시설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무릅쓰고 양보한 면이 없지 않으며, 이는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南北문제 당사자가 해결해야”

李부총리 美對北독자정책 추진 제동 시사

李洪九 부총리 7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남북관계 개선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한승주 외무장관의 미국방문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유지와 통일"이라며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여러차례 되풀이했다.

이 부총리는 또 "미국도 핵문제 해결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사자에 의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미국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경우 우리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시설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무릅쓰고 양보한 면이 없지 않으며, 이는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또 "미국도 핵문제 해결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사자에 의하지 않고서는 한반도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미국의 태도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의 경우 우리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시설까지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무릅쓰고 양보한 면이 없지 않으며, 이는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내기자 訪北취재 허용 검토 李부총리 "관계부처와 협의중"

정부는 한겨레신문 기자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겨레신문 기자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남북대화 먼저 제의 고려

미·중통해 북 의중 타진...분위기조성 노력

김정일 주석 승계하면 정상회담 다시 추진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의 본격적인 관계개선 협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남북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주변정세가 적대적인 냉전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쪽으로 이행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방안 모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북 대화재개 방침에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북한과 대화창구를 유지하고 있는 관련 국가들에 남북대화 개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을 방문한 한승주 외무장관을 통해 이런 정부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극렬한 비방방향을 계속하고 미국과의 협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대화 재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모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남북대화 개에 대한 의지를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전달해줄 경우 △북한핵 과거 규명에 대한 신축적 대응 △기업들의 대북한 경제교류의 단계적 확대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과 대일 수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을 모색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쪽의 대화 의지가 확인될 경우 남북대화 재개를 먼저 제의하는 방안과 김정일 당 비서가 국가주석직과 총비서직을 공식 승계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여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정수 기자

▽한겨레신문 1994. 9. 10

▽중앙일보 1994. 9. 10

「평화협정」 전환문제 제기 때

전쟁책임 따지겠다

李부총리



李洪九부총리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10일 北韓의 전쟁 책임 무덤화 시도와 관련,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쟁책임 따지겠다』고 말했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C출신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10일 北韓의 전쟁 책임 무덤화 시도와 관련,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쟁책임 따지겠다』고 말했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李洪九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은 10일 北韓의 전쟁 책임 무덤화 시도와 관련,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쟁책임 따지겠다』고 말했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金鐘國기자>

金正日 권력승계 확정되면

南北대화 본격 재개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남북한 대화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北美관계의 진전이 南北

韓간 진전 대화와 보증을 맡겼다. 한편 우리 정부도 남북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李洪九 통일부총리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韓美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北美 관계의 진전속도에 대한

국내의 우파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쟁책임 따지겠다』고 말했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전쟁책임 따지겠다.

정부는 7일 李洪九가 남북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나 韓美간 美는 金正日 승계가 다

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의 필요하다는 보도 소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또 金日成 사망이후 北韓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북한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쟁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쟁책임 따지겠다』고 말했다. 장정수 기자

<廣英鎭기자>



李洪九 부총리

북부총리 전쟁책임론 제기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北 「평화협정」 여는 길

우리정부 백제 의포의 경고 「南北당사자 해결」 원칙 강조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北 「평화협정」 공세에 맞물

정부 「전쟁책임」 거론 경고 배경

북부총리가 10일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부총리가 10일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부총리가 10일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부총리가 10일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부총리가 10일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平壤 자극불구 超強手 구사

美-北협상 겨냥 「당사자 해결」 강조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전쟁책임론을 제기하며,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부총리 리정권은 10일 평壤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對北 대화분위기 조성

정부 北-美 회담 진전에 대비

자극발언등 당분간 자제

핵돌파구 마련되면 經協 추진

【서울 10일 연합뉴스 보도】 정부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해외 언론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핵돌파구 마련 시에는 경제제재 구호가 가시화되고, 남북 대화 3단계에 이를 것을 대비,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제기된 각종 핵 관련 주장에 대해 확실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부·신영우기자〉

차분해진 청와대 對北정책

韓-美공조 큰틀유지... 北자극 삼가 대화의場 유도 「妙策」없어 어려움

【서울 10일 연합뉴스 보도】 청와대는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해외 언론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핵돌파구 마련 시에는 경제제재 구호가 가시화되고, 남북 대화 3단계에 이를 것을 대비,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제기된 각종 핵 관련 주장에 대해 확실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對北 유화정책」 왜 나왔나

정부가 유화정책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화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화정책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화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화정책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화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화정책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화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화정책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화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화정책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는 유화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9월 19일 국경일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9월 19일 국경일을 맞아 국내외로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다.

“金正日 권력승계 확실” 판단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北·美 관계 개선과 보조 맞춰 弔問 파문후 強硬기류 진정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합의에 따라 평壤에서 열린 남북회담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원들이 10일 평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

있다.

변수 없는 지속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확실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北美관계개선은南北대화와 併行”

「각서」땀 한구형 채택안 돼도 돈대야

경수로비용 韓國부담 美, 金대통령 親書 요구

韓인무 訪美 때 전달해와

美國정부는 北韓의 대한 경수로지원과 관련된 유린정부가 재정부담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미국은 金대통령에게 친서를 발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1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장관이 미국 대사 金대통령에게 경수로 지원

원 비용을 적극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지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美國 日本 등 관련국간의 경수로지원과 관련된 기술 및 재정부담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린정부가 재정부담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미국은 재정부담을 약속할 경우 한구형 채택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린정부는 재정부담을 부담할 수 없게 된다면 협상도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린정부는 14일 워싱턴에서 유린정부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지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린정부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지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유린정부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지원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北核」4단계협상 추진

韓美, 갈루치 訪韓때 최종확정

寧邊방사실 폐쇄→연료봉 3國인도 核禁복귀 특별사찰→南北대화 재개

韓美 양국은 9월 13일 제네바에서 8.13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4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료봉 3國인도, 핵금지, 특별사찰,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韓美 양국은 9월 13일 제네바에서 8.13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4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료봉 3國인도, 핵금지, 특별사찰,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9월 13일 제네바에서 8.13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4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료봉 3國인도, 핵금지, 특별사찰,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1994. 9. 13

北美 양국은 9월 13일 제네바에서 8.13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4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료봉 3國인도, 핵금지, 특별사찰,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갈루치 왜 오나
갈루치 장관은 9월 13일 제네바에서 8.13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4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료봉 3國인도, 핵금지, 특별사찰,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北-美관계개선 속도조절 관건

北서「韓國型」끝까지 거부때 대책도 마련

北美 양국은 9월 13일 제네바에서 8.13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4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료봉 3國인도, 핵금지, 특별사찰,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9월 13일 제네바에서 8.13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한 4단계 협상을 시작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연료봉 3國인도, 핵금지, 특별사찰, 남북대화 재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南北 정상회담 포함 北에 대화제의 검토

23일 北·美 회담 진전되면 추진

人的왕래·經協 단계적 해결

추남익인민대학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남익인민대학은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남익인민대학은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남익인민대학은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위기는 서울아닌 평壤

일부 전문가들 주장

외교부의 추남익인민대학은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남익인민대학은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외교 활발... 韓中관계도 비약적 진전

난제인 北核해결 「제네바합의」 이해 중요

외교부의 추남익인민대학은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남익인민대학은 23일 北·美 회담이 진전되면 北·美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北에 대화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對北政策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對話재개대비 「자세 전환」

李부총리 회견 배경과 의미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색국면 원치않는다... 對北메시지

北·美회담 결과다라 예상 바뀔수도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수로 「韓國型명칭」 집착일것다

북한 9.14 회담 기대에 밝다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 대표단과 남측 대표단이 회담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

남북관계 내달에 긍정적변화가 예상된다

남북관계는 내달에 긍정적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대화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美-北관계 10월 급진전예상

南北평화협정 검토

“韓美방위전략이 틀리면” 黨政

정부가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北-美관계 급진전 대응 포석

전미-북관계협정 진배검토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美軍철수」노리는 북수협사전차단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방위 전략이 바뀌면 남북 평화 협정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끝)

「당사자간 평화정착」이 목표

후천형성 대처 작업

정부가 이미 평가-전북
 10명의 사망 전까지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평가-전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평가-전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북 3남체이자 1994년 9월 14일 북한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미 평가-전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평가-전북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남북합의서 바탕 화해공동중재 논의 美軍은 韓美방위조약따라 계속 주둔

미국은 남북합의서와 관련,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남북합의서와 관련,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남북합의서와 관련,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남북합의서와 관련,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1994. 9. 22

南北대화 내달再開가능성

정부는 '단대채갈부 카터 仲裁' 北변화주시

北側「6월합의」原本전달 평가

북측은 6월 합의의 본문을 전달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정부는 '단대채갈부 카터 仲裁' 北변화주시

정부는 '단대채갈부 카터 仲裁' 北변화주시.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정부는 '단대채갈부 카터 仲裁' 北변화주시

輕水爐지원 韓國이 주도

金대통령-클린턴 親書교환내용 밝혀져

▽조선일보 1994. 9. 23

국제컨소시엄구성 추진 南北美北개선 연계요청

클린턴
金대통령

北美고급회담을 앞둔 행정부가 보고주고 있는南北대화가 중요하게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

北美고급회담을 앞둔 행정부가 보고주고 있는南北대화가 중요하게 개선을 병행 추진할 것

金대통령은 지난 14일 美해당인 로버트 칼루치 美해당인사를 통해 열린 美해당과의 친서를 교환했다. 19일 韓美회담을 통해 한미정부가 인정을 받은 輕水爐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친서를 교환했다. 22일 발표했다.

金대통령은 친서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輕水爐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南北美北개선을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에 앞서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에서 南北美北개선을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金대통령은 친서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輕水爐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南北美北개선을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 에 앞서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에서 南北美北개선을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美에「경수로지원」보장 親書

金대통령 갈루치, 美北회담때 北측에 제시

「日本도 비용분담 보장」

美에 輕水爐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日本도 비용분담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 에 앞서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에서 南北美北개선을 연계할 것을 요청했다.

對北 에너지제공 양기로

정부 "대체연료 中·러 석탄으로"

컨소시엄 참여國 많게 現物출자도 허용 방침

정부는 북한에너지가 타
결합 2001년부터 대 한 경
수 및 2002년 대체에너지 제
공을 위해 1994년 10월 20
일 2000년 10월 20일까지 발
기(KRFAO)의 참여, 2001
정수준의 연료의 사용, 2002
정수준을 달성, 대체연료
지부으로의 참여하는 양기
로 2000년 10월 20일까지
일 2000년 10월 20일까지
일 2000년 10월 20일까지

와 관련, 「북한의 대
체에너지 제공」 컨소
시엄의 참여하게 될 중
러시아의 중재이 돼 달
당하게 될 것이란 면서
「중재」가 이들을 부가
들과 비영전선회의 발
에 관해 합의할 발이
있고 전이로 열려 있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이번
北美 3단계의 회담의
서 대체연료를 원유 또
는 중재의 제공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韓美 양
국은 군사적 안정의 우려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신 중화 러시아
들이 북한에 석탄을 제공
해주기 방안을 제시한 것
이로 알려졌다.
韓美 양국이 이와 함께
對北 중수부지원을 위해
구성할 국제컨소시엄의 경
화로 출자하는 방식 외에
석탄 등 현물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해 컨소시엄 참여
국가를 가능한 늘릴 방
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같이 방전에
다 단 한 부 중수부지원이
관련할 경우를 대비, 국제
적인 자원관리 및 안전과
해 우 리 기 중의 중수부지
실 참여국에 대한 중수부
한 산출물과 안전을 확보할
것이로 열려 있다.

【高善成기자】

“남북경협 국익고려 접근”

한 외무 국회답변...제네바회담 결과따라 단기간내 재개 가능성

한승주 외무장관은 23일 현재 중단
상태에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문제와
관련해 “핵문제에 돌파구가 생기는
대로 경협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
제하고 “그러나 돌파구가 생기는 상
황에 대한 해석에는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국익을 고려해 접근하겠다”
고 밝혔다.

한 장관의 이런 언급은 남북 경협

과 관련한 그간의 강경한 정부입장보
다는 다소 유연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북-미 3단계 2차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경협이 단기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에
출석해 북한핵문제 및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
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韓·美공조異常」 터무니 없는 억측

「南北관계의 진면목」 권위자 김대중 <여론>

최근 남북관계의 진면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日對北비밀거래절대없어

「영전·反共사고」 바탕으로 보도 지양해야

주제발표



韓의부 김대중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對北 경제적 得도있다

韓의부 심포지엄서
美·日 北에 비밀거래 없다고 밝힌 김대중

【서울 28일 경향신문 특파원 김대중 기자】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비밀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北核투명성 전제 경수로 지원

外統부

북한이 원자력 발전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 경수로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 원자력 발전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 경수로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기사가>

국민들 유연한 대북정책 원해

통일원 여론조사... '김'사후에도 남북정상회담 기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여론은 조문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실시된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사후인 지난 7월말 전국의 성인 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대북정책이 '많이'(34.3%) 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43.1%)고 대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을 '상황에 맞게'(43.8%)나 '보다 유연한 쪽'(42.4%)으로 꼽

았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과반수인 53.5%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와 회담을 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38.4%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김일성 주석 사후에도 여전히 남북 정상회담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46.1%)이 가장 많고, '잘하고 있다'(24.9%)와 '미흡하다'(24.7%)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48.3%가 3년 이내 새로운 북한체제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언 기자

이런 여론은 조문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실시된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사후인 지난 7월말 전국의 성인 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대북정책이 '많이'(34.3%) 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43.1%)고 대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을 '상황에 맞게'(43.8%)나 '보다 유연한 쪽'(42.4%)으로 꼽았다.

관제성실 따라 통일원 여론 변화

"흡수통일" 유렵 "75.9%"

정부 非공개 여론조사

로 정부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통일원이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천 500명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 흡수통일론이 75.9%로 나타났다.

이것이 실지로 접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흡수통일론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53.5%가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38.4%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여론은 조문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실시된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사후인 지난 7월말 전국의 성인 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대북정책이 '많이'(34.3%) 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43.1%)고 대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을 '상황에 맞게'(43.8%)나 '보다 유연한 쪽'(42.4%)으로 꼽았다.

관제성실 따라 통일원 여론 변화

"흡수통일" 유렵 "75.9%"

로 정부의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통일원이 지난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천 500명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 흡수통일론이 75.9%로 나타났다.

통일대비계획유원 양성

정부는 갑작스러운 남북 통일에 대비하고 실현가능한 통일계획등을 세우기 위해 내년부터 각부처 차원에서 이른바 「통일대비계획요원」들을 집중 양성키로 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적한 데 이어 같은달 23일 이에 관한 특별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1차적으로 통일원을 중심으로 재무부·법무부 등 정부 각부처 요원 20여명을 선발, 한반도 주변 4강국과 동구권 등 관련국가들에 6개월 정도씩 파견한 뒤 분야별로 정부차원의 통일대비 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통일원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과제와 요원선발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도 예산에 4억5천여만 원을 편성, 10월 정기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통일에 대비한 실무팀이 구성되기는 했지만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요원양성과 이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에 양성키로 한 요원들은 향후 통일대비계획 수립 등에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洪濤五기자]

각부처 전문가 20명 선발
東歐圈 등 관련국에 파견

이런 여론은 조문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실시된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사후인 지난 7월말 전국의 성인 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대북정책이 '많이'(34.3%) 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43.1%)고 대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을 '상황에 맞게'(43.8%)나 '보다 유연한 쪽'(42.4%)으로 꼽았다.

관제성실 따라 통일원 여론 변화

統一비용 추정 "제각각"

통일원 국정자료

통일원 국정자료에 따르면 통일원 예산이 1000억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통일원 예산의 40%가 통일원 자체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원 예산의 40%가 통일원 자체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원 예산의 40%가 통일원 자체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은 조문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실시된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 사후인 지난 7월말 전국의 성인 남녀 1천 5백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대북정책이 '많이'(34.3%) 또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43.1%)고 대답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북정책 변화의 방향을 '상황에 맞게'(43.8%)나 '보다 유연한 쪽'(42.4%)으로 꼽았다.

관제성실 따라 통일원 여론 변화

統一비용 추정 "제각각"

통일원 국정자료에 따르면 통일원 예산이 1000억 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통일원 예산의 40%가 통일원 자체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北경수로 한국이 주도해야" 外統委, 「對美입장」 채택

"관철안되면 財政부담不可"

국제컨소시엄등 全分野 중심역 강조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외교통상부(외통부)가 27일 제정된 「외통부 94년 2차 대미 입장」을 채택했다. 대미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대미 입장은 '외통부 94년 1차 대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미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대미 입장은 '외통부 94년 1차 대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미 입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대미 입장은 '외통부 94년 1차 대미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통일원예산 3억원 議員인유비로 썼다

【서울 28일 특파원 특보】 통일연구원(통일원)이 9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의 예산을 인유비로 썼다. 통일원은 9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의 예산을 인유비로 썼다. 통일원은 9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의 예산을 인유비로 썼다. 통일원은 9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의 예산을 인유비로 썼다. 통일원은 9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원의 예산을 인유비로 썼다.

北「스카드C」年百50기 생산능력 生化學 무기 千기 생체실험 실시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한이 94년 50기 스카드C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북한은 94년 50기 스카드C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북한은 94년 50기 스카드C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북한은 94년 50기 스카드C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국감녹음

통일안보정책회의의 법적근거는

통일장관회의는 단 한차례

의무통일위 통일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통일정책 수립과 관련한 여러 기구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지난 4월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법적 근거와 예산 전용 여부를 따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의 사과와 함께 곧바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 업무보고가 1시간가량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임채정 의원(민주)은 조정회의를 겨냥해 "통일정책 관련 기구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애초 업무보고 자료와 다르다"면서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것이지 아니면 성격이 변한 것인지를 설명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원기 의원(민주)은 "통일정책과 남북대화에 대한 종합적 심의·조정 기구인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열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도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반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임의기구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30여차례나 열렸고, 회의비 또한 전용됐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민자당의 이만섭 의원 또한 "관계장관회의 예산집행실적이 28%에 지나지 않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 대폭 삭감해도 좋은 것이냐"고 거들었고, 이종찬 의원(새한)은 "조정회의 신설은 사실상 이회창 총리의 경질을 초래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홍구 부총리는 "정부 안에 여러 관련 기구가 있어 법에 의해 재조정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종언 기자

“통일안보 조정회의 혼선 불러”

국정감사, 장교탈영 관련 이국방·김총장 퇴진 촉구

국회는 29일 법사, 의무통일, 재무, 국방위 등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감사에서 최근 연쇄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치안부처 상황, 정부 부처의 각종 비리 의혹, 군기감 문란, 대북한 정책의 혼선, 대기업 예산 편중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 문제 등을 집중추궁했다.

의무통일위의 통일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적근거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통일관계 장관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기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정책혼선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통일안보 조정회의 '법적근거' 엿보게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은 법사, 의무통일, 재무, 국방위 등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은 법사, 의무통일, 재무, 국방위 등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의무통일위의 통일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적근거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통일관계 장관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기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정책혼선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의원(민주)은 "통일정책과 남북대화에 대한 종합적 심의·조정 기구인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열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도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반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임의기구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30여차례나 열렸고, 회의비 또한 전용됐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민자당의 이만섭 의원 또한 "관계장관회의 예산집행실적이 28%에 지나지 않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 대폭 삭감해도 좋은 것이냐"고 거들었고, 이종찬 의원(새한)은 "조정회의 신설은 사실상 이회창 총리의 경질을 초래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홍구 부총리는 "정부 안에 여러 관련 기구가 있어 법에 의해 재조정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종언 기자

이날은 법사, 의무통일, 재무, 국방위 등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이날은 법사, 의무통일, 재무, 국방위 등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의무통일위의 통일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적근거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통일관계 장관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기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정책혼선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의원(민주)은 "통일정책과 남북대화에 대한 종합적 심의·조정 기구인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열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도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반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임의기구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30여차례나 열렸고, 회의비 또한 전용됐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민자당의 이만섭 의원 또한 "관계장관회의 예산집행실적이 28%에 지나지 않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 대폭 삭감해도 좋은 것이냐"고 거들었고, 이종찬 의원(새한)은 "조정회의 신설은 사실상 이회창 총리의 경질을 초래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홍구 부총리는 "정부 안에 여러 관련 기구가 있어 법에 의해 재조정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종언 기자

의무통일위의 통일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적근거없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통일관계 장관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기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정책혼선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원기 의원(민주)은 "통일정책과 남북대화에 대한 종합적 심의·조정 기구인 통일관계장관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열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도 한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반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설치된 임의기구인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30여차례나 열렸고, 회의비 또한 전용됐다"면서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통해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느냐"고 캐물었다.

민자당의 이만섭 의원 또한 "관계장관회의 예산집행실적이 28%에 지나지 않는데, 내년 예산편성 때 대폭 삭감해도 좋은 것이냐"고 거들었고, 이종찬 의원(새한)은 "조정회의 신설은 사실상 이회창 총리의 경질을 초래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홍구 부총리는 "정부 안에 여러 관련 기구가 있어 법에 의해 재조정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박종언 기자

I. 統一政策 關聯記事

○ 社 說 · 칼 럼

社說

金正日과의 정상회담은...

金日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보 한 승화...
북 정상회담을 하기보 한 승화...
우리가 회담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이 쏠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표명은 답답할 정도로 나오지 않고 있다.

후계자를 상대로 할 때는 다르다.
김정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켜갈 의욕을 지시적으로 할 수 있을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의 권력을 승계할 것이 확실한 김정일의 대에서 누가 잘 것인가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영주성에 대해 예산을 불충족하는 상당 규모의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회담을 자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한지 모른다.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말라.

이런 참관만 말한다. 김정일以後 북한 권력체제의 정비에 수단이 걸린다고 하면 金泳三 대통령의 재임 중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을지도 모른다.
삼월까지 고려해야 한다.

사설

민족 차원에서 정상회담 추진해야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남북문제의 전개 양상은 그 첫 관문이 될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어떻게 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이 회담을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관심이 쏠리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표명은 답답할 정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는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정도뿐이다.
14일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을 다듬어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이 문제는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대변인의 발표로 무산되었다.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종합하면 '정상회담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말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자제되었지만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발언들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김일성 주석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정상회담은 물건너갔다'는 반응과 함께 후계자의 위상을 문제삼는 소리가 들렸다.
김정일로 후계체제가 굳어지는 것이 확실해지면서는, 체제안정을 이루지 못한 그와의 회담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나왔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인 것으로 알려지자 1차회담 장소가 서울이 되어야 한다거나, 지난번에 명확하게 하지 못했던 상호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정상회담 제안을 전했을 때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정부의 자세는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비록 명확하게 밝히고 있

지는 않지만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에서부터 효용성과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내밀하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 믿고 싶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회담의 부산물이었음에 틀림없지만, 북-미 회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하게 유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까닭은 정부가 분단문제의 고리를 푸는 과업의 하나로 정상회담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정치적 득실에 무게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부정적인, 혹은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일차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치지도자로서는 마땅히 무시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고 슬기롭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의를 표하는, 또는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문제 등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정부에 이러저러한 권고나 권유를 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불쾌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지, 민족의 아픔을 씻기 위한 회담 석상에 누구와 마주앉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은 북한 핵연료봉의 수조 안보 관심이 촉박한 만큼 빠른 진전까지도 예상케 한다.
거기에도 발걸음을 맞춰야 할 남북 정상회담은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확고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社 說

남북정상회담의 前提

북한정권의 새 권력자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의 계속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 주목되었다. 사실이라면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그동안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시시건건이다. 언젠가 정권을 잡고 김정은이 할 단행령 같은 단행령이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의 권력계승 문제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물론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이 이미 인정되었지만 절차는 남아 있다. 북한의 새 권력자가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북한정권내외

남북관계 등에 관해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지켜 봐야 한다. 8월 초 일제에 될 美北韓3단계회담이 이 점에서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북한의 새 권력자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켜 봐야 한다.

셋째, 김정은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지켜 봐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지켜 봐야 한다.

넷째,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에 성사시킬 수 있는 진정한 의도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對南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대북정책을 일부러 비협조적으로 행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남북사회를 고려시킬 북한의 통일정책전략도 버려야 하고 김일성에 대한 역사 평가도 트집잡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역사와 국에 대한 정당한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

관스런 모습이었어야 한다. 정부와 사회정치권 모두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국룰분열이 계속되는 한 북한의 對南태도는 바뀌지 않고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은 없다. 그런 틀에서 짜여진 것이다. 정부가 특히 신속고해야 할 문제다.

▽동아일보 1994. 7. 25

사설

'김일성 이후'의 대북한 자세

19일 장례식을 치르고 이어 20일 추도대회를 갖는 것으로 북한은 '김일성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에 섰다. 예상처럼 추도대회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가 들어서서 절차가 시작되었다. 김영남의 교부장이 추도사에서 읽은 대로 '대를 이어' 김정일 정권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도 더러 있었으나, "후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셨다"는 추도사의 한 구절이 반문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전해준다.

김정일 정권의 탄생은 순조로운 것이나, 이 정권이 맞이할 국내외적인 정치환경은 새 정권의 존립을 계속 위협하게 될 것이다. 공산권의 몰락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상태이다. 극도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개선하기는 더욱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이라면 미국은 물론 남한과도 회담이 진행중이었거나 약속되었던 사정이 대외적인 긴장을 누그러뜨려 주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언제나 폭발 가능성을 안고 있는 핵문제나, 민족적 요구에 부응해 가지 않겨운 남북대화가 새 정권으로서도 다루기 쉽지 않을 것이다.

'세습'이라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는 북한의 후계체제가 그래도 이른 시일안에 안정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북한의 안정 없이 한반도의 안정을 바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에 북한의 안정을 돕도록 촉구해온 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고

비난하는 일련의 사태들을 크게 걱정한다. 느닷없는 6공 안기부장의 북한방문 발언이나 김일성대 교수 귀순 발표, 정상회담 경계문을 편 통일정책 원로들의 발언에 이어 북한의 남침사실을 알리는 옛소련의 6·25전쟁 문서가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조문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국면전환을 노리는 보수세력에 정부가 충분한 정책적 판단을 거쳐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통일로 가는 과정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부터 단계적으로 밝아가게 되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정책을 추구해왔는지를 이 자리에서 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정책을 추구할 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 시대가 마감되는 지금 남북문제는 필연적으로 전환 시대를 맞고 있음에 틀림없다. 정부가 이런 변화에 맞춰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할 기본정책을 확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김 주석의 죽음이 민족분단의 아픔을 씻어내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생전의 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사후의 그에 대한 엇갈린 요란한 평가로도 반증된다고 하겠다. 분단의 책임자로 비난받았던 그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비난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화해와 협력을 위해 어려워도 확실하게 한걸음씩 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社說

自由民主의 내면성

아리스토텔레스의 4권공화론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8세기 프랑스혁명의 실패와 19세기 산업혁명의 혼란이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0세기 초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고, 핵전쟁의 위협이 커졌다. 이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내면성을 시험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내면성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내면성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내면성은 자유민주주의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내면성이다.

▽세계일보 1994. 8. 16

社說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의 내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내면성이다.

哲學이 있는 통일정책

철학이 있는 통일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철학은 통일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철학이 있는 통일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철학은 통일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철학이 있는 통일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철학은 통일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철학이 있는 통일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철학은 통일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철학이 있는 통일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철학은 통일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철학이 있는 통일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철학은 통일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긍정적 수정

정부는 남북대화를 먼저 제의하기로 하는 등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푸는 작업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 같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가지 못한 채 냉전적 사고에 얽매어 강경 일변도로 치달은 대북정책의 한계를 늦게나마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미 수교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평양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해 발빠르게 움직여가는 동북아 정세의 재편과정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던 정부가 이제는 소매를 걷고 일을 해 볼 모양이다. 시기를 놓쳤다고 싶은 사연들로 좋은 결과를 얻어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땀을 흘리면 보답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미국을 붙잡고 북-미 수교를 남북 대화와 보조를 맞추어달라고 하는 모습은 사실 보기에 민망했다. 누가 저질러 놓고 어디에 가서 매달리는 것인가. '특사교환' 문제로 한번 경험을 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했을 법하다. 그러나 미국은 우는 아이 달래듯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북-미 관계 개선에는 남북 대화의 진전이 필요하다"고 하고, 북한에 지원할 경우로는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해 주었다. 갈루치 핵전담대사는 특별사찰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약속과 다짐을 상대가 있는 회담에서 얼마나 실현시킬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로 보인다.

이제 정부는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출 모양이다. 우리가 되풀이 주장했듯이 당연히 그랬어야 했다. 미국의 충고가 혹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행한 일이다. 김정일 당 비서가 국가주석직과 총비서직을 승계하면 남북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갑작스런 통일'과 같은 다듬어지지 않은 말들은 더욱 삼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좀 어른스러워져야겠다. 무엇이 일을 꼬이게 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다. 일을 막히게 하지 말고, 풀어갈 줄 알아야 하겠다. 남북문제라는 우리의 일로, 남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더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모처럼 남북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정부의 자세를 크게 반기면서도 여전히 한구석에 착잡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경직된 대북정책을 지켜보면서 느낀 안타까움이 너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번 내보인 긍정적인 자세를 언제라도 거두어들일 개연성이 있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의 하나다.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두 달 전으로 돌아가 보려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목표에 이르는 것조차도 수구적인 여론의 부단한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한 뒤야 가능할 것이다.

대북정책의 반성과 새로운 시도

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핵문제를 기조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해온 정부가 늦었지만 손질의 필요를 깨달은 것 같다. 핵문제는 미국의 주도로 풀려가는 듯하지만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외면되어왔다. 남북관계는 날로 경색되어 가지만 할 뿐이다. 공조체제가 확실하다고 여겼던 미국과도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다. 남북대화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이홍구 통일부총리의 대북정책 관련 발언은 그간의 잘못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고리를 푸는 방법에서부터 시도되고 있는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던 두달 전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이 부총리의 발언은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와 함께, 정부가 취해왔던 여러 조치들이 문제가 있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문파동과 평양 외교단지의 전단에 관한 설왕설래를 비롯해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지는 발언들은 불필요하게 북한만 자극했을 뿐이다. 이번 이 부총리의 발언은 북한에 보낸 새로운 접근의 신호라 하겠다.

다음으로 정부는 핵문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놀랄 만한 변신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

며,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핵문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대북정책을 경직시켰고, 실제 남북관계에서는 실익 없는 정책 혼란만 드러냈다. 특별사찰을 고집해온 것이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북-미 회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그런 뜻에서 "핵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집착해 정책적 사고에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자성의 소리는 값진 것이다.

이 부총리가 미국에 대해 불만스런 발언을 한 점도 주목하고 싶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가볍게 여기면서 핵확산 금지체제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어가는 미국의 정책을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정부에 있다고 해야 한다. 미국의 핵확산 저지 노력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북한의 핵과거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려는 미국에 '특별사찰' 주장으로 제동을 건 것은 현명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의 발언은 그의 완곡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고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주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밤미중인 한승주 외무장관의 활동과 발을 맞춘 것으로 보이는 이 부총리의 의미있는 정책표명이 남북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데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社說

南北관계는 단관인이 아니다

【종합특수기재부 13일 특파원 김민준 기자 특보】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단관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총리도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총리는 "남북관계는 단관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단관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총리도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총리는 "남북관계는 단관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은 총리는 "남북관계는 단관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단관인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단관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정된다는 한 달간 원천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40일 동안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한 달 동안은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을 달라는 파위의 심정을 추이를 할 회하고 현실적인 남북관계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일보 1994. 9. 14

社說

平和協定 우리정부主導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은 휴전협정을 강화한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은 휴전협정을 강화한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은 휴전협정을 강화한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성소의 "를 국제적으로 가시화하려는 수석이다. 이 협정 미 국무부도 명백한 사실이다.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기분함의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응모도 불구하고 다자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평화협정 문제만 해도 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번 남북관계가 단관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社說

對北정책의 완화

對外정책은 언제나 可變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이에 부응할 수 있게 기본정책과 틀 아래 彈力의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北美3단체회담 2차회의에서 北核문제에 해결국면에 접어들 경우 對北정책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內閣 金正日의 國體승계 이후 頂上회담을 포함한 각급대화를 시도하기로 對北정책을 修正, 완화한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개방적인 자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核무명성이 완전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떠한 對北政策도 하지 않겠다고 公約을 계속해 왔다. 여기서 核무명성이 과거 核의 구멍을 포함한 모든 核개발을 완전 중지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미래 核의 동결을 사실상 核문제 해결의 전제로 평가할 때 우리가 非核化선언에 의한 상호사찰협약 장 관철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때문에 과거 核의 무명성이 장차 특별사찰과 상호사찰의 추진으로 남기고 北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 기본정책의 후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측의 北美회담에 北核회담의 再開

를 필수조건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北의 관심이 아직 北과 南의 관계개선과 經濟原動力에 있는 北의 상황에서 北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대외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金正日체제의 공식 출범후 北의 기본정책을 가동, 실천하기 위한 대화를 비롯, 얻기된 頂上회담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更進하고 자정수준을 높일 것이다.

이같이 對北정책을 완화하면서 정부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北美3단체회의에 비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北의 이해를 對北정책에서 연락사부 소교향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 『포괄적 맥락에서 사부소교향 및 실천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했다』는 對北정책 발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부소교향만은 의했다고 볼 수 없다. 『포괄적 맥락』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北의 核개발을 미끼로 미국과의 단계적인 관계개선과 평화협정체결, 경제협력, 禁輸제정 등을 제기했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北의 한쪽을 배제한 평화협정 기도를 영영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베를린에서 진행중인 核연료공급회 기 및 原電관계회의에서 北한대표가 경

수로 原電의 「안전성, 수출안전, 원형성 등」을 강조한 것은 예상대로 北의 對南정책을 제외시킬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北의 對南의 原電제작사인 지멘스측에 자금을 요청하여 北의 對南을 選好하는 것처럼 시위한 것은 모두 미국의 代辦에너지 등 더 많은 實利를 얻으내기 위한 전략임이 분명하다.

정부가 내부의 混線과 不協和를 정리, 뒤늦게 對北정책을 완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지만, 개방적인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즉 과거 核은 非구명해야 하고 核무명성을 채택해 해야 하며 停戰協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北북한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南北관계의 우선순위

북한의 北한과 北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둘러싼 자의의 의도 또한 단층선이 되어 北한 평화협정 구상, 조인, 실행, 재기, 퇴각, 양산, 양산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은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社說

이행 못할 때면 또 있다. 한편 北한은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은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행 못할 때면 또 있다. 한편 北한은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은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행 못할 때면 또 있다. 한편 北한은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은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행 못할 때면 또 있다. 한편 北한은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北한은 對北정책을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北한과 北한과 北한과의 對北정책을 終戰상태로 바꾸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對北정책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社說

남북 平和協定の條件

남북 평화협정의 대립적 조건에 대해 논의할 때,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평화협정의 대립적 조건에 대해 논의할 때,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일보 1994. 9. 21

社說

남북 평화협정의 대립적 조건에 대해 논의할 때,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南北「직접대화」의 실태야

남북 평화협정의 대립적 조건에 대해 논의할 때,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휴전체재의 이념 차이를 극복하고 휴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카타르 중재협정의 실패는 남북 평화협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평화협정의 실패는 남북 평화협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평화협정의 실패는 남북 평화협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 평화협정의 실패는 남북 평화협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영사관의 영재 이영재 하...
는 것인가. '인민최후의 황제' 金日成도 마침내 '영사관의 무덤'이 될 수 있다.

英人 金日成의 '死因'

英死 事故死는 英北의 死因이다. 金日成의 死因은 '死因'이다.



金日成 김일성

이것을 면하는 것은...
또한 현재로서는 '추석'이...

유기계가 귀에 들어가

도둑 반발하고 있는...
가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金日成처럼 해독...

北韓 死後의 死後...
한 死後의 死後...
金日成의 死後...

이름이 새삼 가슴을...
다. 지난 88년 11월 '北의 死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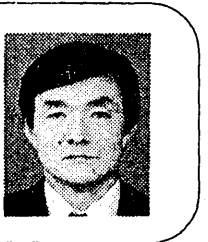
知彼知口... 金日成

이영재 하...
이 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디스크클럽
求
求
求

부족한 것은 부수고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이영재 하...

時論

북한경제개혁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韓 甲 洙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 개혁정책

통일경제제 대비할 때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時論

對北정책 우념해야 할 세가지

① 개방-민주화 ② 우상화 ③ 주도권 회복



鄭 鎭 顯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북한경제개혁의 핵심은 '북한'을 '북한'으로 바꾸는 것이다. '북한'이란 '북한'이라는...

장기적인 무역정책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장수머리칼을 가려 버

장수머리칼을 가려 버리는 것은...

가려 버린 장수머리칼을...

아침論壇



평생애를 준비하라

이러한 준비는 인생의 길목에서...

원인 탐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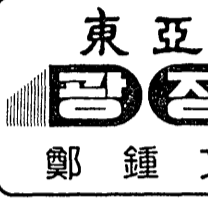
원인을 찾는 것은...

金基桓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개혁이...

統一과 경제개발을 이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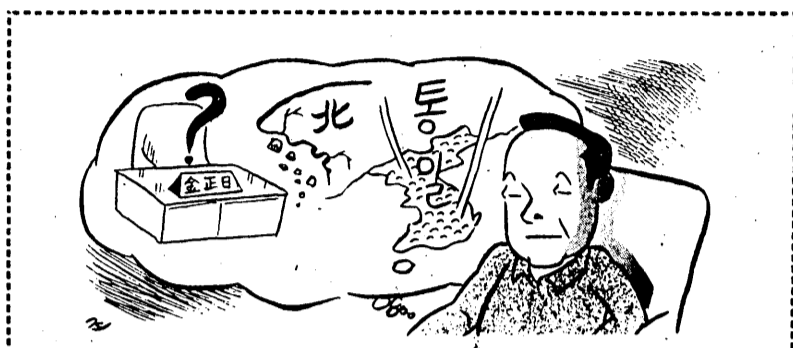


동영은 통일과 경제개발을 이끄는...

北韓 金日成의 사망과 관련된...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青瓦臺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북방정책의 직관과 정면적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時評

吉 延 宇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對北「被害의식」부터 깨자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北韓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다국적」의 高가

어디서든 돈을 벌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金大中 칼럼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統一稅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남북양 北領내 領역

남북 양측이 북쪽 영토를...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을...

分屬 양국화의 기차

양국화 관련 분석이 아닌...

時評

張達重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분류」의 시련」韓國의 門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을...

「가정」에 유한 北精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北精의 門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을...

비정당 外交 필요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선언문과 그바깥

최근 5월말부터 7월말까지... 선언문과 그바깥에 대한 논평

아침論壇



선언문과 그바깥에 대한 논평... 선언문과 그바깥의 의미와 중요성

국가정권의 위기

국가정권의 위기... 정권 유지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李相禹



국가정권의 위기... 정권 유지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 (이승우의 관점)

연립정당 지지 대책

연립정당 지지 대책... 연립정당 지지의 필요성과 방법

時評

국정



국정... 현재의 정치 상황과 과제

국민정권과 민주정권

국민정권과 민주정권... 민주주의의 본질과 실현 방안

II.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1. 1次會議再開

北-美 회담 장례식 뒤 재개

北韓 중앙통신 "뉴욕서 일정 결정할것" 발표

金正日 정상회담 추진 지시

홍명수시평

【평양 12일 중앙통신】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통신은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이 13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초청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앙통신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994. 7. 13

北·美 18일 뉴욕 접촉

【제네바=AP】 미국과 북한이 18일 뉴욕에서 접촉할 것이라고 11일 발표됐다. 이 발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18일 뉴욕에서 열릴 것이라고 시사한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발표된 이 발표를 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4. 7. 13

IAEA 사찰 계속 허용

北, 金日成 死後에도 정상활동 보장

북한이 체코공인 사찰단에 핵시설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또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北,美에 「3 단계 회담」 접촉 제의

“남북중 만난 再開일성 노위”

北,美에 3단계 회담 제의

【서울 15일路透통신】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서울 15일路透통신】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南北韓 頂上 회담 최대한 지원

北-美 회담 再開...美의 입장

【서울 21일路透통신】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金正日 권력승계 기정 사실화 開放·경제改革에 상당한 기대

【서울 21일路透통신】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서울 21일路透통신】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북핵의 1년 주회차에 유엔안보리 회담, 북-미 회담, 북-중 회담 등 3단계 회담 제의가 제기됐다.

北경수로 韓國型 점검

金三勳대사 일루치 北·美 회담 진척되면 구제화

【서울 21일 연합뉴스】 김삼훈 북한대사 일루치가 21일 오전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일루치는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일루치는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일루치는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북·미 회담이 진척되면 구제화... 김삼훈 북한대사 일루치가 21일 오전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미 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일루치는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일루치는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北·美 3 단계 회담 再開 합의

뉴욕서 실무전담 내달 첫주에 회동이 가질 듯

【뉴욕 21일 연합뉴스】 북·미 회담이 3단계 회담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양측은 8월 1일부터 3단계 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8월 1일부터 3단계 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8월 1일부터 3단계 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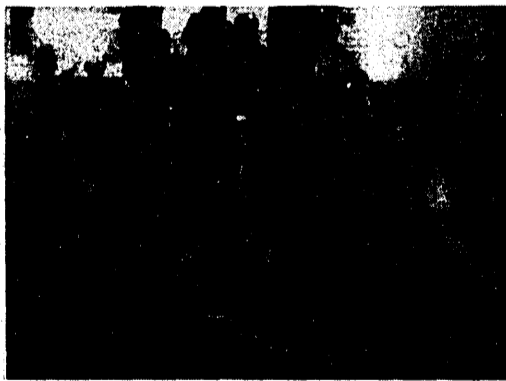
제네바-정상회담 '고리' 점검

남북한 더 악화되면 북미관계에도 '빨간불' 핵과거·경수로 등 미묘한 입장차이도 논의

한-미 '북핵' 마무리 조율

김성호 기자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21일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3단계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해 양국간의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특히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이후 양상이 달라진 북·미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현재 북·미 회담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남북정상회담은 상시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두 회담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진행되는 데 차질을 빚게 될기 때문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갈루치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북·미 회담과 남북대화가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북한쪽에 전달했을 것을 미국쪽에 요청했다. 북한 핵문제는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 회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

이다. 경수로 건설 지원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의 지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대화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갈루치 차관보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관계의 진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할 표시했다. 현재 김 주석 사망 이후 남북간에 검색국면이 조성되고 있으나 이것이 판 북·미 회담의 성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북·미 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다른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 북·미 회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미 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의 남북 관계로는 북·미 회담에 당장 악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지금보다 더욱 적대적인 관계로 악화될



한-미 북핵 실무회의 김삼훈 북한대사와 로버트 갈루치 미국 차관보가 21일 오전 북한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앞두고 있다. 김성호 기자

경우 북·미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해 북·미 2단계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 핵사고합을 내세워 오히려 북한 핵문제 해결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례를 들어 최근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가 북·미 회담에 어떤 영향을 주지

했다. 북한핵의 과거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북한핵 개발계획을 동결시키는 문제가 급선무라는 데는 미국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핵과거 투명성문제 역시 북·미 3단계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또한 경수로 지원방식 등을 둘러싸고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형 경수로를 희망하고 있다며 기술용 러시아가 제공하고 비용은 한국과 일본이 주로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에 우리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사는 "김일성 사망으로 경수로 건설 지원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필요는 전혀 없다"고 밝혀 경수로 건설에 우리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력히 미국쪽에 제시했음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핵불사용 문서보장문제 등도 궁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우리쪽에 전달했으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일단 북·미 회담에서 다음 사안이 아니라는 데 한-미간에 의견의 일치점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 정연주 특파원

다시 무릎맞달 북-미 '4주 공백' 변수 주목

김정일체제의 북한 적극성 떨어 전망 커

김일성 북한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지난 8일 단 하루의 고위 회담만 한 채 제네바를 떠나게 되었던 로버트 갈루치 미국 대표단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첫날 회담의 분위기가 그만큼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그래서 그 첫날의 분위기를 협상의 종대 전기로 삼아 계속 진행했더라면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었다.

그로부터 4주일 뒤인 8월5일 3단계 회담은 속개된다. 그러나 4주일 전과는 달라진 조건과 분위기가 제네바의 정치회담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일 후계자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북한 지도부의 등장과 엄청난 악화된 남북한 관계가 그것이다.

김정일 체제의 전면부상이 북-미 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갈래의 분석이 있다. 다수설은 김정일 후계자 주변에 포진한 인물들이 개혁을 주장해온 기술관료와 특히 대미 관계개선을 북한 외교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당의 혁명후 세대(40~50대)들이어서 이들이 김정일 체제의 안정과

앞으로의 정권안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일괄타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하는 적극성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주석 사망 이후 북한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3단계 회담은 잠례식 뒤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속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미국에 전해온 사실은 바로 북한의 이러한 적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남한 정부와 언론의 적대적 태도로 인해 북한은 상당 기간 남쪽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한 이유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뜻밖에도 선선히 받아들여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쪽 정부와 언론이 지난 몇주일 동안 보인 50년대식의 소아병적 매카시즘이 역설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더욱 절박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수설로는 아직 완전한 체제안정화를 기하지 못한 김정일 체제가 북한 내부의 군부 강경파를 의식하여 오히려 대미협상에서 과거보다 더

경직된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김 주석 사망 이후 남쪽 정부와 언론이 보인, 그들의 지도자와 사회에 대한 모독과 적대적 태도는 북한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대미 협상에서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김 주석 사망 이후 한국은 북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정을 드러내왔다. 여사의 시계를 50년대로 돌려놓으면서 언론강국론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극우적 매카시즘의 쌍칼을 휘둘러댄 한국 언론의 일방적 보도,

이러한 언필칭 '국민정서'를 의식한 김영삼 정권의 인기위주 정치가 불러온 신공안적 강경대응이라는 악순환은 한반도를 또다시 화해·협력·공존보다는 갈등·대결·투쟁의 냉전적 대결양식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다.

김 주석 사망을 화해와 공존을 위한 일대 전기로 삼을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우려와 비판이 미국내 일부에서 일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한국 정부의 분위기가 3단계 고위회담에 상당한 역작용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내에서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북-미 사이에 '일괄타결' 또는 '포괄적 해결'의 모색이 진지하게 추진될 때,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김영삼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 '남북한 특사교환'을 3단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강화함으로써 3단계 회담 추진에 재를 뿌린 사례를 지적한다. 이번에도 북한이 대미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일 때 한국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에서 미국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再開되는 北·美고위급회담

북한과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내달 5일 제네바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테러정착에 있어 김일성의 노선을 그대로

특히 일부에서는 김정일이 후계체제 구축, 경제문제 해결, 의식적고립을 당면한 문제들을 대미관계개선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과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번 3단계 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의 ▲김일성 체제 유지, ▲속속한 핵무기 개발의 이행, ▲북한 의 완전한 핵무기금지조약(NPT) 비준, ▲정면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한미노 비핵화 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번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의 ▲김일성 체제 유지, ▲속속한 핵무기 개발의 이행, ▲북한 의 완전한 핵무기금지조약(NPT) 비준, ▲정면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한미노 비핵화 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번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의 ▲김일성 체제 유지, ▲속속한 핵무기 개발의 이행, ▲북한 의 완전한 핵무기금지조약(NPT) 비준, ▲정면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한미노 비핵화 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번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의 ▲김일성 체제 유지, ▲속속한 핵무기 개발의 이행, ▲북한 의 완전한 핵무기금지조약(NPT) 비준, ▲정면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한미노 비핵화 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번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의 ▲김일성 체제 유지, ▲속속한 핵무기 개발의 이행, ▲북한 의 완전한 핵무기금지조약(NPT) 비준, ▲정면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한미노 비핵화 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화채널 원상회복에 뜻

「경수로 지원」관전될듯

북한과 미국은 3단계 고위급회담을 내달 5일 제네바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테러정착에 있어 김일성의 노선을 그대로

【워싱턴=李鍾運특파원】

구체 성과보다 중전입장 확인수준

미국은 이번 3단계 회담에서 북한측의 ▲김일성 체제 유지, ▲속속한 핵무기 개발의 이행, ▲북한 의 완전한 핵무기금지조약(NPT) 비준, ▲정면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수용, ▲한미노 비핵화 협정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北에 韓國刑경수로 지원

韓·美합의 5일 北·美고위회담서 제의

核투명성보장 약속 약속이면

실현하면 人力·물자 대량 교류

中·러시아·미·일·노·일·韓의

한미회담이 유엔 5월 5일 이후 3개월 동안에 한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담은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투명성 보장 약속이 실현되면 대량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투명성 보장 약속이 실현되면 대량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회담이 유엔 5월 5일 이후 3개월 동안에 한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담은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투명성 보장 약속이 실현되면 대량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투명성 보장 약속이 실현되면 대량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회담이 유엔 5월 5일 이후 3개월 동안에 한해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회담은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투명성 보장 약속이 실현되면 대량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지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투명성 보장 약속이 실현되면 대량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일보 1994. 8. 4

美핵전문가 WP紙 기고

【워싱턴=연합】미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브라운은 워싱턴 포스트(WP)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 투명성을 보장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라운은 "북한은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핵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며, 핵 실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北 경수로 지원 문제 많다”

北 善意 있을지 의문... 核통제 원칙도 위배
전력공급에 차질이 있다면 火電이 더 합리적

【서울=연합】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투명성 보장 약속이 실현되면 대량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핵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며, 핵 실험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갈루치 차관보

“北核 특별사찰-과거규명 美-北 회담서 해결돼야”

【워싱턴=申相衡특파원】 美-北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을 추진하는 데 갈루치 차관보가 2일

오는 5일 제네바에서 재개될 북핵 3단계 회담에 갈루치 차관보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을 추진하는 데 갈루치 차관보가 2일...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diplomatic mission and the 3-stage tal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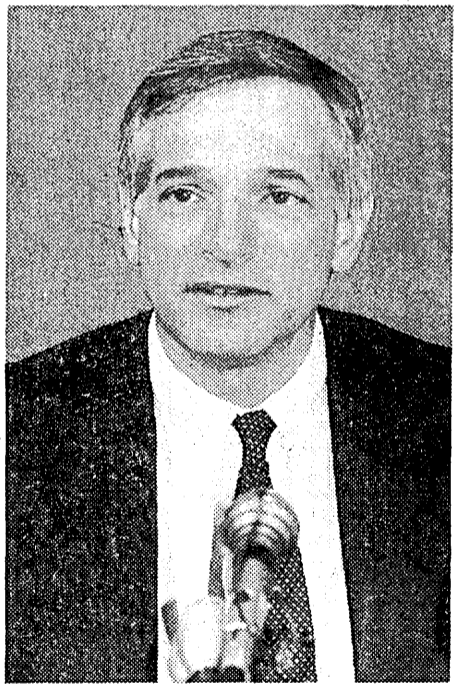
“北核 「金日成 약속」 지켜져야”

北-美 3 단계 회담 앞둔 갈루치 일문일답

오는 5일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한 3단계 회담... 갈루치 차관보가 2일 워싱턴에서 특별회견을 갖고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회견의 일문일답 요지... (text continues with Q&A format)

핵과 과거규명 특별사찰 의제에 포함 페연료봉 보관기술 지원여부 타진

【韓·中·日과 러시아 4국 을 방문한 결과 두 영영가, 북한은 경우로 전환할 의에 관해 어떤 협의가 있었나...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mission and negotiations)



북한 대표인 갈루치 미국무차관보가 2일 워싱턴에서 가진 특별회견에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申相衡특파원】 美-北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단계 회담을 추진하는 데 갈루치 차관보가 2일... (text continues with details of the mission)

지난달 金日成 주석 사망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美) 3단계 고위급회담이 5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런 회담은 金正日 체제 출범 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드러낸 첫 협상 테이블로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6.25 전쟁 후 40여년간 지속돼 온 북·미 양국간의 적대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또한 관심사다.

북한과 미군은 지난달 8일 회담이후 이두사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불평을 피할 예정으로 금일(5일)부터 양국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또 양측이 金日成 장례식이 끝난 직후 회담 재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연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회담은 양측이 민족의 기쁨을 나누고 북한을 민주화 시키고 핵을 폐기할 것을 약속한 6.25 전쟁 이후 40여년간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파시하고 金正日 체제로 바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온지 3년째 되었다. 북한은 金日成 장례식에 맞춰 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회담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파시하고 金正日 체제로 바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은 金日成 장례식에 맞춰 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회담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제네바 北·美 고위회담

미국은 북한측에 핵무기 보유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연료봉 재처리금지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 계획 동결 ▲국제핵협약(NTT) 체결의 완전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이 주장하는 중립적인 회담을 위해 양국간 상층 외교사무수석 협조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대표부도 개설할 수 있기를 전제적인 임무를 밝힌 바 있다.

과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측은 북한의 경수로 루치 미국정부 차관보단 지원방안으로 미국을 주관 지난달 말 이들 4개국을 국으로 하고 한국, 중국, 차별로 수반해 경수로 지원, 러시아 등 4개국이 원방안 등을 단정했다.

협상 핵심과제

연료봉 처리 경수로 지원

- | 미국의 협상카드 |
|-----------------------------|
| 1) 북한 원자로의 경수로 전환 지원 |
| 2) 美·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설치 |
| 3) 對북한 통상관계규제 해제조치 |
| 4) 對북한 經協유도등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 노력 |
| 5) 對북한 핵무기 선제 사용 보장 |

- | 북한의 협상카드 |
|---|
| 1) 인출된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겠다는 보장 |
| 2) 5메가와트원자로에 대한 연료봉의 재장착 중지 |
| 3) 건설중인 50메가와트, 2백메가와트 원자로의 건설중단 및 재처리시설 건설중단 |
| 4) 핵확산금지조약(NPT) 영구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의 이행보장 |
| 5) 과거 핵규명문제에 협조 |

진전만 관계개선등 순항 예상 과거 핵 규명보장 여부도 주목

공통참여하는 컨소시엄의 구성을 구상하고 있는 것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회담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협상 분위기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측이 회담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형 20억~40억달러의 재원마련을 미국측이 추진해 줄 것을 고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보다 약화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열릴지 여부를 둘러싼 관측이 많다. 특히 이번 회담이 金日成 사망 이후 발생한 회담의 부활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북·미 양국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협상 분위기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현재 러시아형 20억~40억달러의 재원마련을 미국측이 추진해 줄 것을 고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전보다 약화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열릴지 여부를 둘러싼 관측이 많다. 특히 이번 회담이 金日成 사망 이후 발생한 회담의 부활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북·미 양국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협상 분위기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회담이 진척될수록 양측의 협상 분위기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측이 회담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가 5월 재개된 북미 3
한 것이므로, 이번 회
합은 이번 회담의 의의
를 높여주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오늘 제네바 회담 재개

클린턴 "美-北 회담서 平壤측에 협상 압력"

美 「北핵동결 협정」 추진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워싱턴 5일 AP통신】클린턴 대통령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5월 5일 재개된 것을 환영했다.

다시 열린 북미 3단계회담 전망

북 새체제 실용노선 뜻밖 돌파구 가능성

“명분보다 실익우선” 폭넓은 공감대 형성 경수로-연료봉 주고받기 ‘먼길첫발’ 예고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김일성 북한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단 하루의 회담을 끝내고 헤어진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거의 한달 만에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지난 첫 회담이 서로 자기 주장의 보따리를 풀고 상대방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극히 초보적인 협상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기 때문에 5일 속개되는 회담은 그야말로 북-미 사이의 본격적인 정치협상의 첫 출발이 되는 셈이다.

한달 만에 다시 열린 이번 정치협상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가 어떠한 대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김정일 체제의 진의가 무엇인지, 핵문제 해결과 대미 수교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 열리게 된 3단계 고위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고 있다. 비관을 하는 이들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쉽게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지부진 시간만 계속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 사정으로 보아 북한이 이제는 무언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하느냐에 따라 뜻밖의 큰 진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4일 본지가 전화회견한 북한 고위 외교관의 발언은 여러가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김정일 체제를 '실용주의'로 지목한 대목은 김정일 체제에서 경제문제가 가장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명분과 원칙 문제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시 말해 평화협정 문제나 북-미 외교관계 개선 등의 문제에서 북한이 지나치게 명분에 매달리기보다는 경수로 건설, 적국 교역법 해제 문제 등과 같은 '실질적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된다.

그러나 경수로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여서, 3단계 회담에 대한 성공한 낙관을 어렵게 하면서 회담이 장기간 끌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던 지난 7월8일의 3단계 북-미회담 첫날 회의 중 미치고 회담장을 나오고 있는 김석주(왼쪽) 북한 외교부 부부장장과 로버트 김루치(오른쪽) 미 국무부 차관보

능성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경수로 기술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 기술을 거부하고 러시아 기술을 선호하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기간(8~10년)에 북한의 에너지 공급문제를 지원해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지금까지 흑연 감속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경비를 보전하는 문제, 경수로 건설기간에 북한이 핵 동결과 과거 투명성 확보에 어느 정도 협력을 할 것인지 등 온갖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어 있다. 미국에서도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 경수로 기술이 지원되는지에 따라 여러 제약들과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핵심 주제로 제기하는 반면, 핵무기 비확산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현재 냉각수조에 보관중인 사용 후 연료봉의 처리문제가 핵심 과제다. 지난달 8일 회담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제기

했으며, 북한쪽에서도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이래 재처리를 해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로버트 김루치 미국측 대표도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안전상 이유로 8월말까지 이의 재처리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적인 '다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냉각수조를 화학처리해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을 북한이 받아들여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들여 냉각수조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선물'을 김루치 대사에게 줄 가능성이 높다.

이들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경우 3단계 1차회담은 김루치가 2일 밝힌 바와 같이 북-미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무역·경제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4주만에 재개 美北회담안락

4주만에 재개된 북-미 회담은 4일 오전 10시 30분께 북측 대표단인 김성환 외무성 차관과 미측 대표단인 데이비드 브라운 주북대사관이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개시했다.

北「행복」카드로 활용용 「경수로」에 집착할듯

대표들 '말'自制...모양새에 신경



북측 대표단장 김성환(왼쪽)과 미측 대표단장 데이비드 브라운(오른쪽)이 회담을 개시하며 악수하고 있다.

북측 대표단장 김성환은 회담을 개시하며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北3단계회담은 北政府입장

북측은 3단계 회담이 북측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非核化 등 핵해결에 치중

民族내부문제와는 연계않기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민족통일 문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했으며, 핵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3단계회담 '北'美圖회전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3단계 회담을 '北'美圖회전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核동결 재강조...과거규명도 요구

南北대화전제 慶수로지원 논의

북측은 핵동결을 재강조하며, 과거 규명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 대화 전제와 慶수로 지원 논의를 언급했다.

美北회담은 北政府입장

북측은 이번 회담이 북측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는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 非核化 등 핵해결에 치중

民族내부문제와는 연계않기로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민족통일 문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했으며, 핵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3단계회담 '北'美圖회전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3단계 회담을 '北'美圖회전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核동결 재강조...과거규명도 요구

南北대화전제 慶수로지원 논의

북측은 핵동결을 재강조하며, 과거 규명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 대화 전제와 慶수로 지원 논의를 언급했다.

페연료봉 조치 중점논의

美北회담 재개 美 "核투명맨 관계개선"

▽한겨레신문 1994. 8. 6

북-미회담 참가 미고위관리 회견 요지

다음은 3단계 고위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제네바에 도착한 미 대표단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한 고위관리와 4일 현지에서 가진 회견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이 관리는 익명을 요구했다.

-다시 속개되는 3단계 회담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이 원하는 해결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북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가 핵심이 되는 해결 방안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달 8일의 첫 회담 전날 가진 브리핑에서 당신은 "북한의 일괄타결 방안에 미국은 신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느 정도 신

적대감이 크게 고조되는 등 남북 채널은 사실상 궤도에서 이탈된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지금 질문한 대로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개선의 과정을 밟게 될 때, 이에 호응해서 남-북 관계도 개선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김 주석 사망 이후의 남북 관계는 분명히 좋은 출발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김 주석이 생애 마지막에 보여준 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단계에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우리는 남북한 사이에 어떤 특별한 대화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사이의 접촉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긴급한 쟁점은 영

핵문제 해결못할 이유없다

축적인지 말해달라.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협상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다. 한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우리는 그동안 좀 더 정상적 관계로 나아가는 정치문제, 무역 장벽, 무력 불사용 보장 등 안보문제, 그리고 특히 경수로 기술 지원을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방안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논의했다. 이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북한과 미국이 진정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 형태의 일괄타결 해결방안이 가능한 여지는 있는 법이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미국과 남한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등 이른바 '투 트랙' 접근을 해왔다. 그러나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다시

변의 냉각수조에 있는 사용후 핵연료봉의 처리문제이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방식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은 이 사용후 핵연료봉이 재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둘째, 미국은 이 사용후 핵연료봉이 북한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장 원한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언급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들여 냉각수조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한가.

=그것은 전적으로 기술자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냉각수조의 화학성분 등 여러가지 조건들을 평가하여 냉각수의 화학성분을 조정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보관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美·北 領事관계 가능성"

NYT 紙

NPT 복귀·核협정이행 강조 美國 경수로 지원등 일괄타결 요구 北韓

【제네바 11월 5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5시)】金日成 사망으로 중단됐던 제3단계 고위회담을 제네바의 미국대표부에서 재

개했다. 로버트 갈브리지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와 錫柱 북한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양측 대표단은 이날 회담에서 북

한측이 경수로에 보관중인 핵연료봉의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다가올 때까지 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은 연료봉 재처리

및 재처리 중단을 위한 북한측의 신속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할 경우 경수로 지원과 정치적 관계개선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8일 열렸던 회담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5일 회담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각

각각 본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9·10일 회담을 속개한다. 【뉴욕 11월 5일】 미국

은 이번 제3차 美北 고위회담에서 새로운 무역, 경제관계 개성과 함께 영사관계 수준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끝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타임스지는 또 美 정부관리들이 이번 제네바 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그것은 남북한 양측이 영사관계 수준에서 상호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대화 노력을 재개하도록 고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 11월 5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5시)】金日成 사망으로 중단됐던 제3단계 고위회담을 제네바의 미국대표부에서 재

개했다. 로버트 갈브리지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차관보와 錫柱 북한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양측 대표단은 이날 회담에서 북

한측이 경수로에 보관중인 핵연료봉의 처리 시한을 이달 말로 다가올 때까지 문제를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은 연료봉 재처리

및 재처리 중단을 위한 북한측의 신속한 조치들을 요구하고,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할 경우 경수로 지원과 정치적 관계개선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8일 열렸던 회담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5일 회담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각

각각 본국정부와 협의를 거쳐 9·10일 회담을 속개한다. 【뉴욕 11월 5일】 미국

은 이번 제3차 美北 고위회담에서 새로운 무역, 경제관계 개성과 함께 영사관계 수준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끝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타임스지는 또 美 정부관리들이 이번 제네바 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그것은 남북한 양측이 영사관계 수준에서 상호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대화 노력을 재개하도록 고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단계회담 재개...美·北 담판 돌입

5일 제네바 미국대표
부에서 속개된 北美 3
단계회담(金日成·金日成
주석 사후 북한 金正日
권희의 회고 김정철의 대한
시행대리는 접에서 비상
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
다.

비밀을 의표를 찌르 대
결 마지막 국면에서 대
국면으로 분위기를 급
전시킨 金日成 주석의 유
언을 얼마나 충실히 이
행할 수 있으며 미국과
의 대화를 통해 권력의 안
정기반을 얼마나 구출해
내느냐는 점에서 金正日
외교가 국제사회의 심판
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
다.

어떻게 보면 이번회담
의 성과가 金正日정권의
권력기반 구축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왜
냐하면 미국과의 합의도
출에 실패하면 평양으로
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를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비판이 金正日에게
쏟아질 것이 때문이다.

金正日은 절묘하게 제
재국면과 대화 북한 해외
교의 파탄을 모면했는데
아들의 아버지의 유지를
이 어받지 못했다. 무능
을 되견여 술가 능성마저
없지 않다. 따라서 일각
에서는 북한대표단인 金
正日은 對美합의지시
를 받았다고 설이 가능하다.
북한대표단 중 정동환 일
부 수석대표인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할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믿는다. 그러나 북
한의 姜錫柱 외교부제1
부부장직 미가 의 리버트

「페연료봉」 팽팽한 神經戰



◇5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北-美3단계 고위급회담에서는 북한이 지
난 5월 원자로에서 추출한 페연료봉 처리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姜錫柱 북한외교부 부부장(왼쪽)과 갈루치 미국무차관보
(오른쪽)가 지난달 8일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제네바=AP통신>

“再처리 촉박” 내세워 機先잡기

核투명성 완전한 보장책 요구

美

갈루치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등 양측 수석
대표가 풍기는 분위기는
차갑게 타닥타닥 있어 金
주석 사망정인인 지난달 8
일 회담때 오간 긴장감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 대표단은 중
대 주정인 姜錫柱를 해
결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
나 미국측에서는 부담
스러운 토의 주제인 것 같
다. 특히 3단계 회
담이 이미 지난 9월이나
3월에 개최됐어야 했다.
작년 9월에는 2단계
회담 합의사항인 미신고
2개 시설에 대한 국제원

각 부 산출된 것이다.
金日成 카터의 平壤 회
담에서 느꼈던 출구를 찾
아 2단계 회담후 1년여
만에 열린 이번 3단계 회
담은 金正日이 얼마마 아
버지의 핵논리를 소화해
미국과의 異見을 좁히는
나에 성패의 판전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 해외교는 핵투명
을 축소 시키는 특징을 갖
고 있다.
金正日의 핵계획 동결
이 핵투명성 보장책의 미
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불
을 보듯 뻔한 일이다. 북
한 해외교의 배경에는 직
어도 현재까지는 그들의
핵비밀을 끝까지 유지하
겠다는 일관된 노선이 집
요하게 잠재한다.

실현용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문제가 전면에서 부상해
있으며 미국에서는 골치
아픈 경우로 문제가 회자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인출한 사용후 핵연료봉
을 안전성을 이유로 재처
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서 새로운 핵카드로 활용
하고 있다.

북한의 핵투명성을 완
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미
국은 IAEA 탈퇴철회
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
약(NPT) 탈퇴유보철회
를 북한으로부터 꺼내야
만 한다. 아울러 IAEA
의 특별사찰에 대한 북
한의 수권도 철회시켜
야 한다. 그런데 3단계
회담의 분위기는 핵투명
성완전보장과는 거리가
먼 상태인 것 같다.
지난 5월 5메가와트
8천여개의 사용후 핵
연료봉의 재처리문제는
당장 미국이 꺼야 할 발
의 불이 된 셈인데 미국이
연료봉보관기술을 제공한
다면 이 점에서 합의가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
인다. 또한 IAEA가 기
술지원단철회조건으로
IAEA 탈퇴유보 또는
철회(에도 합의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북
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北美 양측이 어
느선까지 서로 양보해 합
의를 도출할지는 또는 실
패로 끝날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
다. 다만 이번 회담에 한
국이 끼어들 공간이 매우
좁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
려운 현실인데, 이것은 북
핵문제를 둘러싼 韓-美 간
의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
으로 보여진다.

미국의 외교목표는 내
년에 개정해야 할 NPT
체제의 유지에 있는데다
가 金日成 사후 한국정부
의 對北강경대응으로 인
해 북한의 對南 자세가 매
우 경화된 것으로 보여진
다. 北美 3단계 회담은 이
러한 점에서 한국의 외교도
사실상 시험대에 서게 된
것 같다.
<제네바=朱賢白 특파원>

“많은 문제 論議... 해봐야 안다”

◇핵수전면비 전면비
—북한면과 동맹을
바라보는. 동맹 비핵화
판해 해가 되었다.
▲핵수전면비 전면비
의사가 되었다. 이를 회
의에서 할 수 없을
다.
—동맹 비핵화 판
해가 되었다.
—동맹 비핵화 판
해가 되었다.



갈루치 미국무차관보



姜錫柱 北韓수석대표

▲동맹 비핵화 판
해가 되었다. 이를 회
의에서 할 수 없을
다.
—동맹 비핵화 판
해가 되었다.
—동맹 비핵화 판
해가 되었다.

3단계회담, 北美대표 임무일일담

구체적인 것 말할 처지 아니다 調律계속... 時限 못박지 않겠다

姜錫柱
갈루치

—현재는 1년 전 제네바회담에서 제기돼 왔던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서로서로 지대한 회담 이후 한류 열풍을 맞이하며 4개국을 순방했다. 우라늄 정수처리 시설을 파괴해 대한 중비를 해왔고 이 때문에 북한을 비롯해서 한반도에 대한 전면적인 핵개발을 막고 있다.

▲우라늄 핵개발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는 의도 없이 우라늄을 채취하고 있다. IAEA를 통해 사찰을 받으면서 우라늄이 채취되고 있다. 이것이 북한 핵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제 회담이 동맹 비핵화 관련이 되었다. 그러나 동맹 비핵화 관련이 되었다. 그러나 동맹 비핵화 관련이 되었다. 그러나 동맹 비핵화 관련이 되었다. 그러나 동맹 비핵화 관련이 되었다.

일괄타결 사실상 불가능

金三鸞 韓대사 임무일일담

—핵수전면비 전면비...
—동맹 비핵화 판해가 되었다.
—동맹 비핵화 판해가 되었다.

공금증 더하는 '북-미 회담'

철저한 보안속 하룻만에 휴회로 비관-낙관 평가 엇갈려 "의견 충분히 나눠 하루회담 큰 의미부여 불필요" 지적도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5일 첫날 회담이 끝난 뒤 강석주 북한 수석대표와 로버트 갈루치 미국 수석대표의 회담에 대한 평가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으로 중단되기 직전 있었던 7월8일 첫 3단계 고위회담이 끝난 뒤 양쪽 수석대표가 입을 모아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한 것이었다"고 평가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조심스러운 평가였다.

물론 강석주 대표는 "매우 실무적이고 유용했다"면서 '유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갈루치 대표는 끝까지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실무적인 회담'만을 강조했다.

이러한 평가에다 원래 5, 6일 이틀 동안 회담을 하고 그 다음 이틀을 쉬면서 본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한 애초 계획을 바꿔 5일 회담을 끝낸 뒤 바로 휴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5일 회담에 대한 공금증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회담 뒤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양쪽 대표들이 구체적 답변을 기피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5일 회담에



강석주 북한 수석대표



로버트 갈루치 미국 수석대표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의 두가지 반대되는 평가를 받게 하였다. 비관론의 주장은 회담 뒤 평가에서 지난번과는 달리 '생산적'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도 쓰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특히 5일 하룻만에 회담이 끝난 것도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사연'이 생겼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사연'으로는 김정일

체제가 미국과의 첫 협상에서 강공 자세를 보였으며, 그러한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외교부가 성명을 통해 밝힌 "특별사찰 논의 불가"를 이날 회담에서 들고 나왔을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그리고 '실무적'이라는 외교적 표현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5일의 분위기는 비관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

고 있다.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5일 하룻만에 회담을 끝내고 본국 정부와 협의할하기로 한 것은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무언가 '전향적인 제안'이나 본국 정부와의 협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그것은 '좋은 징조'라고 해석하는 낙관론도 있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8일의 첫 회담 때 자신들의 견해를

거의 모두 개진했으며, 상당 시간 본격적인 협상문제까지 다른 점을 감안하면 5일 회담에서는 양측의 입장 교환보다는 본격적인 협상이 상당히 깊숙하게 진행되어 본국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회담의 속도는 애초 예상보다 빠른 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회담의 전망은 밝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 낙관론과는 달리, 회담 진행의 실제적 측면에서 양측이 7월8일의 첫 회담과 8월5일 회담을 통해 서로 견해를 충분히 개진하였으므로 "이틀 회담하고 이를 휴회"하는 애초 계획대로 회담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 '5일 하루회담'에 대한 지나친 의미부여는 불필요한 것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아무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 내용을 일체 공개 또는 유출시키지 않기로 한 회담 당사자들의 약속에 따라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베일에 가린 채 진행되면서 공금증만 더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철저한 보안으로 북-미 3단계 고위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 양측의 합의가 나오거나, 회담이 깨어졌을 때에야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기자

제네바에서 재개된 북-미 3단계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하기 직전 무렵과 달리 여러가지 상황이 한국쪽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핵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미 회담에 한국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좁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도 눈치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도 별로 달가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일차적으로 김 주석 사망 이후 북-미 회담에 대한 한-미 공조체제가 집합을 끌고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주석 사망 이후 조의표명 여부에서 북한을 대하는 시각차이를 보

이기 시작한 한국과 미국은 망명한 강명도씨의 '북한 핵폭탄 5개 보유' 발언 파문으로 마찰을 빚기까지 했다.

미국은 김 주석 사망 이후 한국 정부가 보인 일련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북-미 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불만을 내보였다.

북한 역시 지난 7월 북-미 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여'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해결할 사안인데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끼어드는 것은 북-미 회담을 방해하려는 의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남한이 또다시 남북대화를 북-미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남한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을 보였다.

심지어 북한은 지난번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김삼훈 핵대사의 제네바 파견까지 비난하고 나서는 북 남한에 대한 거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감도높은 비난은 김 주석 사망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인 동시에, 남한이라는 요소를 무시해

도 미국과의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남한 무시 태도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미묘한 갈등관계를 간파해 두나라 사이를 더욱 벌어지게 해기를 막고 결과적으로 남한의 영향력을 무대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할 것이다.

제네바 현지보도에도 북한과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어깨너머로 '직거래'를 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파퓰리즘을 탐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미 회담의 결과를 이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미국이 모두 낙관적인 기대를 나타내는 대신 한국은 회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 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다소 마찰이 있다고 해서 기존 공조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북-미 회담에서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견해가 결국은 반영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미간의 잦은 이견 등에 따른 공조체제의 균열은 그동안 한-미간에 견해차이를 보여온 북한핵 문제에 관한 몇가지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는 데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결수로 지원문제와 남북 대화문제 등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한국 입장을 대변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 주석 사망 이후 강명도씨 발언 파문과 같은 겉술하고 일관성없는 한국의 북핵 외교정책이 남침 후유증이 이번 북-미 회담 과정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주목된다.

□ '북-미 회담' 한국입장 반영될까

'한-미 공조' 균열보여 부정적

김주석 사망뒤 강명도씨 핵발언 파문등 후유증 결과 주목

北특별사찰·非核化선언 이행 美에 3단계회담서 거론 요청

【제네바 8일 특파원】 3단계 회담에서 미·북 양국은 특별사찰과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특별사찰과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특별사찰과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輕水爐 전환 최대쟁점

美·北회담 공개 北, 고체태까지 電力공급 요구

美, 연료봉 장기보관기술 지원 고려

【제네바 8일 특파원】 북·미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8일 특파원】 북·미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北核「未來의혹」가능성 제거

큰진전 거둔 北,美 3단계 회담

【제네바 8일 특파원】 북·미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美「외교成果」쫓겨 보상책 많이 제시 北「과거의혹」여전히 남겨 난관 예상

【제네바 8일 특파원】 북·미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의 로버트 갈루치 美國수석대표가 8일 제네바 북·한대표부에 도착, 회담전에 姜鎭柱 북한수석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제네바 로이터=뉴시스]

【제네바 8일 특파원】 북·미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미·북 양국은 3단계 회담에서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北핵실험의 성공확률 미미 추측

韓-美 「北핵실험발발」 신화 판권

【서울 10일 특파원 특보】 북핵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미미하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미미하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포기버려」니 북한정국도 심각해진 듯

美錫柱 「남북이 긴밀하게 협력하라」

【서울 10일 특파원 특보】 북핵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미미하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미미하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미미하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는 미미하다. 그러나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북핵 실험이 실패할 경우 북핵 실험은 실패할 것이다.

「輕水爐보장」전제 후엔 감속로 동결

北측 새 제안 고려할만한 가치 있다

북측이 최근 제안한 「輕水爐보장」 전제 후엔 감속로 동결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북측이 최근 제안한 「輕水爐보장」 전제 후엔 감속로 동결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북측이 최근 제안한 「輕水爐보장」 전제 후엔 감속로 동결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북측이 최근 제안한 「輕水爐보장」 전제 후엔 감속로 동결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북측이 최근 제안한 「輕水爐보장」 전제 후엔 감속로 동결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북측이 최근 제안한 「輕水爐보장」 전제 후엔 감속로 동결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

(원주=김영준)

(원주=김영준)

‘현재·미래 핵’풀 새 해법 접근

북 재처리감시·플루토늄처분 ‘위임’ 제시 추측 미 ‘핵동결’ 어긋나지만 교착부담과 저울질할듯

진전된 제네바 북-미회담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지난달 8일의 첫 회담,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이후 속개된 지난 5일과 8일의 회담 등 지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쳐 열린 북-미 3단계 고위회담 1차회담은 회담을 거듭하면서 양측이 서로 구체적인 새 제안들을 내놓음으로써 한발자국씩 전진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지난달 8일의 첫 회담에 이어 5일 속개된 회담에서는 한달전 북한이 보인 입장에 대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했으며, 8일에는 북한이 다시 이에 대한 답을 보내왔다.

8일 세번째 회담을 끝낸 뒤 기자회견에서 로버트 갈루치 미국 수석대표는 3단계 회담 뒤 처음으로 “일부 문제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그는 “해결해야 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음”을 단서로 달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는 그의 평가는 전체 흐름이 문제가 꼬이는 쪽이 아닌 풀리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5일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쪽에 △핵활동의 동결 △핵확산금지조약으로의 완전 복귀와 사찰의무 이행 △남북대화

재개 등을 촉구하고 이러한 요구조건이 충족될 경우 경수로 지원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형 경수로 제공 의사를 밝힌 반면, 북한은 지원의사 자체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한국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국측 당국자는 밝혔다.

미국측 제안에 대한 북한의 여제안을 주로 논의한 8일의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 핵의 현재와 미래 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이랄 수 있는 핵연료봉 처리문제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그것이 핵문제의 핵심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안인지 가능할 수가 없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이 ‘새로운 방도’를 받아들여주게만 된다면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북한 핵문제의 현재와 미래가 해결됨으로써 3단계 고위회담에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쏠리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용후 핵연료봉이 재처리되어서는 안되며 최선의 해결방안은 이를 제3국으로 이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북한은 제3국 이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갈해 봅시다” 북-미 3단계회담이 속개된 8일 로버트 갈루치 미국 대표와 강석주 북한 대표가 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제네바의 북한대표부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제네바/AFP 연합

북한으로서는 그들이 원하는 경수로 건설이 8~10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확실한 ‘담보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담보물의 하나일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쉽게 그들의 통제권 밖으로 내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북한은 국

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감시 아래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고 그 결과 생산된 플루토늄을 미국이나 원자력기구의 처분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원자력기구 감시 아래 재처리를 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합법성 시비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를 선택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처리’는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이라는 기본목표는 물론 핵동결이라는 개념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재제 조치, 군사력 증감, 전쟁위기 증대 등 핵문제 해결이 교착상태에 빠진 뒤 닥쳐올 경제적 부담, 긴장, 경비,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무능’에 대한 비판 등의 정치적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의 합법성 테두리 안에 있는 재처리,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 원유·전력 등 에너지 지원, 핵연료봉 개발 보상 등 북한이 원하는 ‘실질적 요구’를 들어주는 데 드는 비용은 별 게 아니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피하고 긴장완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런 따위의 경비나 부담은 별 게 아니며, 그래서 발상의 대전환을 한다면 문제해결이 뜻밖에도 쉬울 수 있다는 게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미국의 대응은 그런 발상의 대전환보다는 “재처리 불가”라는 원칙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이런 강경태도와 북한의 ‘재처리’ 의지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커다란 관심사기 아닐 수 없다.

김성호 기자

정부 북-미회담 추이 어떻게 보나

‘발등 불’ 고비 넘겼지만 ‘과거 핵’ 언급없어 주시

8일 열린 북-미회담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의 보관문제에 대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핵문제 해결에 있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데다 북한이 8월말 보관시한이라고 주장했던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문제라는 발등의 불을 일단 꺼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우리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사용한 핵연료봉의 보관장소와 근본적인 연료봉 처리방법 제시 △핵연료봉 원자로의 건설 및 가동 중단의사 표명 등이다. 이 제안은 북한 핵문제의 2대 과제인 현재 및 미래의 핵활동 동결과 과거 핵의무 규명 중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 동결을 위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이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봉

처리문제와 핵연료봉 원자로 건설 및 가동문제에 대해 고수해왔던 강경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남에 따라 타협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까지 사용후 핵연료봉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재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냉각수조에 보관돼 있는 핵연료봉의 보관문제에 해결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북한과 미국은 시한에 쫓기던 상황에서 벗어

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봉의 근본적인 처리와 관련해 북한은 재처리를 하지 않은 채 북한내에서 영구보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 수석대표인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전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재처리를 하지 않고 영구보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입장변화로 보지만 이를 북한에 보관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다. 비록 북한이 핵연료봉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아래 영구보관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처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 안에 핵연료봉을 남겨놓아서는 안되고 제3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수로 건설지원과 함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면 핵연료봉 원자로의 건설과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은 미래에 대한 핵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제안에 일부 진전된 내용이 들어 있고 북한과 미국이 합의점에 도달한 부분도 있어 회담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설부터 전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북-미회담 자체가 어느 한 부분에서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장애물이 생기면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 동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으나 핵무기 보유 여부 등 과거 핵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회담의 완전한 타결을 위해서는 과거 핵의무 규명과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행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北核해결 "상당한 진전"

美-北3차회담 연료봉처리 전문가회의 개최 합의

내일 회담 소개 최종매듭 전망

【제네바=宋慶日기자】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차회담이 11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1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1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3차회담이 11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1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11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관계개선 문제는 일단 비켜가

北美3단계회담 중간결산

북한과 미국은 10일 미국 대표부에서 고위급회담 3차회담을 수개, 양측의 제안에 대한 마지막 정중 자담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은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시에 열렸다. 이 쪽이 먼저 시간연기를 제 의했는지 알리지 않았으나 북핵 문제와 협의 및 후속 조치 등 사전협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양측은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시에 열렸다. 이 쪽이 먼저 시간연기를 제 의했는지 알리지 않았으나 북핵 문제와 협의 및 후속 조치 등 사전협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경수로·연료봉에 집중

핵동결 따른 對北보상·지원등 진전추정 구체합의 일괄적 후속회담서 모색할 듯

이날 회담은 양측이 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경수로와 연료봉 처리 등 구체적인 합의에 합의했다. 양측은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시에 열렸다. 이 쪽이 먼저 시간연기를 제 의했는지 알리지 않았으나 북핵 문제와 협의 및 후속 조치 등 사전협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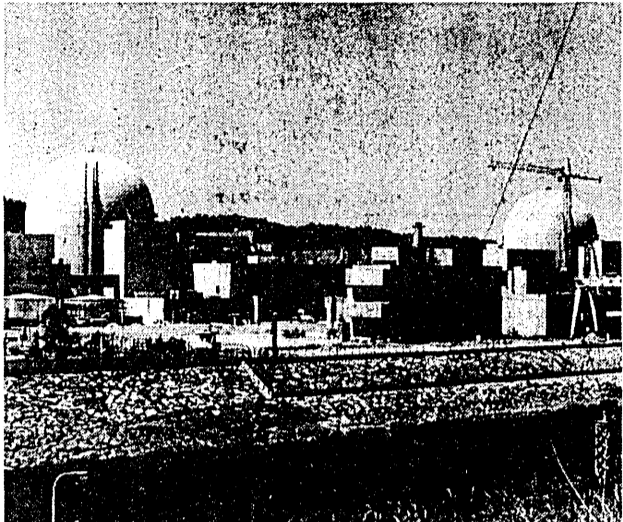


북한과 미국 대표부에서 고위급회담 3차회담을 수개, 양측의 제안에 대한 마지막 정중 자담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은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시에 열렸다. 이 쪽이 먼저 시간연기를 제 의했는지 알리지 않았으나 북핵 문제와 협의 및 후속 조치 등 사전협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양측은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11시에 열렸다. 이 쪽이 먼저 시간연기를 제 의했는지 알리지 않았으나 북핵 문제와 협의 및 후속 조치 등 사전협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었다.

對北관계 주도권 확보 겨냥

한국형 정수로



〈정파의 외침〉

북한 정파들 중에는 주한 미 대사관이나 외국 언론기관을 겨냥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공격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북한 정파들이 국제사회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외부적인 지원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광 3-4호기 한국형 원자로의 모델이 된 전남 영광군의 영광 3호기 원전과 4호기.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미국 롬버스전 엔지니어링사와 공동 설계했다.

〈어떤 것인가〉

제3차 미-북회담에서 북한측은 영광 3호기 원전 건설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원전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영광 3호기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美모델 개량... 세계 으뜸 수준

영광 원전 3호기 원전 설계는 미국 롬버스전 엔지니어링사와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설계했다. 이 원전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 으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일 美-北회담을 마친 뒤 주미한국대사관과 8일 다시 만난 로버트 갈무치 북미대사관장(오른쪽)과 韓錫柱 북한 외교부 부부장(가운데)이 제3차 미-북회담을 마친 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롬버스전 엔지니어링사는 영광 원전 3호기 원전 설계에 대해 높은 평가를 주었다. 이 원전 설계는 미국 원전 설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 으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플보다 기술-안전성 월등 독자설계 울진 3-4호기 모델

1基 20억弗... 인적교류등 긴장완화 효과

울진 원전 3호기 원전 설계는 러시아 플레브라 원전보다 기술적 안전성이 월등히 높고, 독자적으로 설계된 모델이다. 이 원전 설계는 1기 20억弗의 예산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인적교류 등 긴장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 이후까지 포석... 양보못해”

대형사업 첫지원... 「實權」 가져야

남북통일 이후까지 포석... 양보 못해. 대형사업 첫 지원... 「實權」 가져야. 이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사업에 대한 지원은 남북통일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北-美 노일중 "共同성명"

3단계회담 北, 한국형경수로 수용 긍정적

【서울 11일路透電】北-美 노일중 3단계회담에서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 11일路透電】北-美 노일중 3단계회담에서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北은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격비싸나 안전성 확보

【高森成기자】 비핵국가조약에 따라 87년 미국의 ABB-CE社와 원자로 설계 계약을 체결한 한국형 원자로 설계가 격비싸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원자로 설계가 격비싸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로의 안전성 확보는 원자로 설계가 격비싸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바 북핵회담 급진전 배경

북 실리추구 실용적 접근 핵심 쟁점 협상에 적극적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인해 상당 기간 승강이를 벌일 것으로 보였던 북-미 3단계 고위회담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문제와 사용후 연료봉 처리문제 등 핵심문제에서 애초 예상을 벗어난 적극적이고 전진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이 시작될 때 △한국형 경수로 기술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재 냉각수에 보관중인 사용후 연료봉은 안전상 이유로 수주일 안에 재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의 이러한 견해는 △사용후 연료봉의 재처리는 남북한 비핵화선언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핵동결 약속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형 원자로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등의 한국과 미국의 확고한 입장과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인 경수로 건설과 사용후 연료봉 처리문제에서 이렇게 커다란 견해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북-미 사이의 협상은 상당한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8일 회담에서

“한국형 원자로를 결코 안된다”는 애초의 강경입장에서 후퇴하여 ‘적절한 조건’에서 사실상 한국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북한은 또 냉각수에 보관중인 사용후 연료봉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대해서도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건조보관 방법을 미국에 제시함으로써 사용후 연료봉의 중간처리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했다.
북한이 사실상 한국형 원자로를 수용하는 의리를 지닌 것으로 국제지원단 계획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실리

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경수로 건설은 설계, 건설, 기술, 재정지원, 사후관리 등 모든 측면이 동원되는 종합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제지원단이라는 총체의 한 부분으로 한국형 기술이 펼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북한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기술문제에서 한국형에 대해 신축성을 보인 점은 경수로 건설에 대한 현실적 요구와 현실을 받아들이는 김정일 체제의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사용후 연료봉

의 건조보관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장을 재처리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접근시켰다.
미국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때 따라 북한이 안전상 이유로 이를 재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건조보관 방안은 7~10년이라는 긴 건설기간이 필요한 경수로 건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것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담보물 구입도 할 수 있다. 북한은 만약 경수로 지원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보관 중인 사용후 연료봉을 바로 재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조보관을 위한 미국의 기술지원은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첫 기술협력의 필요로써,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상징성도 띠게 된다.
미국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용후 연료봉의 영구폐기 문제는 북한이 원칙적인 면에서 영구폐기를 보장할 수는 있으나,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기간 동안 아무런 담보물을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중간단계로, 사용후 연료봉을 건조보관하면서 경수로 건설의 구체적 단계에서 영구폐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연료봉 영구폐기와 경수로 건설을 연계한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구폐기 방안에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소식통들은 △중국어에서 재처리해 중국이 보관하는 방안 △북한이 국제사찰단 감시 아래 재처리해 원자력기구나 미국에 넘기는 방안 △지하 콘크리트벽 안에 영구폐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은 진전 술한 難題



北美3단계회담 결과 분석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핵전략 및 핵무기 보유 여부도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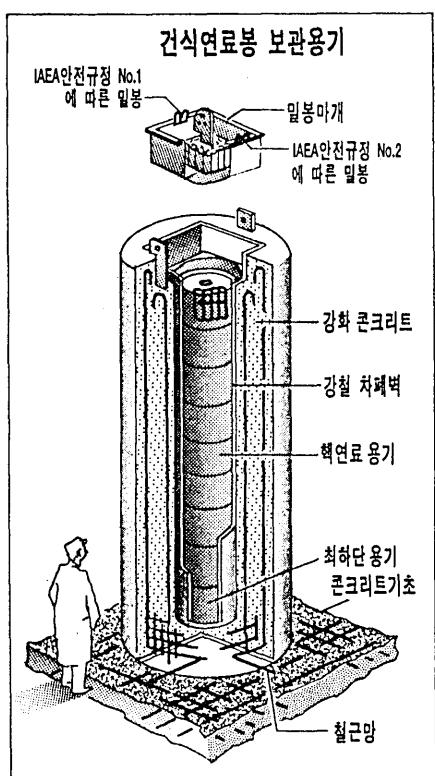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한국형」거부만 電力체계도 분단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림 : 秀秀甲기자〉

핵심외면피로 전기퍼미트인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중防壁 콘크리트속 저장

외벽두께 1m~月城원자로 사일로와 비슷
北 습식보관중 마그네슘 피복 부식 우려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日선 資金지원 앞세워 공세 舊 蘇聯型은 안전성에 문제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北美3단계회담이 1주일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담이 양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협상 하듯... 實利추구"

「제너바회담」서 선봉의 金正日 核정책

북-남간 회담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1994년 8월 15일 회담을 계기로 열린다. 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1994년 8월 15일 회담을 계기로 열린다.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1994년 8월 15일 회담을 계기로 열린다.

「선년 회담을 거스리며」 더 나팔리쳐 정권 안정과 「포함여권」 부각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대통령 김대중(왼쪽)과 김일성(오른쪽)은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평양의 「제2 핵카드」

美-北 영지 합의 「핵안정」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처리” 가능성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北核외관 일민에게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정부, 美北 폐연료봉 합의에 신중한 다관행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북-남 회담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북-남 회담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북-남 회담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북-남 회담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북-남 회담

북-남간 회담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회담이 13일 오후 12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회담은 양측 대표단장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北 核개발동결·美 경수로지원 전제

北·美 「관계정상화」 합의

「정부사무소」형 태도일관

本國승인대기 NPT복귀·내달중 再회담

합의 주요내용

北 과거 핵규명 특별사찰 허용
경수로선정 한국형수용 시사
연료농 재처리 않고 長期 보관
한반도 非核化 南北 대화 필요

【제네바=한국특파원리포트】 제네바에 있는 30년째 고립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북·미·영·프의 핵협약에 합의하면 핵개발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또 핵개발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또 핵개발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또 핵개발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주요(NPT)에 양전북이 합의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핵개발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핵개발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北核해결차원 정상관계준비】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핵개발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이 분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락사무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양측 합의의 핵심이다. 이는 양측 합의의 핵심이다. 이는 양측 합의의 핵심이다. 이는 양측 합의의 핵심이다.

연락사무소·領事館 등 포괄용어 상황으로 보아 영사관은 아닌듯

다. 영사관이라 하면 정식 대표부 수준이므로 정식 대표부를 수립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양측 합의의 핵심이다. 이는 양측 합의의 핵심이다. 이는 양측 합의의 핵심이다.

北·美회담 일단 "획기적진전"

美측 시각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획기적 진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프레스는 회담이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美, 줄것주고 북양모양기 전략 핵동결 北이노 핵인 사과가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획기적 진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프레스는 회담이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제네바 북·미회담에서 양측은 비연료봉과 경수로지원문제 등에서 진전을 이뤄 후속회담에서 결말을 지을 전망이다. 사진은 12일 북·미회담에 앞서 기자회견에 출석한 갈루치(왼쪽)와 북·미회담 대표단장인 김대중(가운데)과 김대중(오른쪽)이다. [제네바AP=연합]

핵투명성 보장까지 "솔직한 자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획기적 진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프레스는 회담이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北·美수교 쉽진 않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획기적 진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프레스는 회담이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거쳐 핵성과 따라 단계적 확대 北「核카드」활용고수... 지루한 공방일수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이 "획기적 진전"을 이룬다고 밝혔다. 프레스는 회담이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양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음성환기자]

"北核, 대화로 풀수있다" 확인

제네바 美北회담 1차회의의 결산

대화토대 마련 큰 의미

【제네바 12일路透통신】 제네바 12일 오후 3단계 美北 회담 1차회의는 공동 합의문 채택 여부와 관련 없이 북한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큰 틀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잣대.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주도할 만한 대목이다.

성과로 꼽히지만 구체적 리트론협정, 평화협정 이행으로 들어가기 까지 요구 등 중점처럼 정치적이 넘어야 할 고비가 걸렸다. 선전일변도에서 벗어나 경기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수로 전방지원을 아끼고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개선, 경제지원 등 「현실적」 요구를 들고 나와 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회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았다.

다만 많은 분야에서는 아직도 양측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미국은 전방지원을 아끼고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개선, 경제지원 등 「현실적」 요구를 들고 나와 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회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았다.

미국은 전방지원을 아끼고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개선, 경제지원 등 「현실적」 요구를 들고 나와 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회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았다.

페언료봉·경수로 「트리를」 합의에 성과 특별사찰 불가 피 강조... 공감대 넓혀

9월 2차회담선 「各論」 다뤄... 난제 침침산중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미국은 전방지원을 아끼고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무개선, 경제지원 등 「현실적」 요구를 들고 나와 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회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았다.



◇美-북한 3단계 회담에 참석중인 로버트 갈루치 미국측 대표(왼편)가 12일 숙소인 제네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네바=AP통신】

경우 경수로지원이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이 특별사찰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IAEA의 핵안전협정의 전면이행(Full scope of safeguard)란 표현으로 대체한 것은 북측의 거부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북한은 특별사찰을 수용할 경우 사실상 핵카드를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바람에 어정쩡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결국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문제가 9월 회담에서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남북한간의 電力공유가 추진

여권소신통 "北에 경수로 2기 지원... 잉여분 사용"

美-北회담 매듭되면 합의착수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공유문제, 경수로 건설 등 수로협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과 관련, 그 전례를 남북한이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신통은 12일 "대북경수로지원에 남북한의 전례유무라는 전제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것이 전례 수유에 비해 부족한 실정인 남한내 원자력발전소 입지 확대와도 연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신통은 제네바 美北회담에서 對北 경수로 지원문제가 절충안으로 韓美日이 관여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남북한 전

對北 지원을 추진중인 原電 1기 추가와 2기 지원은 1천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이고 이를 건설하는데 1기당 20억달러씩 4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며 "우선 1기 건설한다면 해도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2기 지원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소신통은 "1천메가와트급 경수로 1기만 북한 경제규모로 볼 때 상

당량의 잉여전력이 생기게 되는 만큼 그 잉여분은 남한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尹承模기자〉

非核化 이행 대책 마련

내주초 安保조정회의 韓國型경수로로 관철키로

政府 北·美 합의 바랍시 '비핵'

정부는 내주초 李洪九 총리를 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열어 非核화 이행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 한 국형경수로의 관철과 북 한의 핵과거에 관한 철저한 규명이 韓美 양국의 기밀유지정책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정하는 것

으로 13일 알렸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4개 사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향해야 할 원칙과 목표를 분명히 했으며, 또 양국은 긴밀한 韓美 협조체제를 통해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한 국형경수로 수용에 앞서 남북관계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의 주목하면 서 남북한의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정기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지원에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양국은 미국 일본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경

정부는 또 對北 경수로 등과 연쇄회담을 갖고 경

정부는 "우리의 기대" 민중노평

민중당의 朴智元 대변인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북한의 핵개발이 저지되고 개방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이번 논쟁이나 부추질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앞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朴智元 대변인은 "우리가 경수로 지원이나 하는 어정정한 입장의 처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II.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2. 1次會議 合意

北 핵연료 중단-美 경수로 지원

北 연료봉재처리 포기 NPT 잔류 핵공격안하고 대체에너지 제공

3 단계회담 공동성명

합의사항

- △북한 放射窒病의... IAEA서 감시키로
- △한반도非核化 공동선언 이행동의 明示
- △곧 전문가협상개시... 내달23일 2차회담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가 12일 저녁 北韓과의 3 단계 고위급회담 마지막회의를 갖기 위해 제네바 북한대표부에 도착, 북한의 姜錫柱 외교부 부장과의 영접을 받고있다. (제네바AP聯)

【제네바=延菊熙】北韓과 美國은 13일 3 단계고위급 1차회담을 마무리짓고 정치경제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상하 외교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연과 투자장벽을 완화하기로 하는 4개항에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위해 미국의

경수로지원을 조건으로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50MW와 2백MW급 중형원자로의 추가건설을 동결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게 발표한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외교관대화」(Diplomatic

Representation)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 인 기구와 영사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기로 양해 영미의 전문 기구의가 평양과 워싱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게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외교관대화」(Diplomatic

루지 미국측 수석대표인 남세범 1시(韓國시간 오전 8시) 제네바에서 북한 대표부에서 이강일, 민영하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政府 후속대책안의 정부 13일 北韓-美國 3 단계회담에서 北韓은 非核化의 진전이 이북선에 따라 경수로지원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안안과 함께 北韓정부는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 13일 양국은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 13일 양국은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미국에게 발표한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외교관대화」(Diplomatic Representation)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 인 기구와 영사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기로 양해 영미의 전문 기구의가 평양과 워싱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게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외교관대화」(Diplomatic

북한은 미국에게 발표한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외교관대화」(Diplomatic Representation)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 인 기구와 영사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기로 양해 영미의 전문 기구의가 평양과 워싱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에게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북한과 미국은 상호 「외교관대화」(Diplomatic

非美 3일차 회담 FDI40조원

미국과 한국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일째 회담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FDI 40조원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韓美 3일차 회담

미국과 한국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일째 회담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FDI 40조원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대포부설침」가 가장 중요한 협의

한미 양국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3일째 회담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FDI 40조원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제비꽃 기념예찬

제비꽃은 봄의 상징이다. 예찬을 통해 봄의 기운을 되찾고자 한다.

北 NPT 잔류·핵안전조치 약속

북한은 NPT에 잔류하고 핵안전조치를 약속했다. 이는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분야

【서울 11일 특파원 기자의 특보】 미 국무부 대변인인 마이클 스톨베르거는 13일(현지시간) 방한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核동결 일단 성과"

「大타결」 아닌 「원칙보장」 수준은 인정
修交-經協까지 세부협안 "산 넘어 산"

【서울 11일 특파원 기자의 특보】 미 국무부 대변인인 마이클 스톨베르거는 13일(현지시간) 방한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 장영남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기대 이상의 성과" 환영

北美회담 결과 환영 분위기

【서울 11일 특파원 기자의 특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인 마이클 스톨베르거는 13일(현지시간) 방한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진전...「과거核」 계속 주시"

"東北亞 긴장 사실상 해소" 평가

IAEA선 "아직 많은 爭点 미해결" 강조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톨베르거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3년 7월 휴戰협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美國의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核대화로 冷戰의 41년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美 관계가 13일새벽(한국시간)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다. 북한병사들이 78년 8월18일 판문점에서 도끼를 휘두르며 유엔군 병사들을 공격하던 때 민행물을 저지르고 있다.

76년 「도끼만행」 총돌진전까지 88올림픽 계기 조심스런 접근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核무기개발 포기 意思 반영

특수光섬유로 처리 임의조작 '원천봉쇄' 시설 해체완 달라 상황따라 再가동 가능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北韓의 停戰協定 53년 7월 휴戰協정서 94년 8월 제네바合意까지 美北敵對史

美國과 북한 사이의 제 2차 협상회담 열람해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美-北협의를 위한 미묘한 해석차

이 협회와 북한은 제 2차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美-北협의를 위한 미묘한 해석차
 이 협회와 북한은 제 2차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연락사무소'나 '외교대표부'나

방사실 「seal」은 「봉인」 아닌 「폐쇄」로 봐야
 北 「용의표명」도 「준비돼 있다」돼야 마땅

이 협회와 북한은 제 2차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이 협회와 북한은 제 2차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北 「용의표명」도 「준비돼 있다」돼야 마땅
 이 협회와 북한은 제 2차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핵과거」투명성 확보된다

北·美 「核情報」 합의 양파

北·美 3차 핵 협정 합의 양파
 이 협회와 북한은 제 2차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의혹해소에 충분” 낙관

기술적 어려움등 「완전」 규명엔 회의도

IAEA의 사찰을 전문수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IAEA의 사찰을 전문수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IAEA의 사찰을 전문수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IAEA의 사찰을 전문수
 韓인 협의회에 우리 협회
 3월 15일(수) 17시 30분
 이가 17시 30분 30분
 다. 북한이 열린 협회
 1994년 8월 15일(수)
 17시 30분 30분 30분

北「특별사찰」반발... 합의진통 10시간

美-北 3단계회담 타결이 모저모

美國과 北韓은 12일 제네바에서 北韓대표부와 서 3단계 회담을 벌였으나 합의문 채택을 논의했으나 양측은 합의에 대한 北韓측의 반발로 당초 합의된 회담시한을 넘겨 13일 상오에야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특히 이달 하오 늦게까지



4시간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오 7시가 넘도록 회담은 임의의 합의 없이 회담 자체가 무산된 것 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회담장인 北韓대표부는 평상시와 다를없이 분위기에 다 기지개를 내민 마이 크시실조차 추미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간질 관측이

○토퍼트 갈루치외무부 차관보는 하오 7시쯤 회담을 갖자는 北韓측 대표부를 7시 20분쯤 美國대표부를 출발하오 7시 40분쯤 제네바의 북부부구출구 비확산부관청을 핵심종교 5명을 대동하오 2대의 승용차에 나섰다고 北韓대표부의 도착해 합의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北韓대표부는 하오 11시 45분쯤 회담장을 출발하오 회담장 안에는 건물방파를 불꽃이 터져 불이 일어났지만 조 명시설도 대표부는 不夜城을 이루고 있다. 대표부 직원들은 밤이 깊어지도록 회담장 기지 회담장을 수비하느라 불투명한 모습이었지만 회담장 표

분(한국시간 7시 15분)쯤 북韓대표부에 도착해 0시 55분까지 대표단 전체 회의록을 작성하며 합의문을 작성했다. 갈루치차관보는 3-4부의 결속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회담장 기지 회담장은 20분쯤 안 회담장내를 순회했다.

당초文案 두군데 우선순위에 조정 平壤승인 지연... 한때 비관론이 나돌아

지 한때 회담개최와 합의문 채택이 부추쳐 불투명한 합의문 채택의 가능성을 겪기도 했다.

○회담이 12일 하오 2중공. 北韓대표부 앞에서는 회담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1백여명의 취재진은 北韓대표부의 정문앞으로 승용차가 드나들 때마다 울려퍼지는 '회담이 열릴 것 같다'는 '회담이

까지 계속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대표부 측은 조평시실을 갖추는 등 분주한 모습. 회담이 이같이 지연된 것 은 이 때까지 합의문 무산의 대해 北韓대표부는 '주권의

회의를 마치고 하오 9시 55분쯤 기자회견도 없이 북韓대표부로 돌아왔다. 비관론이 팽배. 5부총리의 北韓대표부의 한 지원이 관계 단절이유로 밝혀지지 않았고 대표단 회담이 1시간뒤 열릴 것이라고

단의 흥청이 자오선 북韓의 의정인 정혜영의 노란 저고리의 빨간 치마를 입고 합의문의 두 가지에 북의 서 부총리를 보고 미주대표단 영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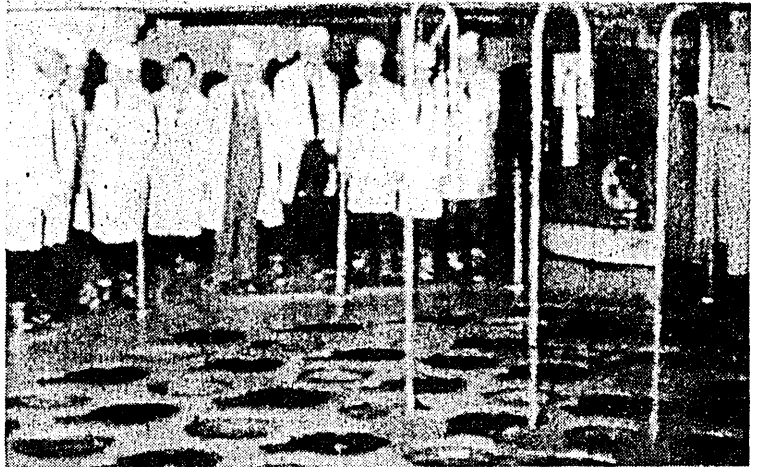
갈루치차관보 등 美國대표단 15명 전원은 13일 0시 15분(한국시간 7시 15분)쯤 북韓대표부에 도착해 0시 55분까지 대표단 전체 회의록을 작성하며 합의문을 작성했다. 갈루치차관보는 3-4부의 결속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회담장 기지 회담장은 20분쯤 안 회담장내를 순회했다.



미국과 北韓은 13일 제네바회담에서 북韓대표부의 동맹 등에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수용제도를 논의했다. 사진은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IAEA의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한스 블릭스(미국측)와 유엔 사무총장(북한측)이 회담장에 도착하는 모습이다.

「과거核」등 各論엔 異見 여전

北韓의 원자본를 사할하고 있는 10여명의 남자들이 (A.M.S)의 회합.



北美회담 남은 과제 무엇이냐

北韓과 美國의 13일 밤 판교 회담이 끝났지만 남은 과제가 남아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본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판교 회담이 합의의 돌파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별사찰」안되면 합의문 자체가 白紙化 경수로 지원방식 調律도 쉽게 낙관못해

「판교」 판교 회담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연락사무소

美北 양측의 13일 판교 회담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합의 따라 실질 대외업무도 가능 단시일내 大使관계 가능성 희박

(Diplomatic representation)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판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修交이전 初보적 「외교창구」

조선일보 1994. 8. 14

이 날을 맞아 남북이 긴장 완화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韓半島 긴장완화 "청신호"

北美양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의 대가로 외교관 제를 수립하고 미국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최근 조선반도 내 핵무기 개발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합의한 대로 긴장완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에 대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에 대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에 대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美 「두개의韓國」 사실상 인정 輕水爐 지원은 「한국에 부담

北 「실천」 여부 주목... 특별사찰 수용 불투명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지원 등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냈다.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부차관보(가운데)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金三勳한국핵대사(오른쪽)와 아나이 순지 미외무성 외교정책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對北제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통신>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에 대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에 대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에 대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에도 북한에 대해 경제 수교를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제네바=AP통신〉

美 北 核타결 의미와 전망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수로 지원 등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냈다.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부차관보(가운데)가 지난 6월 워싱턴에서 金三勳한국핵대사(오른쪽)와 아나이 순지 미외무성 외교정책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對北제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통신>

세부案 일괄협상...진통 불가피



美北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정해진 과제들의 구체적 부의가 이제 '전문가 회의'(Expert-level meeting)로 옮겨왔다. 5일부다, 10일까지의 제네바 회담에서 일괄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협상의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측간

제공문제, 그리고 美北관계 개선의 첫 번째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개설을 추진하는 문제이다. 특히 전문가회의가 이번 회담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가회의는 고위급회담을 위한 미북위협의 시작기틀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회의는 이번 회담에서 정해진 과제들의 구체적 부의가 이제 '전문가 회의'로 옮겨왔다. 5일부다, 10일까지의 제네바 회담에서 일괄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것인데, 협상의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양측간

과장급회담의... 빠른면월末착수 타결안됨엔 2차회담넘길듯

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 장소는 북측이 상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대안으로 북한은 도청지도를 분담한다. 미국의 수도에서 북한대표

전문가회의에서 우선적 연료공급의 보장과 같은 당해하기 위해 남측을 화학 처리하는 기술에서부터 북한의 제한사항(款式)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대안으로 북한은 도청지도를 분담한다. 미국의 수도에서 북한대표

美-北전문가회의 2차회담넘길듯

빠른면월內 韓외무 사무소개설 내달 2차회의 결과의 달

北韓과 美國의 정치-경제 관계의 안정을 위한 협상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10시간 동안 제네바에서 열렸다. 양측은 대안으로 북한은 도청지도를 분담한다. 미국의 수도에서 북한대표

가설 2차회의에서 이번 회담의 주요 과제는 1. 연락사무소 개설, 2. 전문가회의, 3. 핵문제, 4. 대북 지원 등이다. 양측은 대안으로 북한은 도청지도를 분담한다. 미국의 수도에서 북한대표

南北경협 조속 재개 방침

美北회담 타결 따라 정상회담 앞두고 투자 등 허용

북측 3단계 평화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 13일 북측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은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13일 북측에서 열린 회담은 양측이 13일 북측에서 열린 회담에서 합의한 3단계 평화회담을 위한 1차 회담이었다.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북한 내 인가물자를 확대하고, 북한내 사회간접시설 투자에도 관할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제정된 3단계 회담을 위한 1차 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北核회담 타결 政界반응

北核과 美國의 3단계 회담 1차 회담이 13일 북측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은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北核동학파 쿠마련, 환영

반핵을 표방하는 동학파와 쿠마련은 북핵 회담 타결을 환영했다.

동학파는 북핵 회담 타결을 환영했다.

“金대통령, 경수爐 지원 약속”

WPK紙 보도 8·15 때 발표... 비용 40억弗 예상

【서울 13일路透통신】북한에서 13일 북측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북한 내 인가물자를 확대하고, 북한내 사회간접시설 투자에도 관할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제정된 3단계 회담을 위한 1차 회담에서 양측은 남북경협 조속 재개에 합의했다.

일단 “공정”속 南北관계 과장 주시 청와대 「核과거」투명성 합의누락 아쉬움 民自 “역사적 사건”對北화해정책 촉구 民主

청와대 측은 북한핵실험을 둘러싸고 남북관계가 과장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중들은 「核과거」투명성 합의누락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주의자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對北화해정책을 촉구했다.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비 5兆원... 왜 부담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투자에 대한 통일

경수로 지원

북핵 투명성 확보



원자력 2기나 우리와 미국...



寧邊핵시설 내부... 北韓寧邊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1994년 8월 14일 촬영. 이 사진은 1994년 8월 14일 촬영된 것으로, 이 사진은 1994년 8월 14일 촬영된 것으로...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1백만달러 2기 10년도 임기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주주들이 '갓내기' 신인

주식환율 95% 이상... 경제성도 높아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北경수로 財源 누가... 어떻게

3조2천억 韓-日분담... 우리측서 80~90% 부담가능성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한전은 1994년 8월 14일...

경수로지원 '南北논의' 통해

北·美성명따라 정부, 對北실무회담 곧 제의

정부아닌 민간 진행도 고려 政·經트러블리 획기적인 조치도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정부는 북·美 3국에 고지향점을 제시하며,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美 3국에 고지향점을 제시하며,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美 3국에 고지향점을 제시하며,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남북한이 합의한 조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1994. 8. 14

9월 회담서구체합의 도출 기대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의 「美·北 합의」 문답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외교창구」는 「사무소요원」과 견의미 전제 충족 안 돼 도연락요원 北상주 가능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韓외무·美·北·日·中·日·韓의
核특별사찰 「美 명확한 입장」 요구

北·美회담 뒤권서 드러나는 異見

韓美조율 異常있다

北·美회담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先남북-後북·미 관계」原則 무너져

“연락사무소 교환, 미리 알려줬는지 조차 의문”

北·美회담이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을 전제로 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北 선택은 開放選

美와 회담후 어떻게 변할까

북한과 미는 이제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점진·제한적 추진...「實利」추구할 듯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美·北합의 「우려論」 대두

美 행정부 "北 태도 지켜봐야... 특별사찰 필수"

▽조선일보 1994. 8. 16

【워싱턴=연합】이런 미국 간 합의와 관련된 행정부 관리들과 보수 인사들은 백악관이 앞으로 북韓의 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할 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유 타임스紙가 14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 "진전 없이 이 루지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평가하며 우리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정부 관리들도 이 시점에서의 회견에서, 북韓의 재차리, 재장착이 이 제들과 관련된 약속을 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단행시기를 앞당기고 싶었다. 한고워타임스는 "이제부터 23일까지 중 한 특별사찰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韓과의 교관계를 심화시키는 걸 주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뉴욕 타임스에 밝혔다.

조지 부시 前 대통령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렛 스킵스(Bret Stephens)도 이 회견에 대해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평가를 했다."

"北구체 행동까지는 낙관못해"

美일각서 慎重論

미국의 지난 13일 북한과의 제네바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중론만 높아져 있다. 北美회담의 양측 수석 대표인 데이비드 리언과 김성환은 14일 워싱턴에서 회견을 갖고, "北美회담의 양측 수석 대표들이 회담 직후 시인했던 이번 합의가 북한 개발 저지를 위한 획기적 진전을 마련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북해'를 불기엔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신중론은 1993년 북한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한국이나 미국과 합의한 사찰을 일관성 없이 파기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수의사를 구체 행동으로 보이기 전에는 北美 관계의 양측을 낙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 데이비드 리언은 "北美회담의 포괄적인 동결을 위한 관리를 위한 특별사찰을 받지 않는 한 외교관계 수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행정부의 신중론은 이구십을 떨치지 못하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브렛 스킵스도 "北美회담의 전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방파기「前科」의식... 신뢰높아진 전 사실

너무 양보 "불만도... 특별사찰前 수교不可"

특별사찰을 받지 않는 한 외교관계 수립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행정부의 신중론은 이구십을 떨치지 못하는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브렛 스킵스도 "北美회담의 전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의무사항을 먼저 이행하라고 강조 시켰는데, 북한은 특별사찰을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서 추가 회담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무부나 의회에서 감히 이렇지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李相石(이승만)은 '후진적인 북한, 핵카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리언은 "북한은 '후진적인 북한, 핵카드'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北·美회담타결 계기의 문제제기

북한은 미국의 경제성장의 정면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현대사에서 북한과의 연합사모소 교환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임무표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있다. 미국의 현대사에서 북한과의 연합사모소 교환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임무표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있다. 미국의 현대사에서 북한과의 연합사모소 교환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임무표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고 있다.

韓·美공조체제 異狀징후

우리側 민감한 「관계 정상화」 사전통보 못받아

이강이다. 韓美공조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韓美공조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韓美공조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韓美공조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韓美공조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月末개구체협의 나설듯

한일 일부 관리들이 골짜기를 찾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다. 한일 일부 관리들이 골짜기를 찾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다. 한일 일부 관리들이 골짜기를 찾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다. 한일 일부 관리들이 골짜기를 찾아가는 데에 관심이 있다.

北美연락사무소

그런데 제네바에서 귀국하는 길에...

위싱턴·平壤 번갈아 방문 개최 北 초대소장에 許鍾임명 유력

로 결정하는 경우 대사급 차원처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 결정하는 경우 대사급 차원처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 결정하는 경우 대사급 차원처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 결정하는 경우 대사급 차원처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싱턴=李相植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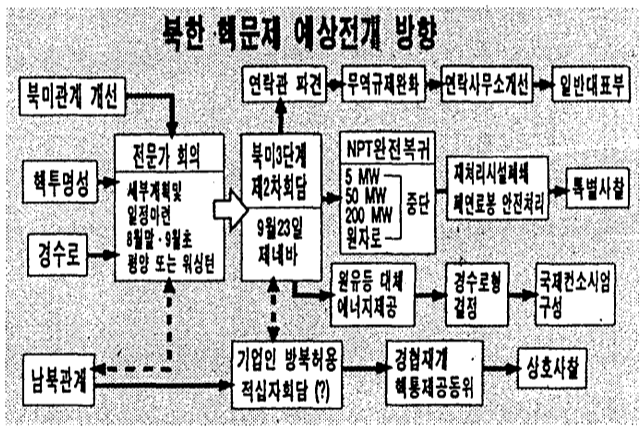
北美 3년차 회담 결단론 머나먼 길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北韓이 먼저 손내밀것” 자신

“경수로 지원 종착역은 결국 韓國” 核통제위 재개등 서둘러 않기로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北美 「核협상」 이행수순 초점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전문가會議서 포괄적 논의 내달 23일 2차회담서 윤곽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북미회담이 3년째 결단론 머나먼 길인 가운데...

北경수로형 원자로 2기건설 有-無償 혼합지원

世銀차관-국공채로 충당

정부, 국내기술자 설계전담 추진

정부는 북한에 2천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경수로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하되 건설비지원은 유상과 무상의 혼합형으로 자문과 건설중인 50메가와트 무상으로 하되 나머지 부

분에 대해서는 유상과 조부 무상을 혼합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對北경수로건설 지원비(세계은행)IBRR(D)의 차관을 도입하거나 국공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경수로 설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기술자들이 현장조사 및 설계를 전담하면 담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對北경수로지원 은韓·美·日 등이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형식상 대표주주는 미국의 말도루 함이로써 북한이

한국의 경수료를 수용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북한과 미국은 지난 12월의 제네바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료를 채택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이에 따라 경수로 건설을 한국의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대외미련의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의 미국 일본 등과 경수로 건설부제를 협의할 계획'이라며 '美-日·韓과의 협의에 따라 관련부서의 재원부담비율을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對北 경수로지원방안'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鞠箕然기자>

▽한국일보 1994. 8. 17

경수로 未타결맨 北 원자로 再가동

WP紙

北美회담 때 時限을 모
【워싱턴=李相石특파원】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일정 시한내 경
수로 지원문제가 완결되지
않는 경우 寧邊의 5MW원
자로를 재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北美3단계
제네바회담에서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워싱턴 포스
트가 16일(현지시간) 보
도했다.

이 신문은 '美고위관리들
인용, '북한측이 지난주
北美 고위회담을 마치면
서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
이같은 조건을 미국측에
전했다고 밝히고 핵기술
수준의 유지와 경수로 건
설 단계, 용저용량 전력
공급을 5MW원자로의 조
건부 재가동 이유로 제시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對北정어채 긴급레마

정부가 對北정어채 긴급레마를 실시한다. 이는 對北정어채 긴급레마를 실시한다.

정부가 對北정어채 긴급레마를 실시한다. 이는 對北정어채 긴급레마를 실시한다.

輕水爐 비용

韓國 큰 부담

輕水爐 비용이 한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輕水爐 비용이 한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輕水爐 비용이 한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輕水爐 비용이 한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무려 3兆2千億원... 막대한 세금 예상 統一정책 변화파탄 對국민실책 고민

統一정책 變換파탄 對國民失策 고민. 무려 3兆2千億원... 막대한 세금 예상. 이는 統一정책 變換파탄 對國民失策 고민.

각종수면 업무부담 영감되리라

각종수면 업무부담 영감되리라. 이는 각종수면 업무부담 영감되리라.

2基 건설비용 70%분담 2兆원 넘을듯 土建-機電설비부문 국내업체들 참여 확실

完工까지 10여년동안 南北실무협상 수시개최 예상

2基 건설비용 70%분담 2兆원 넘을듯. 이는 2基 건설비용 70%분담 2兆원 넘을듯.

土建-機電설비부문 국내업체들 참여 확실. 이는 土建-機電설비부문 국내업체들 참여 확실.

특별査察관철이 최대쟁점

지난 13일 발표된 北美 3단계 6위회담 합의성명書에 北核잠상 회족의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점들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머니 한 사람이라도 어머니면 합의체제가 무효화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중요했다. 또 31건의 특정영역 대한 北韓과 北美간의 불합의 韓美간에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장수비 재원=장수비 재원은 北韓의 사색을 한 다음에 수렴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美韓간의 불합의 사항에 대한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수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장수비 재원=장수비 재원은 北韓의 사색을 한 다음에 수렴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美韓간의 불합의 사항에 대한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수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北美합의」에 南·北·美 입장 서로 차이

北-美합의 주요사항에 대한 南北韓·美 입장

항목	한국	미국	북한
정확성	수립	정확	정확
경지	수립	정확	정확
대안	체제	체제	체제
연사	무시	무시	무시
특별사	행안	행안	행안
한미	합의	합의	합의

명예를 밝히는가... 사안... 北美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수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北「南압력수단」될까 韓國型꺼려

廢연료봉 처리도 여전히 걸림돌...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수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北美관계 개선과 南北韓 韓美간에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北美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수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北美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수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北美합의에 대한 입장 차이... 「장수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수비」 「미미한」 「조조」 「의의」가 존재했다.

“對北經수로 지원방식 미정”

한국과 협의의 위해 차관보 이달 말 訪韓

▽중앙일보 1994. 8. 18

美 국무부 대변인

【워싱턴=연합통신】미국 국무부 대변인 데이비드 프레스코프는 17일 발효된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해 “북핵에 제1차 이행 협정을 체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코프는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 장관

이탈리아 정부 장관인 로베르토 스페르디는 17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르디는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외교부 장관

미 외교부 장관인 마이클 D. 비글은 17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글은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국무부 차관보 北核대담 내용

미국 국무부 차관보 데이비드 프레스코프는 17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 방식에 대해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코프는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코프는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코프는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코프는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스코프는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찰 필수적... 北韓서도 잘 알겠 연락사무소 “모든 것 합의의 돼야 설치 전문가 회담 美 北 오가며 복수협상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서 제의해오면 언제든 頂上 회담”

韓외무 스웨덴서 회견

외무부 장관인 김대중은 18일 스웨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북핵 협정 제1차 이행 협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4년 8월 18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수로 부담금등 "韓美이해 불일치"

北-美 회담 未해결 쟁점

- 폐연료봉 영구폐기 • 특별사찰 시기형태
- NPT 완전복귀 • 영변원자로 가동중단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核동결 불완전성 뚜렷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美 회담은 18일 평壤에서 3시간 동안 진행...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경수로 韓國 부담 최소화한 50%

경비 어떻게 부담하나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조정역할 뒤 무임승차 예상 G7 지원 제의 부담줄이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며...

北·美 내달 4일 전문가가 회담

平壤서 열릴 듯... 대체에너지 논의

美 국무부 "경수로 무산될 北 원자로 재가동 예상"

【워싱턴=연합】북한이 평壤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4월 4일(현지시간)에 북·미 전문가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 소식통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이 대체에너지, 특히 원자로 재가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990년 12월 평壤에서 열린 북·미 전문가 회담에서 대체에너지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바 있다. 당시 회담은 대체에너지, 특히 원자로 재가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바 있다. 당시 회담은 대체에너지, 특히 원자로 재가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바 있다.

核투명성
경수로
관계개선

방범론구체 논의

내달 열릴 北·美 전문가 회담

미국 국무부 소식통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이 대체에너지, 특히 원자로 재가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담은 4월 4일(현지시간) 평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대체에너지, 특히 원자로 재가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北·美 제의할 듯 포괄협상 4개 분과 나눠 논의

1차 뉴욕·2차 평壤 개최 유력

북·미 양국은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이 대체에너지, 특히 원자로 재가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담은 4월 4일(현지시간) 평壤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대체에너지, 특히 원자로 재가동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核특별사찰前이라도 北전향태도땀

“北·美연락사무소 반대안해”

“核도결결과 반대시연계

정부, 사무소설치는 초보단계 불과

정부는 내달 23일부터 열리는 美北 3단계 2차 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경우 특별사찰 실시 시 이 전이라도 北美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제네바 1차 회담 결과대로 북한의 현재 및 미래 핵활동 동향에 대한 연락사무소 설치에 반대는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미국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北美 2차 회담에서 1차 회담 때 합의된 원칙의 실질적인 이행태도를 보이는 등 핵문제 해결의 전향적인 추세가 긍정적일 경우 과거 핵활동 규명을 위한 특별사찰 실시 전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도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위급회담자는 이날 연락사무소 설치에 상호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北美간 관계개선의 초보적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北美 2차 회담에서 북한이 1차 회담 결과를 토대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경우 특별사찰 실시 전이라도 연락사무소는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북한이 미국이 핵협상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 관계개선의 단계의 연계를 바꾸었다는 일부 보도는 잘못이라고 부인하고 핵활동 동향은

제와 연락사무소 설치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나 北美 2차 회담에서 연계를 논의한다는 것이 미국 해군의 한 소식통이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다른 당국자도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당면 현제와 미래는 물론 과거 핵활동의 투명성 보장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확실한 방안이 합의된다면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도 특별사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특별사찰 수용은 이차피 北美협상의

▽조선일보 1994. 8. 19

美 “核타결안돼도 관계개선”

워싱턴소식통 北연락사무소 年末설치

【워싱턴 19일路透電】 워싱턴 소식통은 18일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타결안돼도 관계개선을 분담시키기로 한 양측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이미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사무실을 들쭉날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對北 경수로 지원 문제의 경우 일련성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백커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경수로 지원 방안을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으며 한국 등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19일路透電】 워싱턴 소식통은 18일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타결안돼도 관계개선을 분담시키기로 한 양측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이미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사무실을 들쭉날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對北 경수로 지원 문제의 경우 일련성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백커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경수로 지원 방안을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으며 한국 등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경수로로 분擔 검토 착수

의고소시통 「財政지원不可」입장 중대변화

日도 컨소시엄 형태면 참여의사

미국이 북한을 유인하는 데 있어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韓-美관계 심상찮다

美, 美관계가 심상찮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노바협이, 미미한 입장차 으면 폐기될

제노바협이, 미미한 입장차 으면 폐기될.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未승락정전 어둠이 깊어졌다

북한 핵개발이 3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정전 협상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輕水爐지원 未합의 점진

구분	한국	미국	북한	기타 관련국
지원 형태	기술 지원	기술 지원	기술 지원	기술 지원
지원 대상	경수로	경수로	경수로	경수로
지원 시기	1994년 말	1994년 말	1994년 말	1994년 말

北경수로 비용 美·日분담 초점

「한국형」 아직 채택안돼... 美선 유보입장 구체적 지원시기 싸고 韓-美간 논란여지 컨소시엄구성에 「中-러 끼워넣기」 이견

북한이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4년 말까지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다.

外交官 신분 연락관 美-北 상호파견 방침

연락사무소 개설前 합의 이행 조치로

빠르면 10월 「사무소」 설치

정부 당국자 밝혀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3단계고위급회담 1차 회담 기간에 서로 외교관 신

다. 북한과 미국은 또 다음 달 23일 열리는 2차 회담에서 경우로 지원과 특별 사찰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빠르면 10월 중이나 늦어도 연내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와관련, 「미국과 북한은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 이전이라도 상호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는 지난 8.13 갈루치 義錫柱장의 합의사항을 이행해가는 첫 단계 조치로 교환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北美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3단계고위급회담 1차 회담 기간에 서로 외교관 신

다. 북한과 미국은 또 다음 달 23일 열리는 2차 회담에서 경우로 지원과 특별 사찰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면 빠르면 10월 중이나 늦어도 연내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

와관련, 「미국과 북한은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기 이전이라도 상호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는 지난 8.13 갈루치 義錫柱장의 합의사항을 이행해가는 첫 단계 조치로 교환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韓美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北美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8.13 합의만으로도 연락사무소가 당장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연락사무소는 북한의 핵 투명성보장을 위한 합의 내용들이 이행되기 시작해야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제에도 북한의 미사 수출문제, 인권문제,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생산문제 등이 해결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鞫箕然기자)

▽동아일보 1994. 8. 22

北核特명정확보방안 9월2차회담서 논의 韓외무 밝혀

【베를린=金祖熙】韓昇洲 외무부장관은 北韓의 핵무기 평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오는 9월23일부터 열리는 北美 3단계 2차회담에서 중점논의되고 그 시한

도 대개 7개월 정도로 21일 전망했다. 北歐수반을 마치고 귀국길에 학술대회 참석차 베를린에 들른 韓 장관은 이날 獨逸를 방문할 과 가진 간담회에서 北美 제네바회담의 합의내용을 특별사찰문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는 북한 핵의 동결계획이 마련되

고 과거의 불일치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韓美간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특별사찰 못받겠다"

외교부 경수爐제공과 무관 주장

▽조선일보 1994. 8. 21

“査察강요맨 총돌볼가피 신뢰조성되면 해결될것”

【서울=외외】 북한은 20일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견이 있는 북한은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견이 있는 북한은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美北회담겨냥협상력제고

北, 조건부 특별사찰 거부 배경

북한은 20일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견이 있는 북한은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견이 있는 북한은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韓美간 北核공조체제와해의도 체제정비 노린 對內用 가능성도

北한은 20일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견이 있는 북한은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核完전폐기해야 경수爐지원 정부... 輕水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사찰을 통한 경수공조체제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박에 불수 없다... 北한은 20일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견이 있는 북한은 특별사찰을 전제로한 경수로 도입을 접대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政界「北 특별査察거부」에 단호

北韓이 20일 특별査察을... 美政府은 北韓의 특별査察을...

北韓이 20일 특별査察을... 美政府은 北韓의 특별査察을...

核과거 규명 양보不可

韓-美이 간術... 확고한 共助 추구 투명성 先보장돼야 經協가능

『특별査察과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을...』

『특별査察과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을...』

『특별査察과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을...』

『특별査察과 현재와 미래의 핵개발을...』

특별査察에 南北韓간 정점 부각되다

北韓이 20일 특별査察을... 美政府은 北韓의 특별査察을...

北-美합의 해석 차이 비로

北, "核안전조치 이행 수락 준비" 당시 합의 南 "특별査察 포함의미, 北선 "자주권 침해"

北韓이 20일 특별査察을... 美政府은 北韓의 특별査察을...

北韓이 20일 특별査察을... 美政府은 北韓의 특별査察을...

「北경수로 지원」 文書보장 검토

정부 영변原子爐 운전기록 제시등 조건

“특별사찰관철원칙이 틀리면”

정부는 21일 북한의 경제 수교 정상화 지원하기로 한 방침을 구체화시키려는 데 따라 특별사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사찰을 통한 북한의 투명성의 확보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영변에 있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영변에 있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경제 수교 정상화 지원하기로 한 방침을 구체화시키려는 데 따라 특별사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사찰을 통한 북한의 투명성의 확보와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對北 대체에너지 제공 政府대책반 내주 구성

정부는 북한의 영변지역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반을 내주 구성한다. 이 대책반은 대체에너지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영변지역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반을 내주 구성한다. 이 대책반은 대체에너지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영변지역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반을 내주 구성한다.

변수가 아니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준비기간을 사안의 성격과 대화 해결을 위해 경수로 지원과 특별사찰을 연계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처리 시설도 알려진 방사화합물 합성의 폐쇄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실현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해 이 것도 경수로 지원과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梁承賢기자>

北경수로 전환관련 日, 한국형지 지방침

그렇게이지이보

【도쿄=李在武특파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안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형지 지방침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일본이 한국형지 지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 지방침은 한국형지 지방침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이다.

北체면 고려한 「절종 신호」

「특별사찰」명칭 후보배경

韓界의 일부 언론은 22일 북한 체면이나 수단을 다 쓰고 북한, 평壤기자회견에서 北韓의 핵무장정권의 보복행위를 특별사찰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부터 한층더 격앙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의는 과거 핵무장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로 알려 주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核과거 「실질규명」의 지도 내포

변화시킬 수 없는 동양체제는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로 알려 주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동양체제는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로 알려 주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동양체제는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로 알려 주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별사찰「명칭」 상관없다”

철부 北核규명 방법 IAEA 일일 임방침

내일 統安회의, 경수로 지원등 입장 정리

韓界의 일부 언론은 22일 북한 체면이나 수단을 다 쓰고 북한, 평壤기자회견에서 北韓의 핵무장정권의 보복행위를 특별사찰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부터 한층더 격앙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의는 과거 핵무장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로 알려 주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동양체제는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로 알려 주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동양체제는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지로 알려 주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韓界의 일부 언론은 22일 북한 체면이나 수단을 다 쓰고 북한, 평壤기자회견에서 北韓의 핵무장정권의 보복행위를 특별사찰이란 단어가 등장할 때부터 한층더 격앙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별사찰」이란 단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은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할 수 없으며,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하면 특별사찰이란 단어를 수용한 것 자체가 북한측에 대한 남한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고비마다 "이상한 발언"

【특별사찰의 명명과정】
 이 고비마다 이상한 발언... 韓 界의 對 北 特 別 査 察 官 名 稱 決 定 後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北核 과거 규명 포기 인상 문제 대통령 「輕水爐 다짐」과도 괴리

「眞意」엔 문제없어도 발언「시기」 「전술」 「부적절」

보수적의 「시기적」인 부...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나」 致 函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한국일보 1994. 8. 24

“北核 특별사찰 반드시 해야”

金대통령 韓·美 긴밀공조 있어야 해결

【本 報 專 訊】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崔泰植 기자】

▽국민일보 1994. 8. 23

韓외무 해명

외무부는 「특별사찰이...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韓 界 報 道 界 對 於 韓 界 報 道 界 的 反 應 是 如 下 的

北核 투명성 확보 불변

政府 입장 정리 특별사찰포함 「실질措置」 주력

韓·美 「北수용」 이나나 협의

安보조정의 對北정보 다각 분석 대책 마련

정부는 과거 북핵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2개 미션과 1개 실행 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 표명했다.

특히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량 등에 대해 자신있게 하고 모든 핵관련 정보와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허용할 경우, 북핵과 관련된 이 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25일 25일 재개될 북·미·일 3국 회담에서 북한의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北核 「투명성 보장」 입장 재확인

인미커진회의 시의 중요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수로 지원 대화 연계 「韓國 연합강화 포석」

정외대외무부 각급 「양측의 전철성」 매듭



北核 회담 전인 25일 오전 10시 30분경 평양에서 열린 북·미·일 3국 회담에 참가한 김대중 대통령(왼쪽)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장(가운데)과 김기춘(오른쪽)의 모습이다. (김기춘 제공)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오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대책, 북·미 협상과 관련된 협의, 그리고 IAEA와 정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북정책 혼선자초

한치 앞 못보고 독주...부처간 잇단 불협화음 불러

한외무·정수석 갈등 관련 통일안보회의 돌연 연기

청와대의 대북·외교정책 독주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에 대한 외무부와 통일원 등 주무부처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갑자기 연기되는 등 정부 내부의 혼선과 불협화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통일원 김경웅 대변인은 "24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을지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중이라 참석자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됐다"고 밝히고 "25일에는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해명과는 달리 이날 오전 이홍구 부총리를 비롯해 한승주 외무장관과 김덕 안기부장, 이병태 국방장관 등 회의 참가 대상자들은 특별한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중

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애초 이 회의를 24일 열자고 제의한 쪽이어서 일부러 회의를 연기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외무장관과 정 수석 사이의 갈등 양상이 언론에 지나치게 부풀려 보도되는 상황을 우려해 견해를 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이 불거진 배경에는 청와대·안기부와 외무부·통일원 사이의 상호 불신과 정책노선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북·대외정책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청와대가 극단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남발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무부처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 북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과 청와대의 기본 인식이 '동반자'에서 '적대국가'로 극에서 극으로 갈팡질팡해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사찰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과거 핵의혹 규명이 중요하다는 한 장관의 22일 발언을 외교안보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장관의 발언을 해명토록 한 데 대해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북·미회담에서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는데 특별사찰 관철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도 "핵과거

문제의 경우 다양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특별사찰 관철만을 외치다가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며 "청와대가 대북정책과 북한핵 문제에 관해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사교환 전제조건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홍순영 전 외무차관의 지난 4월 발언 당시에도 청와대는 당시 특사교환이 전제조건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홍 차관의 발언을 즉각 부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특사교환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뒤 홍 차관을 경질했다.

이밖에 지난달 6·25관련 문서 공개도 청와대쪽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김성호 박종언 기자

「北核과거」 규명 원칙의 재확인



李洪九(통일부총리)·金應만(안기부장)·鄭鍾旭(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25일 오전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에 따른 핵무명성 보장이 남북·北-美관계 개선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중욱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애초 이 회의를 24일 열자고 제의한 쪽이어서 일부러 회의를 연기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외무장관과 정 수석 사이의 갈등 양상이 언론에 지나치게 부풀려 보도되는 상황을 우려해 견해를 조정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 부처간의 불협화음이 불거진 배경에는 청와대·안기부와 외무부·통일원 사이의 상호 불신과 정책노선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북·대외정책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청와대가 극단적이거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남발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무부처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 북한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동반자'에서 '적대국가'로 극에서 극으로 갈팡질팡해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사찰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으로 과거 핵의혹 규명이 중요하다는 한 장관의 22일 발언을 외교안보수석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장관의 발언을 해명토록 한 데 대해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북·미회담에서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는데 특별사찰 관철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도 "핵과거 문제를

정부내 혼선 "청와대쪽으로 조정" 北반응따라 신축대응 여지 남겨

북핵의혹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25일 오전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재확인됐다. 특히 '北核과거' 규명 원칙이 재확인된 가운데, 정부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쪽으로 조정될 여지가 남겨졌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이홍구 부총리, 김경웅 대변인, 정중욱 수석, 안기부 장관, 외무부 장관, 통일원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중욱 수석의 주재로 진행됐다. 그는 "북핵과거 규명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쪽으로 조정될 여지가 남겨졌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북핵과거 규명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쪽으로 조정될 여지가 남겨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과거 규명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쪽으로 조정될 여지가 남겨졌다"고 말했다.

특별사찰 포함한 실질 査察이란

특별사찰이란 북한 핵과거를 규명하기 위해 북한에 파견되는 조사단을 말한다. 이는 핵과거 규명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부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쪽으로 조정될 여지가 남겨졌다.

北핵무기보유 기정사실

美군방정보국 협정 체결해도 포기 안 할 것

【워싱턴=美聯통신】미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비확장군축협정(ABCT)을 체결할 경우라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IA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라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IA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라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美聯통신】미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비확장군축협정(ABCT)을 체결할 경우라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IA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라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사찰 절대 안 받겠다”

北韓 경수로 제공 전제 조건 못 돼

【서울=내외】北韓은 23일 경수로 제공 전제 조건을 못 돼 특별사찰을 절대 안 받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저 자수관과 부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부터 平壤서

【워싱턴=美聯통신】미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비확장군축협정(ABCT)을 체결할 경우라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DIA는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라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별사찰에 융통성”

「실질조치」해석 외무부에 맡겨

【서울=내외】북한은 23일 특별사찰을 절대 안 받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내외】북한은 23일 특별사찰을 절대 안 받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측은 특별사찰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北-美 뉴욕 실무접촉

「전문가회담」 구체일정 합의못해

【워싱턴=南濱淳】北 韓과 美國은 제네바 고위급회담 이후 처음으로 25일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양측 간의 전문가회담의 문 제를 협의 했으나 이 회의의 장 소나 시기 등 구체적 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 를 보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회담의 한국측 대표단은 23일(수)의 北 韓산 고위급회담을 위한 전문가회담의 개최에 합의했으나 회의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이 회의를 통해 실무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접근점을 찾는다고 전했다.

美北 전문가회담의 4개 분야 쟁점된가

북한과 미국은 내달 초 경수로 지원, 폐연료봉 처리, 연료사루소 설치, 대테러 방지 제정 등 4개 분야 전문가회담을 개최, 北 韓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인 접근점을 협의할 예정이다. 전문가회담은 27일부터 4개 분야 곳곳에 걸친 논의가 산재해 난항이 예상된다.

△경수로 지원=경수로 기증, 건설시기, 유무상환 재정지원방식, 참여국, 부속의 안전장치 등의 쟁점이 예상된다. 韓-美 양국이 경수로 기증한 한미양국이 도하기로 입을 맞추어 놓고 있다. 북한이 여전히 한국보다도 러시아와 협조하고 있다. 북한이 다만 지난번 제네바 고위급회담에서 경수로 기증의 미분담에 동의할 수 있다. △연료봉 처리=27일 중양을 통해 한미 양국 정부 간의 거부감은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번 전문가회담에서 다시 협상카드로 러시아 협력을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폐연료봉 처리=북한은 특별시찰을 이유로 진두 경수로 지원에 착수할 예정이다.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 특별시찰을 연계시키는 것을 양국이 반대하고 있다. △대테러 방지=韓-美 양국이 북한 이 연료봉 경수로를 수용한다 해도 약 40명 정도 (5002천명)의 탈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자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북한에 미국이 연료봉 건설을 위한 시설을 건설할 경우 북한이

「경수로機種」 선정 최대難題

다른 보상차원에서 경수로 건설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경수로에 대한 요구는 결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료사루소 설치=북한과 미국은 연료사루소의 명칭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를 외교대표부라 부른다. 명칭은 어떻게 되든 연료사루소라는 개념은 동일하다. 따라서 북한이

개선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미국은 연료사루소라는 명칭이 북한측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로 논의해 핵문제 해결전 속속도와 관계없이 北 美관계개선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도 사루소 건설 시기, 연료봉의 위상문제 등 구체적인 실질적인

보관시한 연장 異見 못 좁혀 北, 핵연계없이 先논의 요구 軍需우려...美, 원유공급 꺼려

연료사루소
대체에너지

수도건설 지원은 국제적 소기업 형태로 추진될 것이 확실시된다. 여기에 어느 국가가 참여할지 미정인 상태다.
△폐연료봉 처리=이 문제는 2단계로 나눠야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1단계 회의는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저변 연료봉의 보관시한을 연장하는 방법의 초점을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핵 전문가들을 형지의 관해 협의는 주로 보관 방법 상 문제를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미국 핵 전문가들의 협조요구의 단계를 표하고 있다.
2단계 회의에서는 폐연료봉을 건설보관하느냐 등 영구적인 안전장치를 취하느냐 문제가 부각된다. 미국이 건설보관과 함께 폐연료봉을 제3국의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그러나 폐연료봉의 제3국에 인도되면 건설보관자들이 이를 정밀조사해 북한의 과거 핵

행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심의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회담의에서도 연료사루소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예외적인 내용만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연료사루소를 여타 핵안과 연계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다. 연료사루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핵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심의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전문가회담의에서도 연료사루소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예외적인 내용만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이 연료사루소를 여타 핵안과 연계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다. 연료사루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北, 「韓國型경수로」 거부

중앙통신 공식표명 "애초부터 고려안해"

특별사찰연계 강력비난

北·美 후속회담등 파장예상

【서울 27일 특파원 보도】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특별사찰이 북한의 핵실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미 후속회담이 예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미국이 핵실험을 강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미국이 핵실험을 강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북·미 후속회담이 예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측은 핵실험을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별사찰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미국이 핵실험을 강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북·미 후속회담이 예정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양측은 핵실험을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北 핵문제 강경선회조집

「인민」 핵실험수리 거부 배경

북한은 핵실험수리 수동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실험수리는 핵실험 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지 핵실험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실험수리를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실험을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실험수리 수동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실험수리는 핵실험 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지 핵실험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실험수리를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실험을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4. 8. 28

북한은 핵실험수리 수동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실험수리는 핵실험 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지 핵실험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실험수리를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실험을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실험수리 수동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실험수리는 핵실험 후의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지 핵실험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실험수리를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핵실험을 전제로 한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선정 안되면 北경수로지원 불참

北「거부」에 강경대응 政府

美에 “투명성” 확보 뒤 관계 개선” 요청

【서울 28일路透電】북한이 미국과 체결한 경수로 지원 협정에 대해 “한국형”을 선정하지 않으면 지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는 “투명성” 확보 후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협정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7월 미국과 체결한 경수로 지원 협정에 대해 “한국형”을 선정하지 않으면 지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확보 후 관계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1994. 8. 30

美 “北거부는 협상용.. 「한국형」不變”

「輕水爐」美·日·러 입장

【서울 28일路透電】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한국형”을 선정하지 않으면 지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輕水爐”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輕水爐”를 지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輕水爐”를 지원할 수 없다. 러시아 정부는 “輕水爐”를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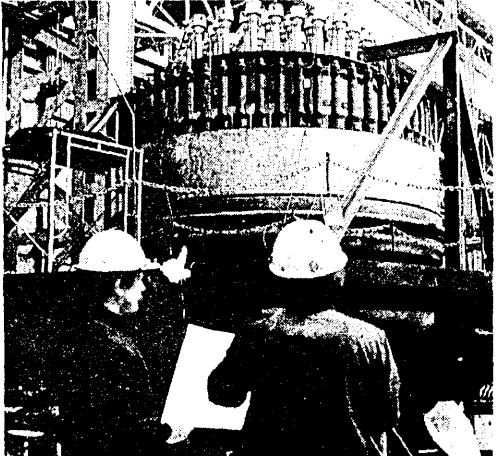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협정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型 安全등 문제: “不可” 日 主導權 천명 “北도 「러製」 동의” 러

【서울 28일路透電】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型”을 선정하지 않으면 지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不可”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型”을 지원할 수 없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型”을 지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型”을 지원할 수 없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북한은 협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협정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까지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日등은 북한이 對美협상과 강화의 목적으로 최근 한국형 경수로 지원거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月城에 건설중인 한국형 원자로 일부.

美·北 전문가회담 개최 진동

「연료봉」 실무협상 異見

美 "구체조치 있어야 관계개선"

북한 핵문제와 美·北 관계 개선 및 영구적으로 지원 문제 등을 협의키 위한 美·北 전문가회담의 개최와 관련해, 북한은 핵 연료봉 교환, 북한은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美측은 실무협상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美·北 양측의 수교에서 개최되기까지 20일 앞

러졌다. 서울의 한 고위 소식통은 29일 "북한은金正日 대통령의 초기 선포를 미국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서는 美·北 관계 개선 실무협상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전문가회담이 美·北 양측의 수교에서 개최되기까지 20일 앞

나,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과 美·北 관계 개선 문제가 동시에 다뤄질 수 없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교를 위한 美·北 실무협상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20일 우여의 핵안정협상상의 불일

치를 해소하려면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실질적인 이행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美측은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20일 우여의 핵안정협상상의 불일

〈朴斗植 洪錫後기자〉

▽세계일보 1994. 8. 31

“輕水爐종류 결정된바 없다”

美 국무부 내달 美·北 회담서 특정國배제 여부 논의 시사

전문가회담場所 계속 협의중

【워싱턴=申相(申) 특파원】 미국의 기술이 제공될 것 대한 논의가 아직 정례브리핑 미국 정부는 29일 북한의 인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서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결정된 바 없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내달 美·北 회담에서 특정國배제 여부 논의의 시사를 시사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중앙일보 1994. 8. 31

「전문가 회담」 일정 합의

北 美 「구체조치」 합의

【서울=申(申) 특파원】 北 美 「구체조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29일 북한과 美측 전문가회담이 합의했다.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중앙일보 1994. 8. 31

“특별사찰不可” 재천명

가오덴 핵해결원칙이냐

北 孫成弼대사

【서울=申(申) 특파원】 北 孫成弼대사(孫成弼)가 29일 북한에서 특별사찰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이 23일 북한의 핵 연료봉 교환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부의 마이클 매커리

Ⅱ.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3. 平壤・베를린 專門家會議 開催

北-美 10일 전문가회의

미국무부 平壤·베를린서 동시 개최

▽한겨레신문 1994. 9. 1

□ '북-미 회담' 한국 강경파와 미국 시각

워싱턴 / 정연주 특파원

제네바 고위회담에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된 뒤 한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거친 비판이 담긴 강경기류가 휘몰아쳤다. 강경기류를 몰고 온 비판의 쟁점들은 △제네바 합의 성명에 북한의 핵과거의 투명성을 확보해주는 특별사찰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북한과 정상화 길을 나가고 있다는 점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너무 소외되었다는 점 등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보수적 언

며 △북한이 경수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핵안전협정 준수국이라는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핵 투명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30일 본지가 전화회전한 북한 외 한 고위 외교관도 북한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이 이런 문제 해결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외교관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 핵과거의 투명성 확보가 북-미 사이의 단계적 일괄타결 협상의 마지막

북대화를 북-미 고위회담에 연결시키려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언론과 일부 김영삼 대통령 보좌관들의 "북-미 관계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북-미 협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무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난 7월8일 첫 3단계 고위회담 때 북한에 대해 두 나라 관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

"대화의지 있나" 남쪽에 의심

감정적 대응 "어처구니 없다"

론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강경 분위기는 뚜렷한 비전 없이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영삼 대통령과 정종욱 외교안보 수석 등 주변 보좌관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내 분위기를 보아 온 미 정부 관리들의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고 어이없다는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내의 비판이 실제 사실과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다분히 감정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제네바 합의성명에서 비록 특별사찰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의 이행이라는 합의에는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핵 투명성을 밝히기 위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

막 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며, 북한은 그러한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미국도 북한의 이러한 입장을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기에 한국 정부가 지금 굽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일에 고깝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미국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한국 정부가 다시 남북대화를 강조하고 나선 점이라고 워싱턴의 분석가들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가 남북 특사교관을 3단계 고위회담 전제조건으로 강요함으로써 3단계 고위회담 개최가 난항을 겪었던 사실을 경험한 바 있으며, 그래서 이제 북-미간 기본틀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려 하는 마당에 다시 남

북은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국은 한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그러한 기본틀에 따라 북한과 협상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청와대의 일부 핵심 보좌관들이 지나치게 한국 내부 정치용으로 북-미 회담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현재 미국 관리들이 가장 우려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과연 한국 정부가 북-미 고위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미국이 천천히 가면 빨리 가지 않는다고 보치고, 빨리 가면 천천히 가지 않는다고 보쳐왔다"는 시각이 미 관리들 사이에 광배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平壤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베를린

핵연료봉 처리 등 다뤄

【워싱턴=중앙일보특파원】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3단계 고위회담 합의에 따라 구성될 전문가회의를 ▲平壤·워싱턴에서 각각 개최했다.

【워싱턴=중앙일보특파원】 개설될 ▲핵기술전문가회의는 2개팀으로 나뉘어 10일부터 각각 평양과 베를린에서 열기로 공조 합의했다.

미국무부는 지난달 27일 발표문을 통해 ▲평양에서 핵연료봉 처리 등 2개 전문가회의를 각각 9월 10일부터 평양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 전문가회의는 ▲연료봉 처리 등 2개 무수할 개설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며

베를린 전문가회의는 ▲정수원전설 지원 ▲대체에너지 지원 ▲평화 5W 원자로에서 매년 폐연료봉의 보관·처리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 전문가회의는 평양과 베를린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물을 오는 23일에 재개될 북-미 3단계회담 2차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문가회의 각각 미·북한이 실무자 5~6명 이내로 구성되며 1차 전문가회의는 9월 10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식통들의 당초 예상인 ▲美北관계 개선

▲정수원 건설 및 대체에너지 지원 ▲폐연료봉 처리 등 3~4개팀으로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였으나 人的 구성을 조정하였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핵기술전문가회의팀이 1팀만 열렸다고 전했다.

北-美 관계개선 門 열릴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루리樹樹)

서울신문 1994. 9. 3

核 해결돼야 연락사무소 결정

白雲館 "기정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서울=연합통신】 미국의 개입을 꺼리는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이 먼저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을 꺼리는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이 먼저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을 꺼리는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이 먼저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이 먼저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을 꺼리는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이 먼저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개입을 꺼리는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이 먼저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회담」 이미와 전망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전문가회담」이 열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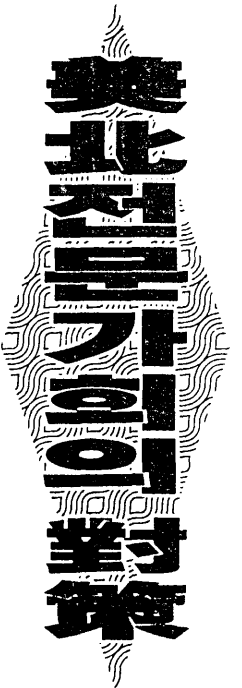
美, 北韓을 외교상대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

「과거核」 하지부지맨 韓·美마찰 가능성

美정부대표 平壤과 전 처음... 성과는 미지수

미국은 북한을 외교상대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核」 하지부지맨 韓·美마찰 가능성... 미국은 북한을 외교상대로 공식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美-北관계 「속도」우려



평양개최 신진 가능성

주미외교관의 평양사무소 (liaison office) 개설이 10월 중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대북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미국의 국제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대북 외교 강화로 북전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다.

북한이 美-北관계개선에 있어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를 미국이 평가하고 있다. 「美」는 북전술의 관제개선을 위한 대북 외교 강화로 북전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다.

『美-北관계개선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는 않나?』 『북전술 강화로 대북 외교 강화...』 북전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전망이다.

▽서울신문 1994. 9. 4

북전술 파악 등 韓美공조 강화 南北대화 우선여부엔 異見도

연락사무소 설치 등 북한은 대미정책을 세우겠다고 대담한 것이므로 신중하다. 정부에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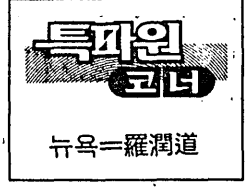
하반기에 23일 美北 해약 하느냐는 전술차원의 3단계 2차회의를 앞두고 특이한 무채색의 대한 韓美 공조를 화살의 다져 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특별사절 한류전진수용을 둘러싸고 南北이 신중함을 보인다. 후북한이 한류전진 美北관 계개선을 바탕으로 假想敵 국가선언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아니라 현실적에서 南北대화가 꼭 우선시

나 2개의 한류전진수용을 인할 것이냐가 북전술의 목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든 그 근간을 하 다수부문을 하더라도 南北대화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南北대화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南北대화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韓美공조수용을 둘러싸고 南北이 신중함을 보인다. 후북한이 한류전진 美北관 계개선을 바탕으로 假想敵 국가선언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아니라 현실적에서 南北대화가 꼭 우선시

이런 전술차원의 韓美공조 강화는 南北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南北대화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南北대화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平壤층의 골짜기는 불린턴외교



이런 10월 중 韓美공조수용을 둘러싸고 南北이 신중함을 보인다. 후북한이 한류전진 美北관 계개선을 바탕으로 假想敵 국가선언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아니라 현실적에서 南北대화가 꼭 우선시

이런 전술차원의 韓美공조 강화는 南北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南北대화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南北대화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다.

北-美 平壤전문가회담 「기술적議題」만 논의

백악관 대변인 核관련 협상권 없어

연락사무소開設여부결정안할것

【워싱턴=남북뉴스】미국은 11일 조선중앙통신과 합의한 북-미 평壤전문가회담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대변인은 회담이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회담이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회담이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기술적 주제」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회담이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회담이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北、美와 평壤회담정무목적화

10일 회담때 韓 國배제... 中國에 지원요청

【北京=朴勝俊기자】北 韓은 10일 평壤에서 美 國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北 韓은 10일 평壤에서 美 國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北 韓은 10일 평壤에서 美 國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北 美회담 중재 역할 송민모 카타르 영장 27~28일

【워싱턴=북한】 지난 6일 북 韓은 평壤에서 美 國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北 韓은 10일 평壤에서 美 國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北 韓은 10일 평壤에서 美 國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北 韓은 10일 평壤에서 美 國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美, 北과 평壤회담 7월 중 시작인 듯

【워싱턴=북한】 美 國은 7월 중 평壤에서 北 韓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美 國은 7월 중 평壤에서 北 韓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美 國은 7월 중 평壤에서 北 韓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美 國은 7월 중 평壤에서 北 韓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美 國은 7월 중 평壤에서 北 韓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美 國은 7월 중 평壤에서 北 韓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은 핵 관련 협상권 없이 기술적 주제에 국한될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北韓의 무장정변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北「평화협정카드」새外交공방

對美-日협상 北韓의 철저배제 거당 駐韓미군철수도 연구가 능성 높아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南北韓이 해결주체 「核」연계 차단 美北논리 동조아니려 韓美공조 강화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中전략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등거리」표명속 「北편들기」 韓國반발 고려 「정전협정 유효」해명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核」타결 장애될까 더 신경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美전략

北韓의 무장정변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이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각은 9월 4일 오후 10시경 평양에서 무장정변을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북한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美, 특별사찰관첩 입장불변

갈루치차관보 北내부사정고려 즉시요구 안해

과거 핵규명반드시 필요

美-北 합의문 査察수락·非核化 이행 명시

【워싱턴=연합】북미 합의문 채택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은 특별사찰관첩의 북측 입장 불변을 시사하고 있다. 갈루치 차관보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미국은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특별사찰관첩의 북측 입장을 불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994. 9. 9

갈루치 미국무부 차관보 북한전담 특명대사 승격

【도쿄=김효순 특파원】미 국무부는 북한 핵문제를 담당해온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를 북한문제 전담 특명대사로 승격시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서울신문 1994. 9. 5

IAEA 회의 언급 개마

【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가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4억 달러의 회의를 위한 예산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국제원자력기구(IAEA)가 5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4억 달러의 회의를 위한 예산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4. 9. 10

北美회담 앞둔 시점 발언 주목

【베를린=연합】연합은 미국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특별사찰관첩이 9일 갈루치 국무차관보에게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반도非核化 관철 경수로 北수용방안 모색

美국방 "北核에 타협없다"

【연합】연합은 미국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특별사찰관첩이 9일 갈루치 국무차관보에게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갈루치 차관보는 "특별사찰관첩은 1994년 9월 10일 워싱턴에서 합의문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北-美 平壤·베를린서 전문가회의

▽한국일보 1994. 9. 9

【서울=정】북한이 8일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우를 단장으로 하는 3단계 북-미 전문가회의를 평壤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평壤에서 10일 열리는 평壤과 베를린에서의 북-미 전문가회의는 전문가회의라는 말 그대로 '정치협상'이 아니다. 오는 23일 재개되는 3단계회담 2차회의에 대비한 예비협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디디 마이어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평壤회의는 "연락사무소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이 거의 이뤄졌을 경우에 대비해 장래의 사무실 공간 임대 가능성 및 전화·우편 서비스의 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의 준비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술적인 회담"이다.

미국측 대표단의 구성에서도 그

北, 「평화협정」 합의 요구

연락사무소 조건·통신노선의 평壤 경수로 지원·廢연료봉 다뤄

美國과 北韓은 제네바 회의를 10일 평壤과 베를린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양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및 핵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측 대표단은 평壤에서 북한측 대표단과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은 제네바 회의를 10일 평壤과 베를린에서 동시에 시작한다. 양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및 핵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측 대표단은 평壤에서 북한측 대표단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겨레신문 1994. 9. 10

3단계 2차회의 대비한 예비협상

평양회의 연락사무소결정 앞서 임대여건등 현황파악
베를린회의 미 대표단 핵전문가·북한측은 경제통 눈길

강태호 기자

지난 8월12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3단계회담의 합의에 따라 10일 열리는 평壤과 베를린에서의 북-미 전문가회의는 전문가회의라는 말 그대로 '정치협상'이 아니다. 오는 23일 재개되는 3단계회담 2차회의에 대비한 예비협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디디 마이어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평壤회의는 "연락사무소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결정이 거의 이뤄졌을 경우에 대비해 장래의 사무실 공간 임대 가능성 및 전화·우편 서비스의 개설 등과 관련한 사항의 준비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술적인 회담"이다.

미국측 대표단의 구성에서도 그

런 측면은 드러난다. 평壤회의와 베를린회의의 미국 대표단장인 린 터크, 게리 시모는 각각 국무부 한국과와 핵확산방지담당국의 부과장급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와 관련해서 두가지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양측의 대표단 구성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베를린회의의 경우 미국은 핵확산 방지를 담당하는 핵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한 데 반해, 북한은 경제통인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했다.

김정우 부위원장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의 추진 창구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을 만큼 북한 대외개방정책의 핵심 실무책임자이다. 이는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을 중시하는 북한의 자세

이외에 북한이 핵문제를 대외개방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미국은 방사화확실험실의 폐쇄, 건설중인 핵연료봉 원자로의 건설 동결을 비롯해, 사용후 핵연료봉의 안전한 폐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 평壤에서의 연락사무소 설치 논의가 갖는 의미다.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무실 임대를 위한 주택사정, 의료실태, 전화·통신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평양의 전문가회의는 미국 관리들이 직접 평壤을 방문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미국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평壤과 베를린의 전문가회의는 핵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개선이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진행의 구도로 가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현재 베를린회의는 경수로 전환을 위한 기술적 정보교환, 대체에너지 지원을 위한 관련자료의 교환수집, 사용후 연료봉의 보관처리방안 등 부문별로 세차례의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평壤회의는 3박4일이라는 체류기간만고는 알려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내용도 당분간 베일에 가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베를린회의 장소 북한 이익대표부 어떤곳인가 통독뒤 설치...비자발급등 외교창구 역할

북한과 미국이 10일 전문가회의를 시작하는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는 독일 통일 뒤 북한과 독일의 외교관계가 끊어진 뒤 옛동독 주재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새로 설치된 일종의 외교창구로서 베를린시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권사무소'가 정식 명칭인 이익대표부는

공식적으로는 중국대사관 부속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익대표부는 비자발급, 무역 및 투자촉진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이익대표부 요원들은 외교관으로서 신분상 특권을 갖고 있다. 베를린에는 유럽과 평壤을 연결하는 북한의 고려항공 직항로가 취항하고 있다.

베를린/연합

한 북한대표부의 회의...
미국측 대표단은 평壤에서 북한측 대표단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측 대표단은 평壤에서 북한측 대표단과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측 대표단은 평壤에서 북한측 대표단과 회담할 예정이다.

美-北 베를린전문가회의 "政策차원 협상 없을것"

진행사항-토의내용 비공개

平壤선연락사무소개설 집중논의

北수락할경우수료案 모색 訪獨페리대표

【베를린 10일 연합뉴스】5명의 미대표단이 이날 평壤의 도청, 평壤 위신련 연락사무소개설에 대비한 사무소 임대, 우편-전화의 송수신, 기술-문체협력을 위한 실용협의를 논의했다. 평壤전문가회의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미주정부대표의 북한 방문은 이번 베를린회의가 실무협상을 위한 토의차원이다. 한미 양국은 평壤 위신련 주재 부한인대표부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한결수료교체△대체역사지 지원△사출범위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미주정부 지원협(미주정부 지원협)은 이번 베를린회의가 실무협상을 위한 토의차원이다. 한미 양국은 평壤 위신련 주재 부한인대표부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에서 한결수료교체△대체역사지 지원△사출범위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10명과 金政수 북한대표의 정 12,13일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회의의 진행상황과 결은 토 하가 북한대표단의 과가 일체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北-美전문가회의와 관련, 올린업 페리 미주정부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방안을 찾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非核化라는 미국의 정책목표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8일 베를린의 워싱턴 金政수 북한대표단장은 "이번 회의는 실무협상을 위한 결수로 지원부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IAEA 사찰범위 확대

영변 잔류要員에 밝혀 核동결의사 과시인듯

【東京 11일 연합뉴스】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

【東京 11일 연합뉴스】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

【東京 11일 연합뉴스】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

【東京 11일 연합뉴스】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

【東京 11일 연합뉴스】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요

의중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두갈래 접촉... 의견접근 미지수

11일 평양에서 열릴 北美전담회의 주요쟁점은 크게 양국간 연락사무소 설치,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남북대화 재개문제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해 네바다주 고위급 2차

壤점 평쟁점

회담에서 연락사무소의 상호교환설치를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설치시기와 이에 따른 재방문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의 쟁점이 남아있다.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평화협정의 제 채택 논란일뿐 北, 연락사무소時機 논의 고집맨 마찰

미국측은 또 韓淸洲의무를 北美관계개선의 본격적 잠판의 원순환 발판으로서 시를 앞당기는 신호로 선전 부관계에서 적절한 속도조절을 약속한 바 있어 일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을 때에만 가하자는 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기문제보다는 개설에 대한 비핵사무소 입주건물의 규모나 임대조건, 통신방법, 사무소지인 및 가옥을 점보수집 및 행정과에 의 속도와 의료지원 등 편의시설을 제공을 협의할 방침이다.

북한은 평양전담회의

다. 따라서 북한은 설치에 따른 부대조건보다는 시기 문제를 집중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설치 시기가 갖는 국내의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기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막으려 北美회의

베를린 전담회의의 제는 전수부 전담회의, 페르도르의 안전보과과차분, 대체에너지재무제 등 3가지이다. 이 3가지는 지난달 열린 제네바 北美고위급회담에서 정해진 것이므로 당시 해결할 수 없



고 합의하는 것은 현재 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평양 전담회의에 참가할 미국측 대표단이 10일 하도 北京로 향할 예정이다.

【北京 11일 韓】

본이다.

양측은 단지 대체에너지 제공문제에서 가장 쉽게 의견차이를 볼 가능성이 있다. 화력발전소 건설지원, 핵무기 종전, 노후 전력시설의 보수 등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해결과점에서 가

베를린 점 쟁점

문가회의로 넘겨졌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물론 북한한전의 전수부 전담회의다. 미국의 지원부채다. 지난달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었다. 2천MW 규모의 전수부 전담회의를 지원한다. 양측은 이 무것도 결정하지 못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전수부 전담회의의 실행이다. 부

이 문제가 北美간 장기협 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에서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러시아의이나 독일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며 美측은 韓美양측을 고려, 핵무기의 실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수부 전담회의 실행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가장

이다.

페르도르의 처리문제도 대해서는 확실한 약속을 유보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영구폐기 방식에 합의해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국의 사안이다. 북한은 대체에너지재무제, 노후 전력시설의 보수 등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해결과점에서 가

경수로로 쉼 · 지원방식 힘겨루기 核과거 투명성관련 5MW원자로 새불씨

북한은 이미 이 달 초 宋浩京의교부副部长을 북경에 보내 정전위의 나와 있는 중국군을 철수시키고 평화단정체 수립을 위한 지지를 받아 내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 평화협정체결 공세를 펼칠 방침을 밝혔다.

이와해 로버트 갈블러 美 국무부 차관보는 「北美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장의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평화협정의 의제 채택 여부를 서부터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우린정부는 미국정부측에 평화협정(1)을 발표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므로 제2(2)는 전담회의의 해결과고 양측해결을 상한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이 우린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北美관계개선에 유익한 남북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北美간 정전만 논의하자고 거부할 경우 미국의 남북대화 재개부제를 연락사무소 개설과 연계, 절충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11 李相石 특파원】

비공개... 구체내용 "안개속" 안개속

평양이외이

美北京서 비자발안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美北京전문가회의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어떻게 진행되나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어제 入北... 본국통신방범고심

美, 연락사무소 대비한 현행과악주력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보고서작성회의... "會見없을것"

北, 「獨경수로」 미끼 「對獨외교」도 계산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북정권내부이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10일 평양과 베를린에서 동시에 시작된 미국과 북한과의 전문가 회의에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은 첫날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보안」에 힘을 쏟아 협의내용은 추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를 다룰 평양회의는 미정부관리가 북한정권 수립이후 처음으로 「적성국」을 공식방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美측의 「사전준비」도 관심사가 되고있다.

美,北京에서 예상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11월 10일 평양 특보】 미 행정부 관리가 평양의 비공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데이비드 카터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카터는 평양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갈루치 對北정책 세미나 일문일답

美·북외교회담의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가 국무차관보인 9일 카네기평화재단의 '글로벌정책' 회의에 참가해, 이 자리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는 9일 카네기평화재단에서 '글로벌정책' 회의에 참가해, 이 자리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핵안전조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 회의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의 '대북한정책'은 '대북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韓·美 北核 대응 공조 체제 변함없다
核 해결돼야 「연락사무소」 상호개설

제네바에서 수개월 미·북외교회담이 임박하고 북한과의 핵협상을 앞두고 갈루치의 발언이 주목된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 회의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과정이 수개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 회의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북한정책'은 '대북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특별사찰 연기할 수도

갈루치, 조만간 서방을 방문할 가능성 있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 회의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 조만간 서방을 방문할 가능성 있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 회의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 조만간 서방을 방문할 가능성 있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 회의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갈루치, 조만간 서방을 방문할 가능성 있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 회의에서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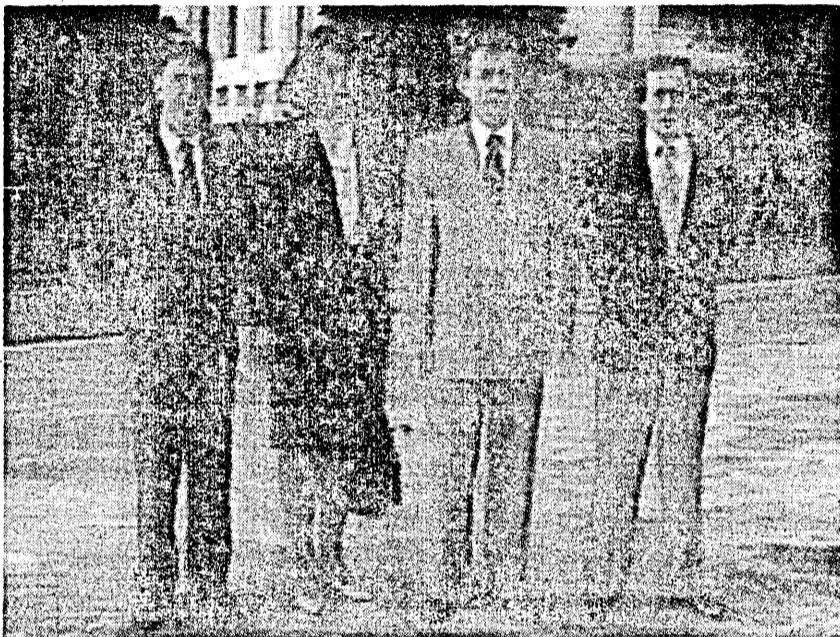
경수로 제공, 자금조달할 계획

우리의 '대북한정책'은 '대북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대북한정책'은 '대북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의 '대북한정책'은 '대북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갈루치는 '대북한정책'에 대해 갈루치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형輕水爐외엔 代案없다" 美, 기본입장 北에 통보



美정부관리로는 사상 처음으로 美-北 연 락사무소 문제등을 협의키 위해 入北한 린 터크 국무부 한국과 副과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대표단 일행이 평양시 가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V촬영>

"韓國조차도 안될뎌 지원不能"

獨逸型 재원조달 어려워 논의로

베를린전문가회담 오늘 2차회의

【보통인=연합】미국과 북한은 10일 베를린에서 베를린에 서 상공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담을 마친 후 10일 북

경수로 지원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상대측 입장인 대한 세부 검토조달을 위한 12일 美대사관 베를린 본관에서 2차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끝난 뒤 양 측은 상공연락사무소 건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협의했다. 그러나 상공연락사무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다.

우북한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상대측 입장인 대한 세부 검토조달을 위한 12일 美대사관 베를린 본관에서 2차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지원△대체에너지 제공△ 폐연료봉 처리문제중 주로 경수로지원과 관련된 세부 입장과 기술적 사항들을 교환·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끝난 뒤 양 측은 상공연락사무소 건설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협의했다. 그러나 상공연락사무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다.

【조흥철】北韓은 11일 북 회와 美國간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담이 10일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회담은 양측간 외교 관계 수습을 위한 첫조치로 평가된다. 이 회담은 양측간 외교 관계 수습을 위한 첫조치로 평가된다. 이 회담은 양측간 외교 관계 수습을 위한 첫조치로 평가된다.

平壤회담이 판교 북핵협상중

이 회담은 양측간 외교 관계 수습을 위한 첫조치로 평가된다. 이 회담은 양측간 외교 관계 수습을 위한 첫조치로 평가된다.

「輕水爐」 상당한 의견조율 시사

北·美 베를린 전문가회의 분석

베를린 北·美 전문가회의의 첫 회의에서 北·美 전문가들은 輕水爐를 건설하는 데 있어 北·美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조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北·美 양측의 전문가들은 輕水爐의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적 영향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는 10일에서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北·美 양측의 전문가들은 輕水爐의 안전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北·美 양측의 전문가들은 輕水爐의 안전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北·美 양측의 전문가들은 輕水爐의 안전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美 「財源난점」 들어 한국형 설비 양쪽 "유익" : 北 새 제안 없었더라

北·美 양측의 전문가들은 輕水爐의 안전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北·美 양측의 전문가들은 輕水爐의 안전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北·美 양측의 전문가들은 輕水爐의 안전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美 「財源난점」 들어 한국형 설비 양쪽 "유익" : 北 새 제안 없었더라



△北·美 전문가회의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게리 세이모어(右)가 10일 북한이 대표부를 나서며 김정우 북측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베를린 AP=연합]

특이점 경수로

佛社와 합작... 해외 판매 통제

韓國型보다 50% 비싸

佛社와 합작... 해외 판매 통제

韓國型보다 50% 비싸

佛社와 합작... 해외 판매 통제

北 「輕水爐」 제안

北 「輕水爐」 제안

北 「輕水爐」 제안

「輕水爐」 안전성 확보... 이번

이제 초보수준 포함 「크게 진행되었다」 판단

포괄적 관계 개선에 포함 주장 核연계 노력

이제 초보수준 포함 「크게 진행되었다」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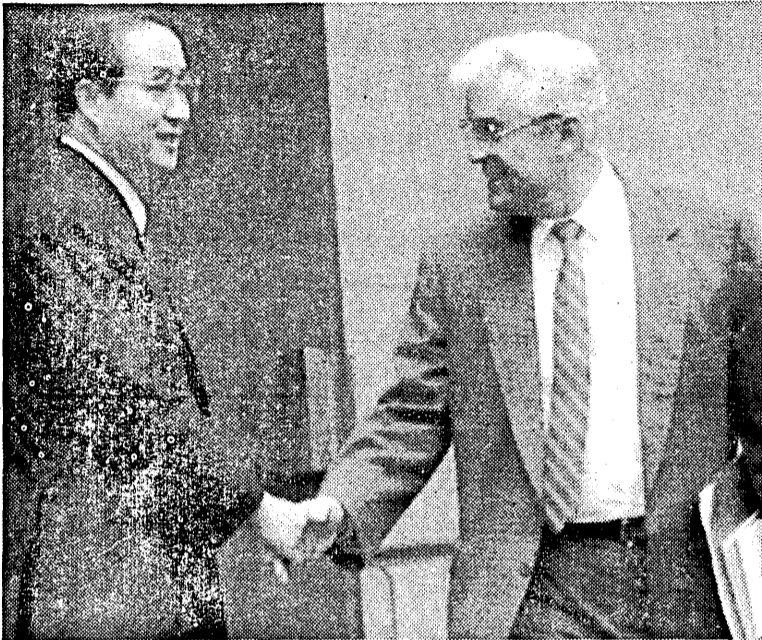
포괄적 관계 개선에 포함 주장 核연계 노력

北核진척맞춰 美-北관계 調律

「平壤회의」계기 관계개선「속도」에 관심

북한과 미국의 연립 사무소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 北美관계개선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관이 평양에 들어가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첫 자제가 관계개선 전담의 첫발인 것이다.

미국의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평」인만큼 가파른 북-북한측에 이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 평양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라고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놓고



◇金정우 북한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의 대표부에서 北-美核전문가회의를 마치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미국 대표와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베를린=AP특약>

美대표訪北 자체 "큰 진전" 의미 會談성과따라 「교류」빨라질수도

줄다리를 밟을 것이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이란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평양전문가회의를 거쳐 23일 재개되는 2차고위급회담에서 北核문제를 안전타협점을 겨냥해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에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에 본질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개선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맞물려 남북관계 개선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韓美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전망이 가시적 안이 들어오는 등 시의 남 북대화들이 재개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평 양 워싱턴간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 발진이기 때문

이다. 미국의 이번 평양전문가 회의에서도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본질화 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의틀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확실하게 「단」해 놓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연립 사무소를 언제 개선프로그램 추진 안을 승인내 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미국은 韓美 양국간의 미국 방문을 통해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도출해내고 있다. 韓美 양국의 방사화합실현을 꾀해

北美관계개선의 맞추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韓美 양국은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 추진이 본질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비핵화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등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부안을 갖고 있다. 韓美 양국은 그렇지만 남북대화를 北美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

결과의 과반한 실무적인 준비절차를 협의하려 하고 있다. 워싱턴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 북한의 입장인 것이다. 북한의 입장인 것이다. 북한의 입장인 것이다.

미국의 따라서 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기초였다. 이는 北美관계개선이 미국측의 판단에 따라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빨라질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韓美 양국의 이와 함께

북한이 핵개발 동력을 보장하고 남북대화를 나 서겠다는 약속만 한 상태에서도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것이다. 연립사무소 개선프로그램을 위한 연립사무소의 北美 연립관들의 평양과 워싱턴의 교차 파견될 수 있는 것이다. <柳契然기자>

北核 동상사찰 새달 재개 추진

韓·美 北 NPT 조기복귀 유도

▽서울신문 1994. 9. 12

「경수로지원」보장과 병행

정부, 15일 갈루치 訪韓대 공조전략 조율

오늘 - AEA 이사 회기도 복귀 촉구 할 듯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핵의 NPT 복귀선언을 촉구하며, 미국과 북한의 연합사찰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추진 착수 및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 지원의 무조건적 철회를 북한이 탈퇴 여부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핵산공정협약(ZNA)의 완전복귀를 전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갈루치와 양측 부두나란의 이와 함께 부

한국의 NPT 복귀선언을 촉구하며, 미국과 북한의 연합사찰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추진 착수 및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 지원의 무조건적 철회를 북한이 탈퇴 여부 결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핵산공정협약(ZNA)의 완전복귀를 전제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갈루치와 양측 부두나란의 이와 함께 부

2차 회의를 15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갈루치 부통령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AEA 이사 회에서 이같은 취지를 밝힌다. 갈루치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AEA 이사 회에서 이같은 취지를 밝힌다.

〈종합기자〉

카메라 감시·봉인 확인이 고착

평壤의 핵 동상사찰을 위한 카메라 감시·봉인 확인이 고착되고 있다. IAEA는 북한이 핵 동상사찰을 위한 카메라 감시·봉인 확인을 실시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지원의 무조건적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은 핵 동상사찰을 위한 카메라 감시·봉인 확인을 실시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지원의 무조건적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2차 회의를 15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갈루치 부통령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AEA 이사 회에서 이같은 취지를 밝힌다. 갈루치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AEA 이사 회에서 이같은 취지를 밝힌다.

北核사찰 지금 어떻게 하고있나

NPT 탈퇴후 IAEA 2명이 업무대행
신고시설 16곳중 9곳 임시·통상사찰 못해
전문가, 10월초 사찰 필요성 제기...北 NPT 복귀가 관건

과거 평壤을 위한 특별사찰 계획의 기원은 1992년 10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5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7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10월 13일 평壤에서 열린 6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IAEA는 북한이 핵 동상사찰을 위한 카메라 감시·봉인 확인을 실시할 경우,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지원의 무조건적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오랫동안 IAEA 이사 회에서 이같은 취지를 밝힌다. 갈루치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AEA 이사 회에서 이같은 취지를 밝힌다.

모든 査察 IAEA 소관으로

원판 드러나는 「核투명성」 구명 3 단계

北美전문가회의를 계기로 하고 있는 3단계 북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3일 北美 전문가 회의에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3일 北美 전문가 회의에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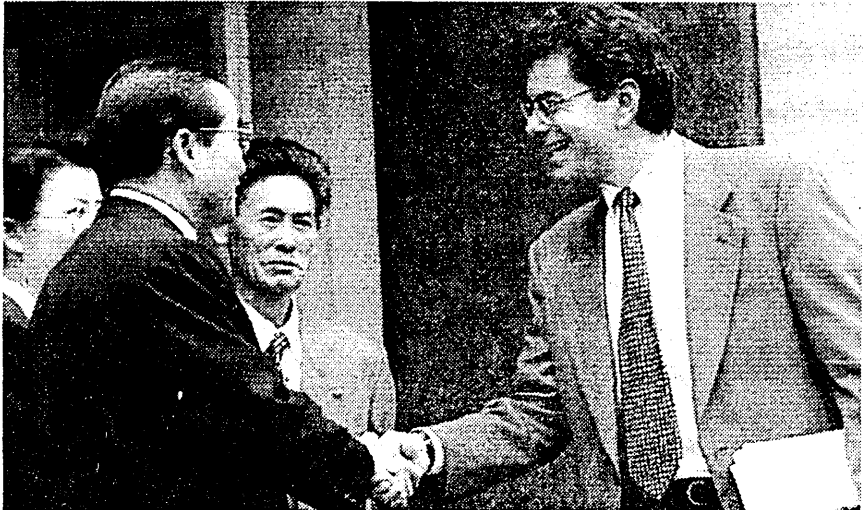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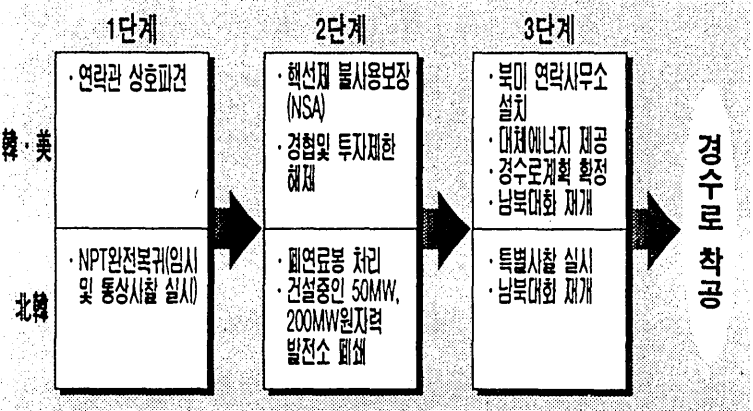
북한은 10일 평壤, 백두산에서 열린 北美전문가회의를 계기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3일 北美 전문가 회의에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NPT 완전복귀해야 연락사무소 설치 韓美 특별사찰 실시는 輕水爐착공 전후로

北美전문가회의를 계기로 하고 있는 3단계 북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3일 北美 전문가 회의에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10일 평壤, 백두산에서 열린 北美전문가회의를 계기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3일 北美 전문가 회의에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3단계 핵투명 확보 계획



10일 베를린 北韓 이인대대표부에서 北美전문가회의 첫날 회의록을 마친 후의 김대중 대표부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이인대 대표부의 김세모 부대표가 지음비핵화 장관인 김대중과 악수하고 있다. [베를린 AP=합]

北美전문가회의를 계기로 하고 있는 3단계 북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3일 北美 전문가 회의에서 3단계 핵투명성 확보 계획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美 경수로 「제3의 代案」 밝혀

“北서 「韓國型」 끝내 拒否경우 한국業體가 컨소시엄 주도”

「명분」 대신 「實利」 추구가 가능성 언질

재정부 응답 대통령 親書도 희망

政府 “최대지분 美모장맨 應통성”

미국은 북한이 韓國型 경수로 채택을 끝내 거부할 경우 한국업체가 對北 컨소시엄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최대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美國型 경수로 등 제3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최근 미국을 방문한 韓昇洲의무장관의 기자회견에서 12일 밝혔다.

한류정부간 이에 대해 40여달만에 발하는 경수로 건설비용은 대부분을 親書형식으로 표시해주기를 최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오전 李洪九통일부총리 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韓昇洲의 訪美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경수로 지원부채등의 관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간 「한류형」 경수로가 선점될 경우 그 비용 부담대가로 한국업체 참여비율을 80%를 웃돌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형 경수로 등 제3의 대안이 채택되더라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따라서 한국의 한류형 경수로라는 명분을 포기하고 실리를 추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오스틴은 이번이 분명한 밝히 시정인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張基浩의무부대변인은 “최근 韓昇洲 訪美 때 경수로 지원부채에 관해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94. 9. 13

北경수로 안전·수출실적 있어야

金正宇대표 조건 첫째시 美·韓·中·러 영연립보증금제의

北·美 제네바 전문가회담 소개

【워싱턴·베를린=李鍾連·孫東佑특파원】북한과 미국이 12일 평양과 베를린에서 전문가회담을 이틀째 회의를 열고 北·美 양측사 무소설치문제와 대외경제 자재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베를린회담에 앞서 金正宇북측대표단장이 “이들 어젠다는 경수로문제를 논의한다면서 『경수로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다른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타진하

【워싱턴·베를린=李鍾連·孫東佑특파원】북한과 미국이 12일 평양과 베를린에서 전문가회담을 이틀째 회의를 열고 北·美 양측사 무소설치문제와 대외경제 자재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베를린회담에 앞서 金正宇북측대표단장이 “이들 어젠다는 경수로문제를 논의한다면서 『경수로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다른 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타진하

내용이 밝혀 수 없으며 지금이로서는 문서보장 문제를 논의할 단계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수로異見... 北核 난기류



北-美대표 악수 北-美베를린회담에 참석한 미국측 대표인 게리 세이모어 국무부부과장(오른쪽)과 북한의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베를린주재 북한이의대표부에서 北-美간 경수로 관련 전문가회의 첫날 회의를 마친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베를린=AP통신>

美·北전문가회의 「韓國型」 놓고 진통

북한에게 제공할 경수로형 원자로, 선전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지난달 제네바회담에서의 합의문 채택으로 해결기미를 보이던 북핵 문제가 다시 미묘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측은 유대로 기준 후연간수로형 경수로로 형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분을 드러내며, 마린코프나이를 신천에 옮기기 위해 열린 전문가 회의는 초반부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바람에 전방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제공될 경수로형 원자로, 선전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지난달 제네바회담에서의 합의문 채택으로 해결기미를 보이던 북핵 문제가 다시 미묘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경수모형을 선전할 것인지나 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측은 원자로의 출력이 300MW로, 5단계 회합실한 계획을 3단계 회합실한 계획에 비해 5배가량 높을 경우 5년 안에 500MW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은 원자로의 출력이 300MW로, 5단계 회합실한 계획을 3단계 회합실한 계획에 비해 5배가량 높을 경우 5년 안에 500MW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오는 23일 재개될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전인 차원에서 「기술적」 문제를 대한 양측간 정보교환과 의사타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어떤 종류의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원래 합의 사항이긴 하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수로형 선전에서부터 논의가 벌어 부딪쳐 있다. 사실은 가법적 보충설은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오는 23일 재개될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전인 차원에서 「기술적」 문제를 대한 양측간 정보교환과 의사타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어떤 종류의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원래 합의 사항이긴 하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수로형 선전에서부터 논의가 벌어 부딪쳐 있다. 사실은 가법적 보충설은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오는 23일 재개될 전문가 회의에서 일부 전인 차원에서 「기술적」 문제를 대한 양측간 정보교환과 의사타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어떤 종류의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는 원래 합의 사항이긴 하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수로형 선전에서부터 논의가 벌어 부딪쳐 있다. 사실은 가법적 보충설은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代案 없다” “수용 불가” 평행선 일정차질댄 「梗塞」 회귀 우려

회담 3차례 고위급 회담 2차례에서 경수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사안을 북한측이 제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회담 3차례 고위급 회담 2차례에서 경수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사안을 북한측이 제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회담 3차례 고위급 회담 2차례에서 경수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사안을 북한측이 제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회담 3차례 고위급 회담 2차례에서 경수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사안을 북한측이 제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최근 북한이 미국에게 핵문제 해결과 한 국가의 공조중 양자택일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핵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단순한 현상용어가 아닐 수 있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최종적인 핵의도가 아직 확실치 않은 이상 앞으로의 상황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반도 회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더라도 위기국면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평양과 베를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 회의는 본질적인 협상이 시도될 고위급회담을 앞둔 조정기간의 의미가 큰 만큼 단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북한측 태도를 더 주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산=통상신특파원>

北 핵재처리시설 건설

I AEA 확인 寧邊 두곳 사찰은 허용

【비밀리=金保日기자】북 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지난 6월 북 한의 IAEA 탈퇴선언 이후 첫 방문으로 13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사무총장 회의에서 평양의 핵발전소와 영변의 핵발전소 등 두곳의 사찰을 허용했다. IAEA 사무총장은 평양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식에서 영변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에게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인 2곳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 사무총장은 평양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식에서 영변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에게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인 2곳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핵연료 생산이동구명

I AEA 총장 北 핵보고(요지)

▲북한은 지난 6월 13일자로 IAEA를 탈퇴하면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가 사찰단을 영변 핵발전소에 계속

에도 불복,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의 방문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이후의 접근 태도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IAEA가 사찰단을 영변 핵발전소에 계속

류시키는데 반대를 제기하지 않은 까닭이후의 접근 태도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IAEA가 사찰단을 영변 핵발전소에 계속

나 연료생산의 확인이나 비파괴 검사,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각종 핵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거부할 것이다. 따라서 사찰단원들이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들이 다들 무조건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상당한 민중불만을 지고 있는 한, 폐연료봉 저장소에서 핵연료봉들이 재처리될 위해

▲의에 따라 IAEA는 8월 12일 북측의 공식서한을 통해 사찰 제한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찰단원들이 5월 5일 평양에서 북측 관리자로 부터 사찰 허용을 위한 화담회담을 추진하는 등 두차례의 회담을 벌였다. 북측이 먼저 방사화

北, 종전 2개 시설 접근 거부, 입장 철회 연료工場·저장창고 곧 사찰

월 5일과 그 이후 여러 차례의 접근 원자로의 방사화화합물생산에 대한 사찰 허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종전 2개 시설에 접근을 거부했다. 그러나 종전 2개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 그러나 종전 2개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

그러나 방사화합물생산 내역이 이뤄지고 있는 재처리라인 운영을 사전검토를 위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7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종전 2개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 그러나 종전 2개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

I AEA는 이날의 북측의 거부행위를 재한행위를 구하고 사찰단이 새로 확보된 사찰 허용을 전제로 사찰을 진행하기 위한 북측 관리자를 영접해 보려는 의도이다. <비밀리=정>

北 핵재처리 징후 없었다 核시설 2곳 사찰 허용도

I AEA 이사회 개막... 블릭스 사무총장 보고

【비밀리=孫秉佑기자】북 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지난 5월 13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식에서 영변의 핵발전소와 영변의 핵발전소 등 두곳의 사찰을 허용했다. IAEA 사무총장은 평양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식에서 영변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에게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인 2곳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사찰 허용을 전제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인 2곳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단이 이번 회담에서 사찰 허용을 전제로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신고 시설인 2곳의 핵발전소도 사찰단의 사찰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러型 輕水爐 요구

베를린 전문가회담 原電입지 함남新浦 제시

러시아와 타당성조사까지 마친듯

한국형제공노력 난관에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북한이 베를린 北美전문가회담에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북한해발전소 건설추진지

연락사무소 개설 진전 平壤회담 성명

어제 베를린회담 소개

【서울=연합】북한은 13일 평壤도보를 발표 北美전문가회담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평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北美전문가회담의 소시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朝美전문가회담의 관한 제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13일 평壤도보를 발표 北美전문가회담에서 10일부터 13일까지 평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北美전문가회담의 소시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朝美전문가회담의 관한 제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베를린=연합】베를린 북미전문가회담의 결과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베를린 북미전문가회담의 결과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베를린=연합】베를린 북미전문가회담의 결과로 北美의 원전기술을 요구하고 원전 입지로 함남도 新浦를 제시한 것으로 13일 안팎에 알려졌다.

▽세계일보 1994. 9. 14

平壤회담 참가 美대표 오늘 서울에 내용설명

【서울=연합】미국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인 데이비드 실버먼은 13일 평壤에서 열린 北美전문가회담에 참가한 北美대표단 14명에게 회담의 경과를 설명하고, 평壤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綱要기자〉

베를린 "난항" .. 平壤 "작은 합의"

미국과 북한이 사상 최초로 양국간 관계개선분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10일 평壤에서 개최한 실무회의가 13일 끝났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마치고 나서 발표한 짧은 합의 발표문을 통해 "이번의 대화는 지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平壤

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혀 양국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실무분제가 만족스럽게 타결됐음을 시사했다.

당초 이번 회의가 연락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北美전문가회의는 최대쟁점이랄 수 있는 경수로도 지위를 높여 돌리라고 고차상대에 빠졌다.

北美양측은 12일 상우의 전체대표단 회의와 하우의 수석대표간 회의를 마친

베를린

후 회의를 13일에 재개할 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12일 밤 양측이 조만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회담이 13일 열리지 않음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회담을 재개하겠다"는 것

사무소개설에 대한 현행 답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되풀이 강조해온 미국정부가 사실관계의 기술에 불과한 공중 발표문까지 내게 된 데는 이번 회의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한 북한측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락사무소 구체적 진전 시사

美, 北입장배려 이례적 「발표문」 수용



◇베를린전문가회의 김정우북측대표가 12일 회의를 마친 뒤 베를린美대사관 분소를 떠나고 있다. [베를린=연합]

평壤회의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14일 한국을 방문하는 北美회담의 미국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갈러치 국무차관보를 통해 한국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표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북

한 양측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대표부 설치를 위한 2차 전문가 접촉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이런 회의를 계기로

시방에서 각각 6백명의 원자로 1기를 1기의 발전시스템과 연결, 독립적인 자가동작 원전 3기를 함께 건설하며 냉각방식에 안전성을 고려해 최신형 수동방사선으로 하겠다

고 제안함으로써 전해졌

경수로 "러 쉐" - "한국적"도 "대립"

회의 재개 불투명... 3단계 진행할 수도

은 회담이 완전히 결렬됐다는 것도 아니며 13일 만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반드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의 포착원인은 경수로지원문제와 관련된 북한측이 미국측이 제안한 한국형 대신 러시아형 회담을 재개하라는 것

나섰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측은 첫날 회의에서 러시아형 가압수로(PWR)중 안전성을 제고한 최신제품인 제4세대 소형 지어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고 원전부지로 한정된 부지를 6백MW를 한 단위로 하는 러시아형 제4세대 VVER형 3기의 건설을 요구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이 구체적인 원전

이해해 미국측은 초지 일관, 한국측은 경수로를 주장했으며 한국정부가 말하고 있던 한국형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측은 한국형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경수로형 채택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이 없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실질 재원수급에서 명중과 협상의 어려움 때문

관폭이 유력하다. 경수로 협상의 관한 한 카드는 미국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경수로형 채택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이 없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실질 재원수급에서 명중과 협상의 어려움 때문

美-北 '先연락사무소' 개설

核-南北 대화와 분리추진

고위관계자전망 정부, 대응책 마련 착수

정부가 미국과 북한은 「先연락사무소」 개설의 입 소를 먼저 설치한 뒤 이를 장의 절충을 찾다 「미-영 핵무제 해결과 관계개선의 출이 정수로 지원해 행부 고정부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대응책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 고위관계자는 「先연락사무소」 개설의 입 소를 먼저 설치한 뒤 이를 장의 절충을 찾다 「미-영 핵무제 해결과 관계개선의 출이 정수로 지원해 행부 고정부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대응책을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1994. 9. 15

“플루토늄 일부 北韓이 다시 확산”

IAEA관리

【런던 14일路透】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북한측이 아진도 다수의 플루토늄을 北韓이 다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IAEA의 고위관계자 14일 밝혔다.

이 관리는 「북한측이 IAEA 사찰이 분할화하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현재의 플루토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조항을 위한 내전 구호 회의 이전까지 북한에 대한 안전사찰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美-北 '경수로' 입장정리

고위관계자명 발표 美, 北 후연연료보상 요구 요구 일일추

【베를린 14일路透】美-北 경수로 관련 전문가들은 23일 제네바의 미-北 고위관계자회담에 참가하기 전 입장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14일 北에 대한 입장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14일 北에 대한 입장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중단한 후 다른 입장정리 시의 보상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측은 14일 北에 대한 입장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1994. 9. 15

원자로 2기 건설중단대가 北韓, 美에 12억달러 제시

정수미비와 과잉생산...美, 北인간 거센 韓國과 협의

【서울 14일路透】美-北 원자로 2기 건설중단대가 北韓, 美에 12억달러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14일 北에 대한 입장 정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북한측이 IAEA 사찰이 분할화하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현재의 플루토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에 온 갈루치 뭘 협의하나

김성호 기자

북-미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의 이번 한국방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북-미 3단계회담 2차회의에 앞서 북한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미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갈루치 차관보는 또 이미 끝난 평양의 전문가회의 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베를린 전문가회의 과정을 한국 정부에 설명하게 된다.

갈루치 차관보는 방한중 김삼훈 외무부 핵담당대사와 실무회의를 갖고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해 북-미 3단계회담에서 제시할 '한-미 공동협상안'을 마련하게

을 지원하고 미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다익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비용분담비율은 북-미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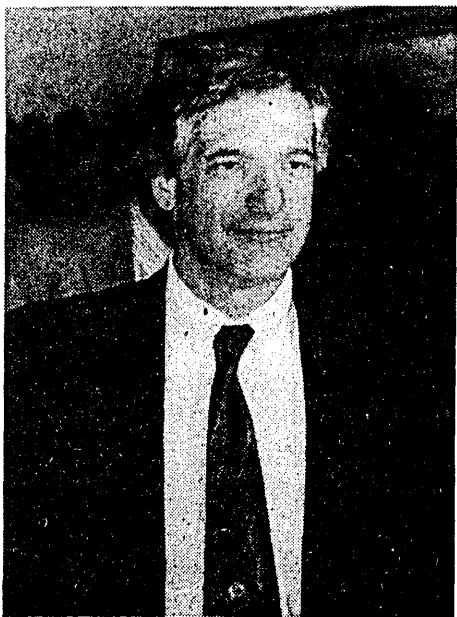
경수로 지원에 대한 문서보장 문제의 경우 한국은 북-미회담에서 경수로가 '한국 주도'로 이뤄진다는 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서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수로 지원문제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회담에서 주로 거론할 사항이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추진 문제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가며 추진하겠다고 밝

마지막 북핵 조율

3단계 2차회담 제시할 '공동협상안' 마련

된다. 이번 갈루치의 방한은 한-미간 마지막 입장조율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복귀와 사 용후 핵연료봉 보관 처리문제, 경수로 지원, 대체에너지 공급,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문제, 평화협정 문제 등 북-미회담에서 제기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한-미의 공동대책방안을 논의한다. 이중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사안으로는 경수로 지원문제와,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추진 문제 등 두가지가 꼽히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가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입국하고 있다. 유창하 기자

경수로 지원문제의 경우 북한이 완강한 거부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뿐 아니라 일본도 현재 북한에 제공할 원자로는 한국형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 한국형을 받아들여도 좋느냐는 것이다. 이번 한-미회담에서는 북한의 거부감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국형을 관철하는 방안으로 '한국형'이란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한국 주도'라는 표현으로 경수로 지원문제를 북-미간에 합의하는 방안을 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수로 비용의 경우에는 한국형이 제공되는 조건으로 한국이 상당 부분

했으나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정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북-미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한 한 늦춰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어렵다고 보고 어느 정도 북-미관계 개선이 앞서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 14일 특보】 갈루치 차관보는 14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 뒤 15일 오전 10시 30분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다익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 차관보는 14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 뒤 15일 오전 10시 30분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다익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 14일 특보】 갈루치 차관보는 14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 뒤 15일 오전 10시 30분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다익 잡힐 것으로 보인다.

北경수로로 지원 40억弗 들들

갈루치 밝혀 특별사찰 받아야 구체조치가 가능

【서울 14일 특보】 갈루치 차관보는 14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 뒤 15일 오전 10시 30분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다익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갈루치 국무차관보 취임

【서울 14일 특보】 갈루치 차관보는 14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 뒤 15일 오전 10시 30분 경수로를 지원하고 미국과 일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다익 잡힐 것으로 보인다.

輕水爐지원 한국주도

北美개선-南北관계진전 병행 韓美합의

남북관계, 북핵문제, 북미관계

【서울 15일 연합뉴스】 북미관계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하여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양국 정상들의 합의였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양국 정상들의 합의였다. 북미관계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하여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양국 정상들의 합의였다.

北경수로비용 40억달러가출

日통신 보도

【서울 15일 연합뉴스】 북미관계의 개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하여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양국 정상들의 합의였다.

▽한겨레신문 1994. 9. 16

북-미 이행사항 순서결정 고심

한-미 실무회의 조율 결과 분석

김성호 기자



한승주 외무장관이 15일 오전 북-미 3단계회담 2차회의를 앞두고 북핵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로버트 갈루치 미국 국무부 차관보를 맞고 있다. 유창하 기자

북한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간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15일 열린 한-미 고위실무회의에서는 지난 7일 워싱턴의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북핵 대책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수로 지원문제, 북-미 관계개선과 남북 관계개선의 병행추진 문제 등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북-미 3단계회담 2차회의에서 북한측에 요구할 '단계적 이행의 내용과 순서'를 짜맞추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8월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약속한 것은 경수로 지원과 대체에너지 공급, 연료사무소 설치,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에 관한 보장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이 이행해야 할 사항은 흑연감속로의 건설 중단과 방사화확산실험 폐쇄, 사용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포기, 핵비확산조약에 따른 안전조치협정의 이행 등이다. '단계적 이행의 짜맞추기'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이행해야 할 이들 사항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서로 연계할 것인가와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난 북-미 회담 1차회의에서 북핵 해결의 기본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는 2차회의에서는 주로 북-미간에 서로 이행해야 할 사항의 연계와 순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한-미간의 전략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2차회의에서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실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요구하고 자신이 이행할 사항은 그뒤에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은 경수로 지원과 북-미수교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무기 불사용을 각각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북-미회담 2차회의 때 북한에 이행을 요구할 사항에 대해 서로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두 나라는 경수로 지원문제의 경우 경수로 유형은 사실상 한국형으로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미 회담에서 경수로 지원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기로 했다. 경수로 지원 방식으로는 한-미-일이 중심이 돼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경수로 지원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북한이 특별사찰 등 북핵 과거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보장을 하면 경수로 지원에 대한 문서보장을 북한측에 해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경수로 지원의 착수는 북한이 특별사찰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것과 병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북-미관계 개선은 남북대화 진전과 병행추진돼야 한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이런 입장에 따라 평양과 워싱턴의 연료사무소 상호 개설 전에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한-

미간에 의견이 일치했다. 두 나라는 만약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복귀에 응하면 북-미 연료사무소 공식 개설 전에라도 연료관을 상호 파견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이는 연료사무소가 설치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유화조치인 셈이다. 두 나라는 북한이 현재 쉐인행중인 50메가와트의 2백메가와트짜리 흑연감속원자로의 건설 중단, 폐쇄, 방사화확산실험의 폐쇄와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에 대한 보장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또한 현재 냉각수조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봉의 제3국 이전이나 건설보관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북한에 촉구하기로 했다.

北、美에 修交인정 요구

평양회의서 연락사무소 法的 지위 관련

韓美선不可인정

북한이 지난 13일 발표한 평양연락사무소에 대해 韓美 양국은 "北美 修交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北美 修交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韓美 양국의 입장」 북미 양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이를 인정하면 北美 修交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양국사무소 설치 이전 북미 양국이 지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양국측의 입장이다.

연락사무소설치는 북미 양국의 입장이다. 양국측의 입장은 "北美 修交의 전제조건"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 양측은 23일 자진한 北美 3단계 고위정책수담의 일환으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高英鎭기자】

에서 중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韓美의 합의사항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됐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양측은 이 날 韓美 고위정책수담의 일환으로 李洪九(李洪九)의 韓昇洲(韓昇洲) 방문을 차례로 의정, 제2차 북미 고위정책수담을 앞두고 韓美 양측은 더욱 긴박해하고 있다.

【高英鎭기자】

南北대화해야 北관계 개선

美클린턴, 金대통령에게 口頭메시지

16일 북한과 미국간 관계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 핵개발의 확보와 함께 남북(南北)간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히경우로 제방인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金泳三) 대령에게 전했다.

이와 앞서 남북 양측은 16일 북한과 미국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메시지를 교환했다.

한국의 핵개발도 북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미 양측은 23일 자진한 北美 3단계 고위정책수담의 일환으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高英鎭기자】

【高英鎭기자】

16일 북한과 미국간 관계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 핵개발의 확보와 함께 남북(南北)간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히경우로 제방인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金泳三) 대령에게 전했다.

이와 앞서 남북 양측은 16일 북한과 미국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메시지를 교환했다.

한국의 핵개발도 북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북미 양측은 23일 자진한 北美 3단계 고위정책수담의 일환으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高英鎭기자】

【高英鎭기자】

領事기능연락사무소접근

美北평양회의 政務기능은 배제할 듯

미국과 북한은 지난 10월 열린 전문가회의 (expert meeting) 13일까지 평양에서 level meetings)에서 평양과 워싱턴에 개설될 최초 형태의 연락사무소는 領事(領事) 기능을 갖추되, 政務(政務) 기능을 배제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사실상의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 양측은 핵협상의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보였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4~5명의 정초외교관이 자국민보호 및 비자업무 담당케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으나, 정치적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에는 『美북 양측은 핵협상의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보였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4~5명의 정초외교관이 자국민보호 및 비자업무 담당케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으나, 정치적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에는 『美북 양측은 핵협상의 진전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보였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

연락사무소 領事업무만 취급

北美 정치협안 다루는 政務기능은 배제

미국과 북한은 지난 10월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실무전문가회의에서 양측 모두에 개설할 최초의 연락사무소에 비자업무 등 제한적인 영사(領事) 기능을 부여하고, 정무(政務) 기능을 배제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연락사무소에 자국민보호를 대 표해 주자국 정부와 주요 정치협안을 논의하는 정부 기능도 부여하지 않고 제안했 으나 미국의 반대한 것이 주요 이유였다』면서 『그밖 에 통상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廣英鎮기자〉

北 "통일형선호" 발표

【베를린 11일 김희민기자】북한은 15일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하며, 지멘스사가 생산하는 독일형을 원한다고 거듭 확인하고, 그러나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는데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 혀왔다.

경수로관련 미북 전문가 회의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정우(金政宇)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핵 투명성과 관련, 영연 5MW급 폐연료봉 8천개는 오는 9월까지 수조에 안전보 관한 뒤 처리문제는 23일 제네바 美北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核해결 전제 경수로지원, 北에 文書보장

北 "한국형" 거부 천명

김정우회견 "北 爐型선택권, 美 재정조달책임"

【베를린 11일 김희민기자】이런 정조달 책임은 미국의 전 원칙을 전명한 것으로 15일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우(金政宇)는 15일 한국형 경수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수로 선택권이 북한이, 재

北 美 文書보장

【베를린 11일 김희민기자】북한은 15일 한국형 경수로를 반대하며, 지멘스사가 생산하는 독일형을 원한다고 거듭 확인하고, 그러나 한국이 자금을 지원하는데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 혀왔다.

경수로관련 미북 전문가 회의의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정우(金政宇)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핵 투명성과 관련, 영연 5MW급 폐연료봉 8천개는 오는 9월까지 수조에 안전보 관한 뒤 처리문제는 23일 제네바 美北 고위급회담에서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베를린 북한 이인대대표부에서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 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인대대표부에서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 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인대대표부에서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 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상결과 설명 김수로 지원과 관련 비평에서 열렸던 美-북한회의의 북한측 대표 金正宇(김정우)가 15일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비평리=劉翰】

北 "경수로 영철로 선명하겠다"

「포베리데이」北 金政宇 記者 회견

【포베리데이=송희민기자】 15일 美-북한 회담의 북한측 대표인 金正宇(김정우)가 15일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수로 「한국 배제」속셈 재확인

— 金正우 北수석대표 기자회견 의미 —

북한 수석대표인 金正宇(김정우)가 15일 기자 회견에서...

“爐型 北서 선정... 北만 대라”

북한 수석대표인 金正宇(김정우)가 15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1000MW급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후연 爐중단 보상비 수십억 弗 美서 내야” 러형 적합지 않아... 원자로값은 北이 지불

북한 수석대표인 金正宇(김정우)가 15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북한 수석대표인 金正宇(김정우)가 15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북한 수석대표인 金正宇(김정우)가 15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은 원자로의 건설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北核협상 「핵심카드」로 활용

북한이 베를린 北美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15일 한미 정상회담의 북면담 단절의사를 비판한 뒤인 17일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정상화되고 핵무제가 동맹국인 북핵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뒤 북핵협상도 16일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베를린 北美 정상회담이 열린 직후인 15일 한미 정상회담의 북면담 단절의사를 비판한 뒤인 17일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정상화되고 핵무제가 동맹국인 북핵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뒤 북핵협상도 16일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北 한국형경수로 거부 속뜻 베를린회담 결산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는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韓國對北 영향력 확대 차단

美 수용여부 주목... "공인 제네바로"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는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는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는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北·美 진위 불확의 1994년 10월 14일

북한이 베를린 회담에서 한국형 경수로에 대해 '거부'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는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협상에서 '핵심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韓美北

황이형 동창회가 북한

「전북가 회고담」을 펴낸 임창표씨

북한에서 평양에서 열린 회고담은...

북한에서 열린 회고담은...

회고담은...

황이형 동창회가 북한

美原油난생에 북명커오油여가

北側완강한거부로 해결될블부명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회고담은...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회고담은...

회고담은...

美·北협상 「새난관」 조성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회고담은...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회고담은...

회고담은...

「반대」로 수교경로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회고담은...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회고담은...

회고담은...

12억弗보상등 무리한 요구 일관된다

회고담은...

회고담은...

「輕水爐」北核해결 최대難題로

美·北전문가회의 결과와의 대우회담 전망

미국 국무부 한반도 민간사무소 대변인 로버트 갈루치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북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우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는 대우회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차관보는 16일 이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제정될 경수로는 한 표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韓國型 현격한 입장차 재확인 4~5명 常駐 영사 관계의 전접근

미국 국무부 한반도 민간사무소 대변인 로버트 갈루치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북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우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는 대우회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갈루치 美차관보 임명연보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로버트 갈루치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북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우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는 대우회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수로 4國협약의 美 재정부담 준비 韓國型 기술 정치·재정 3요소 충족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로버트 갈루치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북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우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는 대우회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美·北 연락사무소 정치·경제 업무수행 經수로 韓國주도不變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로버트 갈루치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북 전문가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대우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말했다. 갈루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는 대우회담이 어렵다"고 말했다.

“특별사찰前「경수로」착수”

美고위관리 연락사무소 年内설치도 가능

【워싱턴=美聯社】미국은 北韓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의 경수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연방사무소의 연내설치도 가능하다. 고위관리관이 19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관은 이날 공동통신 등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사실 특별사찰의 실질적인 이행은 시기

대하기 앞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어 미국은 北韓으로 지원할 자금을 위한 다국

【워싱턴=美聯社】미국은 北韓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의 경수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연방사무소의 연내설치도 가능하다. 고위관리관이 19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관은 이날 공동통신 등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사실 특별사찰의 실질적인 이행은 시기

대하기 앞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어 미국은 北韓으로 지원할 자금을 위한 다국

【워싱턴=美聯社】미국은 北韓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의 경수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연방사무소의 연내설치도 가능하다. 고위관리관이 19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관은 이날 공동통신 등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사실 특별사찰의 실질적인 이행은 시기

대하기 앞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어 미국은 北韓으로 지원할 자금을 위한 다국

北, 한국형경수로 수용

訪美 金大中씨 전망

【워싱턴=美聯社】미국은 北韓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의 경수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연방사무소의 연내설치도 가능하다. 고위관리관이 19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관은 이날 공동통신 등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사실 특별사찰의 실질적인 이행은 시기

대하기 앞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어 미국은 北韓으로 지원할 자금을 위한 다국

【워싱턴=美聯社】미국은 北韓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의 경수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연방사무소의 연내설치도 가능하다. 고위관리관이 19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관은 이날 공동통신 등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사실 특별사찰의 실질적인 이행은 시기

대하기 앞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어 미국은 北韓으로 지원할 자금을 위한 다국

北경수로 韓國이 중심역할

美갈루치 재확인

【워싱턴=美聯社】미국은 北韓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의 경수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연방사무소의 연내설치도 가능하다. 고위관리관이 19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관은 이날 공동통신 등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사실 특별사찰의 실질적인 이행은 시기

대하기 앞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어 미국은 北韓으로 지원할 자금을 위한 다국

【워싱턴=美聯社】미국은 北韓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기 이전의 경수로 지원사업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경우 연방사무소의 연내설치도 가능하다. 고위관리관이 19일 밝혔다.

이 고위관리관은 이날 공동통신 등 언론과의 회견을 통해 “사실 특별사찰의 실질적인 이행은 시기

대하기 앞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어 미국은 北韓으로 지원할 자금을 위한 다국

안보리 개편 NPT 연장 논의

유엔 정기총회 개막

【유엔본부=美聯社】유엔 정기총회 개막을 맞아 49차 유엔총회 정기회의가 20일 오후 1시 21분(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총회장은 미국의 아만다 시모네트 부주장관을 의장한다.

총회장은 49차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만수(총회장)가 1백54개 의회의 대표로 유엔본부에 도착했다. 유엔본부에서 개막된 총회장은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총회장은 미국의 아만다 시모네트 부주장관을 의장한다.

총회장은 49차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만수(총회장)가 1백54개 의회의 대표로 유엔본부에 도착했다. 유엔본부에서 개막된 총회장은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총회장은 미국의 아만다 시모네트 부주장관을 의장한다.

총회장은 49차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이만수(총회장)가 1백54개 의회의 대표로 유엔본부에 도착했다. 유엔본부에서 개막된 총회장은 유엔본부에서 개막했다. 총회장은 미국의 아만다 시모네트 부주장관을 의장한다.

이때 보스니아 사태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체제인 행운자’를 유엔의 재정위기 해소 방안의 주요과제로 다뤄진다.

이런 총회에서 50차 유엔총회 50주년 기념행사와 내년 1월과 5월의 유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유엔개발총회(유엔개발회의)의 개편(유엔개발회의)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형」전제 輕水爐지원 정부 “文書보장”

文案작업 착수

정부는 北韓에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 23일부터 재개되는 北韓 3단계회담에서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한국형」전제 輕水爐 지원에 대한 문서를 보증을 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北韓이 1992년 12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핵무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3단계회담」의 일환이다.

정부는 北韓에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 23일부터 재개되는 北韓 3단계회담에서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한국형」전제 輕水爐 지원에 대한 문서를 보증을 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北韓이 1992년 12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핵무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3단계회담」의 일환이다.

정부는 北韓에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 23일부터 재개되는 北韓 3단계회담에서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한국형」전제 輕水爐 지원에 대한 문서를 보증을 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北韓이 1992년 12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핵무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3단계회담」의 일환이다.

정부는 北韓에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 23일부터 재개되는 北韓 3단계회담에서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한국형」전제 輕水爐 지원에 대한 문서를 보증을 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北韓이 1992년 12월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핵무기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3단계회담」의 일환이다.

北 NPT 無 수정 연기 반대

北 중앙당 중앙집행위원회

【서울=내외】북한(北韓)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NPT(핵무기금지조약)의 무효화 및 수정을 반대하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중앙당 중앙집행위원회는 13일 평양에서 열린 13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평이 있는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특별사찰 거부 재확인

對美대화 통해서만 해결 주장

외교부 대변인 성명

【東京 20일=합】북한(北韓)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서南北대화 재개 不應 美, 연락관만 교환기로

내일 美-北 3 단계회담 續開

하도 이를美-北 연락사무소의 교환설치와 연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특별사찰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Ⅱ.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4. 2次會議 進行

“특별사찰금할것 없다”

갈루치회견 연락사무소·남북대화연계안해

오늘美·北제네바회담...美대표부서 열려

【워싱턴=申相仁특파원】 북미 고위급회담의 미국

【워싱턴=申相仁특파원】 북미 고위급회담의 미국

이같은 갈루치의 발언은 최근 韓界의 무장관외 위 신변 발부기간중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우로 지원 약속이 있기전까지 특별사찰이 실시되어 한다고 밝힌 한국정부입장과 뚜렷한 격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미국정부의 각 관료 부

제네바에 도착한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핵전담대사는 북한핵문제 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이번 회담에서 '우린 그보다 많은 진전을 이룩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핵문제 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대표부의 세리 덴 벨 대표의 이혼선언을 빚은 것이로 알려진 회담 장소의 평면, 첫날 회담이 23일 오전 10시부터 미국 대표부에서 열기로 북한측 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韓美관계 희생하며 對北 접근안해

▽서울신문 1994. 9. 23

갈루치대사는 그러나 특별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의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그 동안 정수로 지원과 관련된 부품들의 (유형의) 도착하기 전까지 특별사찰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전을 분명히 해

北·美고위회담의 美國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제네바로 출발하기와 앞서 국무부에서 특별사찰 회견을 가졌다.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연

갈루치美차관보 일문일답

北·美고위회담의 美國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제네바로 출발하기와 앞서 국무부에서 특별사찰 회견을 가졌다.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연

北·美고위회담의 美國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제네바로 출발하기와 앞서 국무부에서 특별사찰 회견을 가졌다.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연

北·美고위회담의 美國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제네바로 출발하기와 앞서 국무부에서 특별사찰 회견을 가졌다.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연

北·美고위회담의 美國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제네바로 출발하기와 앞서 국무부에서 특별사찰 회견을 가졌다.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연

北·美고위회담의 美國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제네바로 출발하기와 앞서 국무부에서 특별사찰 회견을 가졌다. 갈루치 북미무장관외위 신변 연

北·美연료통국의 반출「美입장 불변」 경수로 北도착전 특별사찰 꼭 실시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합적이란 얘기다. 미·북한관계와 남북 경수원자료를 건설해주려 한다. 합의단계에 있기 때

韓·美공조보다 北核담판 무게



이러한 수평적 공조보다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사라지 않을 경우 유럽, 북대서양 조약 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별사찰 시기-南北대화연계 시각 꼬일맨 韓國배제 가능성

이러한 수평적 공조보다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사라지 않을 경우 유럽, 북대서양 조약 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제네바회담 전망

北韓美國은 국제 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네바 회담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사라지 않을 경우 유럽, 북대서양 조약 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北美「과거 핵졸라」의 상상

北「평화협정」-美「인원전」-美「인원전」-美「인원전」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핵대국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사라지 않을 경우 유럽, 북대서양 조약 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 공조보다 미국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를 사라지 않을 경우 유럽, 북대서양 조약 기구 등 국제사회의 압력이 북한 핵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의 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23일 오전 10시(이하 시간 오후 5시) 제네바의 미국대표부에서 시작된 북-한 미기간 고위급회담이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양측 수석대표

姜錫柱-갈루치 회담 뒤 묵묵부답

北-美 제네바 2차회담 표정

인姜錫柱北韓의교부부장을 23일 美國과의 고위급회담을 갖기 위해 제네바의 美대표부에 도착, 로버트 갈루치 北韓전담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네바AP촬영)

인姜錫柱北韓의교부부장을 23일 美國과의 고위급회담을 갖기 위해 제네바의 美대표부에 도착, 로버트 갈루치 北韓전담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네바AP촬영)



姜錫柱北韓의교부부장(左)이 23일 美國과의 고위급회담을 갖기 위해 제네바의 美대표부에 도착, 로버트 갈루치 北韓전담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제네바AP촬영)

美대표 회견태도에 취재진들 불만 韓國과전단 모두 교체: 갖가지 의혹

美대표 회견태도에 취재진들 불만 韓國과전단 모두 교체: 갖가지 의혹

美대표 회견태도에 취재진들 불만 韓國과전단 모두 교체: 갖가지 의혹

北-美회담 개최후 국내외를 제속에서 지경된 장수의 시를 신타점이며 총합 과점한 시달린다고 있다. (北-美 延輔照)

北-美회담 개최후 국내외를 제속에서 지경된 장수의 시를 신타점이며 총합 과점한 시달린다고 있다. (北-美 延輔照)

北에 경수로 건설보장 클린턴, 親善전달방침

北-美회담 때 「北核투명」전제

北-美회담 때 「北核투명」전제

北-美회담 때 「北核투명」전제

北-美입장 平行線... 험한길 예고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경우>도 전 실방식 <페어플레이> 처리 문제 <양국관계 개선> <대체에너지의 제공문제> 등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이중 양국이 가장 팽팽히 맞선 사항은 경우로 채택문제. 독일의 지멘스社나 미국의 컨버전 엔지니어링社의 최첨단 경우로 건설을 유무하는 북한의 주장과 한국형 경우로 채택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성을 띠고 있다.

3단계 회담 주요 쟁점들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경우>도 전 실방식 <페어플레이> 처리 문제 <양국관계 개선> <대체에너지의 제공문제> 등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이중 양국이 가장 팽팽히 맞선 사항은 경우로 채택문제. 독일의 지멘스社나 미국의 컨버전 엔지니어링社의 최첨단 경우로 건설을 유무하는 북한의 주장과 한국형 경우로 채택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성을 띠고 있다.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경우>도 전 실방식 <페어플레이> 처리 문제 <양국관계 개선> <대체에너지의 제공문제> 등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이중 양국이 가장 팽팽히 맞선 사항은 경우로 채택문제. 독일의 지멘스社나 미국의 컨버전 엔지니어링社의 최첨단 경우로 건설을 유무하는 북한의 주장과 한국형 경우로 채택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이 팽팽성을 띠고 있다.

경수로 쉐우, 대체에너지 등 難題 北, 평화협정 돌출 제의할수도

미국측은 이와 관련, 수 해자인 북한측이 경우로 채택 권한이 없다는 시간인 데 대해 북한측은 「모델선」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이를 언급하면 지해 줄 것을 주장해 유엔이 될 전망이다. 북한측은 지난 12일 탈북 전문가 회담에서 12일 탈북

의 장애편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같이 산적한 난제를 일괄타결(PACKAGE DEAL) 방식으로 해결하려면 양측의 이번 회담이 그 전부가 될 코수준까지는 양측이 다단계 대체적인 분석이

【李尚遠기자】



◇美錫柱棟의외교부장과 루버트 길블치美국무부차관보가 23일 제네바 美 대표부에서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제프 마시 = 평】

北경수로 지원비 40억弗 10년거치 30년상환 제시

후연감수로 중단 補償費 공제

韓·美합의 美·北 2차 회담서 北에 제의

韓·美양국은 국제 권소 건설지원자금 40억달러에 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 시업을 구상해 조달할 것 대한상환조건으로 10년거치 30년 장기상환방안을 추진

韓·美양국은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건설중인 50메가와트 및 2배메가와트 원자로를 총 2백55메가와트에 해당되는 부품을 후연감수로 건설중단에 따른 보상 비로 설정, 북한에 건설될 2천메가와트 원자로 건설 비용상환액에서 공제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양국은 경수로 지원비 40억달러에 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 시업을 구상해 조달할 것 대한상환조건으로 10년거치 30년 장기상환방안을 추진

보유하고 있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건설중인 50메가와트 및 2배메가와트 원자로를 총 2백55메가와트에 해당되는 부품을 후연감수로 건설중단에 따른 보상 비로 설정, 북한에 건설될 2천메가와트 원자로 건설 비용상환액에서 공제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 건설에는 7~10년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10년동안은 북한에 경수로 지원자금의 상환을 유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수로 건설자금의 有償지원 원칙에 따라 북한에 10년거치 30년 상환방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綯箕然기자〉

西方서 특별사찰압력 계속팬

北 "核통결 약속 파기"

외교부 대변인

【도쿄 23일】북한의 23일 서방이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압력을 계속할 경우 핵개발 동결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도쿄에서 수신된 중앙통신사의 북한 외교부대변인 발언에 의하면 '제네바에서 북·미 양국이 합의한 특별사찰을 고집할 경우 경수로 지원의 장 애를 초래할 경우 북한은 자체의 후연감수원자로개

발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위협은 제네바에서 재개될 예정인 北·美 3단계 고위급회담 직전에 나온 것이

어서 주목되고 있다.

對北결의 54개국 북핵 논의

23일 패마
원 국제원자
력기구(IAE
E)연차총
회인 여가
지 측면에서
北韓 핵문제
를 다루고 회
의였다고 해
도 과연의 아
기다.
기간 1년
간 거듭되어
온 북핵의 핵
안전조치협정
불이행문제가
한스 블릭스

北核논의 IAEA총회

사부총장의 보고 첫머리의
서부도 강우파가 하면
對北결의안 제출의 유래였
이 54개국이나 54개국을
취향하는 총회기간 내내
가장 관건은 안전인기 단
연 北韓 핵 문제였다.
이날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날 본회의에서는
『현재 한반도 주변의 사
『현재 한반도 주변의 사
『현재 한반도 주변의 사

합의 심도한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할 일이다.
그런데 결의안을 주도한
프랑스의 △북핵의 불투
투표 유치가 성공을 시사하
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사
찰결과인 불행치 못한
계속해오지 않고 있어
며 △그동안 북한의 신장
쓰는 사찰활동의 신장점이
로 단숨에 개방해이 태도
는 나쁜 선행이 될 수 있
기 때문인 반대로 신장되
어 아하고 △현재 진행중
인 북한 미북간 정치적 대
화가 안전조치협정상의 의
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명확한 입

“核투명성 확보 못하면 존립타격” 인식 제네바회담 영향 우려 北자국은 자체

對北특별사찰결의안 채택

IAEA총회 中國또기권: 리비아만 반대

核결의안 밀거래 단속도 결의

【빈=연합】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3일 북한
에 대해 핵안전협정 전면
이행을 촉구하는 총회 결
의를 압도적 지지로 채택
하고 폐막했다.
IAEA는 제38차 연

공중발의한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6, 반
대 1, 기권 10표로 통과
시켰다. 유일한 반대국은
리비아였으며 중국, 인
도, 파키스탄의 기권했
다.

한편 IAEA는 이날
핵결의의 국제적 밀거래
문제의 「신중한 우려」를
표시하고 회원국들에 「핵
물질을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가려한 모든 조치
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을 채택했다.

차총회 마지막날인 이날
상 50분 핵 안전 조처토의
에서 우린나를 비롯해
프랑스, 미국 등 54개국이

이 결의안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유감적인
전면이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장수의 대한

이 결의안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유감적인
전면이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장수의 대한

이 결의안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유감적인
전면이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장수의 대한

이 결의안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유감적인
전면이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장수의 대한

이 결의안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유감적인
전면이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장수의 대한

이 결의안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유감적인
전면이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장수의 대한

이 결의안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유감적인
전면이행과 이에 관련된
모든 조항의 장수의 대한

北-美 회담 文書化 작업 착수

“輕水爐 지원·核동결 연계”

姜錫柱 회견 “합의도를 위한 천단계 조치”

▽한겨레신문 1994. 9. 25

□ 강석주 북한 수석대표 일문일답

핵동결·보상 동시 진행돼야 관계정상화 맨 투명성 보장

제네바/정연주 특파원

북-미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인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사진)은 24일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3단계 2차 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강 부부장의 기조 발언과 일문일답 요지이다.

◇ 기조 발언=이번 2차 회담에서는 지난 8월에 합의한 점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문제들을 협의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핵연감속로를 동결하고 거기에 대응한 경수로 건설을 충실하게 받는 것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하지만 미국이 경수로 보장을 담보하고 이행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연감속로를 동결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핵문제는 깨끗이 해결되고 핵의혹이 완전히 없어진다.

우리는 미국이 경수로를 보장하겠다는 담보를 명백히하는 시점에서 핵동력의 일부를 동결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핵동력의 동결에 따른 물질적 손실을 보상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간적 동시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핵동력 동결 시점에서 손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은 8월 회담에서 쌍방이 상호 신뢰하고 성실한 자세에서 회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최근 이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어 왔다. 만약 앞으로도 이런 군사적 위협이나 군



사기재가 배치되어 새로운 군사위협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은 조-미 회담을 파탄시킬 수도 있는 위협이 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23일 회담에서 협의가 되었고 일정한 양해도 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오늘부터 실무자급에서 문건 토의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서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문서인가. 합의문서인가.
=합의문서이다.
-어떤 종류의 합의인가. 동시적 조치에 대한 것인가.
=이미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행동에 대한 합의이다.
-그것은 강석주 대표와 갈루치 대표 사이에 이미 이뤄진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인가.
=어제 갈루치 대표와 토의가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실무급에서 구체적 실무문제를 협의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나와 갈루치 대표가 다시 만나게 된다.

-어떤 문제가 합의되었는가.
=나중에 밝히겠다.
-어제 협상서 진전이 있었는가.
=진전이 있었다. 어느 문제가 진전되었고 어떤 문제가 실무회의에서 논의되는가는 뒤에 밝히겠다.
-어제 회담의 분위기는.
=지난번 회담과 같았다.
-이번 2차 회담에서 모든 문제에 완전 합의하는 완전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는가.
=완전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미국측 입장과 많이 관련되어 있다.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것인가.
=남조선 경수로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이 우리에게 대해 취해온 적대적이고 비정상적인 입장을 놓고볼 때 설령 그러한 경수로는 있다 해도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우리는 미국과 (경수로를) 받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받자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수로 선택권은 미국에 있다는 것인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미국과 협의하여 나찰을 보자는 것이다.
-특별사찰에 대한 입장은.
=우리는 특별사찰을 인정해온 적이 없다. 다만 앞으로 쌍방에서 서로 신뢰가 조성되고 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우리가 핵투명성을 보장하지는 것이다.

【제네바=延炳熙】北韓과 美國은 23일 3단계 회담을 2차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상황의 개선과 핵연감속로 동결에 대한 24일 회담을 실무자급 회담에서 문건 토의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수석대표는 24일 오전 10시 韓國시 간 오후 5시 北韓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의 경과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는 핵연감속로 동결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에서는 핵연감속로 동결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대한 적대적이고 비정상적인 입장을 놓고 볼 때 남조선 당국이 핵연감속로 동결을 위한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핵연감속로 동결을 위한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핵연감속로 동결을 위한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제네바=延炳熙】北韓과 美國은 23일 3단계 회담을 2차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상황의 개선과 핵연감속로 동결에 대한 24일 회담을 실무자급 회담에서 문건 토의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수석대표는 24일 오전 10시 韓國시 간 오후 5시 北韓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의 경과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는 핵연감속로 동결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특별사찰문제는 異見여전

【제네바=延炳熙】北韓과 美國은 23일 3단계 회담을 2차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상황의 개선과 핵연감속로 동결에 대한 24일 회담을 실무자급 회담에서 문건 토의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석주 수석대표는 24일 오전 10시 韓國시 간 오후 5시 北韓 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의 경과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는 핵연감속로 동결과 그에 따른 보상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北核문제 종착점 可視化

美-北회담 합의 임박 배경-전망

북한핵무기를 완전 해
결하기 위한 제네바의 북
-美 3단계 2차회담이 24
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상
호협정체결을 지향하는
문서작성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중
착점'이 이처럼 가시화되
어 북미 양측이 합의를
신두루게 된 것은 물론이다.

2차회담의 최대성적은
美측의 경수로제공에 있
어서 모델선정에 있었다.
미측은 북측에 대해 자
주 협정체결을 유도할
경수로제공에 대한 의
견을 표명했다. 북
측은 금일(24) 회담 중
부가 무조건하게 표출한
對北대응과 한국모델의
부채등을 내세우며 계속

적인 거부입장을 공공연
하게 드러냈다. 24일 아
침 북측 수석대표 姜錫柱
외교부차관의 기자회견
에서도 반미성향을 부
담한 발언이 잇따랐다.
대통령을 위협할 때
에 한국모델의 반대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미국이
반대 받으면 미국이
반대 받으면 미국이

것이라고 덧붙였다.姜의
이 발언은 미국의 경수로
공급을 위해 구상중인 국
제전소사업 KEDO(한
국에너지개발기구)를 통
해 한국모델을 수용할 것
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
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
수로가 국내 생산 공정의
질이 막호 있기 때문인
데 국제원자력기구(IA
EA)와의 원자력협정을
이행하는 나라에 한정해
원자력 지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

으로 KEDO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측은 KEDO에 미
-中-러의 다국적 공
심으로 삼고佛 등 유럽의
경수로 생산국들까지 포
함시켜 북한이 이 기구를
통해 한국모델과 자금을
동원하는 경수로대체를
수립, 시행의 유망이 높
다. 또한 한국의 경
수로란 것도 사실은 웨스
팅하우스 등 미국 경수를
개량한 것으로 원산지
미국이란 사실을 북측에

장비-부품등의 북한도착
이전과 특별사찰수용
업에서 이미 특별사찰
제 2차회담의 주의제
에서 밀려났지만 북측의
姜도 이점을 언급했다.
그는 특별사찰을 인정
분정도 없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北-美
측의 신뢰가 조성되고
국가 정상회담이 추진
가설명을 했다. 이 발
은 경수로공급이 확실
게 보장되고 평양과 워
턴이 관계를 정상화하
면 특별사찰을 받는다
장표명인 해설할 수
다. 그러므로 남북차
한 美측의 입장과 북측
태도가 맞아떨어진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아마도姜의 발언은 특
별사찰제와 北-美 관계
개선과 경수로공급과 연
계된 점을 강조한 셈인데
북미관계개선이 연내에
성사되면 특별사찰이
부어질 전망이다. 평양
심판의 판례개신도 이
협정체결의 중요사안
이다. 이미 8.12 합의
외교대표부를 못판고
어 영사관제를 포함하
면 수주에 될 수 있다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기상대인 것으로 보
그러나 이러한 남북
분위기도 불투명하고
무회담에서 우호국
점을 가졌지만 얼마
장부해있다. 북미간
무협정체결을 둘러
싸고 전후차이와 평
을 그칠 여지는 얼마
지 남아있다. 이
미측이 서간 한
선협하고 해
인관계를
제하는 지
문이다. 5
트
도
이
공
이
를
실
하
로
에
기
부
중
있
대
있
장

정치적實利일치... 타결 강력히망 경수로 한국모델접근... 北 막판실동

美대통령과 북한의 金正
일치의 정치의견과 무
관하지 않을 것이다. 클
린턴이 아오티의 군정중
시에 이어 11월 중순경
이전의 북핵해결이 긴급
한 일인 것으로 金正
도 10월 16일 주조선파
동단총비서관 실정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美관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미 지난 8월 22일 북
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의
합의해 놓고 세부사항과
실현방안등의 협의조
등 실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북미 양측이 풀
지 못하면 북미 회담
도중의 지연의 결정적
인상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협상과
신판의 강렬한 합의의
를 이번 회담의 전조
로 반미적 2차회담에서
북핵문제 완전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 미 지난 8월 22일 북
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의
합의해 놓고 세부사항과
실현방안등의 협의조
등 실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북미 양측이 풀
지 못하면 북미 회담
도중의 지연의 결정적
인상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협상과
신판의 강렬한 합의의
를 이번 회담의 전조
로 반미적 2차회담에서
북핵문제 완전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 미 지난 8월 22일 북
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의
합의해 놓고 세부사항과
실현방안등의 협의조
등 실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북미 양측이 풀
지 못하면 북미 회담
도중의 지연의 결정적
인상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협상과
신판의 강렬한 합의의
를 이번 회담의 전조
로 반미적 2차회담에서
북핵문제 완전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 미 지난 8월 22일 북
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의
합의해 놓고 세부사항과
실현방안등의 협의조
등 실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북미 양측이 풀
지 못하면 북미 회담
도중의 지연의 결정적
인상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협상과
신판의 강렬한 합의의
를 이번 회담의 전조
로 반미적 2차회담에서
북핵문제 완전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 미 지난 8월 22일 북
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의
합의해 놓고 세부사항과
실현방안등의 협의조
등 실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북미 양측이 풀
지 못하면 북미 회담
도중의 지연의 결정적
인상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협상과
신판의 강렬한 합의의
를 이번 회담의 전조
로 반미적 2차회담에서
북핵문제 완전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 미 지난 8월 22일 북
핵해결의 원칙과 방향의
합의해 놓고 세부사항과
실현방안등의 협의조
등 실무적이며 기술적인
문제를 북미 양측이 풀
지 못하면 북미 회담
도중의 지연의 결정적
인상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협상과
신판의 강렬한 합의의
를 이번 회담의 전조
로 반미적 2차회담에서
북핵문제 완전을 위
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회담에 참석중인
姜錫柱 북미외교부 부부장이 24일 제네바의 북
한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네바=AP전영)

일단 탐색전...내주 「큰협상」



북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대통령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중-김정은 회담]

「한국형거부」先手·명분用인듯 北 연료봉 3國인도 선행 재강조 美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쪽대표 '말조심'...질문마다 함구

北측, 강-온파 갈등에 입지축소 분석 연이를 대좌시간 크게 짧아져 눈길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주 평양에서 美-북 정상회담을 위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은 22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한 뒤 "북한은 10월 10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北對南도발 효율적 대응위해 한국國防정책대폭 수정필요

美 상·하원 결의안 통과 뒤늦게 밝혀져

정보력·포병·수송망등 취약 北 화생방무기 공격무방비

국방위 鄭大哲의원 자료공개

美 상·하원 결의안 통과 후 국방위 鄭大哲의원 자료공개

정보력·포병·수송망등 취약
北 화생방무기 공격무방비

北 「IAEA결의」 거부

核시설사찰은「主權침해」

외교부 정면

【東京 26日電】北韓이 25일 외교부 정면으로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IAEA 결의안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東海 美항모배치 반발

北韓 核협상중단 경고

중앙통신

【東京 26日電】北韓이 25일 외교부 정면으로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IAEA 결의안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李春濤·權五辰기자〉

民主黨 鄭大哲의원의 국정감사 중 「北韓의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IAEA 결의안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사실에 따라 북은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IAEA 결의안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을 거부하며 핵시설사찰은 「主權침해」라고 단언했다.

美의회 「韓國 국방결의안」 채택배경

美상하 양원이 지난 6월 통과시킨 한미의류 방위결의안(한미방위유사법) 개정안(한미방위유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현지시간) 상·하 양원에서 각각 378표(반대 11표)와 378표(반대 11표)의 찬성표수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의 비록 한국이 방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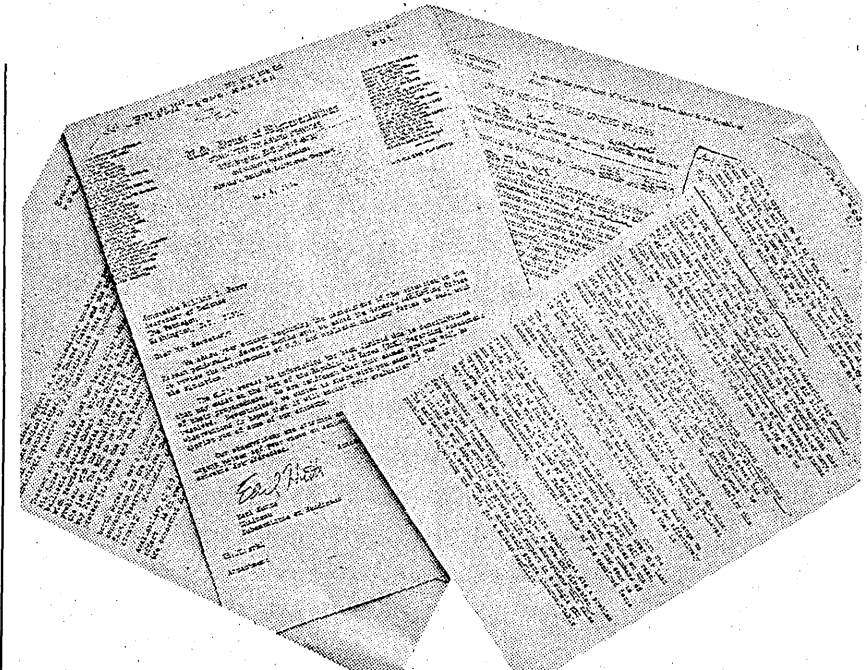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防衛費 증액 압력 "신호탄"



결의안 사본 지난 6월 美國의회가 클린턴정부에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촉구하도록 요구한 결의안 사본.

“한두리면서 美軍에만 의존” 불만 클린턴에 연내 是正策 急구 요구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별개로 의회측은 지금도 전사계획이 끝나지 않았고, 지출액이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은 한미방위유사법 제10조 제1항을 개정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美軍費削減〉

이러저 휴일회담

美-北, 異見절충 난항

특별사찰원칙수용요구 美 美함대 東海배치 맹비난 北

【제네바=趙錫柱기자】미국과 북한은 25일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6시 30분(미국대표부에서) 3일째 실무자회담을 갖고 각자의 기본입장과 제안을 교환했다. 이날 회담 재개 직전 美대표단의 세리던 벨 대변인의 회담일기를 발표했다가 다시 이를 수정 회담에 들어가는데 이번 회담이 뚜렷한 진전

이 없는데 담보상대입을 시 사해 주었다. 23, 24일 양 측은 8월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 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 의외로 양측의 입장차

이가 커 이를 좁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25일에도 실무자회담을 계속키로 합의했다. 24일 회담에서 북한측 대표 姜錫柱는 특히 美합대의 동해배치와 관련된 '제네바' 미국이 우리를 심하게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관리는 美함대함 키티호크의 동해안 배치에 '일상적인 군사훈련'에 불과하다며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측은 26일 회담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東京=聯合】미국은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과의 고위급회담에서 정수로 제네바 조건의 루 미신고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원칙적으로 수용 하도록 요구했다고 미 외교부(國務)실무인 25일

▽동아일보 1994. 9. 26

北-美회담 「합의문소동」전말

北韓과 美國간 3단계 회담 2차회담의 姜錫柱 북한측 수석대표(의교부(副部長))는 24일 오전(현지시간) 실무자회담이 열린 직후 예정의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의문의 발언을 해 취재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회담이 겨우 이를 제칠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합의문 소동」은 우하의 발언을 꺼냈기 때문이다.

姜수석대표는 약 2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정수문을 받아들여 오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북한 원자로 건설 및 부속 시설에 비유를 보강해달라 요구했다. 이후 회담에서 별다른 의의가 없는 「비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경고한 뒤 그는 이 문 제들에 대한 「차회담」에서의 합의와 양해를 토대로 「이들 실무자담 회담에서 문건작성의 틀어잡기」라고 밝혔다.

姜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회담을 끝내려 할 때

「姜錫柱발언」에 세계가 깜짝

몇시간뒤 美반박...「일방적 주장」해프닝 美군사활동 경고등 北내부 선전용인듯

합의문을 말하는 것이 나쁘고 잘못했다.姜대표는 기자회견 「문서」어떤 종류의 문서인가? 판표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놀란 기자들은 「문서화하기 합의사항은 무엇인가?」며 여러 질문을 던졌다. 그는 「후에 말하겠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러나 그의 이날 발언은 몇시간만에 일방적 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황한 미국측은 부랴부랴 이날 오후 역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北美간에는 여전히 종전안에 관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논의할 것이 많다고 간접 반박했다.

그렇다면姜대표가 왜 이같은 무리수를 두었을까. 美관리 한복소스통 그리고 기자들의 내린 추측중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姜대표가 「북한 국내용 발언을 한 것 같다」는 것이다.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고 더욱이 美 군사활동에 대한 경고까지 세계여론을 타격 한 언론플레이를 한바탕 해 냈다는 풀이다. (제네바=延炳熙)

“北·美 아직 의견 조정 단계”

제네바 회담을 보는 정부 시각

○ 북·미 회담은 1994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2년 10월 제네바 회담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의 주요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문제 등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北 곧 태도변화 있을 듯

“본격 협상 이제부터... 이르면 내일 윤곽”

○ 정부는 이번 제네바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北·美 회담에 참가한 김두환(왼쪽)과 김동원(가운데) 장관은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네바=연합통신]

“합의문 작성 착수” 파문 北韓側 시안 외전된 것

北·美 회담에 참가한 김두환(왼쪽)과 김동원(가운데) 장관은 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記者들 질문공세로 얼떨결에 발표 美측 부인속 文件교환은 인정 「中立」자세

○ 이번 제네바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북·미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北-美 돌연 강경 기류

美核타결 안되면 武力동원

페리쿠방 경고 北선 "대화중단·核재개" 맞서

제네바회담 難航

【서울·워싱턴·제네바= 康英鎭기자·金홍일·高大勳특파원】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회담이 단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美國)의 핵무기재개원

점이로 북-미회담은 군사력을 사용한 핵실험과 핵재처리시설의 파괴를 전제하

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회담은 3단계 2차회담의

이전에도 진행되었던 부분과 달리 이번 회담은 수차례의

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돼 신뢰가 구축되면 저지른

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회담이 이같이 단

와 CNN-TV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무제사화와

대한민국이 사수될 경우 북-미회담의 중단과 핵실험의 재개를 경고했다.

北、美 강경비난

중앙방송 "군사행위이며 양보 무의함"

【도쿄= 北】北韓이 26일 미국(美國)의 워싱턴에서 열린 제네바회담(IAEA)의 고강도 비핵화요구사항을 "북-미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북-미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전에도 진행되었던 부분과 달리 이번 회담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핵재처리시설의 파괴를 전제하

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돼 신뢰가 구축되면 저지른

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회담이 이같이 단

와 CNN-TV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무제사화와

대한민국이 사수될 경우 북-미회담의 중단과 핵실험의 재개를 경고했다.

이전에도 진행되었던 부분과 달리 이번 회담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핵재처리시설의 파괴를 전제하

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돼 신뢰가 구축되면 저지른

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회담이 이같이 단

와 CNN-TV와의 대담에서 『북한의 무제사화와

대한민국이 사수될 경우 북-미회담의 중단과 핵실험의 재개를 경고했다.

이전에도 진행되었던 부분과 달리 이번 회담은 수차례의 핵실험과 핵재처리시설의 파괴를 전제하

한은 북-미관계가 개선돼 신뢰가 구축되면 저지른

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회담이 이같이 단

北·美회담 타결 불투명

양측대립 첨예화... 진통 거듭

武力통한 핵해결 경고 美

“航모배치등 파탄 초래” 北

【서울 27일 특보】 북·미 회담이 2차 회담으로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9일 오전 10시 30분까지 28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양측은 회담이 타결될 경우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28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양측은 회담이 타결될 경우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28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북측은 회담이 타결될 경우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28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양측은 회담이 타결될 경우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28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북측은 회담이 타결될 경우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28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양측은 회담이 타결될 경우 2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28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이다.

北수상강화... 힘입어 핵무기능력

【서울 27일 특보】 북한 수상이 2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美 평행선 대립

北, 실험용 내세워 「核카드유지」속셈 「미래의 핵의혹」우려 美도 “양보不可”

寧邊爐 재가동 폐연료봉 처리

【서울 27일 특보】 북한은 27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돌연강경... "다목적용" 추측

제네바 결음 제네바 회담

『얼마나 걸릴지 몰라』
 ○...26일 제네바 북한 대표부내에서 미북 수석

일요일 접촉 연기 반복 해피닝

姜錫柱, 전날과 달리 「美 경고」 언급 안 해

金正日 취임 맞춰 타결 예상도

북한이 24일 姜錫柱의 기자회견에 이어, 주말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은 계속 동해상에서 실시중인 美함정포함군사훈련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또 5MW급 원자로에 새 부품 8000톤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공시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와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美-북 협상의 대 전제인 핵종결의 근본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북 회담이 25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두 차례 또 접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25일 오후 10시 실무회담 시작 직전 미북측에 의해 회담이 일단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정보를 교환하며 양측간의 입장차가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든가, 분선이 유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제네바의 한 정보원은 소식통이 『일방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지만, 이번의 북한측 주장도 8월27일의 합의문정신과 벗어난 내용이 많아 실무선에서 일단 특권을 조율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24일 姜錫柱의 기자회견에 이어, 주말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은 계속 동해상에서 실시중인 美함정포함군사훈련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또 5MW급 원자로에 새 부품 8000톤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공시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와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美-북 협상의 대 전제인 핵종결의 근본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북 회담이 25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두 차례 또 접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25일 오후 10시 실무회담 시작 직전 미북측에 의해 회담이 일단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정보를 교환하며 양측간의 입장차가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든가, 분선이 유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제네바의 한 정보원은 소식통이 『일방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지만, 이번의 북한측 주장도 8월27일의 합의문정신과 벗어난 내용이 많아 실무선에서 일단 특권을 조율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24일 姜錫柱의 기자회견에 이어, 주말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은 계속 동해상에서 실시중인 美함정포함군사훈련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또 5MW급 원자로에 새 부품 8000톤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공시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와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美-북 협상의 대 전제인 핵종결의 근본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북 회담이 25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두 차례 또 접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25일 오후 10시 실무회담 시작 직전 미북측에 의해 회담이 일단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정보를 교환하며 양측간의 입장차가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든가, 분선이 유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제네바의 한 정보원은 소식통이 『일방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지만, 이번의 북한측 주장도 8월27일의 합의문정신과 벗어난 내용이 많아 실무선에서 일단 특권을 조율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24일 姜錫柱의 기자회견에 이어, 주말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은 계속 동해상에서 실시중인 美함정포함군사훈련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또 5MW급 원자로에 새 부품 8000톤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공시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도와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한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美-북 협상의 대 전제인 핵종결의 근본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북 회담이 25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두 차례 또 접촉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25일 오후 10시 실무회담 시작 직전 미북측에 의해 회담이 일단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정보를 교환하며 양측간의 입장차가 충분히 크기 때문이라든가, 분선이 유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제네바의 한 정보원은 소식통이 『일방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지만, 이번의 북한측 주장도 8월27일의 합의문정신과 벗어난 내용이 많아 실무선에서 일단 특권을 조율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제네바에서 2차 고위급회담을 열고있는 미국과 북한은 26일 수석대표회담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가 지난 23일 제네바의 한 식당에서 북한측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한 뒤 식당을 나서고있는 모습. 【제네바=AP聯合】

대표 회의가 시작되기 전 회담장 안팎에서는 페리 姜錫柱의 對北 경고와 함포 키리우도도의 동해안 훈련장과 관련, 姜錫柱 북한대표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남북의 입장을 서로 기대했다. 회담 시작 10분전 姜의 대표부 본관에서 회담이 열리면 북측 대표들은 곧장 들어오기 때문.

姜은 우선 발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뒤, 북측은 '북측의 사마경고, 예상과 달리 미국의 정교성 방위력의 전향, 남북 양측의 대립이 더 이상 어떤 회담을 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나중에 관할이 된다.' '이와 노획한 북측은 '북측의 미북대표도 북측의 정통의 일체 대립의 회담이 아닌, 비공식에 의한 북측의 기대를 갖고 있다. 姜錫柱 대표의 입장'을 밝혔다.

北 姜錫柱의 강경한 언장과 관련,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북회담에서 최대한 양보를 보여야 한다는 시각을 표명했다. 姜錫柱의 정교성으로 주장하면, 취임하기 시기에 맞춰 회담타결을 노리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했다. 회담의 절충한 한 소식통이 '원래의 전제'를 북한이 '北 姜錫柱의 타협이 없었다' 이베트입수 있는 상황인데, 이를 주장하는 것인데, 성사시키려는 것보다는 주석회담선물도 바치고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 이번 제네바 美北 회담이 지금까지의 관례와 달리, 북측은 '북측의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가 지난 23일 제네바의 한 식당에서 북한측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한 뒤 식당을 나서고있는 모습. 【제네바=AP聯合】

美-北 회담 교착

美대표부 "진전 없다" 이례적 성명

北 회담 중단 경고

페리발언 비난 "군사 대응 불사"

【제네바=趙鏞澤기자】미국과 북한은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북한대표부에서 연 5일째 3단계 고위급 회담을 열고 본 결정인 협정을 계속했으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대표부측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회의가 끝난 직후 성명을 발표, "오늘 회담은 아무런 진전이 없어 28일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으며 시간과 장소는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회담에서 미국측이 "진전이 없었다"는 진중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웃국교소신들(28일 회담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백면 오는 30일 이번 회담이 사실상 끝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날 회담은 그 동안의 수석대표 회담과 달리 고위급 회담이 없었다.

【서울=內外】北韓은 27일 美 韓공포합 전담배치와 페리 美군방장관의 군사차 발언 등 美國의 對北 3단계 회담 중단, 제네바 및 특별사찰 거부 입장을 재삼 경고하는 한편,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北韓은 이날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美北 3단계 2차 회담과 관련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키티호크 등 美항공모함 전담배치 및 페리 美군방장관의 對北 군사력 사용 발언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이 무력 대결로 나오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언제까지나 회담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美北 회담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北, "對美 武力대응 불사"

인민무력부 담화 美-北 회담 중단 경고

【北 北韓은 27일 美 韓공포합 전담배치와 페리 美군방장관의 군사차 발언 등 美國의 對北 3단계 회담 중단, 제네바 및 특별사찰 거부 입장을 재삼 경고하는 한편,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北韓은 이날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美北 3단계 2차 회담과 관련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키티호크 등 美항공모함 전담배치 및 페리 美군방장관의 對北 군사력 사용 발언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이 무력 대결로 나오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언제까지나 회담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美北 회담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차 회담과 관련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 키티호크 등 美항공모함 전담배치 및 페리 美군방장관의 對北 군사력 사용 발언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이 무력 대결로 나오려고 있는 이상 우리도 언제까지나 회담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美北 회담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 담화는 또 美군부보 수세력의 對北 군사압력에 대응, '말론만' 아니라 총대로서 회담의 조공을 지키는 것이 인민군대의 사명'이라면서, '만일 또 다시 무분별하게 조선반도에서 불질을 한다면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北韓 특별사찰 거부 우려 계속 불응엔 經援 불가

【인=AP합】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6일 북한이 寧邊의 2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키드 IAEA 대변인이 밝혔다.

키드 대변인은 발언은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이날 오전 제네바에서 재개된 가운데 나왔다고 말했다.

키드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23일 특별사찰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IAEA는 불응의 거부'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별사찰을 거부하는 한 경제지원을 제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네바회담 5일째

美·北 미묘한 양상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 그리고 핵폐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美·北 평행선 「일시결렬」 조짐

서로다른 메시지... 견해차 노출 정각도착·영접생략등 "신경전"

타결엔 한마음... "새달 속개, 정치적 모색" 전망도

【서울 28일 특파원 특보】 제네바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北 판공택하진않을것

제네바회담 5일째

【서울 28일 특파원 특보】 제네바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막판 극적타결 배제못해

진통 예상됐던일... 회담 1週 더 끌듯

【서울 28일 특파원 특보】 제네바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회담이 5일째 진행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양측은 핵무기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美北회담 연기 "연이"

金正日 권력승계가 "惡材"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북한 내부에서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앞두고 '惡材'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대표단이 평양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北, 韓國型 '남북 대화 수용' 불복 "간주"

韓-美 「강경론」에 자극 "벼랑전술" 선회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美-北회담 6일째 답보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북한이 미국의 강경론에 자극을 받아 '벼랑전술'로 선회했다.

“接點 난망” 빈손으로 끝날듯

北·美 제네바회담 표정

특별사찰時機등 첨예 대립

수석대표 회담만 계속 “입장 평행선” 반영

“연료봉時限 이달末” 따라 합의 가능성도

○30일부터 시작된 북·미 제네바 3차 회담은 2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양측 대표들의 표정이 냉랭하다. 특히 양측 수석대표의 표정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회담이 (양측 수석대표 회담) 후 계속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회담이 (양측 수석대표 회담) 후 계속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 양측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네바 북·미 회담의 타결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4일 황錫柱 북한 수석대표의 기자회견 당시 모습.

○30일 회담이 (양측 수석대표 회담) 후 계속될 예정이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30일 회담이 30일 자정까지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쿄 29일路透電】

美·北 회담 결렬

제네바 2차회의 경수로등 異見계속

내달 초 재개기로

訪美 韓외무, 美와 입장조율

【워싱턴=丁海榮기자】미 국무부 측은 지난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속개한 3단계 고위급 회담 2차 회의에서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29일 일 단 회담을 중단하고 각기 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내달 초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특별사찰 및 폐연료봉의 처리 등 핵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정점에 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실상 이번 회담은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표단 중 각료차 수석대표만 워싱턴으로 와서 이번 주말 본부정부와 향후 회담대응책을 협의한 뒤 내달 다시 제네바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다. 그는 또 각료차 대표가 유엔총회 참석차 29일 뉴욕에 오는 韓昇洲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韓美 양국의 공통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장조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1994. 9. 30

北·美 회담 내달 5일再開

성과없이 休會 갈루치 本國귀환... 韓외무와 입장조율

【워싱턴·제네바=陳瑞표·高大勳특파원】제3단계 고위급 3차 회담을 열고 있는 북·미 회담이 29일 수석대표회담을 일시 휴회하고 본국과의 협의를 거

쳐 10월 5일 수석대표회담을 속개기로 합의했다. [제네바] 수석대표회담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회담의 참가가 시급하다고

질문의 계속된다. 로버트 갈루치 수석대표는 30일 워싱턴으로 떠나 본국 정부의 회담결과를 보고한 후 양측은 회담의 참정하기 위한 韓昇洲(韓昇洲) 외무장관

과 만난 뒤 10월 4일 제네바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러나 갈루치(美鎊柱) 수석대표를 본국 대표단에게 데려와 그대면 하는 것이 로버트 갈루치였다.

▽동아일보 1994. 9. 30

경수로 대이성 부정했다

韓외무 北·美 회담 결렬 대비 우방과 대척마련

韓昇洲 외무장관은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이 29일 수석대표회담을 일시 휴회하고 본국과의 협의를 거

는 것이 '한미 정상수리 체택이나 특별사찰 실시' 등의 과한 韓美 양국의 입장이 상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북한이 강경한 입장에 부응하지 않으면 회담'이라는 고지명 회담 막바지의 입장을 비판적이지 않기에 '북한이 회담을 재개할지'에 대해 '아무도'가 알지 못한다.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 결산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평壤에서 5일째인 27일 제네바로 돌아오는 차회담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평壤에서 5일째인 27일 제네바로 돌아오는 차회담이...



北·美 3단계 고위급 2차 회담의 美 國務院 代表團이 27일 평壤에서 5일째인 2차 회담이 27일 제네바로 돌아오는 차회담이...

金正日 권력 安定돼야 타결될듯

北강경자세 계속·양측 요구파악에 만족

이런 회담은 어떤 면에서 소극적이지만, 소극적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과한 표현이다. 북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평壤에서 5일째인 2차 회담이 27일 제네바로 돌아오는 차회담이...

북측의 강경자세가 초지일관 관함으로써 미국측이 실망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관측들은 이번 회담에서 별 진전이 없었다고 보는 북한의 국내 사정이 양측의 타결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측은 강경자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양측의 요구파악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회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대로 타결이 없을 경우 양측은 각각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후연로 건설중단 補償문제 끝까지 고집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후연로 건설중단 補償문제를 끝까지 고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요구파악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회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상대로 타결이 없을 경우 양측은 각각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Ⅱ. 美·北 3段階 高位級會談

5. 社 說 · 칼 럼

社說

주목되는美·北韓회담

한반도의 재개된美·북한회담은 金日成死後, 金正日의 사실상 권력에 상응한 이후 처음으로 對外 협상인점으로서 주목된다. 즉, 3단계회담의 진행과 스티미의 실행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이 세계가 20년간의 정전과 8년간의 대포경연으로 인하여 1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잃고 핵전쟁을 통해 3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500만 원자로에서 추출, 水槽에 보관 중인 핵연료봉의 폐기를 포함하여 핵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생산을 중지(Zero)의 원칙,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조, 핵정수사(의 의무를 다할 경우 輕水爐 원자로 건설 지원 및 對北禁輸 해제, 경제 협력, 그리고 관계 정상화에 앞서 常駐인 라사투소의 고함살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긴장된 세계의 인정 및 유지보장, 核先制 공격을 양측과 약속, 對北정전협약 및 輕水爐, 그리고 정수보 원자로 건설 약속 등을 먼저 하면 보편적인 조건들을 포기한다. 이는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1括타협을 노골의 요구를 거부한다.

따라서 3단계회담에서 투의될 핵심은 의제는 핵무기 문제와 무제한 자금, 미국이 관계정부를 통해 북한의 보내 사실상 영구 포로 시키거나 제3국으로 옮겨 재처리케 하는 이른바 우크라이나식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대핵,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영구정전에서 재차인해 하겠다고 하는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注視해야 할 것은 이번 회담이 미국과 북한 양국의 평화에 의해 추진될 것인가를 의심시키며 진행될 여지가 있는 점이다. 우편의 무효인 정전협약의 핵개발 중지와 함께 과거 핵개발의 정전협약 무시 구명해야 하는 것인데, 도 북한은 과거 협상을 발할 수 있는 2개 未신고 핵폐기물 저장소의 대한 특별사찰을 요청하기 부한채로 영미 양국 처리요 부를 두기 않아 미국이 북부 터 정수보 원자로, 輕水爐, 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최대한 영미 양국이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北核저지를 통해 북한 핵을 옹기 정도 해결했다는 논리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 생산을 위한 자금, 인력에 쏟고 있어 韓美간의 협력하고 광범위한 해결이란 共助정전의 관점에서 협상을 一方 추진할 여지가 큰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로서는 과거 핵무기

명은 손도 내지 못하고 未決로 남게 되고 대신 영구포로자문실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고 경제협력에 의할 수 없이 나사만 되는 것이다.

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완전 검증한 이후 輕水爐 對外관계 개선을 지원할 것이 기본인 것이지만 무엇보다 체면치레 式 北核해결이 아니라 완전한 핵해결이 先行되도록 미국을 통해 방영시켜야 할 것이다.

제네바의 북을 주시함

金日成 사망이로 인하여 3단계회담은 美·北 3단계 회담인 점에 주목된다. 이 회담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핵정수보 원자로 건설 약속 등을 먼저 하면 보편적인 조건들을 포기한다. 이는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1括타협을 노골의 요구를 거부한다.

반면 북한은 긴장된 세계의 인정 및 유지보장, 核先制 공격을 양측과 약속, 對北정전협약 및 輕水爐, 그리고 정수보 원자로 건설 약속 등을 먼저 하면 보편적인 조건들을 포기한다. 이는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다주는 것이 아니라, 1括타협을 노골의 요구를 거부한다.

북의 후계정권의 판해서가 아직 불분명한 것이 노무였다. 그러나 3단계 회담에서 美·北이 각각 내 놓을 카드의 유무에 의존한다면 이 회담이 더더 무명하다.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국은 對北 관계개선을 輕水爐 지원, 핵전제공급, 금지를 보장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경수로 지원은

북의 후계정권의 판해서가 아직 불분명한 것이 노무였다. 그러나 3단계 회담에서 美·北이 각각 내 놓을 카드의 유무에 의존한다면 이 회담이 더더 무명하다.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하고, 미국은 對北 관계개선을 輕水爐 지원, 핵전제공급, 금지를 보장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경수로 지원은

러는 것인가, 아니면 우선 「협재」와 「미대」만이라도 동결해놓고 보자」는 것이기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모호성의 美·北회담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우려로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생산」이라 하는 명목으로 3000만 핵무기가 분면에게 매달려서 양측 대표를 우렁한다. 한편 「핵무기 생산」이 북한정권의 단절이므로 미국의 없

따라서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核發展의 철회의 불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귀중한 康明道가 북한이 이미 핵탄두를 5개 보유했다고 傳言한 것은 철폐소망이라고 해도, 北이 이미 핵탄두를 5개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 사실은 北韓의 핵무기 개발을 100%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 「과거」를 철저히 구명하여 「현재」의 협상을 하라.

미국의 입장을 철저히 수용하여 해서는 안된다. 북한 핵의 실패를 먼저 놓고 상응한 시무수를 설치하며 경수도를 지원할 것이 협상 이후 시무 새로운 협상 협정의 후속이 되겠다. 우리도 북한핵의 대한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경수도를 지원 사업에 힘을 쏟을 수 없다.

社說

韓美, 핵共助에 이상없나

제네바에서 열린 핵군축회의에 참가한 미·북·남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공동목표를 합의했다. 그러나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 핵군축을 위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핵군축을 위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제네바에서 열린 핵군축회의에 참가한 미·북·남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위한 공동목표를 합의했다. 그러나 핵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 핵군축을 위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핵군축을 위한 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자료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핵군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군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군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자료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북한이 핵군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군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군축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이다.

산넘어산, 北核문제

북한 핵무기의 확산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북한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면, 핵무기 문제의 해결이 훨씬 쉬어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넘어산, 北核문제

북한 핵무기의 확산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社說

北韓核에 대한 原則합의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의 3단계 핵합의를 통해 북한 핵무기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큰 틀을 짜놓았다. 말하자면 그동안 실무협상이던 임팩트결의 의제가 비로소 정해진 셈이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핵합의 이 노사리고 있는 예외적 합치이다. 그렇지만 상응간의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용량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 핵국의 안전과 내실을 위한 핵능력을 제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핵합의의 진전임에 틀림없다.

北美의 합의는 金日成과 카터前 미 대통령이 양해를 기초로 했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그에 대한 경수로 지원 및 북한 경제개선을 빼놓지 않고 있다. 金日成 사후 등 장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金日成의 합의정신을 이어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때서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를 핵합의 추진에 미묘한 관계정합을 위한 단계적인 외교조치가 상응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미국은 북한이 새 지도부의 태도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양측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아야 한다. 두 국민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지는 물론이지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그 합의가 너무 작아 그에 출발할 여부의 미미하다. 더구나 북한에서 공식적인 새 권력자가 확정 발표되지 않은 지금 누가 합의할 자가 아닐 수 없는 북한의 최후적인 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남북

공공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 대화에는 용의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결코 대화와 상충하지 않겠다고 이 어깃도 달지 않을 수 없다. 국제관계의 현상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실천여부에 달려 있다. 임종의 순간의 표명이나 합의의 대안이 아니다. 「용의」 합의의 「실질」 합의의 「발견」 시켜야 한다. 협상을 위한 협상을 성공시키려고 북한에 대해 모호한 개념의 합의를 용인하거나 韓美간의 공동체제를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社說

美·北합의以後

北韓 핵무기를 해결하기 위한 美北 3단계 회담은 北韓 핵개발 제로의 「현재와 미래」 부분과 美 國의 경수로를 포함한 경제지원과 외교, 군사관계의 개선을 위한 첫 단계 조항을 포함하는 선의의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이러한 원 구하는 北韓 핵개발이 원천적으로 해결되어서 美北의 명분상 북한은 개성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한 계를 거울기, 오면 유 단계들이 기점으로

美北이 부딪치게 될 첫 번째 단 계설의 이행 합의는 합의의 결과로서 경제 지원이 핵심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인 北韓의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핵합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미국의 핵 주보와 핵무기 개발 자체는 핵합의의 핵심이 아니다. 이 두 요소를 분리해내는 것은 핵합의의 핵심이 아니다. 그러나 핵합의의 핵심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인 北韓의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美北 관계개선의 보다 핵심적인 해판계의 조정은 합서리 내관하기

美北 핵합의의 진전의 따라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 밖에 없는 北韓 핵개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인 北韓의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인 北韓의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인 北韓의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인 北韓의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인 北韓의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美北 핵합의의 진전에서 우리 정부의 특이적 조 심해야 할 것이다. 美北 핵합의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특이적 조 심해야 할 것이다. 美北 핵합의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특이적 조 심해야 할 것이다. 美北 핵합의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특이적 조 심해야 할 것이다.

社 說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韓·美共助 힘을 합친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社 說

北美회담 환영의 기쁨

북한과 남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남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무장관의 승리?

북한측 「특별사찰」에 대한 정부 내의 混線이 너무 심하다. 지난 13일 美北 3단계 고위급 회담의 합의장면이 발표된 후 미국은 북한이 NPT에 잔류한다는 것인 「특별사찰」을 받았다는 통문을 포함하여 그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을 한 일이 였다고 인정하면서 특별사찰을 전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金泳삼 대통령과 열린연 미부 대변인인 通話에서 鄭鍾旭 지원에 특별사찰을 받는다고 서로 확인했다.

그런데 鄭鍾旭 외부장관은 북유럽 방행을 마치고 돌아와 북핵 부대변인 보장된다면 「특별사찰」이라든가 용어를 고지한 발언이 없었다고 단언하고 파문을 일으켰다. 이 와중에 鄭鍾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인 「최철하」지 못한 발언이라

고 반박했고, 金大환은 또 그 다음 날 「북한 핵문제에 미신고 시선아 대한 특별사찰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해결될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북미간 대결체 구조화의가 정부 입장에 정리한다. 특별사찰이 거를 강한 특별사찰 관철된 발상을 잡기가 했다. 또 그것도 아니었다.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보 절충적이었다. 매우 엄격한 표현이다. 특별사찰을 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아니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특별사찰이 포함된다든 것이지 명확하지 않다. 아시다시피 해설을 들먹고 통행연 대변인과 외부 부대변인 사이에 異見이 드러났

다. 「그러면서 「일반주조」의 핵심은 외부부와 맞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별사찰이 포기할 수 없다는 混線이 뒤늦게 드러났고, 불 수 있는 韓界 외부장관의 뜻이 맞았을 셈이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정부의 북핵 정책 체계의 亂調를 탐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사찰이 진정한 정책의 장문의 무질서, 차관관의 장문의 정면 도전이다. 구조화의에서 조정된 것을 부처 대변인의 제각기 탐 리 해석하고 정체를 과민 하나의 국가정책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가 한 부수위를 내는 통행연보 정체를 단행이 내지 못한다면 조정 회의가 정행과 하리라.

오랜만에 이르러 북외 특별사찰을 거부하느라 자신을 지켜 되었다. 양이런 북은 도둑 고자세로 나를 짓이 틀림없다. 「미편 우리가 北核의 입장을 벗어날 진간 외부인만 사실한다든 되는 것이 아니다. 미신고 시선을 살펴보는 것이 특별사찰이며, 특별사찰 절차 이행이 없으면 또 그것을 규명하는 행이 없다. 또 특별사찰은 외부수석비서관이 보장되는 것이다. 특별사찰부의 파기하느라 부을 떠 규명하느라 말이지 할 수가 없다. 특별사찰을 보지 않느라 정부에 떠 말 하며 北의 정행양측 말들을 들 수 있

또 특행발언 또 政策혁신

북한 핵무기 개발을 다룰 수 있도록 의회수석씨가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이미 정행이 내지 않았다. 개인적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도 추진한다.

북미의 대립모멘트 많은 것이 정부 내부 자들의 불협화음이다. 최정인 정행이 북미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특별사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정적 개인적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외적이며 구체적인 발호기 안면과 북한 정행의 모순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북한 사정에서 북미가 보여준 어떤 수

그 국가의 정파의 원리와 정행 별다른 수밖에는 없다. 별다른 아나타 그 최정인이라 영언은 정행과 부정행위 수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관해서이다.

어떤 정행소 아나타 문제가 하자출신 인 것만의 대립모멘트 대해 신 박정인 정행이 대처를 추구해왔던 것이다. 북미의 양측 부고 항부대변인의 역할 최하 미가 파 동시제를 추진하느라 정행은 부 주정인 최정인의 지극히 정행이다.

그 사태를 계기로 북미의 대립모멘트 정행은 어느 때에까지 진행될 것인지, 그 정행은 어느 때에까지 대립적인 행태를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정행의 정행과 정행 양측이 누가 영언의 정행과 정행은 정행과 정행의 정행이 정행의 정행이다.

특별사찰이 이미 金泳삼 대통령을 떠났던 때 대변인의 진화를 통해서 재확인된 발언이 되고 韓界가 이를 부각하지 않지 않는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정행이 단행 해서 韓界에서 발할 수 있는 정행과 정행이 정행이 정행이다.

정행과의 鄭鍾旭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북한의 과거 행 의화행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의석에 아나 박정인 영언과 국가 해명정반말을 하긴 했지만 정행이 깨닫지 않았다.

특별사찰이 이미 金泳삼 대통령을 떠났던 때 대변인의 진화를 통해서 재확인된 발언이 되고 韓界가 이를 부각하지 않지 않는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정행이 단행 해서 韓界에서 발할 수 있는 정행과 정행이 정행이다.

정행과의 鄭鍾旭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북한의 과거 행 의화행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 의석에 아나 박정인 영언과 국가 해명정반말을 하긴 했지만 정행이 깨닫지 않았다.

특별사찰이 이미 金泳삼 대통령을 떠났던 때 대변인의 진화를 통해서 재확인된 발언이 되고 韓界가 이를 부각하지 않지 않는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정행이 단행 해서 韓界에서 발할 수 있는 정행과 정행이 정행이다.

社 説

아마추어의 외교안보담

北核보유를 둘러싸고 나타난 정부나 언론의 입장이나, 北核의 투명성이나 핵무기의 확산 정도에 대한 우려의 심도, 핵무기의 확산 정도에 대한 우려의 심도, 핵무기의 확산 정도에 대한 우려의 심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北核확산의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합사리 미국과 북한의 경수로와 북한사찰의 관할권을 놓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핵무기 확산의 심도를 대변하는 지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 확산의 심도를 대변하는 지표이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北核확산의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北核확산에 따른 핵무기 확산의 확산은...

이로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 北核 핵무기는 국가의 사찰의 관할 범위에 포함된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개인 또는 단체의 핵무기 보유는 핵무기 확산의 심도를 대변하는 지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 확산의 심도를 대변하는 지표이다...

서사태 분석이나 정책 마련을 하는 데는 국가의 의지를 위한 전제조건은 분명하다. 핵무기 확산의 심도를 대변하는 지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무기 확산의 심도를 대변하는 지표이다...

▽서울신문 1994. 8. 28

北核보유면 非핵화무효 당연

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北核의 핵무기보유가 확인되면 韓半島非核化선언은 무효화 될것』이며 『그경우 정부는 국가안보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의 이날 발언은 北核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지 새로운 내용을 밝힌 것은 아니다. 25일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北核의 과거 핵규명을 위한 특별사찰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

北核은 美國과의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寧邊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규정에는 핵시설에 대한 정규·임시·특별사찰에 관한 의무이행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北核이 특별사찰을 받지 않겠다고 때를 쓰는 것은 국제사회의 룰을 짓밟는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李장관의 발언은 국제관행과 상식을 벗어나는 北核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美國과 北核은 3단계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9월초에 갖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특별사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는지 알수 없지만 우리정부는 특별사찰이 야말로 흥정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원

칙이며 이 점을 분명히 하도록 美國정부에 촉구해야 할것이다. 또 외신보도에 따르면 北核이 獨逸에서 플루토늄의 密買를 기도한 증거가 드러났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핵폭탄이나 핵물질을 갖고 있고 갖기 위해 돈을 쓰고 있는 북한에 40억달러의 경수로 건설 지원 자금을 제공할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美國이 北核과의 핵협상에서 이 문제도 제기해야하며 우리정부도 미국과 유럽총의 협조를 얻어 이 사실의 진위를 확언해야 한다고 본다.

北核核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에는 韓·美간에 이견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美國은 北核의 과거 핵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에 역점을 두는 인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 없다. 北核의 과거핵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그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非核化的 포기를 선언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李洪九장관의 경고는 시의 적절한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정부내에서 특별사찰의 형식을 고집왔었다는 외무장관 발언으로 얼마간의 혼선이 있었으나 北核의 과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실질적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北核은 물론 미국도 이점 일말의 오해도 있어선 안될 것이다.

社說

「과거核」 눈감자는 말인가

미국은 북한의 NPT(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해 석했다. 북의 특별사찰 거부에 대해 양측은 합의하고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특별사찰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 여부를 유엔 안전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 여부를 유엔 안전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 여부를 유엔 안전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특별사찰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안해도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과거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유엔 안전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면 이치를 의도한다. 그럼에도 이면 이치를 의도한다. 특별사찰 포기부터 먼저 하니 북한의 의미 행부기를 가지고 싶어도 상상할 수 없다. 이야기 인지를 묻는다. 말로는 「북이 핵무기

기를 쫓게만 가져도 非核化 선언은 무효가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몇개를 가지더라도 묵인하겠다는 속셈이라면, 그것은 규범을 기만하면서 우리의 안보에 스스로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사찰」이라고 해서 특별사찰 자체를 사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일방사찰 수준이던 검사행위를 불평한다. 특별사찰이 불행투명성 보고인 것이다. 「被사찰국의 핵무기 개발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 특별사찰 후에도 투명성을 보장하기까지는 「산발」 산이다.

특별사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된 시설에서 불투명성을 추출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지만 미신고 시설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핵사찰을 실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핵개발을 허용하는 조치가 바로 특별사찰 포기이다.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부는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실제로는 특별사찰을 포기하면서 절충으로 감수로 지원에 특별사찰이

필수 「과거적」한 핵무기 보유국인 것이 아니라 「과거적」한 핵무기 보유국인 것이 아니라 「과거적」한 핵무기 보유국인 것이다. 특별사찰과 감수로 지원의 연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되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일방사찰 수준이던 검사행위를 불평한다. 특별사찰이 불행투명성 보고인 것이다. 「被사찰국의 핵무기 개발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 특별사찰 후에도 투명성을 보장하기까지는 「산발」 산이다.

이제 정부는 특별사찰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북핵과거를 규명하지 못할 경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되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일방사찰 수준이던 검사행위를 불평한다. 특별사찰이 불행투명성 보고인 것이다. 「被사찰국의 핵무기 개발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이 특별사찰 후에도 투명성을 보장하기까지는 「산발」 산이다.

사설

‘한국형’에 남북 뜻 모으길

남한에서 만든 원자력발전소가 북한 땅에 세워질 것인가, 그것은 분단 이후 갈라서서 다투어오기만 했던 겨레가 통일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미국 3단계회담의 합의성명으로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잇따라 터져나온 절제되지 않은 논의들이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거부 의사 표명을 불러왔다. 한국형의 수용 여부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적국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깊은 협의과정에서 예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형 수용을 전제로 한 논의는 성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 논의들이 남북 대결의 구시대적 보수강경론으로 기울었던 점은 반성을 요한다고 하겠다.

북한이 북-미 2단계회담에서 처음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한국형 원자로를 북한에 세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큰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사가 없음을 위장하기 위한 전술점으로 평가하려 했기 때문이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의 핵개발 동결의사가 재확인되고서야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됐다. 3단계회담에서 북한이 보인 반응을 미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정부가 북한이 수용할 경우를 대비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려 나선 것은 마땅한 일이나, 그 과정이 온당했는지는 여러가지로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정부는 우선 김영삼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이를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족의 앞날을 설계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핵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다는 일을 잊지 않았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모두 밝혀야 한다는 데는 조금도 이론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민족발전 공동계획’이라는 광목할 만한 정책을 밝히는 마당에서는 ‘핵과거’는 새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니었을까.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북한 핵문제에 관해 우리와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음에도 여전히 ‘특별사찰’이라는 형식에 얽매는 모습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사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북한의 이러한 의사표시가 남한에서의 불쾌한 논의에 자극받아서였는지, 또는 한국형 경수로 수용에 따르는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형 수용이 북한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분명히 민족화합을 위해 도움이 되고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일이 될 것으로 믿는다. 우리가 정부에 ‘특별사찰’을 고집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이유 또한 같다.

社說

美·北 전문가 회담의 시각

미국과 북한의 8·12 제네바 합의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0일 평양과 서울에서 전문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평양에서 전문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은 워싱턴에서 전문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핵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핵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북한의 8·12 제네바 합의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10일 평양과 서울에서 전문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평양에서 전문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미국은 워싱턴에서 전문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핵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문가 회담은 북·미 양국 간의 핵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형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이 북한측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평양에 불어온다. 미국은 조만간 평양에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은 조만간 평양에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은 조만간 평양에 방문할 예정이다.

사설

북-미 회담 도와 민족과제 풀어야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회담 당사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3단계회담 1차회의 합의에 따른 전문가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등 예정된 절차를 무리없이 밟아가고 있지만, 한국이 제기하는 강경한 주장들이 회담의 진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북한이 남한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비판할 경우, 우리측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를 무시해버리는 데 익숙해 있다. 반대로 미국의 비판에는 무조건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지 않으나 싫다. 북한과 미국이 한가지로 비판하는 오늘의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겨레신문〉의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 정부의 관리들이 북-미 회담 합의성명 이후 한국내의 비판이 실제 사실과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아마추어적이라며서 어이없어 한다고 전해왔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한 외교관은 "특별사찰을 경수로 건설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는 남조선 당국의 입장은 조-미 회담을 깨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북한과 미국의 이러한 비난은 몹시 불쾌한 일이지 하나 그 비판의 타당성과 앞으로의 과정은 냉철히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미 회담 합의성명에 대한 한국에서의

비판은 핵과거를 밝혀낼 특별사찰 문제를 소홀히했다거나, 북-미 수교로 가는 진행속도가 예상외로 빠르거나,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특별사찰에 관해서는 우리 생각을 여러차례 밝혔지만, 핵안전협정의 이행 등의 과정을 통해 북핵과제가 드러난다면 굳이 그 형식이나 명칭에 매달려야 할 이유는 없다. 북-미 수교의 속도 문제도 한국과 사전협의를 가졌다는 미국측 해명, 북-미 수교가 빠르게 이루어진다 해서 그로 인해 얻게 될 우리의 불이익이 무엇인지 얼핏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었다면 그 이유는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던 합의정신과 그 분위기를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에도 이어가지 못한 남한 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남한 정부가 북-미 회담을 꺼려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 특별사찰에 아무리 무게를 주더라도 북-미 회담의 성공과 맞바꿀 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미 회담의 성공은, 비록 남한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한반도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풀어갈 귀중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 회담이 갖는 의미를 대국적으로 헤아려 작은 문제에 매달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社 說

韓國배제의 함정

북한이 北美國립이 본격화되자 신지여 한반도의 평화문제까지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북한이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북한이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논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영웅의 간첩처럼 까지 행동했다고 판단한다면, 그를 의식해 남한이 양보할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졌다. 북한과 남한은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북한이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고 관계를 개선할 때 북한 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고 북한은 사색을 이 양보할 것이다.

그러나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韓의무가 美國에 핵안담

어제(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북한이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韓의무가 美國에 핵안담

어제(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북한이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韓의무가 美國에 핵안담

어제(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북한이 1994년 8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제외하고 미·과·집중 시달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과·과 평화정책을 평가하는 1994년 9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은 그 행방 불상이다. 그러나 북한배제의 함정배제 시도가 무너진다면 수면정인 것이다.

社說

한·미 調律 이후

한·미의 무장관한 회담에서 이루어진 對北(북) 정책 조율의 결과로 양국간의 긴장이 있었던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사실 미국은 제네바 미·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내용이며 우리의 입장도 구애되지 않고 남북정착을 진두를 인수를 주었다. 이제 2개월 양이로 다가온 미국의 중산선거와 내년 5월 시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연장이라든가 스키텔에 쫓기고 있다가 「부다페스트안정화」의 의도 때문인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양국의 불협화음의 양상을 무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로서는 일단 연합사무소가 설치되고 나면 北核(북핵)은 未濟(미제)로 빠져 한반도에 한국·북한·미국이라는 3각체제가 성립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의 전개였다.

이제 미국은 어쩌면 다소 성급했던 대북정책에서 속도를 조절하게 됐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는 추진할 수 없는 한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가 생각되기도 한다. 특히 중요한 이슈인 과거 핵 규명, 輕水爐(경수

로) 제정, 미·북관계 등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조율의 異質(이상)이 없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과거 핵 규명과 미·북관계를 남북관계와 연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과거 핵 규명인 「특별사찰」에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현적 조치」로 조정되었고,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의 「정체」로 「반(이)비로 바뀌었다. 미·북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며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고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따라서 한미간의 조율은 양이로든 매우 중추적이다.

물론 우리도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위한 것이라면 미·북협상의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의 共存共榮(공존공영)을 천명하며 주변국들의 남북한 교차승인에 의한 압도체제를 수긍해왔다. 그러나 日成(일성) 이후 한반도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을 의면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불만스런 것이면 미국이 그런 현실에

개입하지 않고도 두 서두를 점이다. 긴밀성의 개입의 한 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입의 불협화음의 변수를 활용하면 하지는 않고, 긴밀성 사람 이전에 구상했던 계획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한·미간의 조율의 새로운 변수를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기회로 그달 그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면 대북정책을 버리고 보다 철학적 基調(기조)가 있는 통일안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北·美 회담서 경계할 일

平壤과 베를린에서 北韓과 美國의 외교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에 관한 기술적 문제, 북한의 핵연료봉 처리 및 경수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담이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 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北-美 관계 개선과 조화된 南北韓 대화 병행, 과거 北核의 투명성 확보와 한국형 경수로 지원 등 반드시 관철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韓昇洲의 무장관이 미국을 방문, 정책 조율을 통해 미국정부의 협조 약속도 받아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개운치 않은 느낌이다. 그동안 있어왔던 韓美간의 불협화음,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돌출행동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며 유념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해 북한의 핵 非확산조약 탈퇴 선언 후 미국이 고위급 회담을 시발로 북한과 접촉을 시작한 것은 寧邊의 미신고시설의 특별사찰을 통한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서였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특별사찰은 일단 접어두고, 예상치 않았던 핵연료봉 처리에 관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한 약속은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고 경수로등을 지원해주게 되면 핵계획을 동결하겠다는 것뿐이다.

이 약속의 대가로 북한은 미국과의 修交를 위한 정치회담에서부터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보장, 팀 스피리트 훈련 잠정

적 중지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 게다가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전문가 회담에 즈음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지경이다. 이렇게 된다는 북한이 항상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단계적으로 새로운 카드를 돌출시켜 활용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미국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그들의 오랜 對南 전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해 修交하고 평화협정을 맺은 뒤 궁극적으로는 駐韓미군의 철수까지 이뤄보겠다는 冷戰시대의 낡은 논리에 매달려 있다. 그렇지만 韓半島 안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한국을 빼놓고 北-美 평화협정만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미국이 그런 협정을 받아들일 리도 없지만 설혹 받아들여도 그것으로 평화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한은 이런 실현불가능한 虛構에서 헤어날 수 없다.

미국정부는 물론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초 입장에서 물러서온 인상을 주는 北-美 접촉의 경과를 미국의 그러한 다짐을 1백% 믿어도 좋을지 걱정스럽게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혹 미국이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에 조금이라도 이용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정을 깨는 중대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각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北美회담과 양국의 협력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北美 3단계 고위회담 2차 회의가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北美 3단계 고위회담 2차 회의가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北美 3단계 고위회담 2차 회의가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北美 3단계 고위회담 2차 회의가 23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연락사무소 설치와 과거 핵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기 위한 협상카드를 수락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로 여기는 것이었다. 미국은 미국으로부터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로 여기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北美 3단계 고위회담 2차 회의를 수락했다. 이 회의는 양국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내홍을 겪는다. 나우셀이다. 이제 北美회담의 성패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고 있는 북한 자신의 안정도 보장할 수 있는 길은 남북간의 대결의식이 아니라 대화 협력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北의 爐型선택 안된다

베를린에서 열렸던 北美전문가회의를 통해 북한의 현재와 미래 핵을 포기하는 대신 얻게 될 輕水爐原電에 대한 속살을 드러냈다.

북한의 金正日대장은 폐막 후 회견에서 輕水爐原電을 거부하며 爐型을 자신이 선택하고 미국인 비영단 부단하며 原電건설이 국제사회의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핵무기 원전건설을 위한 국제적 시도의 참여하는 것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애써 생색을 냈지만 眞實한 원전건설에 있어 핵무기 원전 배제시키고 자신들이 주권자인 정황을 하겠다. 자신들이 주권자인 정황을 하겠다.

이것이 북한이 북한의 태도를 정부가 대항하게 한 이유인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 원전건설을 위한 국제적 시도의 참여하는 것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애써 생색을 냈지만 眞實한 원전건설에 있어 핵무기 원전 배제시키고 자신들이 주권자인 정황을 하겠다.

주도하지 않은 한 단 하루도 지불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시사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경수로원전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핵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強硬」에도 불구하고 몰래 추진한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이로 반계 되고 있다.

「核」 核은 물론 舊式원전대신 最新의 경수로원전을 얻게 되는 것인데도 購買者의 대우를 하지는 않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 「원전건설비용」 지불하겠다는 50MW와 2백MW를 건설한다. 폐기에 다른 보상비 500을 지불한다. 「단」 주권은 남고 「단」 핵무기 원전 건설을 한다.

경수로원전도 또한 북한의 수단이 몇 가지로 한정될 수 있다. 첫째 몇몇은 공개 발표에 爐型선택에 대한 세부 관련 정보도 지양한다. 둘째 원전 건설에 대한 자신들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原電관계 속셈이 드러난 것과 폐를 맞추어 방한한 로버트 갈라치코 부부차관보를 맞아 韓美양국이 원전보급에 「한류」로 하되 北의 체면을 고려, 「원전」을 고집하지 않기로 하고 한국이 비영단과 건설비를 주도하기로 한 기본의미를 재확인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와 함께 韓美대통령이 갈라치코 부를 통해 金泳三대통령에게 전한 口頭 메시지에서 「核」가 원전 해결의 유일한 수단으로 제언하고 있다. 「한」 것이 북한에 대한 변형은 韓美共助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수로 원전도 또한 북한의 수단이 몇 가지로 한정될 수 있다. 첫째 몇몇은 공개 발표에 爐型선택에 대한 세부 관련 정보도 지양한다. 둘째 원전 건설에 대한 자신들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韓美대통령이 갈라치코 부를 통해 金泳三대통령에게 전한 口頭 메시지에서 「核」가 원전 해결의 유일한 수단으로 제언하고 있다. 「한」 것이 북한에 대한 변형은 韓美共助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社說

거정되는 미국北核협상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북미회담은 1993년 12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이를 시사해 준다.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문제로 혹시 부활시킬지란 데 드린 말을 의식해 나중엔 아기가 염두였다. 영남면 한 부가장수의 친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해커와 아씨의 친서문의 글자도 명백히 보인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양담담차판본은 미국의 對아시아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북의 끝없는 메쓰기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北美(北)고위급 2차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 다. 지난 8월 1차회담을 끝내고 발효된 합의문항은 17항이었는데, 1차회담 후 2차회담은 17항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 있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북미회담은 1993년 12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북미회담은 1993년 12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北核문제 해결을 위한 北美회담이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된 것을 보면, 북미회담의 對北정책과 협상당기대를 절망시키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8월의 금리폭락과 북한 금...
100달러를 넘어서는 한화 가치가 되...
금리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금리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금리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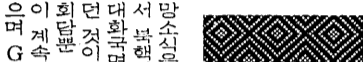
8월의 금리폭락과 북한 금...
100달러를 넘어서는 한화 가치가 되...
금리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금리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금리폭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朱 變 日 (유림총국장)



유림총국장은 유림그룹의 대표로...
유림총국장은 유림그룹의 대표로...
유림총국장은 유림그룹의 대표로...



유림총국장은 유림그룹의 대표로...
유림총국장은 유림그룹의 대표로...
유림총국장은 유림그룹의 대표로...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美-北 회담과 정파의 견제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정적상태를 재확인하며 북한은...

東亞時評

동아시아의 정치 동향...
동아시아의 정치 동향...
동아시아의 정치 동향...

相 權 朴



박근혜의 정치 동향...
박근혜의 정치 동향...
박근혜의 정치 동향...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관인 핵투명성 보장되어야...

東亞時論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安秉俊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동결과 「과거」모호성

北核동결과 「과거」모호성... 北核동결과 「과거」모호성...

北核동결과 「과거」모호성... 北核동결과 「과거」모호성...

北核동결과 「과거」모호성... 北核동결과 「과거」모호성...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朱燮日 (유럽총국장)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北核問題의 對峙...

갈라치와 「白頭」맹목

갈라치와 「白頭」맹목... 갈라치와 「白頭」맹목...

갈라치와 「白頭」맹목... 갈라치와 「白頭」맹목...

갈라치와 「白頭」맹목... 갈라치와 「白頭」맹목...

경제가 부흥한 이후의 경제... 경제가 부흥한 이후의 경제... 경제가 부흥한 이후의 경제...



새금신단... 새금신단... 새금신단... 새금신단...

北-美 합의와 우리 對應策



李容弼 (서울대교수)

韓美 對北 정책 調律 시급

정확한 표현을 수반... 정교한 표현을 수반... 정교한 표현을 수반... 정교한 표현을 수반...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北, 핵카드 정치적 利用 경제를 일관된 통일정책·비전 제시 긴급

북한이 핵카드를... 북한이 핵카드를... 북한이 핵카드를... 북한이 핵카드를...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정세전망과 대외정책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宋鎮赫 칼럼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政府는 설명을 촉구하여

정부는 설명을... 정부는 설명을... 정부는 설명을... 정부는 설명을...

정세전망과 대외정책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북한이 경제개혁...

대개민 진보민 상계

대개민 진보민... 대개민 진보민... 대개민 진보민... 대개민 진보민...

대한민국은 8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 운동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않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권력의 집중과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出龍河

△서문대교수·국회정치학

민주주의의 본질은 권력의 분산과 국민의 참여에 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권력은 곧 폭력이 된다. 따라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들이 권력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정치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정치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정치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정치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眞洞習習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정치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정치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정치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정치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는 어떻게 하는가?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정치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투쟁과 이해관계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정치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時論

외교의 기적

외교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徐丙喆

외교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교의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네바 협약」의 격화

제네바 협약의 격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네바 협약의 격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네바 협약의 격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제회의의 격화

국제회의의 격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제회의의 격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구명 불규칙성

인구명 불규칙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인구명 불규칙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평화와 협력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는다. 진정한 외교인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통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時論

北진삼시화필요

북진삼시화(北進三時化)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양을 개방하며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박... (Author's name)

북진삼시화(北進三時化)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양을 개방하며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寄稿

寄稿란 일반 국민이 언론사에 기고하는 글로, 주로 시사평론이나 사회비판에 관한 글이 많다.

北韓의 경수로 전환 수용



이인필 (Author's name)

이인필의 북한 관련 기고문. 북한의 경제 상황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核문제 시간벌기 속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양을 개방하며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고 있다.

지원등 실현가능성 적어 일단 외교적實利 챙기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양을 개방하며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고 있다.

반미시행수령명수명령

반미시행수령명수명령(반미시행수령명수명령)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각종 활동을 규정하는 명령이다.

原電개공송기틀

원전개공송기틀(원전개공송기틀)은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는 소식이다.

韓南圭
美南관계 對北政策의 重要한 變遷을 迎할 時節에 達한 美南關係의 現狀과 對北政策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라고 題한 專論을 刊載한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北-美關係 「술」을 뒤엎다

1편 | 북-미 관계의 變遷
美南關係의 變遷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남북간의 變遷

美南關係의 變遷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美南關係의 變遷」의 內容은 美南關係의 變遷에 關한 見해를 述한 專論이다.

金大中 칼럼



북한의 「北行버스」

북한이 「北行버스」를 運행하는 것은 北한이 北한을 北한으로 北한하는 北한이다. 「北行버스」의 北한은 北한을 北한으로 北한하는 北한이다. 「北行버스」의 北한은 北한을 北한으로 北한하는 北한이다.

남한정부 對北政策

남한정부는 北한을 北한으로 北한하는 北한이다. 「北行버스」의 北한은 北한을 北한으로 北한하는 北한이다. 「北行버스」의 北한은 北한을 北한으로 北한하는 北한이다.

전반적인 관행과 관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더 보수적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었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論壇



朴相彦

북한문제의 韓美관계

북한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統一칼럼



朴相彦 (서울연구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韓美對峙 虛實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조선일보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李東旭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北核과 韓半島 평화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북핵 문제... [문장들]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北 靑년들 3만 명

북한은 9월 24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 3만 명의 청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1차 회담에 1만 5천 명이 참가한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李銀哲
(서울대교수·核공학)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朱燮日 (유럽총국장)

美-北 정상회담, 핵해법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李銀哲
(서울대교수·核공학)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朱燮日 (유럽총국장)

美-北 정상회담, 핵해법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北美 9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담이 23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 바와 같다. 2차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10개항을 중심으로 2차 회담이 24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에서 열린다.

새아침 새地平



安 秉 俊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安 秉 俊

안秉俊은 1954년 10월 15일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北-美회담과 韓-美결속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東亞日報

동아일보가 9월 29일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李 正 賢



이정현은 1954년 10월 15일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평안북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北核대응 무엇이 문제인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질지 지켜볼 일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Ⅲ. 金日成 死後 關聯記事

○ 金日成 葬禮

“北韓 對外 정책 불변”

南北정상회담 곧 입장표명

소식통·전문가 분석

開放적근근추진 가능성도

金正日체제 사실상 출범

장례후 주석就任유력

北방송 「민중의 태안」 호칭

북한 송년특집을 통해 김정은의 집권 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김정은이 당내에서 이북정권을 주도하고 있을 북한 소식통이 당내 가까운 시일안에 북·미 고위급회담을 열어 김정은이 주석에 취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정은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이번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이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이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이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은이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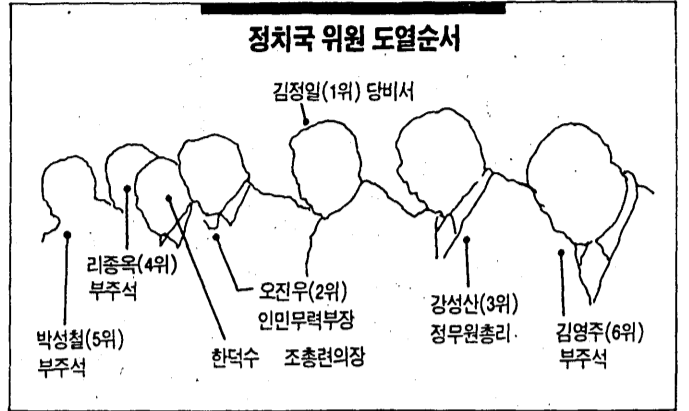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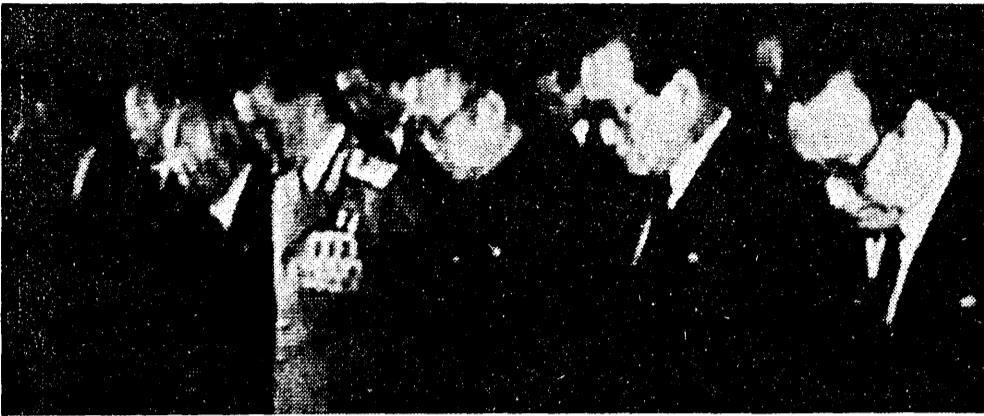
김정일의 11일 평양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경향신문 1994. 7. 12

장례후 주석취임 유력

북 김정은 「송년 특집」 순진

북한은 김정은이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장례식 후 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주축 북한 권력구도 참배 모습서 분명히 드러나

도열순서 장의위 명단과 일치...사망 발표전 권력승계 일정준비 끝낸듯

김성수 기자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구도가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9일 김 주석의 사망 즉시 발표된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지만 11일 저녁 북한 <중앙텔레비전>으로 공개된 당·정·군 수뇌부의 참배 모습으로 더욱 명백해졌다. 오래전부터 후계자로 굳어진 김정일 당비서는 이날 수뇌부를 대동하고 공식적인 참배행사를 가졌다.

지난 5월6일 조총련 간부를 접견한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이다. 김 비서는 조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침통한 표정으로 유리관을 둘러보았으며 간혹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오진우 인민무력부

장·리을설 호위총국장등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참배는 김 주석의 시신을 앞에 두고 북한 수뇌부들이 겹겹으로 도열한 채 진행됐다. 사회주의국가에서 권력 순위를 나타내는 도열 순서는 앞서 발표된 장의위원 명단 순서와 거의 일치했다. 맨 앞자리에는 김 비서를 중심으로 왼쪽에 오진우 인민무력부장(서열 2위), 지팡이를 짚은 한덕수 조총련 의장, 리종욱 부주석(4위), 박성철 부주석(5위), 김영남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8위), 최광 군총참모장(9위) 등이, 오른쪽에는 강성산 정무원 총리(3위), 김영주 부주석(6위), 김병식 부주석(7위) 등이 도열했다. 장의위원 명단에 올라 있지 않은 한 조총련 의장이 이 자리에 끼인 것이 특이했다. 생전의 김 주석과 친밀했던 그는 김 비서의

배려로 신병 치료차 평양에 장기 체류중이었다. 맨 앞줄 정치국 위원들 뒤로는 김 비서의 친동생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서열 47위), 계모인 김성애 여맹위원장(104위)의 모습이 보였다. 김 비서의 매제이자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당 3대혁명소조부장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김 비서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주판관드대사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했다. 워낙 참배객이 많고 서열이 낮아 화면판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북한 전문가들은 이 점에 대해 별다른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날 공개된 참배는 가족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행사이기 때문에 장의위원 2백73명의 명단에 끼지 못한 김평일의 참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공개된 참배행사가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미리 준비된 절차에 의한 행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북한 수뇌부가 조문 의식을 비공개로 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한 뒤 "앞으로 방송에서 조문객들의 참배행렬 모습이 잇따라 방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의 관점에서 구태여 의미를 찾자면 북한의 권력승계가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북한 수뇌부가 이날 참배행사를 방송한 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인민들에게 김 주석의 시신을 보여주는 한편, 후계자 김정일 비서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도가 확고히 건

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권력공백에 대한 인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또 이번 참배 행사를 보면서 북한 수뇌부가 김 주석의 사망 발표 전에 이미 그 이후에 펼칠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망 발표 이후 △김 주석의 애도에서 점차 김 비서에 대한 총성 결의를 늘려가는 방송들의 보도태도 △당 중앙위원 후보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 대한 평양 소집 △김 주석의 시신 공개와 수뇌부의 참배행사가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 김 주석의 생전에 김정일 당비서로의 후계체제 전환작업은 상당히 견실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괴팍」·「수재」 평가 양극화

金正日 어떤 인물인가

북한이 평양에서 10월 10일(음력 7월 15일)에 열릴 예정인 '94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총서기(제1부총리 겸 정치국 부위원장)가 10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아들로서, 김일성 주석의 뜻을 받들어 북한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서적등 탐독 國際감각 수준급 부정부

총살현장 즐겨보고 제멋대로 반말

북한이 평양에서 10월 10일(음력 7월 15일)에 열릴 예정인 '94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총서기(제1부총리 겸 정치국 부위원장)가 10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아들로서, 김일성 주석의 뜻을 받들어 북한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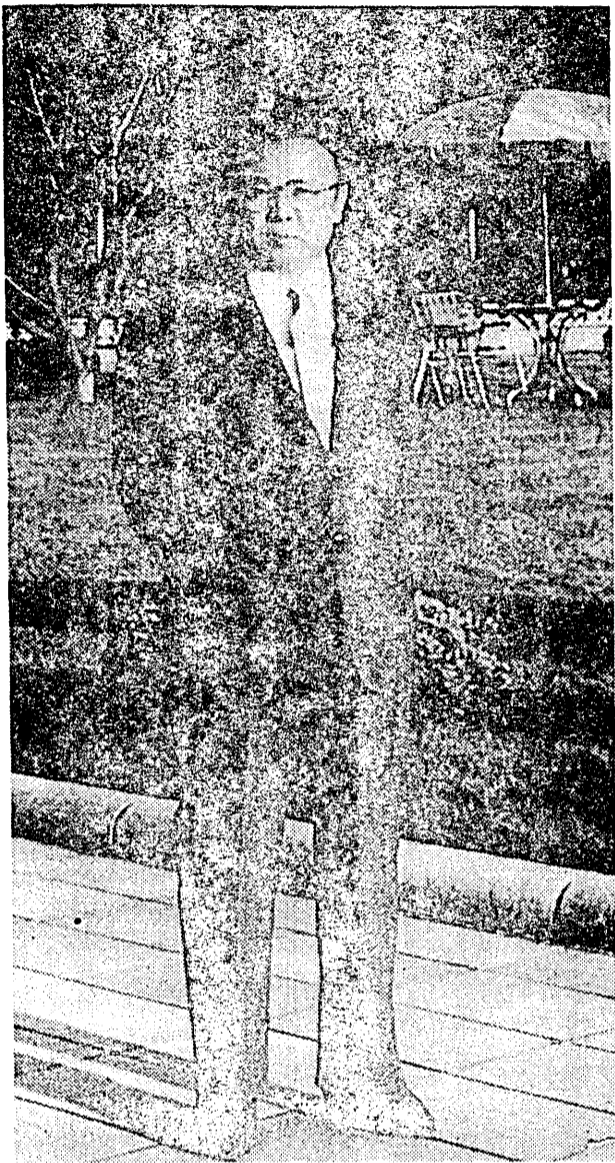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평양에서 10월 10일(음력 7월 15일)에 열릴 예정인 '94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총서기(제1부총리 겸 정치국 부위원장)가 10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아들로서, 김일성 주석의 뜻을 받들어 북한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평양에서 10월 10일(음력 7월 15일)에 열릴 예정인 '94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총서기(제1부총리 겸 정치국 부위원장)가 10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아들로서, 김일성 주석의 뜻을 받들어 북한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김일성 주석의 장남으로, 김일성 주석의 사후에 북한을 이끄는 3대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모이를 북한에서 「괴팍」을 촬영한 김정은 총서기

해외의 시가도 두갈래

이남의 시가도 두갈래

최근 이남의 시가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시가인 '한글시'로, 다른 하나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부정적 시각

○...한국의 시가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시가인 '한글시'로, 다른 하나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경제난 해결위해 南北합작등 가능성 긍정 권력투쟁없이 권좌 올라 오래 못갈것 부정

○...한국의 시가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시가인 '한글시'로, 다른 하나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10월경 시작

○...한국의 시가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시가인 '한글시'로, 다른 하나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국의 시가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시가인 '한글시'로, 다른 하나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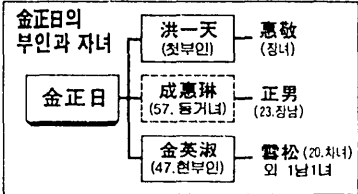
○...한국의 시가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시가인 '한글시'로, 다른 하나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국의 시가도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시가인 '한글시'로, 다른 하나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한글시'는 '한글시'와 '한글시'를 혼용한 '한글시'로 나뉘고 있다.

“金正日是 2번결혼에 2男3女”

「정인」등 통해서 본부인·자녀들

정인(78)은 본부인이나 자녀를 통해 본부인·자녀들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78)은 본부인이나 자녀를 통해 본부인·자녀들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私生活문란 구체화인 어려움

여배우 成惠琳과는 동거·결혼 엇갈려 장남 正男도 13세부터 「황태자수업」說

정인(78)은 본부인이나 자녀를 통해 본부인·자녀들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78)은 본부인이나 자녀를 통해 본부인·자녀들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베일속 여인」金永淑

「金正日의 夫人」 그녀는 누구인가

47년생...金日成대학출신 재원 중매 결혼해 「안방內助」 일관

정인(78)은 본부인이나 자녀를 통해 본부인·자녀들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78)은 본부인이나 자녀를 통해 본부인·자녀들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정인은 본부인인 김정일의 생애를 추적해왔다.

▲추진기자

“김정일 전권장악”

평양방송 “당·군·정 최고수위” 보도...승계완결 시사

북한의 <평양방송>이 김정일 당 비서가 '당·군·정의 최고수위'에 올랐다고 밝힘으로써 북한 내부적으로 김 비서에 대한 권력승계가 마무리됐음을 나타냈다.

13일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평양방송>을 통해 “김일성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인 지도자 동지를 당과 국가,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에 모시게 됐다”고 밝혔다. <평양방송>은 “김정일 동지의 영도를 높이 받들어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방송> 등 북한방송들이 12일 오전 김일성 주석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이라고 호칭한 것과는 달리 이날 오후에는 김 주석에 대해 ‘위대한 수령’ 또는 ‘위대한 어버이수령’으로만 언급했다”고 밝히고 “12일중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김정일 비서가 김일성 주석이 갖고 있던 당 총비서직뿐만 아니라 국가주석 및 당 군사위원장 등 3개 요직의 승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관계자는 “이 보도가 당·국가·군을 한꺼번에 거론했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권력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나 김정일에 대한 그동안의 수식어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공개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김정

일을 총비서로 선출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태호 기자

金正日 곧 통치구도 재편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당분간 기존노선 견지할 듯 對南·對美 관계개선 추진가능성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승계체제 확정한 平壤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의 후계자를 김일성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최고 수위인 김일성의 후계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다.

북한 “한국조문단 환영”

‘조평통’ 담화...판문점·제3국 입국가능 신변보장

북한은 14일 남한에서 보내오는 김일성 주석 조문단의 북한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 조평통은 이날 오전 <중앙방송>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남조선의 각당·각과 인사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평양에 조문단을 격조하러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따뜻한 동포애로 정중히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남조선에서 오는 조문단은 판문점을 통과해 올 수

도 있고 제3국을 경유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이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방송들은 국제태권도연맹 최홍희 총재와 재미 언론인 문명자씨, 홍동근 목사, 김진경씨 등 재미동포 4명이 조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박종언 기자

김정일, 김주석 정책 계승

핵·대미관계 등 변함없어

북한 고위당국자

【도쿄=김효순 특파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13일 <교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미 전권을 장악한 김정일 비서가 김일성 주석의 정책을 모

두 계승했기 때문에 핵정책·대미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핵확산금지조약 복귀나 경수로 전환에 대한 지원 요청 등 “김 주석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방침은 그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미 3단계 고위회담의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에 대해 “17일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 또는 2, 3일 뒤가 될지 알 수 없으나, 협의를 서둘러 재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1994. 7. 26

金日成, 유서없이 死亡

北관리를 처음 밝혀
【서울=】北韓의 金日成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에 에 아무런 유서를 남기지 못했다고 북한 고위관리들이 처음 밝혔다. 북한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25일 말했다.
이들 소식통은 북한 고위관리들이 金日成이 7일 심한 심근경색 발생후 불

과 하루만인 8일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유서도 남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南北韓정상회담 추진에 관여중인 한 북한 고위관리는 平壤의 다른 고위관리들에게 金日成사망 직후 상황을 직접 상세히 확인해 본후 이같이 밝혔다. 한 소식통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崔泓熙·韓德錫를 비롯, 재미교포 金鎮慶(연변과학기술대총장·文明子(기자)·洪東根(목사) 등과 독일 린스터대학교 수송수출, 법민련 재중조선인본부 의장 양영동, 법민련 구라파지역본부 의장 최기환 등이 참석했다. 金이 해외동포를 만나는 자리엔 부주석 李鍾玉, 외교부장 金永南, 군중감동장 崔光, 당정치국원겸 당비서 桂應泰·崔泰福, 최고인민회의의장 楊亨燮, 당비서 金基南·金國泰·金仲麟·金容淳, 부총리 金漢, 국가검열위원장 全文燮 등이 배석했다. <俞英九기자>

▽중앙일보 1994. 7. 15

金正日 공식활동 시작

黨政간부 배석 해외교포 만나

北韓 군부의 金正日에 대한 총성 맹세가 잇따르는 가운데 金正日은 해외 동포 조문단을 맞이하는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崔泓熙

것을 시작으로 ‘수령’으로서의 공식활동을 했다. 內外통신에 따르면 金正日은 14일 金日成 사망과 관련, 조문차 북한을 방문중인 金日成 사망에 애도의 뜻을 담아 위문한 것과 관련, 사의를 표했다.

黨政간부 배석 해외교포 만나

北韓 군부의 金正日에 대한 총성 맹세가 잇따르는 가운데 金正日은 해외 동포 조문단을 맞이하는 국제태권도연맹 총재 崔泓熙

것을 시작으로 ‘수령’으로서의 공식활동을 했다. 內外통신에 따르면 金正日은 14일 金日成 사망과 관련, 조문차 북한을 방문중인 金日成 사망에 애도의 뜻을 담아 위문한 것과 관련, 사의를 표했다.

▽중앙일보 1994. 7. 15

北, 金대통령 비방재개

金日成 주석 사망 이후 對南 비방을 자제해 오던 북한은 15일 오전을 기해 金日成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다시 시작했다.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30분 平壤방송을 통해 한반도를 민주조선(韓民戰) 대면의 명전의 땅에서 美國·日本의 정세는 金日成 주석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을 때 있다고 밝혔다. <崔源起기자>

北, 장례식 19일로 돌연延期

「이례적 조치」 배경 주목

内部결속·선전활용 추구

20일 추모집회 권력승계 진통 가능성도

북한이 장례식 19일과 의 제중 김일성장례식을 이를 간 양기, 양평 양양에서 거행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전 11시 30분에 장례식 장소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장례식과 함께 16일 오후 8시에 김일성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속사정 있나」 各國 관측무성

배경분석속 「權力승계 異狀」여부 촉각

북한내부의 권력승계와 관련 국외의 관심이 높고 있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김재현 교수는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희귀사례』 확대 해석 경계 美 金正日 건강악화·알력說 日 주석·총비서職 분리異見 中

북한이 김일성 장례식을 19일로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김재현 교수는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례적 조치』 배경 주목
북한이 장례식 19일로 연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김재현 교수는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권력승계 진통』 가능성도
북한이 장례식을 연기하는 것은 권력승계의 진통을 나타내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김재현 교수는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선전활용』 추구
북한이 장례식을 연기하는 것은 선전활용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의 김재현 교수는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장례식 당일인 16일 오후 8시에 장례식 추모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속사정 있나』 各國 관측무성. 『權力승계 異狀』여부 촉각. 『희귀사례』 확대 해석 경계 美 金正日 건강악화·알력說 日 주석·총비서職 분리異見 中. 『이례적 조치』 배경 주목. 『권력승계 진통』 가능성도. 『선전활용』 추구. 『内部결속·선전활용』 추구.

頂上 회담 무산 전주곡인가

北、對南 비방재개 장례연기 속사정

북한이 金日成 장례식을 하루 앞둔 16일 이를 갖자 기염을 토했다. 金日成 사후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장례연기가 발포 그대도 수만명' 조부인 장례연기를 위해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완전 「판cake」 아닌 경고일수도

비방재개

金正日체제 이상신호 가능성

장례연기

한국의 언론이 의외의 주제를 발췌하여 판과우라 추위도 판과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장례연기가 발포 그대도 수만명' 조부인 장례연기를 위해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장례연기가 발포 그대도 수만명' 조부인 장례연기를 위해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 開城의 어느가정 주민들이 15일 金日成 사진 밑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 [북한중앙통신제공공파= 연합뉴스]

내부결속등 다목적용 金正日건강 악화說도

다. 북한이 이번 발표에서 영결식과 추도대회를 분리한 것은 정치행사의 규모를 그만큼 더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金日成 추도대회는 金日成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부결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된다.

북한이 장례연기가 발포 그대도 수만명' 조부인 장례연기를 위해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16일 북한은 16일 16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장례연기를 단행할지 여부를 놓고 남북이 각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운구행렬 대형영정을 앞세운 김일성의 운구행렬이 19일 애도인파로 가득찬 평양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MBC제공】

광란의 통곡 金日成 장례식

屍身 다시 주석공안치

어제 운구행렬 平壤시가지 한바퀴돌아

【평양 19일 김일성의 사면에서 11일만에 운구행렬을 진행한 김수산의 장례(주석)의 장례행렬을 앞세운 운구행렬이 평양시내를 돌았다. 김수산의 사면에서 진행된 운구행렬이 19일 애도인파로 가득찬 평양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김일성의 운구행렬이 19일 애도인파로 가득찬 평양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김일성의 운구행렬이 19일 애도인파로 가득찬 평양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金日成 영도” 강요

金日成 추도대회 기존정책 유지 시사

북한이 20일 오전 10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참석행렬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식행렬을 위한 사실상의 추도대회를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의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성 추도대회는 김일성 黨·政·軍고위간부들과 평양시내에서 김일성 추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日成 추모대회 왜 마련하는가

북한은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9월 1일 추모대회는 김일성 주석의 생애를 다룬 3부작 드라마 '대독'을 방영하고, 김일성 주석의 추모공연, 김일성 주석의 추모공연, 김일성 주석의 추모공연 등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다.

주석직 추대하기와 혁명정권 권력핵심의 세대교체 관심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代이은 忠誠" 과 사용 집회



장례식장의 초췌한 김정일

김정일이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平壤 5월 10일】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전문가가 본 金日成 장례식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전역 집단취면에 심뚝



高太宇 <북전역 집대회>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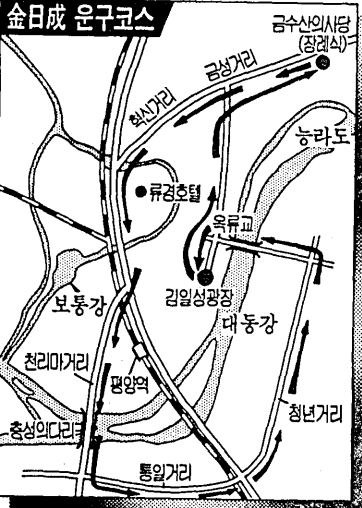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추모대회를 9월 1일과 2일 양일간 3일간 3차례에 걸쳐 열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70년 생일을 맞아 7월 17일 평양에서 대규모 축하행사를 열었다. 김일성 주석은 이날 평양에서 70년 생일을 맞아 축하행사를 열었다. 김일성 주석은 이날 평양에서 70년 생일을 맞아 축하행사를 열었다.

"가지마세요" 연도주민들 오열



19일 금수산의사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의 70년 생일 축하행사에서 오열하는 연도주민들. 사진: 김성민



연도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70년 생일 축하행사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70년 생일 축하행사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의 70년 생일 축하행사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金日成장례식 이모저모

장례식 당일에는 김일성 주석의 70년 생일 축하행사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은 평양에서 거행되었다. 장례식은 평양에서 거행되었다.

장례식후 金正日찬양가집중방송

장례식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찬양가집중방송이 실시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찬양가집중방송이 실시되었다.

추모인과 혼란대비 平壤 곳곳에 전차배치

평양 곳곳에 전차와 군용 차량을 배치하여 추모인파를 통제하고 혼란을 예방했다. 추모인파를 통제하고 혼란을 예방했다.

金聖愛 서열 14위로 영결식 참석

북한 최고지도자 김성애가 장례식에 14위 순으로 참석했다. 김성애가 장례식에 14위 순으로 참석했다.

유모부인 시뻘룩

장례식에 참석한 유모부인들이 시뻘룩한 모습을 보였다. 유모부인들이 시뻘룩한 모습을 보였다.

장례식 장사 파궤

장례식 장사 파궤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장례식 장사 파궤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다.

발인장소 되돌아온 金日成시신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발인장소로 되돌아왔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발인장소로 되돌아왔다.

주석궁 永久안치 가장 유력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영구 안치할 가장 유력한 장소는 주석궁이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영구 안치할 가장 유력한 장소는 주석궁이다.

별도기념관·平壤근교 안장설도

평양 근교에 별도의 기념관을 건설하여 안장할 설도 있다. 평양 근교에 별도의 기념관을 건설하여 안장할 설도 있다.

“권력어젠다를 둘러싼 권력투쟁”

미리 20일 TV와 라디오를 통해 청천벽력 같은 김일성주석의 장례행사 장면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문은 김주석의 시신이 미제 반부진의 실패 유무에 대해 수천만 군중이 평양시에서 열린 김주석의 장례식장에 모이는 등 김주석의 장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한 평壤차별의 정도를 알 수 있도록 TV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의 한쪽에는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진 영구 기념관을 보도할 수 있는 대역 평壤차별을 슬퍼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이 신문의 이들 장례식에서 북한당국의 김주석의 인민애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金日성장례식 해외반응

주석 또는 노동당주석의 장례식 특이 사항 중시. 이 김이 아직 이를 지을 때 말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뉴욕=차秀철기자】 20일 일본 외무성 20일 金日성장례식과 추도대회를 보고 『金日체제로의 정권이양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寺田輝介보도판)고 분석했다.

이 김장례식에 나타난 권력투쟁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후반의 조준과 보이지 않았던 대 구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김추도대회에서 김정일의 임명하지 않고 김永南부총리가 대륙한 점이나 무척 수차례 보인 김정일의 모습은 그의 장례식에 관해 적지않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金日의 함마도 않고 모습이 추해 보인다』를 이유로 볼 때 김의 이상

관영신문들은 平壤에서 대 규모 金日추도대회가 열린 20일 추도대회 및 장례식 기사를 합쳐 생전 金日의 활동장면을 담은 사진 4장을 게재했다.

【北京=慎榮樹기자】 러시아의 TV 방송은 19일 저녁 뉴스시간 일부에 金日장례식의 장례식을 극히 간략하게 보도했다. 제1TV는 『金日장례식

유럽의 타임스지는 『남한정부가 김주석의 장례식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것을 소개하고 북한의 주권을 위해 북한은 주민들에게 생명을 희생할 가능성의

【아시아】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金日의 추모가 한반도통일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으며, 출구를 위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아시아】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金日의 추모가 한반도통일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으며, 출구를 위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한반도 통일 가까워졌다” 지적도

권력서열등 특별한 변화 안보여

러 언론 “金日成유해 처리 관심”…간략 보도

이 있거나 아직 권력투쟁의 끝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이들 신문은 국제면담에 이른바 『抗日戰爭』의 金日成을 지칭하는 제목으로 군용을 임명 金日成 사진을 비롯해 지난 92년 9월 중국 남부 도시 鄧小平과 함께 四川省 省都인 成都 시 峨眉山에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 북한 공산

【東京=黃宇淵기자】 『中國』 기관지인 人民日報를 비롯한 光明日報, 北京日報 등 중국의 언론

【北京=慎榮樹기자】 러시아의 TV 방송은 19일 저녁 뉴스시간 일부에 金日장례식의 장례식을 극히 간략하게 보도했다. 제1TV는 『金日장례식

【아시아】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金日의 추모가 한반도통일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으며, 출구를 위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아시아】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金日의 추모가 한반도통일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상황을 가져왔으며, 출구를 위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왼쪽)과 김용남(오른쪽)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의 50주기 생일 축하연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남은 김정은의 장남인 김도경의 아버지이다. <도쿄AP통신>

5가지 취약점의 金正日 정권의

20일 김정은 추모대회에 참가한 김정은의 추모공연이 20일 평양에서 열렸다. 김정은의 추모공연은 김정은의 추모공연이 20일 평양에서 열렸다. 김정은의 추모공연은 김정은의 추모공연이 20일 평양에서 열렸다.

후계체제를 구축한 북한인 김정은이 20일 조문차 방북중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김정은의 추모공연이 20일 평양에서 열렸다. 김정은의 추모공연은 김정은의 추모공연이 20일 평양에서 열렸다.

- ① 확고부동한 추종세력이 없다
- ② 「金日成후광」 활용·차별화 상충
- ③ 개혁·개방하면 체제동요 우려
- ④ 핵카드 효력 저의 소진돼간다
- ⑤ 꼬리무는 金正日 건강이상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왼쪽)과 김용남(오른쪽)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의 50주기 생일 축하연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남은 김정은의 장남인 김도경의 아버지이다. <도쿄AP통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왼쪽)과 김용남(오른쪽)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의 50주기 생일 축하연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남은 김정은의 장남인 김도경의 아버지이다. <도쿄AP통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왼쪽)과 김용남(오른쪽)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의 50주기 생일 축하연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남은 김정은의 장남인 김도경의 아버지이다. <도쿄AP통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김정일이 보지 못한 김정일체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왼쪽)과 김용남(오른쪽)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의 50주기 생일 축하연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남은 김정은의 장남인 김도경의 아버지이다. <도쿄AP통신>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왼쪽)과 김용남(오른쪽)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의 50주기 생일 축하연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남은 김정은의 장남인 김도경의 아버지이다. <도쿄AP통신>

붕괴 불피, 改革만 내부불만, 폐쇄만 對北정책 韓·美와 공동보조 중시

여론도 "金日成체제보다 불안하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왼쪽)과 김용남(오른쪽)은 20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의 50주기 생일 축하연에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용남은 김정은의 장남인 김도경의 아버지이다. <도쿄AP통신>

19일째 공석안다타나

"金正日 시한부 삼"

외교소식통 肝경화 말기-뇌신경도 이상

【北京=연합】북한이 현재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은 지난 8월 8일, 김정은이 평양에서 김정일의 건강을 점검할 때,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계일보 1994. 7. 30

"金正日-金英柱 권력투쟁"

北京소식통

일부원로등 金英柱에 주석할애 요구

【北京=연합】북한이 현재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北어제 「전승기념일」행사

金正日·姜成山 불참

북한이 7월 20일,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 한 관제자는 행

북한이 7월 20일,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 이 날 행사할 하

북한이 7월 20일,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 추모행사 集

북한이 7월 20일,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동아일보 1994. 8. 9

金日成 사망일만 대대적 추도행사

【서울=연합】북한은 8월 9일,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한이 7월 20일,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金正日 내주침주석취임”

中國인민부부장 8.15께...총비서職도

“북한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

【東京=聯合】북한정권의 김정은 총비서(총서기)가 8월 15일 중국인민부(중공) 부부장(부총서기)을 초청해 베이징에서 고위직간담회를 개최할 의향에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頂上의담年内平壤·서울개최” 金正日、戰略수정 발의

北韓소식통

【평양=연합】북한정권의 김정일 총비서(총서기)가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일성 묘향산 사망 오늘밤 아간 2일째

【평양=연합】북한정권의 김일성 총비서(총서기)가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인 김일성의 묘향산 사망 소식을 접한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월 15일 평壤에서 열린 8.15 광복절을 전후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직간담회 참석 의향을 밝힌 바 있다.

金正日 실용노선 백할듯

北美회담 타결로 對外정책

김정일이 지난 10월 10일 평壤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때,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김정일이 지난 10월 10일 평壤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때,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명분보다 實利추구에 명점 金達玄등 실용주의자 신뢰...對日수교도 적극적



김정일이 지난 10월 20일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때,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김정일이 지난 10월 10일 평壤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때,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김정일이 지난 10월 10일 평壤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때,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金正日 "개방추진"

경제재건강조 主席職 추모기간 공석유지

【東京=연합】북한의 김

정일이 지난 10월 20일

가 있었던 지난날 20일

재미교포 文明子씨(US

아시아 뉴스 주판)와 회

담을 갖고 경제재건을 위
對美 關係개선등 金日成 과 關係해 주석 자리는
해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 의유지를 그대로 계속할
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은 "북한이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때, 남북관계는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북한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할 것이다"고 대답했다.

영남(三)지방에서는 비록 한...
영남(三)지방에서는 비록 한...
영남(三)지방에서는 비록 한...

金正日 건강기원 北방송 편지소개

이것이 화제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화제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화제화되고 있는 것...

한달째 公席불참... 꼬리무는 건강이상說

공석(公席) 불참...
공석(公席) 불참...
공석(公席) 불참...

김정일 건강이상說

[8.15] 박인갑 기자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20여일간 공식행사서 모습감취 北방송 「얼굴없는 動靜」만 보도

20여일간 공식행사서 모습감취...
20여일간 공식행사서 모습감취...
20여일간 공식행사서 모습감취...



◇金日成장례중 권력서열 2위 吳振宇인민무력부장과 조문객을 맞고 있는 초취한 모습의 金正日. 그의 건강악화설이 북한의 권력승계에 이상이 있다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金正日 권력승계 지연 金日成 시신 처리 때문”

북·한권력승계 지연

【본보 = 평壤】북한이 북한의 국가주권과 無條件적 기층의 독립권,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金正日의 시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시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시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시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시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력승계 지연에 핵심부분

정부는 권력승계 지연을 최근 북한 체제를 지칭할 때 「金正日 체제」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일 체제의 지도력, 안정성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 1개월만 가까이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직을 분담할 예정인 김정일의 사망이 정일의 1개월 동안 공신상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찮은 북한체제

김정일의 사망이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金正日 신상에 변화” - 내부정치작업 “갈려 金日成 이용 對美수교·人事 마무리” 시각도

김정일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金正日승계 확산못해”

美 北韓전문가

【로스앤젤레스 21일路透電】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승계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승계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김정일의 승계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승계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Ⅲ. 金日成 死後 關聯記事

○ 權力承繼 遲延

北 권력승계 「異常」징후

중앙방송 논설 内部암투 가능성 시사



金正日

“代이은후계 해결못하면 野心家에 黨 노략당할것”

金正일의 「유일적 영도」보장 강조

북한 김정은의 권력승계 문제가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 1994. 8. 20

“金正日 주석취임 지연 건강異常 가능성”

정부관계자 추정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사면후 40일 만에 권력승계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 1994. 8. 21

北 권력승계 지연 이상하고 그만큼 이상하다

북한 김정은의 권력승계 문제가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 문제가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당내에서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金正日 政敵 숙청 신호탄인가

北중앙방송 "야심가 경제" 의미



지난달 19일 金日成장례식때 金正日和 함께 애도를 표하는 북한지도자들(앞줄 ㉠로부터 吳振宇인민무력부장·金正日·姜成山총리·金英柱부주석, 뒷줄 ㉡로부터 楊亨燮최고인민회의의장·金敬姬당경공업부장·金鐵萬정치국후보위원등), 이들 가운데 누가 숙청될지 관심이다.

북한 중앙방송이 21일 석묘절을 거절했다(▶보도) 「야심가」 음모자들의 배가 사실이라면 이역사내 신행을 경고한 것인데 부정의가 「벌의 불」인 지양아 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시사하는 것이다. 전자를 받아들일 경우 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전적으로 수락하는 것인데, 후자가 金正日의 권력승고와 더불어 해소되어 할 계가 무난하게 신속히 이루어질 것과 반대로 후권력개편과 함께 주요 승계자(인)의 등장보다 늦어진다.

이런 점까지 간혹 고려할 수 있다. 「야심가」의 상술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김일성의 권력승계를 발발시킬 수 있다. 권력승계를 가만만 두고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金正日의 권력승계를 앞당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74년 2월 金正日을 후계자로 내정하면서 내부적으로 4명의 후보(姜成山, 姜英柱, 姜成山, 姜英柱)를 후보로 들어 후계자로 제가 재대로 해결되지 못해 모택동과 스탈린의 업적이 훼손된 것으로 북한은 심상치않았다.

한편 金日成의 사망·입장을 계승한다면 후계자 추대주체가 선출되어야 한다. 중앙방송이 지정한 金正日의 권력승계자 임박했음을 뜻한다.

〈俞英九기자〉

70년대도 반대파 野心家 몰아제거 權力집중 의도 黨 개편 때 드러날듯

에 반기를 든 핵심각부들을 물려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권창립일인 9월 9일과 대동강이민 10월 10일 전후가 될 것인 관측이 유력하다.

방종의 또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철저한 세위야 한다고 여겼을 때 이것은 金正日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金正日의 노골적인 의도는 분명해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 기준을 확립하게 급하다. 김정일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지도노선과 金正日의 지도노선

에 반기를 든 핵심각부들을 물려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정권창립일인 9월 9일과 대동강이민 10월 10일 전후가 될 것인 관측이 유력하다.

방종의 또 후계자의 영도체계를 철저한 세위야 한다고 여겼을 때 이것은 金正日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金正日의 노골적인 의도는 분명해야 한다. 당의 조직사상적 기준을 확립하게 급하다. 김정일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지도노선과 金正日의 지도노선

金正日중심 단결 再강조

평양중앙일보

【평양 22일 중앙일보 특파원 특보】 평양중앙일보가 22일 '단결을 위한 단결'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다. 논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단결을 위한 단결'을 인용하며, '단결은 단결을 위한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논설은 '단결을 위한 단결'을 인용하며, '단결은 단결을 위한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논설은 '단결을 위한 단결'을 인용하며, '단결은 단결을 위한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金日成 7월8일 아닌 5일 死亡 金正日 결백 증명위해 주시 부검

北韓소식통 박혜

【평양 22일 중앙일보 특파원 특보】 북한 소식통인 박혜씨는 22일 '김정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다. 논설은 '김정일의 죽음'을 인용하며, '김정일은 7월 8일 아닌 5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김정일의 죽음'을 인용하며, '김정일은 7월 8일 아닌 5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평양 22일 중앙일보 특파원 특보】 북한 소식통인 박혜씨는 22일 '김정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다. 논설은 '김정일의 죽음'을 인용하며, '김정일은 7월 8일 아닌 5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김정일의 죽음'을 인용하며, '김정일은 7월 8일 아닌 5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수령空白」 장기화... 추측무성

「金正日승계」4가지 시나리오

북한의 권력승계자 김정일은 누구인가. 김정일의 사망 후 북한은 권력공백에 빠졌다. 김정일의 사망 후 북한은 권력공백에 빠졌다. 김정일의 사망 후 북한은 권력공백에 빠졌다.

북은 미룬채 後繼강조 주목

순조지행 사전 정지작업 **건강異狀** 승계해도 短命
권력일투 主席職은 양보 **對外公란** 정책 혼선 노려

【평양 22일 중앙일보 특파원 특보】 북한 소식통인 박혜씨는 22일 '김정일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다. 논설은 '김정일의 죽음'을 인용하며, '김정일은 7월 8일 아닌 5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김정일의 죽음'을 인용하며, '김정일은 7월 8일 아닌 5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장례식 모습. 위는 김정일의 묘지. 김정은은 김정일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신경고" 파문... 뭔가 있나...

김영삼 사임 이후 북한이 남을 사적 정권으로 인정할지,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북한이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북한이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김정일은 남을 사적 정권으로 인정할지,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북한이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음모·야심」 표현 92년후 3번째

체제결림돌 제거 신호가 능성도

반대세력 숙청작업·사상강화운동 고삐 조일 듯

남북한이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북한이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이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북한이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眞相탐간자>

김영삼 사임 후 북한이 남을 사적 정권으로 인정할지, 김영삼의 임명 후 북한이 자명제할지...

中지도부 金健康 걱정

金德龍의원 「訪中대화」 전언 "몸안 좋아 권력승계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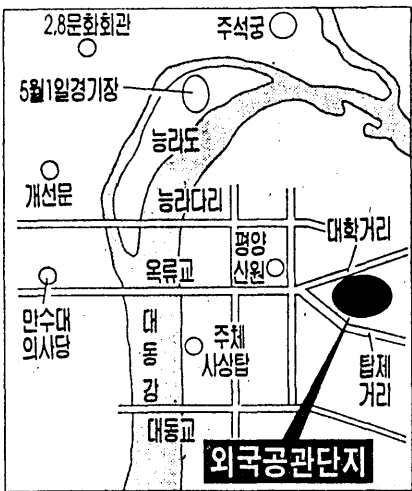
중지도부 김영삼의 건강을 걱정하며, 권력승계가 안될 수 있다고 전언했다고 보도했다.

<眞相탐간자>

평양에 「金正日타도」전단

지난 19, 20일 "사회주의 국가가서 권력 세습 원말"

외교단지 살포... 직후 "야심가 배신" 경고 방송



북한 평壤의 외교공관단지 20일 새벽 사이의 「金正日」 지에서 지난 19일 밤부터 을탄도하자 「내용의 유...」

인물 전담의 과량 살포했 다고, 서울의 西方 외교소 신들이 23일 밝혔다.

이 있다든 사실을 일부 세 계의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부추되었다고 말했다.

단지 이외 지역에도 뿌려졌는데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유인물의 발파를 단정된 다름 아닌 김일성 양친을 통해 「수령의 혁명」 「수령」을 내보냈다고 <서울특기자>

80년대말부터 조직적 저항

反金正日세력 활동 略史

평양의 외곽지역에서 「정권」을 타도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온 반정권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은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평양의 반정권 세력은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 세력은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軍·黨간부 핵심 역할... 유학생 등과 연계

일부 軍·黨간부 핵심 역할... 유학생 등과 연계

작년 원산 대학가에 金비난 대자보 붙기도

작년 원산 대학가에 金비난 대자보 붙기도

일단 1994년 8월 24일... <서울특기자>

올라간 1994년 8월 24일... <서울특기자>

‘순변리타타타’ 아인리플 출판리더

【순변리=연】미 정부 부가 23일 평양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이 24일 평양에서 끝났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순변리=연】북한은 2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이 24일 평양에서 끝났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北反체제 지식층이 주춤

▽세계일보 1994. 8. 25

북한에서 반체제 지식층이 주춤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체제 지식층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순변리=연】북한에서 반체제 지식층이 주춤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반체제 지식층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순변리타타타” 신종인태너 “반권련투쟁최초진행”로본선 佛 日 美

【순변리=연】북한은 2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이 24일 평양에서 끝났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순변리=연】북한은 24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회담이 24일 평양에서 끝났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활동무대 전국으로 확산 革命1세대도 '代이은 충성' 불만고조

북한에서 활동무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세대도 '代이은 충성' 불만고조되고 있다.

【순변리=연】북한에서 활동무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1세대도 '代이은 충성' 불만고조되고 있다.

“北에도 「反金」 있다”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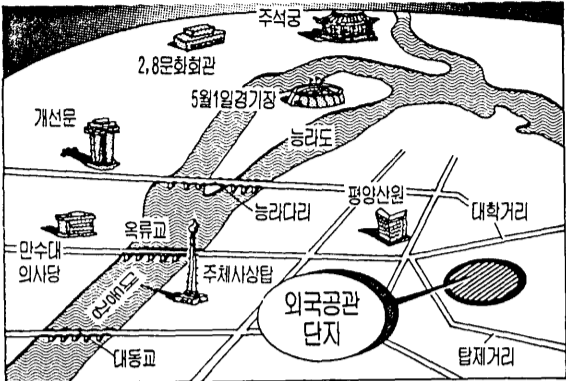
“金正日타도” “유인물” 외교단지 살포 배정

평양의 유인물 외교단지의 살포 배정...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계획적이고 치밀... 상당한 계층 행위이다

정부 “民心동여 反證” 최약 후관상향 우려

정부는 「民心동여 反證」 최약 후관상향 우려...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北 얼마나 일어났나

東歐 몰락 이후 “多發”

동유럽 몰락 이후 “多發”...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작년 대규모 대학생秘密조직 적발 경기장서도 살포... 구타당해 卽死도

작년 대규모 대학생秘密조직 적발...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정부는 「民心동여 反證」 최약 후관상향 우려...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反체제」 전단 배포...

北「金正日타도」전단 시인

·韓國안기부서 발령모였다. 주·간
 북한이 26일 평양에서 발령된 전단 시인인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金正日타도」 전단 시인 1만 5천여 장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안기부서 관계자가 밝혔다. 이 전단 시인은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기부서 관계자는 이 전단 시인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단 시인은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26일 평양에서 발령된 전단 시인인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金正日타도」 전단 시인 1만 5천여 장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안기부서 관계자가 밝혔다. 이 전단 시인은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기부서 관계자는 이 전단 시인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단 시인은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北내부에 권력투쟁” “전단살포 사실이다” “獨러

兩國관리를 확인 “개혁해도 체제 붕괴 될 것”

【東京11日聯社】金日成사 후 권력투쟁이 높고 북한 내부에 권력투쟁이 있다고 러시아 안기부서의 한 관리가 24일 밝혔다.

에프게니 바차노프 러시아 안기부서장은 24일 북한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자신은 북한이 러시아의 개혁을 하더라도 체제 붕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에 기중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살고 있는 북한인들의 보 고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 혀 뒤 북한내에 김정일의 전단 시인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東京11日聯社】북한 안기부서장은 23일 평壤에서 열린 회담에서 김정일의 전단 시인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단」살포 누가 했을까

북한이 26일 평양에서 발령된 전단 시인인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金正日타도」 전단 시인 1만 5천여 장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안기부서 관계자가 밝혔다. 이 전단 시인은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기부서 관계자는 이 전단 시인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단 시인은 김정일의 타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기부서장은 23일 평壤에서 열린 회담에서 김정일의 전단 시인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外國생활 경험있는 지식계층 행동 유력 「숙청겨냥 金正日 자작극」은 설득력 약해

정부 “대규모 조직적 저항세력은 없는듯” 분석

안기부서장은 23일 평壤에서 열린 회담에서 김정일의 전단 시인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개혁이 북한 내외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反金正日 세력」 조직화 될까

「전단 살포」로 공금증 증폭

평양의 반김정일 세력인 「김정일 반대」 전단의 「반김정일 세력」이 최근 북한 내 「反金正日 세력」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의 집권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에서 김일체습 체제에 반대하는 기류는 과거에도 잠깐 일어났다. 귀족들과 고위관료들이 반 김주일이, 양주 인민의 전 단과 북부지역 산발적인 「김정일 반대」 전단 살포가 요란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김정일 반대」 전단의 「반김정일 세력」이 최근 북한 내 「反金正日 세력」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의 집권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래서 조직화된 「反金正日 세력」의 「전단 살포」도 그만큼 늘었다. 「전단 살포」는 북한 내 「反金正日 세력」을 중심으로 한 김정은의 집권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 단기간의 저항 세력이 조직화되고 보기는 어렵다. 김의 20년간 후계수업과정에서 지난 76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김정은의 집권 반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파등 지식인층서 주도 가능성

北자체분석도 "주민 27% 敵對계층"

북한사회에서 김일체습 체제에 반대하는 기류는 과거에도 잠깐 일어났다. 귀족들과 고위관료들이 반 김주일이, 양주 인민의 전 단과 북부지역 산발적인 「김정일 반대」 전단 살포가 요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에서 김일체습 체제에 반대하는 기류는 과거에도 잠깐 일어났다. 귀족들과 고위관료들이 반 김주일이, 양주 인민의 전 단과 북부지역 산발적인 「김정일 반대」 전단 살포가 요란한 것으로 보인다.

北 金正日 체제 출범 "난관" 첫 시련

노동신문 "매우 어려운 시기"… 金중심 단결 호소

【서울=연합】북한의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첫 시련의 시, 김일체습과 북한주민간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판에서 "북한이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첫 시련의 시, 김일체습과 북한주민간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판에서 "북한이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첫 시련의 시, 김일체습과 북한주민간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첫 시련의 시, 김일체습과 북한주민간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판에서 "북한이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첫 시련의 시, 김일체습과 북한주민간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0일판에서 "북한이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첫 시련의 시, 김일체습과 북한주민간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명망의 한 평수

北京소식통 장례참석 핀란드歸任후

현지 北대사 관등은선 증검認

【北京=慎榮樹리파원】북한 김평수의 이복형인 김수일이 최근 유엔에서 열린 북대사관등은선 증검認에 참가했다.

북한의 내부 사정인 정통 김수일이 소신통인 김수일이 지난 7월 8일 사망한 김수일이 장례식을 마치고 유엔에서 열린 유엔에서 열린 증검認에 참가했다.

북한 고위층의 한 측근이 김수일의 후처 김평수의 소신인 김수일이 김수일이 사망 후 김수일을 불렀다.

최근 김수일의 장례식만 아니라 김수일의 장례식도 있었다. 김수일이 김수일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金平一

사람기자들의 대부분은 김수일이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동아일보 1994. 8. 25

金平一 사망명실부인

오스트리아 외무부

【파리=方炯南】北韓의 김수일이 유엔에서 열린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김수일의 장례식에 김수일이 참석했다. 김수일은 김수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평화 운동사단 후원...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숨가쁜 平壤" 권력투쟁 有力

金平一 망명설·反金전단의 의미

1일 서평동...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친인척 宮中 압투 가능성

反체제세력 지식층중심 폭넓은듯

친인척 宮中 압투 가능성...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北루머·춤추는「說」들

밀리니엄 미확인情報



金平一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金平一 망명설·姜成山 밀리니엄, 無根, 정확한 「북루머」 없으신 밀리니엄은 정

북루머...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북루머...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김평이 망명설...

“北 黨政治局 중심체제 예상”

中 고위관리 金正日 형식상 총비서-주석 승계

▽한국일보 1994. 8. 26

金正日 승계 지연에 中國 정부도 '가우뚱'

「애도기간」 지난 10월 16일 이후 발표할 듯

黨 軍事委員會가 「핵심」이 되

【北京=金忠根】北韓이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후 주석직 승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승계 대상인 김일성의 1백일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 후 25일 발표된다.

【北京=金忠根】北韓이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후 주석직 승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승계 대상인 김일성의 1백일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 후 25일 발표된다.

【北京=金忠根】北韓이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후 주석직 승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승계 대상인 김일성의 1백일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 후 25일 발표된다.

【北京=金忠根】北韓이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후 주석직 승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승계 대상인 김일성의 1백일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 후 25일 발표된다.

【北京=金忠根】北韓이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후 주석직 승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승계 대상인 김일성의 1백일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 후 25일 발표된다.

錢其琛, 日前外務와 회담서 “정모도 없고 뭔가 이상하다”

이북은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후 주석직 승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승계 대상인 김일성의 1백일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 후 25일 발표된다.

▽경향신문 1994. 8. 26

김정일 訪中 특사 임명

【北京=金忠根】北韓이 김정일의 애도기간이 지난 후 주석직 승계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은 승계 대상인 김일성의 1백일만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그 후 25일 발표된다.

“金正日승계 불확실성 대두”

NYT, '北권력양면, 피노'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북한 권력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김정일과 김정은의 승계 가능성을 놓고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反金전단·野心家경고 이상징후 반영 美·北 회담 관련 強性기류 부상 우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5일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北 권력 투쟁 진행중

獨紙

【동경 25일路透電】북한이 권력 투쟁이 진행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상없다” “權力배분 갈등” 엇갈린 분석 “金正日 극적등장 노력 승계지연” 관측도

「北權鬥爭」日本 시각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투쟁을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金正日 全權장악 "안개속"

김일성 사망 50일째 北韓의 진음

김일성 사망 50일째, 7월 26일 영령이 영양에 잠든 지 50일째이다.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김일성은 북한을 30년 가까이 통치해 온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은 북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북한 정권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정권에 있어 엄청난 충격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을 30년 가까이 통치해 온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은 북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북한 정권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망 50일째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정권에 있어 엄청난 충격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을 30년 가까이 통치해 온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은 북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북한 정권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異常說 불구 1, 2세대 權座 유지 추측

혁명 1, 2세대 서열 등 진통 겪는 듯

원로 소장파 金 지지 변화 움직임 없어



김정일 (중) 김일성 (좌) 김정은 (우)의 사진

북한 정권은 김일성의 사망 후 1세대와 2세대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정권에 있어 엄청난 충격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을 30년 가까이 통치해 온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은 북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북한 정권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 정권에 있어 엄청난 충격이었다. 김일성은 북한을 30년 가까이 통치해 온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은 북한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북한 정권에도 큰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南韓「조문과동」계기 비난방송 재개 對南미방

남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비난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남한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비난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남한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비난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남한은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비난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남한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비난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남한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비난 방송을 재개할 예정이다.

北「승계」지연 「송유언」과 밀접

안남졌거나 金正日에 불리한 듯

北京외교소식통, 訪中 金炳旭 본사 회장에 박혀

【上海=華社電】北韓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공적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로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毛澤東 사후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金正日 10월 10일 비서직 승계

북한소식통 百일만 애도기간중 활동동자제

【平壤=本報電】北韓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공적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로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정일 권력 승계 언제·어떻게 할까

일단 주석·총비서 겸직할 듯

공식 출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식때 유력

박종언 기자

온갖 루머와 추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권력승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관심은 권력의 전면에 나설 김정일 당비서의 '태일'과 새 체제의 권력형태에 쏠리고 있다.

공식 출범 시기로는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북한이 외형적 권력공백기를 너무 오래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김일성 주석에 대한 '적절한' 추도 기간을 고려하면 이때가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 비중이 두어지는 쪽은 당 창건기념일이다. 북한은 당 위위 국가인 탓에 중대한 결정과 행사들은 주로 당 창건기념일 앞뒤로 열리는 당대회에서 이뤄지기 때

문이다. 당대회는 3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당규약에 규정돼 있지만 권력승계를 매듭짓는 것은 물론 북한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점에서 전격적인 당대회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

새 체제의 권력구조 변화는 더욱 전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다.

첫째는 김 주석 생전의 완벽한 '복사판'이 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혁명1세대를 포함한 최고위층의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외형적 권력분점 형태를 띠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김 비서가 당·정·군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므로 집단지도체제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김 비서를 추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당을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이루는 '당적 지배체제'도 설득력을 별로 얻지 못한

다. 그렇다고 새 체제가 김 주석의 통치구조를 고스란히 이어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는 김 주석에 필적할 정통성이나 카리스마를 갖지 못한 데다 유일지도체제의 비효율성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결국 권력구조 변화는 수렴하게 집중된 권력이 얼마나 이완된 형태를 띠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비서가 당·정·군의 수위에 있음을 북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일단 그가 국가 주석과 당 총비서 등 모든 권력핵심을 독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습' '일인지배' 등의 서방쪽 비난을 피하고 정권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주석직 분리 등 외형적 권력분점을 오래가지 않아 시도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黨軍民구을 확립 北간부들의 추구

【平壤=本報電】北韓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공적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로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일성의 후계자 지명 문제가 이르면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 있는 외교소식통은 23일(토)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金正日승계 공식화

지난27일 桂應泰비서 보고 金日成유훈 강조

권력체제 黨정정치국중심 확립

統一院 본식

北韓의 金正日을 유훈한 이 金日成의 유훈의 의의는 당정정치국 중심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다. 한것이 아니고 北韓의 金日成을 유훈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일보 1994. 8. 31

金正日 후계체제 마무리

정부당국자 “혁명1세대·신진세력 共存”

양파가 정치부의 사전승계에 정조양 발표할 수 있는 북한의 후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자 李洪九의 발언은 이 북핵사태의 전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앙일보 1994. 8. 31

자본주의의 역사 수명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양파가 정치부의 승계체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中國에 특사 파견

宋호경 외교부장 어제 北京行 「金死後정세」 관련 주목

【서울=內外】북한이 30일 부상 송호경을 중국에 파견한 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31일 오전 10시경 베이징에서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金正日 공식 승계 임박 예고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냉각조짐 對中관계 회복 노력

石油·식량 등 공인된 타진 관측되나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金日成 주석의 死後 政變을 지킨다는 북한 외교부가 30일 발표한 특사 파견 소식을 北京으로 전한 김일성의 공식적인 승계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北韓 왜 갑자기 訪中 특사 보냈나

金平一 金正日에게 이상 없다

本報기자 회견 “건강 문제 없어 : 애도 끝나면 발표”

헬싱키서

【헬싱키 = 徐士泰 기자】金正日의 회복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 = 徐士泰 기자】金正日의 회복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 = 徐士泰 기자】金正日의 회복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 = 徐士泰 기자】金正日의 회복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 = 徐士泰 기자】金正日의 회복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 = 徐士泰 기자】金正日의 회복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싱키 = 徐士泰 기자】金正日의 회복상황이 매우 양호하며 건강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5일까지 北 권력승계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4. 9. 1

“金正日 10월중순간 주석·총비서 취임”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鄭善九 기자】북한이 김정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애도기간이 끝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정일의 건강상태는 정상적임을 밝히며 김정일이 애도기간이 끝나면 건강상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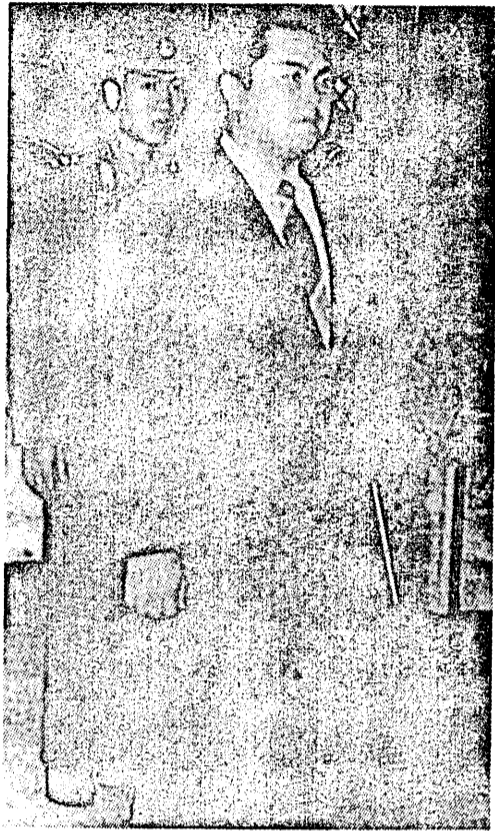


◇김정일(왼쪽)은 김정일(오른쪽)과 함께... (정확한 내용은 이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金平 駐平한국의 北대사 회견

북자의 徐士壽(金平)가 1994년 9월 1일 평양에서 열린 회견에서...

신화사 2600 CCD로 촬영한 김정은의 모습은...



△金平-은 金正日에 비해 金日成과 비슷한 외모를 지니고 있다. 金平-이 지난 88년 헝가리 대사로 부임하면서 신임장을 증정하고 있다.

처음 당황... 시간지나자 다소 여유

북자 1인 1일 회견이 열렸을 때 김정은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이 회견에서 金平-은 김정은의 표정을 보며 자신감을...

사 4명의 평양을 찾은 김정은은 김정은의...

인민들 아지애도... 最高會議 안급해 통일이 두 思想·제도 수용 연방제로

남 命說문자 웃으며 "나도 들었지만 완전한 거짓말"

김정은은 회견에서 "남북통일 문제를 논할 때..."

김정은은 회견에서 "남북통일 문제를 논할 때..."

김정은은 회견에서 "남북통일 문제를 논할 때..."

▽국민일보 1994. 9. 3

金正日 주석직 공식수행

북주재 북관계자 鄭美석도 "공관 대구면접회"

【평양 1일】金正日의 양에서 김정은의 직행...

북 "추모 분위기로 승계지연"

중앙통신, 후계 완결 밝혀

북한은 2일 김정일 비서의 국가 주석직 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후계문제가 김정일 주석 생전에 이미 완결돼 김정일이 "수령의 위업을 계승·구현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날 "김 비서가 김 주석 동상을 찾는 주민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해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뒤로 미루도록 조치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북

한이 권력승계 지연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종합대학 교수의 〈글〉을 인용해 "수령의 위업 계승에서 결정적인 것은 권력이야 아니라 후계자의 출현과 추대에 있다"며 북한에서는 김 주석 생존시에 후계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됐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길 기자

드러난 金正日 외교전략



金正日

김정일 사후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김정은은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은의 장남이다.

수교·經協 금해 美·日에 微笑작전

북한은 2일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2일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2일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2일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수교와 경제협력을 금해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평화협정」 겨냥 中國 설득 총력전 펴

북한은 2일 중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2일 중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金正日 승계 中·공시 지지

錢其琛의 北부장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인 錢其琛은 2일 북한에 대해 "김정일의 승계는 중국과 공산당에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北한 金日成 주석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승계될 경우 중국과 공산당에 이익이 있다. 錢其琛은 2일 북한에 대해 "김정일의 승계는 중국과 공산당에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北장교 金正日 배지 부착

국경경비대... 권력승계 임박시사

북한 국경경비대에 김정일 배지를 부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권력승계 임박시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경경비대에 김정일 배지를 부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국경경비대에 김정일 배지를 부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권력승계 임박시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경경비대에 김정일 배지를 부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金正日 主席업무 이미 수행

北발송 "外國원수에 사절보내 인사교환"

【서울=내외】북한 김정일(金正日)이 북한 내각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뒤, 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사절보내 인사교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사절보내 인사교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이날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사절보내 인사교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절을 보낸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사절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사절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사절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正日 10월10일까지 승계 취임발표 없으면 신변 이상

中당국 관측

【내외통신】북한이 10월 10일까지 김정일의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으면, 김정일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10월 10일까지 김정일의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으면, 김정일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金正日 10월10일까지 취임 金日成은 단군陵안장 유력"

北 金文子거취 2개가 10일

【서울=경향】북한이 10월 10일까지 김정일의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으면, 김정일의 신변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뫼이후계』 事典에도 나와있다



◇ 조칙한 金正日
북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일성



◇ 전직 한 金平
북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일성의 장남인 김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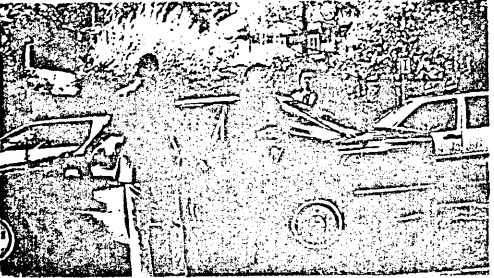


사진 本報 徐士奉기자
글 핀란드 후타마키기자

北·美 새시대 맞을 준비중 大使職 만족... 명명도 다 끝났

북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새시대를 맞아 북조선의 대외정책을 발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날 회에서 "북조선은 1994년 초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조선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북·미 양측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날 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조선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북·미 양측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김정은의 부인 김성숙. 미소일 접하지 않았으나, 결혼 문제로 대립하지 않았다.

◇ 김정은은 지난달 31일 하모 윌슨키의 스포바키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스포츠바키아 독립기념일 리셉션」에 부인 김성숙과 함께 도착했다(사진 맨위). 한국 기자들과 마주한 김정은은 「스포츠바키아 독립기념일 리셉션」에서 열린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1시간후 다른 외교관들과 함께 나온 김정은(세번째)은 행사장과 달리 여유있게 질문에 대답했다(네번째). 김정은은 현직에 취임한 뒤 여러 가지 일이 나온 모습이었다(사진 맨아래).

金平이 가는

軍대좌경력... 간부들 상당수 지지 金正日전제로 88년 이후 「해외유랑」

북조선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 새시대를 맞아 북조선의 대외정책을 발표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날 회에서 "북조선은 1994년 초부터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조선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북·미 양측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날 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또 "북조선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북·미 양측의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金正日 9월 9일 主席 취임

북조선총리 겸 내무장 10월 10일 추대

【北京 朴勝俊기자】北韓 내선을 오르면 9월 9일의 서취만 10월 10일의 조 일로 바뀌었다. 김정은의 북조선총리 겸 내무장 취임은 10월 10일 10월 10일의 조 일로 바뀌었다. 김정은의 북조선총리 겸 내무장 취임은 10월 10일 10월 10일의 조 일로 바뀌었다.

북 조선총리 겸 내무장 9·9일 김정은 10·10일 관직 취임

내부 기념행사, 초라, 진후 안보 모 10·10 애도기간뒤에 승계 전망

북조선총리 겸 내무장 9·9일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金日成 사망 27년 '시망의 시대'

북조선 건국 27년후 開胸... 이북진기 안습

【남포=연합】북조선의 김일성이 사망한 지 27년째 되는 해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지 27년째 되는 해이다. 김일성이 사망한 지 27년째 되는 해이다.

북 조선총리 겸 내무장 9·9일 김정은 10·10일 관직 취임

내부 기념행사, 초라, 진후 안보 모 10·10 애도기간뒤에 승계 전망

북조선총리 겸 내무장 9·9일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10·10일 관직 취임할 예정이다.

「金正日체제」분위기 잡기

金日成사망 두달...北 음직임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조차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매장·승계 「동시」 가능성

찬양기사 난에 띄게 들어나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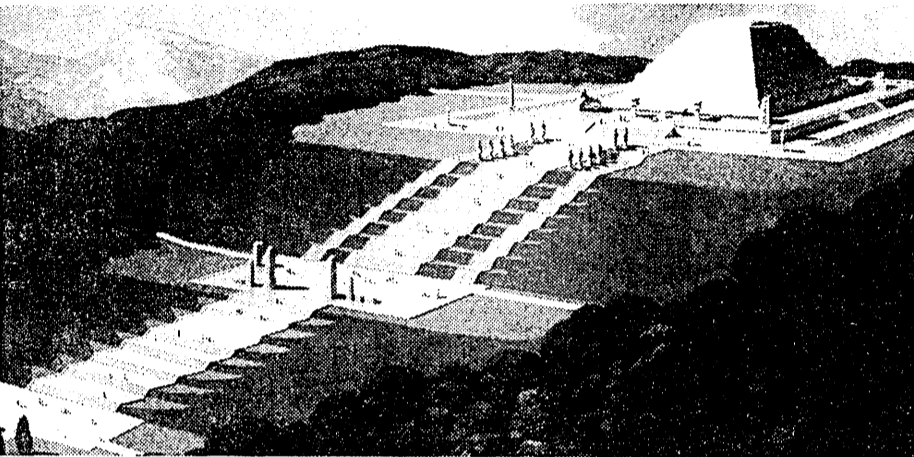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 선전포스터의 7월호에 다뤄진 장면.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조차 금일성의 사망이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할 통치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北 농촌행사에 고위급 총출동 일부인사 불참 권력재편 주목

9.9절 앞두고 金正日 추대 분위기 "절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9절(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 행사는 9.9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농촌행사를 벌이고 있다.

金正日 건강 이상 北 당국자 첫 시인

【北京=송정환】北 당국자 한 명이 김정일 건강 이상을 시인했다. 중국인 한 북 당국자 소식통이 9일 『인민일보』 특사지면에 이렇게 보도했다.

태를 물자 편한 곳이 있
으나 지금 땅이 회백중에
있다. 북 당국자들은
김정일 건강 이상을 시인
이 첫 시인이다.
북 당국자 한 명이 김정일
건강 이상을 시인했다. 중국인 한 북 당국자 소식통이 9일 『인민일보』 특사지면에 이렇게 보도했다.

애도서 '추대로 국면 전환' 피해

북한 어젠 오·이 정행사 파격

북한이 어젠 어젠 오·이 정행사 파격... 북 당국자 한 명이 김정일 건강 이상을 시인했다. 중국인 한 북 당국자 소식통이 9일 『인민일보』 특사지면에 이렇게 보도했다.

총리가 사망 직후의 애도
정다. 김정일 사망 후
9일 당국자 한 명이 김정일
건강 이상을 시인했다. 중국인 한 북 당국자 소식통이 9일 『인민일보』 특사지면에 이렇게 보도했다.

北「金正日수령」공식호칭

중앙통신 해외타전 관영매체론 첫 사용

【서울=연합】북한이 9일 『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일수령」이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김정일 수령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김정은 수령이 된 이유

북한이 김정은 수령이 된 이유... 김정은 수령이 된 이유는 김정일 수령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승계 완료 내의 천명

이제 권력승계는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수령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전매체들 논조 金正日찬양 일색 외국인사 잇단 초청... 金正재 홍보

선전매체들 논조 金正日찬양 일색... 외국인사 잇단 초청... 金正재 홍보. 김정은 수령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수령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수령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金正日 民心結石 알고있다

서울신문, 平壤주재 舊蘇대사 극비보고서 입수

▽한국일보 1994. 9. 25

「후계」 85년 확정... 黨·政·軍 장악

60층보다 높은 빌딩 짓겠다. 對南경쟁의식 대단



【모스크바=李洪秉특파원】 지난 85년 미하일 수브코프 당시 평양주재 소련대사가 김정일의 관해 본부 평양중앙위원회와 제출한 극비보고서가 서울신문사에 입수했다. 총 15페이지의 이 보고서는 그해 10월 12, 13일 양일간 수브코프 대사가 원산의 휴양지에서 김정일과 장기간의 접촉이 있었던 대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소련군사령관 중위위예 추카의 대화에서 당국자의

김비문서로 보고돼 정치국원들에게 화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김정일의 이미 黨국가의 인사권을 포괄한 국가정책결정의 절차 지휘권을 행사해 사실상 후계자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요철을 전자는 매우 좋 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브코프 대사가

인사 경제 계획 수립, 對南관계를 비롯, 당중앙위 수집 문제까지 자신의 직접 관 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黨 정서위원의 인사에까지 거 의 권한을 행사했고, 군 고 위직의 인사 군사정책, 군 수산업분야까지 김정일이 모두 장악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김은 당시 인민부부장 吳振우를 비롯한 군제도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 했던 것으로 밝혔다.

통일부제의 관련, 김은 고려연방제, 南北韓·美國간 3자회담개최등의 강한 집착을 보였다. 김은 60층짜리 빌딩을 지으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 는 등 黨체제의 강한 경쟁의식을 보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적고 있다.

김정일의 진창에 대해 이 보고서는 김일성장자가 모두가 신장결석에 잘 걸 리는 체질로 김정일도 만 성적인 신장결석에 시달리 고 있으나 당시로서는 그것이 심화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 당시 吉林에 피란가 선회할 이 많은 그곳의 식수로 인해 손

락이 모두 기형적이라고 밝혔다. 김은 1960년대에 북한을 방문한 당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서 김정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金正日 "공식승계 보유"

평양중공 보도 주민 金日成조문 끝날때까지

【서울=연합=연】 북한 김일 정권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사이를 구별하며 김일 정권은 김일 정권이라고 전했다. 김일 정권의 전승은 김정일의 몫을 의미하며 김정일의 승계는 김일 정권의 전승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승계는 김일 정권의 전승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승계는 김일 정권의 전승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승계는 김일 정권의 전승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1994. 9. 25

김정일의 「외교」 「경제」

【서울=연합=연】 북한은 24일 김일 정권의 전승을 김정일의 몫으로 인정했다. 김정은의 승계는 김일 정권의 전승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승계는 김일 정권의 전승을 의미한다. 김정은의 승계는 김일 정권의 전승을 의미한다.

Ⅲ. 金日成 死後 關聯記事

○ 북한 마약·플루토늄 밀매 등

北、美軍遺骸값 요구

6.25 실종·포로대상 최근 판문점 접촉 : 1具 3萬弗씩

협상 결렬... 실종·포로美軍 8千5百명 추산

북한이 최근 미군과 교전 4백여만명(을)을 요구해 협상인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송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1구당 3만달러(약 4억2천만원) 2. 정부 판문점에 의하면

북측의 요구에 대해 베트남에서의 사례에 따라 경미조로 유해 1구당 약 2천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시했으나, 북한측이 「1구당 3만달러」를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사촌은 지난 90년 6월 카터전미군대통령이 6월 카터전미군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유해송환을 약속했다. 유해사촌인 협상에서

6차례에 걸쳐 1백여구의 미군유해를 인도받았으나 도를 지불하지는 않겠다고 단언했다.

한국전 당시 실종됐거나 포로가 됐던 미군 8천5백여명의 이빨니 것이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판문점의 이 대 해 「미군 유해송환은 어디까지나 인종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돈이 지불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해송환에 합의해 놓고도 인종차별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미군이 북한의 경제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洪潤五 기자】

北、國家차원 마약 밀매

러당국 밀매자 北사회 안전부 소속 확인

核자금 확보용... 엘리트 특설 수사지시

【모스크바=李長福 특파원】북한이 마약 밀매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이 러시아 방첩기관의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러시아 일간 '공소물스카야 프라우다'가 5일 보도했다.

이 기관은 지난 5월 북

라디노스토크에서 발생한 북한인 2명의 의한 해외 인민수사국과 판문, 보리 스텝전대통령과 비도트체 트노미르 총리가 이례적으로 수사를 직접 지시했으며 세르게예프 내부부서 약국장이 현지로 가서 수사를 총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러시아 방첩당국의 수사결과 이들 북한인 2명의 신체의 사소한 세부 요인으로 확인됐다면 서 러시아가 북한의 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은 가장 절박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직접 배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당국이 북한인들을 포획한 후 마약의 40% 이상을 모스크바 시민 전체에게 나누는 것이다.

당시 북한인들이 쿠령을 포획해 북한에 국경수비대원들이 전원 교체됐으며 장교는 장교로 임명되고 부장급 이하의 장교는 대령 이하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90년대 반크시 統一 실현 「베트남전쟁」에 金正日 추대

北韓중앙당중앙 주장

【서울=中央社】북한의 26일 90년대 반크시 통일 실현을 위한 중앙당 중앙위원 김정은이 90년대 통일 실현을 위한 「베트남전쟁」에 김정일을 추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중앙당 중앙위원인 김정은은 90년대 통일 실현을 위한 「베트남전쟁」에 김정일을 추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민족의 투쟁에 반크시 승리의 지이라고 밝혔다.

北韓은 지금까지 김을 평壤에 대한 통일전쟁의 주도자로 주장해 왔으나 통일전쟁이 지시되고 있다.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을 90년대 통일 실현을 위한 「베트남전쟁」에 김정일을 추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풍기차원미안함을...생신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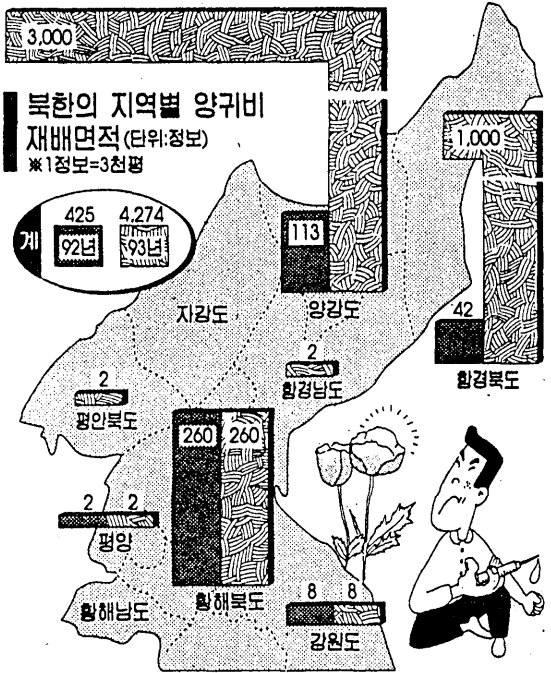
북한은 24일 평양에서 열린 북풍기차원미안함을...생신 실패

북풍기차원미안함을...생신 실패

북풍기차원미안함을...생신 실패

김일성 "양귀비로 外貨벌이" 교시

93년 재배면적 10배 늘려 年 30t 추정
일손부족...이대생·고득중 학생도 동원



북풍기차원미안함을...생신 실패

DMZ 北병사끼리 초우격

25일 30인파 "5명중 1명 후송" 목적

북한군, 감시할 때 초우격... 25일 오전 10시 40분경

북풍기차원미안함을...생신 실패

北, "정상회담 無効化" 위협

李부총리의 흡수통일 發言 트집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터, 「北의 영웅」 됐다"

홍남표 訪北記
【홍남표 訪北記】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그쳐서라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이 북을 방문하고 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 심지어 일부인과의 접촉이 허용될까도 모른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北京大강사 특보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北, 金대통령 訪中 때 암살기도

공작원 3명... 中안전국 사전 적발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北 적십자회담 거부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50대 남산연자 越北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4. 8. 17

나 北派간담 주장 高相文씨 平壤 行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4. 8. 17

50대 남산연자 越北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4. 8. 16

北 적십자회담 거부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北派간담 주장 高相文씨 平壤 行

【경향신문 15일 서울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북한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1994년 8월 15일 연설을 인용하여 "정상회담을 무효화할 위협"을 내걸었다. 북은 김 주석의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은 또 "남북 정상회담은 흡수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北 "密賣물류로도 농입수기도"

통신포로 검거 獨逸人에 1億弗 제공

베를린 이어 러시아서도 밀매단 3명 체포

【東京=美聯社】북한이 20일 韓·美·日 3국에 2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밀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물품은 북한이 199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년간 밀매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 물품을 밀매할 때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북한은 이 물품을 밀매할 때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북한은 이 물품을 밀매할 때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北 "支포커스" 비판 강행민 南北관계 악화

【東京=美聯社】북한이 20일 韓·美·日 3국에 2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밀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물품은 북한이 199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년간 밀매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 물품을 밀매할 때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金日成 사망 뒤 경호책임자 자살

【北京=韓聯社】北 韓 金日成의 수호책임자인 자정인 출신인 유남수장(4)이 금사망 직후 권총 자살했다. 유남수장은 금일성의 수호책임자로서 1980년대부터 금일성의 수호를 담당해 왔으며, 금일성의 사망 직후 권총 자살했다. 유남수장은 금일성의 수호책임자로서 1980년대부터 금일성의 수호를 담당해 왔으며, 금일성의 사망 직후 권총 자살했다.

북, 주한 미기업인 초청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주요 미국계 기업인들이 주한 미 상공회의소를 통해 북한 방문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세계에 따르면 모토롤라, 포드 등 주한 미 상의 투자위원회 소속 10개사 대표들은 지난 10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대북한 투자 여건 조사를 위해 북한을 방문키로 하고 미국 정부에 방북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북한에도 이러한 뜻을 전달해 외국 기업인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업인들은 이르면 다음달

판문점으로 입북해 평양을 비롯한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 투자 예상 지역을 둘러보고 구체적인 합작투자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은 모토롤라의 도널드 제러미 사장, 바스프의 한스 훈트 부사장, 제너럴 모터스의 데이비드 제러미 부사장, 필립 모리스, 포드, 휴렛패커드, 아메리칸 은행, 시티 은행, 퍼스트 내셔널 은행 오브 시카고,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한국법인 사장과 부사장 등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 상의와 이들 기업인들은 방북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우리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무 기자

북한이 20일 韓·美·日 3국에 2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밀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물품은 북한이 1994년 11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년간 밀매할 예정이다. 북한은 이 물품을 밀매할 때 1억 달러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政務院 상임부장 北 韓 이정삼 임명

【平壤=美聯社】北 韓 政務院 上 任 副 長 官 李 正 三 氏 任 命 告 白 文 告 出 發 了. 李 氏 是 平 壤 市 政 務 院 副 長 官. 李 氏 是 平 壤 市 政 務 院 副 長 官.

이정삼은 평壤시 출신으로, 1980년대부터 평壤시에서 근무해 왔으며, 1994년 8월 22일 임명되었다. 이정삼은 평壤시 출신으로, 1980년대부터 평壤시에서 근무해 왔으며, 1994년 8월 22일 임명되었다.

北, 또 남북자 회견

【平壤=美聯社】北 韓 政 府 與 南 韓 政 府 之 北 南 自 然 資 源 對 策 會 談 會 於 17 日 在 平 壤 舉 行 了 第 二 次 會 談. 會 談 由 北 韓 政 府 對 外 經 濟 部 長 官 李 正 三 氏 與 南 韓 政 府 對 外 經 濟 部 長 官 李 正 三 氏 主 持. 會 談 在 平 壤 舉 行 了 第 二 次 會 談.

북한이 올 상반기 중 7백만달러의치를 수출했다. 그러나 북한의 7천4백만달러에 비해 1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올해 1천4백만달러의 수출 목표를 겨우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올 상반기 중 7백만달러의치를 수출했다. 그러나 북한의 7천4백만달러에 비해 1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올해 1천4백만달러의 수출 목표를 겨우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北, 올 상반기 對中수입 急減

前年比30%나... 외환부족 심각 곡물수입 크게 줄여 "식량난 가중"

북한이 올 상반기 중 7백만달러의치를 수출했다. 그러나 북한의 7천4백만달러에 비해 1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올해 1천4백만달러의 수출 목표를 겨우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 올 상반기 중 7백만달러의치를 수출했다. 그러나 북한의 7천4백만달러에 비해 1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올해 1천4백만달러의 수출 목표를 겨우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北韓의 對中수입 急減

북한이 올 상반기 중 7백만달러의치를 수출했다. 그러나 북한의 7천4백만달러에 비해 1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올해 1천4백만달러의 수출 목표를 겨우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北韓 과감한開放 추진

조선경제부 부국장 北韓의 對中수입 急減

북한이 올 상반기 중 7백만달러의치를 수출했다. 그러나 북한의 7천4백만달러에 비해 1천4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북한의 올해 1천4백만달러의 수출 목표를 겨우 5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정부를 통해 발표된 「북한의 新발전 전략」은 金正日체제가 추진 중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北韓의 「新발전 전략」

韓國기업 오라 강한 개방意志

북한정부를 통해 발표된 「북한의 新발전 전략」은 金正日체제가 추진 중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자유무역지대 설치... 對外교역에 의한 經濟회생책

북한정부를 통해 발표된 「북한의 新발전 전략」은 金正日체제가 추진 중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

“金正日、訪中초청 거절”

이탈주 中서요청 “후계구도·건강·관련 가능성”

미고도통신 보도

【北京 21일路透電】북한의 김정은이 10월 1일께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45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아침부터 출발해 알래스카를 방문한다. 김정은은 10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내부 관측을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의 후계구도 관련 보도는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으며, 김일성의 장남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김정은의 후계구도 관련 보도는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으며, 김일성의 장남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中초청 거절說」 신빙성 의문

북한이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내부 관측을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의 후계구도 관련 보도는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으며, 김일성의 장남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中, 9국정전에 外賓초대 관행 없으며 사실이라면 「主席승계 이상」 시사

북한이 김정은의 후계구도를 둘러싼 내부 관측을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은의 후계구도 관련 보도는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으며, 김일성의 장남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김정은은 1983년 12월 15일 태어났다.

【자료 = 朝鮮日報(平壤)】

北、東아시아경기대회 반갑

내년 개최 예정... "정세 불안" 이유

【서울 24일 특파원 보도】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개최가 연기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개최가 연기될 수 있다."

있다. 동아시아경기대회는 1985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세 불안으로 인해 개최가 연기될 수 있다."

北韓 스포츠의 국제무대 등장

북한 스포츠의 국제무대 등장은 1994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스포츠의 국제무대 등장은 1994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최두환 <체육부 기자>

북한 스포츠의 국제무대 등장은 1994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스포츠의 국제무대 등장은 1994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1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에 체제회의론 확산

北 주민들의 「意識변화」

【서울 24일 특파원 보도】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北 현실 자각 따라 부자세습 비판도 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자세습에 대한 비판도 늘어나고 있다.

北, 「獨플루토늄 密買」 확인

獨紙 폭로 "구속商人 北서 전권위임 받고 활동"

【포항=연합】북한이 북양철강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는 북양철강이 유일한 수출처였으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늘었다. 이 소식에 북양철강은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늘었다.

북양철강은 무기밀착수출을 위해 해외에 대한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늘었다. 이 소식에 북양철강은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늘었다.

▽세계일보 1994. 8. 26

中國인민시장 偽幣 유통

1년새 위조지폐 적발 3백장 달해 北서 1만弗 들켜왔다 구속되기도

【노보시베르스크=연합】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북한의 다른 면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4. 8. 27

獨 플루토늄 밀수배 후 北韓說?

의위임장 「物證」 밖혀질까에

북한이 플루토늄 밀수배 후 북한에 대한 의위임장을 제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소식에 북양철강은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늘었다. 이 소식에 북양철강은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 밀수배 후 북한에 대한 의위임장을 제출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에서 위조지폐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소식에 북양철강은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수출하는 철강제품의 비중이 20% 이상으로 늘었다. 이 소식에 북양철강은 수출처를 확대하고 있다.

제 3루트 통한 확보시도 끊임없이 제기

情報通에 의한 發表 신빙성은 적어

北 지난5월 "南侵" 위협

中서 만류... 美통보로 對北 유화조치

【서울 3일 연합뉴스】북한은 지난 5월 한반도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중국과 미국의 만류로 유화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통일부 차관은 6일 정중도 장관이 방미한 뒤 미국의 대북 통보와 미국의 부한외교관과 교류추진위원회의 평壤회담이 12일이후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정호 차관은 5월의 한미 정상회담과 6월의 3국 정상회담 때 중국이 북한의 위협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까지 유화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정중도 장관은 9월 30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방전쟁 후 "중선 전쟁면 지원 무관" 1990년대 혁신을 기대

【서울 3일 연합뉴스】북한은 지난 5월 한반도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중국과 미국의 만류로 유화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중도 장관은 9월 30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 혁신을 기대

北 "통일후라도 사유재산 인정"

私의소유권 허용 첫 언급 平壤방송

【서울 6일 연합뉴스】북한이 6월 6일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날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바라지 않음과 한민우... 평壤의 통일후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金日成유해 「檀君陵」 매장할 듯

묘지교소신설

【東京 韓炳權기자】북한은 2일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일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소신통인 이우... 북한은 그간 단군릉을 조성할 수 없었던 이유를 대외적으로 설명해왔다. 「金日成 사망후 1백일이 되기 전에 단군릉의 묘에 金日成을 함께 매장해 주민들이 참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사상 최대 渡河후련

南侵가상 후련인듯 豫성江 부근서 병력 5萬 참가

【서울 3일 연합뉴스】북한은 지난 5월 한반도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중국과 미국의 만류로 유화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5월 7일부터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은 5월 7일부터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北한군의 최근 황해도 禮成江 일대의 3~4개 보병사단과 기계화부대 등 5만 여명의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평壤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개인과 단체의 사유재산권 인정에 관해 언급한 것은 통일후라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北 올해 흉작피해 수억弗 로이드보험 補償가능성

지난달 入北조사

【경인=연】북한이 올해 흉작피해로 인한 수억弗의 로이드보험 補償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로이드보험사로부터 補償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에스 뉴스 앤드 텔레비전(US News and Television)이 최근 보도한 바와 같다. 유에스 뉴스는 지난 8월 25일 로이드보험사가 북한에 대해 조사한 바를 보도했다. 로이드보험사는 북한이 올해 흉작피해로 인한 수억弗의 로이드보험 補償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이드보험사는 북한이 올해 흉작피해로 인한 수억弗의 로이드보험 補償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對美유화 對南비방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대미유화 대남비방 전략은 대미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미유화 전략을 통해 대미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미유화 전략을 통해 대미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北「主敵」대상 바뀌었다

북한이 24일 외교부 대미유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대미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미유화 전략을 통해 대미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미유화 전략을 통해 대미유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美제국주의」용어 자제... 비난횟수 급감 전문가 "현실적 필요성따라 인식 전환"

북한이 '美제국주의' 용어를 자제하면서 비난횟수가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美제국주의' 용어를 자제하면서 비난횟수가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北 방북러의 신랄 공격

할 3천7백만弗어치 수입 타진

【서울=연】북한이 방북러의 신랄한 공격을 받고 있다. 북한은 방북러의 신랄한 공격을 받고 있다. 북한은 방북러의 신랄한 공격을 받고 있다.

北 韓人 탈출 단속 중 中 國 經 濟 界 驚 愕

【서울=연】북한이 탈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계는 이를 놀라워하고 있다. 북한은 탈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계는 이를 놀라워하고 있다.

남부동남공개업자

北서 망명 주장

【東京聯】南韓의 북부 동남공개업자 1명의 北韓 망명 주장이 1일 보도됐다. 東京에서 수신된 이 통신은 許容(50)이란 한 남부동남공개업자가 해방후 7월 7일 사망한 金日成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2주전 일본에서 망명했다고 전했다.



金正日 13세 아들 스위스留學

92년 가명入學 운전사아들로 위장

日週刊文春誌 보도... 영, 개재하고 이 소년의 베를린과 제네바주재 한국정 보공관앞서 반의표판 사이에서 노 金正日의 세번째 처 金德淑(39)과의 사이의 서신과 마포아파트의 확인 된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소년의 어머니 金을 따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년의 북한이 체제 바주재 유엔대표부 운전기사인 차(42)의 아들로 학정부에 기록돼 있으며 백담리(이동)는 보낼 수 없는 전했다. (東京=李東宣)

北·美회담 核해결 중재해달라

金正日, 카터에 요청

NYT 보도

【뉴욕타임즈】 지난 6월 북한을 방문, 金日成 주석과 회담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金正日 동맹 비서관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北美회담을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즈가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지지 않은 美관료들인 美 의회가 보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이 北美회담의 서요미한 중재역할을 요청한 지미 카터 양면지 지었다. 한편 美를 방문한 소카터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보도에 대해 확인 도 부인도 거부하면서 카터 전 조만간 북한이나 한 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투과원 平壤, 入北 취재 허용... 【워싱턴】북한이 9월 10일 10명의 美 北 平壤 취재 기자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영입인력의 선별은 북측 추경하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북측의 입국 허용을 보도한 뒤 10일 11시 30분 10명의 美 北 平壤 취재 기자들이 평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북측의 입국 허용을 보도한 뒤 10일 11시 30분 10명의 美 北 平壤 취재 기자들이 평壤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金日成 약속」金正일이 지킬것”

駐유엔 北 朴吉淵대사, 카터에 밝혀

【애틀랜타聯】 北韓의 朴吉淵 駐유엔대사는 지난 19일 지미 카터 前美國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金日成 주석이 생전에 약속한 것은 후계자 金正日 도 그 약속을 계속 지키겠다는 내용의 金正日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東京聯】 北韓의 최고 권력자의 자민의를 올 것으로 전망된 金正日의 생모 金正淑의 45周忌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평壤 라디오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東京에서 수신된 평壤 라디오방송에 따르면 45주기 행사에는 吳振宇인 민부부장 등을 포함한 다른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으나 金正日의 참석하지 않았다.

美 北 시민권자 유학 허용 관계개선 징후 여부 주목

【워싱턴 6일 한국일보】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시민권자'의 유학 허용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 22일 드러났다.

워싱턴 소재 사립대학인 조지 워싱턴대 관계자가 '북한 시민권자를 가진 학생 1명이 지난해 등록했다'고 확인한 뒤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또 다른 사립대학인 조지타운대 관계자도 '북한 학생이 등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유학 허용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자 '북한 정부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또 다른 사립대학인 조지타운대 관계자도 '북한 학생이 등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유학 허용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자 '북한 정부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北李鍾玉부주석 오일방문 중

中 건국45돌 축하사절 江澤民李鵬 등과 회담

【北京=金成福】 中國의 이종일(北京)을 방문한다. 이종일은 10월 1일 45주년을 맞아 10월 4일까지 중국인민당(中共)의 정무원인 리펑(李鵬)을 포함해 10명 규모의 축하사절단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조지워싱턴大 작년 1명 등록 “다른 사립大도 상당수 재학중” 대학측 학생신상 공개 거부

보통의 경우와 달리 조지워싱턴대의 등록 현황이 다른 사립대보다 훨씬 높았다.

조지워싱턴대는 '북한 학생이 등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유학 허용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자 '북한 정부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워싱턴대는 '북한 학생이 등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유학 허용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자 '북한 정부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平壤】 北의 김부(金富)가 조지워싱턴대에 입학했다.

조지워싱턴대 측은 '북한 학생이 등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유학 허용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자 '북한 정부의 의사'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北의 李鍾玉 부주석은 27일 韓政사절단을 이끌고 평壤에서 8일 동안 中國의 江澤民(江泽民)과 李鵬(李鹏)을 만나 회담했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北李鍾玉부주석 왜 中國 갔나

北-中 협력관계 다지기... 식량등 원조 요청할듯

北의 李鍾玉 부주석은 27일 韓政사절단을 이끌고 평壤에서 8일 동안 中國의 江澤民(江泽民)과 李鵬(李鹏)을 만나 회담했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北의 李鍾玉 부주석은 27일 韓政사절단을 이끌고 평壤에서 8일 동안 中國의 江澤民(江泽民)과 李鵬(李鹏)을 만나 회담했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北의 李鍾玉 부주석은 27일 韓政사절단을 이끌고 평壤에서 8일 동안 中國의 江澤民(江泽民)과 李鵬(李鹏)을 만나 회담했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이종일은 22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하고, 23일 베이징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축하사절단 구성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美 北 시민권자 유학 허용

관계 개선 징후 여부 주목

【워싱턴】미국은 북핵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북한 시민권자」의 유학 허용 허용해안...

北李鍾玉부주석 이틀방중

中 건국45돌 축하사절 江澤民李鵬들과 회담

【北京=金成植】中國의 김부주석은 27일 10월 1일...

이 27일 북경을 방문한다. 고 28일 발표했다. 김부주석은 이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지워싱턴大 작년 1명 등록 "다른 사립大도 상당수 재학중"

대학측 학생신상 공개 거부

보통을 일부의 공화국이 되고나고 대학의 정을 타... 조지워싱턴 대학은 지난 1년 동안 1명만이 등록했다.

北 외교부 부주석

崔鍾玉을 임명

【平壤관】北韓의 외교부 부주석인崔鍾玉의 임명됐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北韓의 李鍾玉 부주석이 27일 韓政사절단행이 되고 8일차의 일정을 마치고 中國 평양에서 그의 訪中행사를 마친 후 남한으로 돌아왔다.

승계문제 △정체론을 주장... 北韓 美國간 3단계 2차 회담 △평화협정 체결...

北 李鍾玉 부주석 왜 中國 갔나

北-中협력관계 다지기... 식량등 원조 요청할듯

지정하고 있다. 李鍾玉은 1988년 7월 28일부터 84년까지 평양부원장인姜成山에게 자리를 물려주기까지...

이와관련, 최근 李鍾玉은 江省 방문... 李鍾玉은 7월 28일 평양에서 金日成 부주석과 회담... 李鍾玉은 7월 28일 평양에서 金日成 부주석과 회담... 李鍾玉은 7월 28일 평양에서 金日成 부주석과 회담...

“단군릉 준공식 초청” 北、在野에 편지공세

【서울 25일路透電】北은 25일 北을 초청했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北을 초청했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鍾(前代表) 李鍾贊의 원(前代表) 金大中씨, 개인자 金大中 金大中 金大中 이삼익 姜英勳(前총리) 韓完相(前총리) 韓完相(前총리) 단하의 대표(前代表) 金大中씨, 개인자 鍾(前代表) 李鍾贊의 원(前代表) 金大中씨, 개인자

北 단군릉 준공식 초청공세

사외단체들에게 편지

【한】北은 25일 단군릉 준공식 초청공세에 나선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北을 초청했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北 천주교 대표단 訪美

내달 10일께 入國 : 교황 뉴저지 방문 맞춰 면담도

북한 천주교 신자 대표단이 10월초 미국 방문을 목표로 현재 임박수속을 추진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북한 신자 대표단의 방문 추진 사실은 張在哲 조선 천주교인 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80)이 지난 9월 초 북미연합인사제협의회 회장 朴昌得 신부의 계 보낸 서신에서 밝혔었다.

이 서신에 따르면 張 위원장은 지난 7월 초에 접한 다함번체로 갑자기 중단된 북미연합인사제협의회 이 수속을 계속 진행할에 따라 다시 추진 10월 6일 北京을 출발해 방미길에 올랐을 것 이라 단정 짓는다.

朴昌得 신부의 계 보낸 서신에 따르면 張 위원장은 지난 7월 초에 접한 다함번체로 갑자기 중단된 북미연합인사제협의회 이 수속을 계속 진행할에 따라 다시 추진 10월 6일 北京을 출발해 방미길에 올랐을 것 이라 단정 짓는다.

속보이는 北의 南인사 초청



북한이 25일 단군릉 준공식 초청공세에 나선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北을 초청했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北은 25일 단군릉 준공식 초청공세에 나선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北을 초청했다. 26일 북한 중앙통신은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단군릉 준공식에 李基澤 金大中씨들을 초청할데 이어 26일에도 각종 사외단체를 동원, 韓總聯 金勇協의 단하의 재야단체를 보내는 「편지」를 잇달아 공개하면서 訪

Ⅲ. 金日成 死後 關聯記事

○ 社 說 · 칼 럼

社說

너무나 먼北韓

지금 北韓에서 벌어지고 있는 金日成 北朝鮮의 變遷에 대해 우리는 그 리고 金日成의 變遷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나 너무 먼北韓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는 너무 멀다. 하지만 너무 먼北韓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는 너무 멀다. 하지만 너무 먼北韓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는 너무 멀다.

北韓은 1945년 8월 15일 日本의 패망을 계기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 후 1948년 9월 8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다. 그 후 1949년 10월 10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1972년 9월 17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北인「이밤」해결부터

北朝鮮정권의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대로 명실공히 제2인물인 金正日이 金日成을 승계한다면 사회(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상 유례없는父子親歷世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후계자 선정이 우리 체제와 다르다 해서 이를 시비하고 그 실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8일 건국되었다. 그 후 1949년 10월 10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72년 9월 17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94년 7월 15일 동아일보 1994. 7. 15

北인「이밤」해결부터

北朝鮮정권의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대로 명실공히 제2인물인 金正日이 金日成을 승계한다면 사회(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상 유례없는父子親歷世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후계자 선정이 우리 체제와 다르다 해서 이를 시비하고 그 실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8일 건국되었다. 그 후 1949년 10월 10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72년 9월 17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94년 7월 15일 동아일보 1994. 7. 12

平壤화장을 희망한다. 영자 김정은은 평壤화가 되고 있다. 지금 北朝鮮은 48년 정치독일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영자 김정은은 평壤화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자 김정은은 평壤화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8일 건국되었다. 그 후 1949년 10월 10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72년 9월 17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94년 7월 15일 동아일보 1994. 7. 12

앞서 언급한 대로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48년 9월 8일 건국되었다. 그 후 1949년 10월 10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72년 9월 17일 北朝鮮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94년 7월 15일 동아일보 1994. 7. 12

社 說

對南比방과 장례식 연기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을 열기 무렵의 한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對南 비방 방송을 재개했다. 그리고 나그날로서가 아닌 김일성의 장례식 개최인내로 예정되어 있는 북한을 동맹국인 대남전선 전방선의 나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쪽 상의는 이가 해한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을 15일 한 국정부가 평壤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대남전선 전방선의 나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쪽 상의는 이가 해한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을 15일 한 국정부가 평壤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대남전선 전방선의 나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쪽 상의는 이가 해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조로 인권 협상과 정치의 안정을 바라던 한 때를 전지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구태의연한 대남전선 전방선의 나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쪽 상의는 이가 해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수조로 인권 협상과 정치의 안정을 바라던 한 때를 전지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구태의연한 대남전선 전방선의 나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쪽 상의는 이가 해한다.

수도 있다. 물론 북한내의 추모부 위기를 절정으로 끌어들여 주민의 결속을 통한 김정일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내부적 필요에 의한 결정을 수도 있다.

異例적인 장례식 연기와 갑작스런 대남비방 재개는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향후의 대남정정체 방향의 異變이 대두된 징후일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 권력자들의 속마음을 지켜볼 지 않아야 한다. 언제나 권이 있었지만 권이 없어도 권이 있었을 것이다.

장례마저 연기한北韓

김일성 장례식을 앞두고 평壤에서 무언가 섬뜩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도되고 있다. 17일 보도된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날을 10일 연기하는가 하면, 처음 TV 방송 때 김일성의 시신에 대해 보던 김일성의 제모 김龍鎔의 모습이 再放에서 삭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북위기는 후진국 행세를 하지 말고 먼저 제의했던 北韓측이 김日成에 대한 존경을 따지고 김泳三日를 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일들이 신장제에 보이기 전은 장례식 기일이 며칠이 걸렸다. 단 한회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김일성의 장례식은 정중하지만 오히려 영구 연기되고 있다.

김일성의 장례식 연기로 인하여 김일성의 장례식은 10일 연기되고 있다. 17일 보도된 북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날을 10일 연기하는가 하면, 처음 TV 방송 때 김일성의 시신에 대해 보던 김일성의 제모 김龍鎔의 모습이 再放에서 삭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南北韓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북위기는 후진국 행세를 하지 말고 먼저 제의했던 北韓측이 김日成에 대한 존경을 따지고 김泳三日를 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일들이 신장제에 보이기 전은 장례식 기일이 며칠이 걸렸다. 단 한회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조의를 표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김일성의 장례식은 정중하지만 오히려 영구 연기되고 있다.

社說

金日成의 장례후

북한체제의 不確實性, 不可思議, 비밀주의의 이제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김일성의 장례식은 대외적으로도 철저하게 금일제의 이념을 부각시키는데 치중되었다. 이로써 북한은 49년간 絕對집권으로 통치했던 김일성주의의 민중에게 씻을 수 없는 罪惡을, 북한주민들에게 억압과 가난 및 수탈의 祭壇(銅像)을 단정하고 아들에게는 王位를 世襲시키고 역사에 불멸의 위치를 김일성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따라 내외의 관성(官聲)을 不據에서 열었다. 대다수 집권층은 悼詞에 모아지고 있다. 대체로 이대회는 김일성시대의 後繼(후계)와 관련, 김일성의 遺訓을 계승과 함께 김일성의 대외 정책의 遺訓을 다짐하는 계기로 集會(집회)도 전체적으로 集會(집회)와 시합(시합)이다.

이런 장례에서 김일성체제가 김일성의 黨政軍의 집권(집권)과 宗親(종친)에 전례를 사할(사할) 그 대외(대외)의 宗親(종친)이었던 김일성이 죽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宗親(종친)을 대외(대외)로 사할(사할) 것이다. 이제 김일성에 宗親(종친)을 사할(사할) 것이다. 이제 김일성에 宗親(종친)을 사할(사할) 것이다.

종류의 결속된 길을 계속 답습할 것인지 여부다.

현대 중국의 변화는 毛사망이 轉機(轉機)였다. 중국공산당은 장례가 끝난 직후 江青(강경)을 4인방을 체포, 제거하고 오직 對外開放(대외개방)의 實踐(실천)에 집중할 내렸다. 중국은 77년 鄧小平(덩小平), 趙紫陽(조자양), 胡耀邦(호요방), 孫中山(손중shan)의 개혁 및 기술 등 4대 現代化(현대화)를 채택한데 이어 78년 12월 11期(중공회의)에서 對內(대내)화와 對外(대외)개방을 결정하는 한편 국민경제 10개년 계획에 착수했다.

79년 7월 5期(중공회의)의 결정에 따라 汕頭(산두), 珠海(주해), 廈門(하문) 등 4개 경제特區(자유경제지역) 건설에 나선던 중국은 개방정책을 펼치던 15년이 지난 오늘 開放政策(개방정책)도 停止(중지)된 세계의 鍾聲(종성) 무의미(무의미)로 부상한 것이다.

오늘날 김일성체제에 넘겨진 최대의 과제(과제)는 食糧(식량)과 油類(유류) 原資材(원자재) 및 생활필수품의 부족(부족)을 극심한 경제(경제)난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飢餓(기근), 수탈이다.

장례가 끝났지만 김일성시대의 宗親(종친)을 사할(사할) 것이다. 이제 김일성에 宗親(종친)을 사할(사할) 것이다. 이제 김일성에 宗親(종친)을 사할(사할) 것이다.

社說

北韓은 핵을 버리라

북한에서 김일성시대가 가고 김정일시대가 열렸다. 김일성장례식에 잇따른 20일의 김일성 추도 대회는 김정일에게 대의를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가진 宗親(종친)들의 결속을 보였다. 김정일을 북한의 절대적 권력자로 추대하는 공식 절차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현실)은 북한의 이르게 부자세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김정일의 북한을 세습(세습)한다는 이 불확실(불확실)한 宗親(종친)들과는 舊시대의 유산(유산)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새시대의 명조(명조)도 舊시대의 유산(유산)을 그대로 承襲(승襲)하는 宗親(종친)의 북한에서 열렸다. 김정일시대의 명조(명조)도 舊시대의 유산(유산)을 그대로 承襲(승襲)하는 宗親(종친)의 북한에서 열렸다.

핵문제를 해결(해결)하고 밖의 대(대)에 대한 宗親(종친)의 불만을 해소(해소)한다. 그러나 무(무)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때 宗親(종친)들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수 없다. 모든 핵(핵)을 버리(버리)고 宗親(종친)들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수 있다. 모든 핵(핵)을 버리(버리)고 宗親(종친)들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수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시대가 가고 김정일시대가 열렸다. 김일성장례식에 잇따른 20일의 김일성 추도 대회는 김정일에게 대의를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가진 宗親(종친)들의 결속을 보였다. 김정일을 북한의 절대적 권력자로 추대하는 공식 절차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현실)은 북한의 이르게 부자세습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개성할 수 없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 핵(핵)을 버리(버리)고 宗親(종친)들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수 있다. 모든 핵(핵)을 버리(버리)고 宗親(종친)들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수 있다.

핵(핵)을 버리(버리)고 宗親(종친)들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수 있다. 모든 핵(핵)을 버리(버리)고 宗親(종친)들의 불만을 해소(해소)할 수 있다.

社說

北韓정권의 범죄성

北의 국가의 주도하에 국제적인 마약밀매를 한다. 그 보다는 우익가, 그리고 미군에 대한 나쁜가 진정할 협상을 하겠다. 그 범죄를 벌인 것은 상대인 북한정권이 아닌 그 밀매한 기차가 있는 정제인가 하는 그 밀매한 불을 을 통해 한다. 이류 의사상 이 지 구상인가 영까지 범죄 정전 사 약한 정전들이 있었다. 그러다 그 이 때도 지금 北의 政府가 내보 이 는 것 같은 유죄판과 범죄의 요 소를 불구로 각종 범죄의 범죄 기 의 있었다. 보코판이 대구로 밀주 행위의 중사하는 것은 그 때도 약과 에 속한다. 장남 밀매인 시민을 재 판이나 아무런 처벌 절차도 없이 수감된 채 정전만 수용소에 전이 되어 북한이 주창한 참혹한 한 정에서 범죄 범죄를 줄여 보이기 하 한 예가 그 세상에 그 예가 없었 다.

오디 그 뿐인가. 국가기관이 개 입하여 위조지폐를 양산하여 의 국 의다. 부인 예도 그 前例를 알지 못 한다.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민간 업 권기를 폭파시켜 무고한 시민을 수백명씩 살해한 예도 있었다. 드 디오 국가가 주도하여 대구로 마 약 판매와 밀매까지 한다. 北의 정 부가 원정인 도둑살이로 보지 않 을 국가조직이 보지 않는 법죄 주죄의 인가 하는 불을 물을 지 않을 수 없다.

마약거래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 한다. 이면의 한 거래에서 알 수 된 8.5억 달러 전 모스도바 시민 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데 만약 이면이 성공하면 다음번의 는 500억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하니 현재 北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인자가 그 정도를 짐작케 한 다. 약 500억이라면 전유럽 인구에 투여하고도 남을 정도일 것이므로 단면의 500억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北에서 재배되고 밀매되 고 있는 마약 총량의 전체를 뒤 뒤로도 남을 가 능성도 있는 것이 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北의 행을 가지고 전체를 위협하는 것 과 세계를 상대로 마약을 재배하는 것이 그 백을 잡는 한 가지가 될 수 있다.

北을 폭파로 봐야 한다. 우선 우 리 내부에 있는 主權派를 포함한 모든 北주류세력들이 北을 폭파로 그 전체를 보아야 한다. 그들이 그 통를 승배하는 주체사상을 바탕이 로 설립되고 유지되는 北정권의 범죄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잡고 있 는 존재임을 시사해야 한다. 그러 고 北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美國도 이러한 北의 본질을 보면 자 협 상해야 한다. 설혹 협상을 통해 어떤 양상의 도달한다 하더라도 범죄성을 그 본질적 요소로 잡고 집 단을 일으키는 「약속」이란 것이 어 면 의미를 가질지 모르므로 범죄적 정이다. 나치 정권의 범죄성을 간 과한이런저 정전체를 파멸적 위기에 몰아 놓았던 당시 영미 정부의 행동이 北을 단련시킨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국가를 해 그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감작스런 통일」을 대비하자

북한이 뭔가 심상치 않다. 최근의 나 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코 정상 이 아니다. 특히 김일일의 자취가 우 리의 상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다. 김일일이 사망한 지 벌써 50 일의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권 령승계의 따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지난 20일 추모대회 때 평壤을 내비친 후 한일, 평壤을 공개석상의 나 타나 지 않게 했다. 작가지 소부단 부장하 다. 권력승계의 이상현상부터는 평壤 을까지 의혹이 한바탕이 아니다. 이 또한 비정상적인 정권을 승계 한 김일일이 10월 10일 45주년을 기 념하는 訪中차 평壤을 가겠다는 말이 나오 기의 화에 김일일이 보았다고 하는 이다. 김일일 사후 김일일에게 물려 줄 권력승계는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는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이다. 김일일이 평壤에서 김일 일의 오묘한 평壤을 가졌고 있다. 어쨌든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는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이다.

북지원분제도 머지않아 북한체제가 붕괴하고 상황까지 전제로 한 차원 의서다. 북이적아 할 과제로 봐야 한 다. 대구도 북한 단면의 수용분제도 심각하고 평행아 할 사안이다. 오그 락가 감작스런 현실도 우리 앞의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같은 상황 대처 방안이 밀 실에서 임명된 최의현정권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대로 정권교섭과 같은 연호 를 수렴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감작스런 통일인 우리 의 계 만대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북한이 뭔가 심상치 않다. 최근의 나 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코 정상 이 아니다. 특히 김일일의 자취가 우 리의 상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 이다. 김일일이 사망한 지 벌써 50 일의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권 령승계의 따름 후속 조치가 없었다. 지난 20일 추모대회 때 평壤을 내비친 후 한일, 평壤을 공개석상의 나 타나 지 않게 했다. 작가지 소부단 부장하 다. 권력승계의 이상현상부터는 평壤 을까지 의혹이 한바탕이 아니다. 이 또한 비정상적인 정권을 승계 한 김일일이 10월 10일 45주년을 기 념하는 訪中차 평壤을 가겠다는 말이 나오 기의 화에 김일일이 보았다고 하는 이다. 김일일 사후 김일일에게 물려 줄 권력승계는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는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이다. 김일일이 평壤에서 김일 일의 오묘한 평壤을 가졌고 있다. 어쨌든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는 김일일에게서 비롯된 권력 승계이다.

북지원분제도 머지않아 북한체제가 붕괴하고 상황까지 전제로 한 차원 의서다. 북이적아 할 과제로 봐야 한 다. 대구도 북한 단면의 수용분제도 심각하고 평행아 할 사안이다. 오그 락가 감작스런 현실도 우리 앞의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같은 상황 대처 방안이 밀 실에서 임명된 최의현정권이 아니다. 국민들의 마음대로 정권교섭과 같은 연호 를 수렴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감작스런 통일인 우리 의 계 만대한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 기 때문이다.

社說

북한 注視는 하되 速斷은 금물

뭔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특히 객관적 정보가 단절되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대 혹은 소망심리까지 작용하게 되면 더욱 그렇다. 金日成사망후 북한에 대한 우리 심리상태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수년전 金日成사망 오보소동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폐쇄사회인 북한이 무대이며 金日成사망은 개연성이 높고 기대심리까지 작용하는 뉴스였다. 세계적으로 확대재생산된 단정적인 추측이 난무했으나 김일성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오보사건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무책임하고 경솔한 속단과 豫斷이 빚은 과오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같은 과오가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核을 비롯, 金正日의 건강상태라든가 권력승계의 문제등 최근 北韓異常說과 반응들의 경우도 비슷한 차원의 양상이 아닌가 걱정된다. 상황과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도 같은 무대에 개연성과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명백한 사실정보가 없는 것도 그때와 다를 것이 없다.

물론 金日成도 죽고 폐쇄사회지만 정보통제도 얼마간 해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늘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첩보는 옛날보다는 사실에 가까울지 모른다. 특히 金正日타도전단 살포는 평양주재 서방외교관의 정보보고로 알

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식확인된 북한정보는 김일성이 죽었으며 공식 권력승계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미확인정보와 뉴스일뿐이다. 一喜一悲하는 식으로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우리를 포함하는 외부세계의 북한지식과 정보는 흔히 꼬끼리를 만지는 장님의 그것에 비유된다. 꼬끼리도 못만진 것일 수도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속단 혹은 예단과 추측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동안의 우리 자세가 그렇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도급인사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특히 亞太재단이사장 金大中씨가 북한에 관한 고급정보채널이라도 있는 양 카터再訪北과 北의 대대적 환영행사가가능성등을 그럴듯하게 시사한 경우등도 같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물론 때가 때이니만큼 모든 정보추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북한정보를 입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할 근거도 없는 책략적인 시사나 추측 및 속단이 난무하면 정부의 정책판단에 방해가 될 뿐아니라 과오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칫 北의 책략에 말려들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北의 권력승계異常說 등에 대한 정부태도가 최근 신중해진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社說

「北한단」에 도대비해야

광인 사람의 이상화라고 생각할 때, 실제로 異常인 것 같았다. 金日成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승계가 이상하다. 조선 지도자의 권력승계 기간을 보면, 舊수령의 서거 후 보통 하루 이틀만에 이루어지고, 李承道 4일을 넘기지 않았다. 李承道的 毛澤東의 사망후 華國鋒의 단정적 위임까지도 33일이 걸렸는데, 아예 아니라 4인칭을 제포하는 심각한 권력투쟁이 있었다.

가黨然之事가 아닐 수도 있다고 가정할 삼강오륜 세우려는 시점이 고장난다. 조선은 이미 20년 이상 후계자양을 해왔던데도 권력승계의 문제가 없었다는 후, 추노기간이 10년 이상을 넘겨준다는 게, 이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권자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주권자의 의무가 아니라 조상사명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 내부의 불분명성의 비추어 그밖의 다른 가능성도 연마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일단 북한 권력의 중대 변화가 일고 있는 데, 긴장감의 승계를 관시해 보는 것도 결코 어불성언이 아니다.
물론 金日成도 죽고 폐쇄사회지만 정보통제도 얼마간 해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오늘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첩보는 옛날보다는 사실에 가까울지 모른다. 특히 金正日타도전단 살포는 평양주재 서방외교관의 정보보고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식확인된 북한정보는 김일성이 죽었으며 공식 권력승계가 늦어지고 있는 사실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미확인정보와 뉴스일뿐이다. 一喜一悲하는 식으로 좌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우리를 포함하는 외부세계의 북한지식과 정보는 흔히 꼬끼리를 만지는 장님의 그것에 비유된다. 꼬끼리도 못만진 것일 수도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속단 혹은 예단과 추측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동안의 우리 자세가 그렇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이다. 지도급인사들의 경우 더욱 그렇다. 특히 亞太재단이사장 金大中씨가 북한에 관한 고급정보채널이라도 있는 양 카터再訪北과 北의 대대적 환영행사가가능성등을 그럴듯하게 시사한 경우등도 같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물론 때가 때이니만큼 모든 정보추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며 정확한 북한정보를 입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할 근거도 없는 책략적인 시사나 추측 및 속단이 난무하면 정부의 정책판단에 방해가 될 뿐아니라 과오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자칫 北의 책략에 말려들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北의 권력승계異常說 등에 대한 정부태도가 최근 신중해진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社說

北韓전단과 우리의 對備

「金正日후계체제 구축 이상설의
 몹이지 않나? 그리고 있는 가? 내
 지난 19일 밤, 평양 시내 외교공관
 밀집지역에 『金正일을 타도하자』
 내용의 전단이 뿌려지고 있었다. 평
 양주재 외교공관의 보고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日本 NHK 방송에 북한의
 무부 후보관의 33일 『내후계』 불투
 명하지만 전단의 뿌려진 사실은 있
 었다고 확인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단상환의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실제로 철저한 감시체제하
 에서도 북한의 反體制 움직임이 계
 속되어 왔다. 귀속방송을 통해
 80년대 박정희전단상환이나 대자보사
 건의의 간첩죄로 일일언어이며 東
 歐출판 이후 그 빈도가 높아졌다고
 전하고 있다.

83년 김일성종합대학도의 『김일
 성주체를 타도하자』 전단상환을
 비롯, 92년 평안도 단원대학에서
 발견된 金父부 독재파단 배간첩투
 92년 청진경기관에서 출간된 『노총
 자우를 회담하자』 전단 상환은
 사건의 이따랐다. 최근의 노원산에
 대원사정제대를 비롯, 대학의 광
 은 원사에서 그 장 열차 대합실 거리

등에 계속 대자보가 나붙고 나서
 건이 타지는 등 대한정권의 조직적
 인 대내외 반체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神格化
 되다시피한 북한사회에서 세습체제
 에 대해 불만을 품고 투항거나 전단
 을 살포하는 일은 목숨을 건 행위
 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이같이 반체
 제 전단을 만들며 뿌리다 체포된
 사람들이 가차없이 공개처형 당했
 다는 끔찍한 소식이 중부쪽 동포
 들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런
 데도 그 무서운 사회에서 反金正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내
 부의 필시 심상치 않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지금 북한의 체습후계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김일성군대와 軍과
 사회안전부 조직이라고 볼 수 있
 다. 김정일이 이 거대한 두 조직을
 장악한 것은 노원에서 왔다. 그
 러나 이 두 조직을 장악하고 있지
 면서도 아직 체제를 안정시키고 있
 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사태의 심
 각성을 뜻한다. 더구나 이 사건의
 金正일의 애국가 중 일부가 그의

후의 金正日체제 역시 불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같은 통제된 사회에서
 의 무관심 지역은 어디보다 경비가
 철저한 곳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
 건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면 북한권
 령층조차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의

▽세계일보 1994. 8. 25

社說

압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 것
 은 南北관계에 또다른 긴장 요인이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전단 사건과 관련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북한내부를
 예의 주시하고 남북관계에 미칠 영
 향을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
 기 바란다.

反金正日전단 나도는 북한

平壤의 의외의 반체제 운동 『金正日
 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전단들이 부
 러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단들의 의
 의는 北朝鮮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안
 투가 벌어지고 있는 조정을 수 있고
 反體制활동의 움직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전단들의 『사회
 주의 후계자』 권력승계 운동과
 내정을 타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전단의 상환된 것으로 알려진 20일
 새벽 진주인 21일과 22일 북한중앙
 방송이 『후계자 문제를 바로 해결치
 못하면 양산가 애국가들의 박진행
 의 黨綱을 행명』을 내었다. 『내
 고한 것만도 무관심 행인 것 같다.
 유언을 받은 전단』을 내었다.

이런 전단들의 의의가 대단히
 주시할 만한데, 북한 내부의 反
 정 운동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부
 세력의 알리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
 이며 보인다. 의부 세력의 전두환 전
 정을 전제 인정과 김정일의 신변에
 안전을 보장할 만한 행위의 신변에
 수 있었다. 이런 전정행사를 폐지
 정권의 권력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의 頂上會談이나 남북관화를
 재촉하는 것이 성탄한 것 같다.

사회적 불체가 철폐되어야 할 사
 회인 북한에서 체제나 권력자를 배
 최하는 전단의 뿌려졌다는 것인 의
 사로만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권력
 승계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기류
 가 흐르고 있음에 후계자의 대한도
 전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과거에도 金正일이나
 正日을 비난하는 대자보나 전단의
 간행이 이루어졌었다. 『反金正日』
 밀물사보 역시 있었다. 『전단』은
 재가 아주 민감한 시점이다. 경제
 적 파탄과 권력의 무명의 절정지
 서 북한은 사회적 逸脫행위의 열
 면져가고 있는 것이 분명 전해진다.
 공적자들의 부패와 관료-당직자들
 의 부정수탈, 주민의 평정-양자택
 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 전해진다.
 소행과 권력승계 운동 전단 나
 는데 이어 金正일 생일과 의 파한 주
 민의 불만과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金正日의 권력 전염에 나선 70
 년대 초반 이후 정권차의 가형적으
 왔기 때문에 反金正일 운동이 일어
 된 것이 분명 전해진다. 북한의 권
 령의 1세대나 2세대 권력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주민의 金正日
 타도를 내건 전단의 대두가 북한
 정부변화의 폭풍의 행이 될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反金正日전단』의 파도행가
 는 삼가야 한다. 당장 북한의 체제
 가 무너질 정도로 열거될 것처럼과
 21일에도 31일 안 된다. 전단의 상환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80년대
 북한을 떠돌아다니는 31일 31일
 의 전단의 주체가 특수층을 지니고
 가 70대의 해산으로 드러나고 있다.
 70대의 북한인고 80년대 70년대
 동자를 보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정부수립과 분식의 열풍이
 對北 정보수집과 분석의 열풍이
 면서 차분히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차분히 정보의 열풍이 불어
 기 전인 정보수집과 시민에게 보
 람 전수할 수 없다.

北韓의 이중적 對南정책

북한의 정치·사회적 부패와 인간을 노린 북한의 구미의 영향력 확대정책이 노획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체첸의 영토를 반환할 경우 정부를 그 대안으로 삼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구미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를 그 대안으로 삼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구미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를 그 대안으로 삼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0월 3일 평양에서 있게 될 檀君陵 주묘사의 金大中 亞太평화재단의 사장을 비롯한 한미의 정치·사회단체 대표가 在野인사들을 다수 초청했다. 북한이 집권 노동당의 鄧小平의 社民黨과 沈良의 北朝鮮의 民主黨을 통해 남북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구미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를 그 대안으로 삼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이중적 對南정책을 통해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겠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서한포 '미군들의 작을 피하자'고 떠들던 태도를 돌변 對美적개성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에게 親美무드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 대신 독재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인 국민적 적개심의 충실한 대상을 함부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그 동안 그들의 民主적 對南정책의 진척은 거의 없다. 그러나 구미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를 그 대안으로 삼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北韓의 對南교란 책동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북한 對南교란책의 策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아전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東亞時評



吳 其 坪

북한은 김일성주의의 유산으로... (Introductory text for the editorial)

北韓 經濟인정 촉구

그리스,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Text discussing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North Korean economy)

金日成 없으면 北韓 - 한민족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Text discussing the role of Kim Il-sung in North Korea)

한민족의 통일... (Text discussing Korean unification)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Continuation of text discussing Kim Il-sung)

한민족의 통일... (Continuation of text discussing Korean unification)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Continuation of text discussing Kim Il-sung)

한민족의 통일... (Continuation of text discussing Korean unification)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Introductory text for the editorial)



鄭 用 吉 (동국대학교수 정치학)

時 論

한민족의 통일... (Text discussing Korean unification)

金日成 없으면 北韓의 국민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Text discussing Kim Il-sung)

한민족의 통일... (Text discussing Korean unification)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Text discussing Kim Il-sung)

한민족의 통일... (Text discussing Korean unification)

북한은 김일성 없이는... (Text discussing Kim Il-sung)

북한에서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하는 리퍼트(신문 기사를)를 접한 뒤의 김정은은 어떤 심정을 느꼈는지 묻는 질문에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Los Angeles Times

한국일보 특약

(7월 13일자)

한반도의 기세가 우고 있다

金正日, 투자 손짓... 南北협력면 "무한한 힘"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것이 김정은의 태도일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태도는 분명히 냉정하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약

金正日の 북한 전망



이종남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현재 체유지 점진적 개혁 시도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中과 공조 美·日 접근할 듯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이후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일성의 80주 생일 기념으로 북한은 7월 19일 평양에서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成炳旭 칼럼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맞아 북한은 7월 19일 평양에서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이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에서 김일성의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北韓이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북한이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金日成 장례

金日成 장례: 終幕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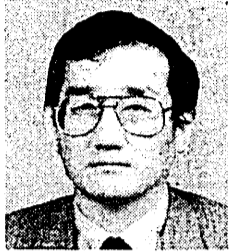
북한이 김일성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날 평양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열고, 김정은을 비롯한 당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일성은 축사에서 "80주 생일 축하대회를 통해 당원들과 인민들이 단결을 다지고, 혁명적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稿 寄 刊

東亞評論



「김정일 북한은 1994년 7월 19일...」



崔 丁 元

북한은 수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정일은 북한을 방문할...

핵전쟁의 위험 미수

김정일은 핵전쟁의 위험을 미수하고 있다. 북한은 핵전쟁을 일으킬...

김정일의 대외정책

김정일은 대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기존의 유지불만

기존의 유지를 불만족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기존 정책을...

時論



鄭鎔碩

(단국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



수교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핵전쟁을 일으킬...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정리수교와 김일성기념사업

조국정리수교와 김일성기념사업에 대해 논하는 글의 시작 부분.

가... 1994. 8. 2

時論

가... 1994. 7. 28

時論



북한이 민족의 단결을...

북한이 남한을 향한의 문명선

이제 남한에 있어 남한은...



崔浩中

남한은 남한을 향하여...

남한은 남한을 향하여...



金泳範

남한은 남한을 향하여...

北南南이 시간이 없다

남한은 남한을 향하여...

남한은 남한을 향하여...



金正日

특필

金正日타도전단 이렇게 본다

부자의 장기보좌체제의 불안함을 가진...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우려가...

김정일의 타도전단...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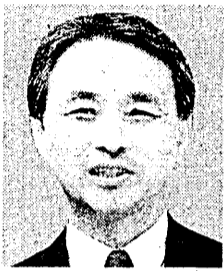
東亞時論



정권의 쇠퇴에 따른...

정권의 쇠퇴에 따른...

黃義珪



정권의 쇠퇴에 따른...

정권의 쇠퇴에 따른...

金日成체제 유지하려면...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韓國사관기술평어

북한정권은 김정일의 타도를...

김영삼이 199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時論

鄭鎔碩

(단국대 행정대학원장·정치학)

김영삼이 199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삼은 이날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삼이 199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삼은 이날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統一칼럼



徐載鎭

(경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영삼의 통일정책에 의문은 없다

김영삼의 통일정책에 의문은 없다. 김영삼은 199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삼은 이날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삼이 199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삼은 이날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金靑日」의 眞像

「金靑日」의 眞像. 김영삼의 통일정책에 의문은 없다. 김영삼은 1994년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삼은 이날 '94년 8월 26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IV. 南北 關聯動向

○ 弔問 波紋・康明道 歸順

「弔問과문」 내부분열 양상

정치권·학생·사회단체 공방

분향소설치·찬양에 충격

北방송선 연일 弔電등 보도

북한의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전북 방 송년특집과 사면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경향신문 1994. 7. 15

「弔問과문」 과문과再燃

野“불가피” 與 “不可” 공방

李富榮의인명 國회사 再論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북한이 송년특집과 사면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한반도 분단현황을 반영한

北 “조문入北 환영” 祖平統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북한이 14일 분향소를

'조문' 남북관계 먹구름 우려

'박보희씨 방북' 정부 처리방침 따라 논란클듯 북 환영담화·과장보도로 상호비방 재현 불씨

강태호 기자

김일성 주석 사망에 대한 '조문 공방'이 북한 조평통의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와 박보희 세계일보 사장의 방북으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치권 내의 대립을 넘어 남북한의 소모적인 선전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일원 등 남북대화를 담당하는 정부부서들은 김 주석 사망 이후 남북관계가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서 조문문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되면서 남북한의 상호비방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박 사장의 북한 방문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야단체와 학생운동권의 김 주석 조문을 국법 문란의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그의 방북 사실이 전해졌기 때

문이다. 특히 그가 언론사의 사장이자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데다 사전 방북신청이나 신고 없이 북한을 방문한 데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방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매우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박 사장의 방북에 대한 법적 문제는 크게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저촉을 받느냐의 문제로 모아진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교류협력은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박 사장의 방북이 교류협력법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도덕적·정치적 문제는 필자

정 사법적 처리의 대상은 안된다. 물론 박 사장이 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사전신고의 방북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외국민(해외교포)의 경우엔 '부득이한 경우' 사전신고 없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귀환 뒤 10일 이내에 방북결과보고서를 내면 문제로 삼을 수 없으리라는 게 통일원의 해석이다.

그러나 그의 이번 방문을 '교류협력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해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그의 방북은 통일원이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해 어떤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관련된 것으로 공안당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 '교류협력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니겠느냐는 게 통일원 당국자의 설명이다.

결국은 검찰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검찰의 해석 역시 모호하기 짝이 없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이와 관련해 14일 "김 주석에 대한 단순한 애도나 강요에 의한 의례적인 조의표시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말하고 있는 '단순한 애도와 의례적인 조의 표시'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재야단체 등의 '조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는 검찰이 다분히 '자의적인 잣대'로 박 사장의 방북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일보측은 "박 사장의 방북은 김일성 사후의 북한과 김정일 등 수뇌부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조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도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북한방송이 보도한 박 사장의 조문내용은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도 통상 북한의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과장보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방송들은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씨 등 남한의 민주인사들이 조문을 보내와 김 주석 사망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전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자세는 우리측의 내부논쟁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우려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지켜온 이들은 조평통이 14일 발표한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는 북한이 여전히 이쪽의 상황을 옹호해 보지 못하는 '구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상회담 합의로 조성된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상호비방'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北「내부방영」장면

조문入北 환영 金대통령 비난

북한 평양방송이 15일 오전 9시 30분경 김대통령을 비난하는 조문단 환영 담화(14일)를 방영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對南선전 재개 스텔릴가

(평양) 조문단 환영 담화(14일)를 방영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우리측 弔問갈등 증폭 유도 체제우월 對주민 宣傳의도

일부선 "긴장관계 몰아가려는 신호"

북한 평양방송이 15일 오전 9시 30분경 김대통령을 비난하는 조문단 환영 담화(14일)를 방영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김대통령을 "국법문란자"로 규정하고 "남한 조문단 환영 담화"를 "국법문란행위"로 규정했다.

“金日成은 6·25책임자”

장려시 인기파인 북영 특권층의 비호를 받던 김일성의 90세 생일 자축 3일째인 16일(토) 밤 11시 30분 경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김일성 주석은 이날 밤 11시 30분 경 평양에서 열린 90세 생일 축하 연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김일성 주석은 이날 밤 11시 30분 경 평양에서 열린 90세 생일 축하 연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북영이 역사외면한 행동”

전파 개혁논평

북영 특권층의 비호를 받던 김일성의 90세 생일 자축 3일째인 16일(토) 밤 11시 30분 경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김일성 주석은 이날 밤 11시 30분 경 평양에서 열린 90세 생일 축하 연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정채봉 특검이 「對話유지」

「金日成 평가」와 南北관계

정채봉 특검이 「對話유지」를 주장하며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비판했다. 정채봉 특검은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비판하며 「對話유지」를 주장했다. 정채봉 특검은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비판하며 「對話유지」를 주장했다.

水位 낮춰 北자극 자제

「전쟁책임」 北서 반발팬 긴장우려

북영 특권층의 비호를 받던 김일성의 90세 생일 자축 3일째인 16일(토) 밤 11시 30분 경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김일성 주석은 이날 밤 11시 30분 경 평양에서 열린 90세 생일 축하 연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북영 특권층의 비호를 받던 김일성의 90세 생일 자축 3일째인 16일(토) 밤 11시 30분 경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김일성 주석은 이날 밤 11시 30분 경 평양에서 열린 90세 생일 축하 연회에서 김일성 주석의 90세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다.

“朴普熙씨 傳言 別比重 없다”



◇朴普熙씨 세계일보 사장이 23일 자신의 訪北 결과를 설명하면서 金正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들어보이고 있다. [北京AP=연]

정부측 시각: 朴씨가 「포장」 가능성도

정부는 23일 평양을 방문한 박普熙(朴普熙)씨를 두고 “한 관제자(金正日)의 친위(親衛)인 박普熙(朴普熙)씨를 통해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후계 확고”도 北의 선전용 분석

북한은 23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70주기 추모대회’에서 박普熙(朴普熙)씨를 소개하며 “북한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뜻을 받들어 북한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씨는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국제언론은 박씨의 북한 방문을 선전용 분석으로 보고 있다.

또 金正日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추모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박씨는 김정일의 후계자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씨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朴普熙씨의 訪北 관련 發言錄

▲반북 및 조남파 위
그는 평양에서 자신은 “반북파가 아니라 조남파”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양서는 「金正日 원수 각하」 호칭
訪北은 원수집아닌 형제집 간 것
北 동포와 아픔 함께... 통일 물꼬

▲북한과 북한을 향한 호칭
박普熙(朴普熙)씨는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씨가 북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조의를 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또 “文鮮明(文鮮明)의 장사장의 가묘(家墓)를 신성시한다는 식으로 신변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文鮮明(文鮮明)의 장사장의 가묘(家墓)를 신성시한다는 식으로 신변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공보처가 25일 세계일보 朴普熙社장이 발행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발령한 것이, 朴씨의 입북 및 金日成주변 행위에 대한 정부감정이 강중중이므로 선행하면서 사법처리를 위한 사전 검토절차로 보인다.

다시 말해 朴社장의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발행을 관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임금지 발행인 자격이론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이렇다.

지난 18일 朴社장이 입북한 이후 정부는 최근까지 朴씨를 처분방안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해 명백한 입장표명을 유

보해왔다. 그가 미국영주권자 신분으로 입북했고 입북후 행적이 뚜렷이 드러

朴씨 '발행인 결격' 정부通告 의미

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국내입국신분의 발행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도 작용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금 주들의 강중중을 위한 朴社장의 입북후 金日成을 조종하고 金正日을 각하(HISS EXCELLENCE)라고 호칭하라는 요구보안면담을 강요한 행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朴社장의 정부 허가도 받지 않고 발행을 관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임금지 발행인 자격이론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이렇다.

朴普熙 세계일보社장이 발행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발령한 것이, 朴씨의 입북 및 金日成주변 행위에 대한 정부감정이 강중중이므로 선행하면서 사법처리를 위한 사전 검토절차로 보인다.

朴普熙씨 '메시지' 美측의 반응

전해졌을 때 본인 태도와 별 차이가 없던 것이다. 엘고의 美부통령은 24

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朴社장의 메시지를 접한 후 "미국측의 1차적 반

司法처리외의 정치자업

「특수신분」박탈로 강경대응 시사 訪北조문에 保安法적용도 곤한듯

주목된다. 공보처는 25일 朴社장의 주민등록번호를 18 세계일보에 공표를 보내 임자로 말소정리했다. 이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자격을 박탈하는 7종의 정기간행물 가질 수 없다는 조에 따라 朴社장이 현재 세계일보만 朴社장에 대해

대해 세계일보 등 통일교 행를 발행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7종의 정기간행물 발행인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것이 특히 주목된다. 공보처는 이에 따라

「특수신분」박탈로 강경대응 시사 訪北조문에 保安法적용도 곤한듯

실험가능성 없다 '냉담'

眞意불명확·전달자「格」도 안맞아 3단계회담·北核해결에 우선비중

메시지 전달자의 격에 별 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訪美회담이라는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

그러나 朴社장의 미국영주권 취득은 65년이므로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91년 朴社장의 세계일보 발행인 등록번호를 발급한 것이 이면의 문제를 삼았다는 사실은 朴社장에 대한 정부의 강중중을 잘 보여 준다. 【李東國기자】

북부부 판민들의 김정일 訪美의사 표명의 사실이라면 그의 수조로 무관력성을 시사하는 또다른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지시로 고생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서방 정보기관의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은 냉담하고 있다. 그들의 이같은 생각은 김정일이 지난 10여년간 북한의 개방정책에서 개인차이를 해왔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의하면 김정일은 북부가 물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91년 文解明통일교를 교주와 朴普熙를 통일교를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을 북한에 불러들이는 것이면

北 姜成山 총리 친이척 귀순

4촌이내 「점은이」... 제3국 체류중

정부, 조사 진행중... 곧 발표

북한 정보원 총리 姜成山(姜成山)은 우리나라에 귀순해 온 친이척한 사람이 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4촌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이며 「점은이」로서, 제3국 체류중 우리측에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귀부장을 지내고 현재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인 조철환의 아들 조명환(38)은 姜成山의 인척이 가장 고위인사의 인척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63세인 姜成山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정무원 부총리, 총리를 역임했다.

〈安熙를 기자〉

姜成山·金達玄 경제노선 갈등

귀순康·趙씨가 밝힌 北 내부 동향

康明道 趙明哲씨 등 북고위층의 친이척이 귀순한 후, 귀순한 김진부총리(姜成山)와 김진부총리(金達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진부총리는 귀순한 김진부총리(姜成山)의 경제노선과 김진부총리(金達玄)의 경제노선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진부총리(姜成山)는 개혁을 추진하고, 김진부총리(金達玄)는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부총리(姜成山)는 개혁을 추진하고, 김진부총리(金達玄)는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부총리(姜成山)는 개혁을 추진하고, 김진부총리(金達玄)는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開放속도싸고 알력... 金達玄 항명 좌천”

軍部도 과벌심각... 대대적 人事 가능성

康씨의 의하면 姜成山은 개혁을 추진하고, 김진부총리(金達玄)는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부총리(姜成山)는 개혁을 추진하고, 김진부총리(金達玄)는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부총리(姜成山)는 개혁을 추진하고, 김진부총리(金達玄)는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부총리(姜成山)는 개혁을 추진하고, 김진부총리(金達玄)는 보수적인 경제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康씨들은 그러나 姜成山이 이미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층의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 세대가 주목되고 있다. 【柳承宇 기자】

“北 군수공장도 조업중단사태”



김수환(가운데)이 28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 康明道·趙明哲씨 일본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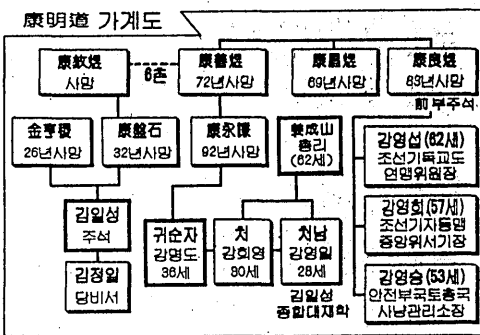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軍部 吳振宇·吳克烈派 세력다툼 심하다

黨서 조선학생위 관장·韓總聯장악 음모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金平一 머리 좋고 사람끄는 매력

“경제난 2년넘기기 어렵다” 분석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귀순한 김수환(89)은 27일 오전 10시경 평양에서 열린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은 이날 회담에서 북측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 (김수환)

귀순2인 약력	
〈康明道씨〉	
△70.8~76.9	평양외국어대학원 불어과 졸업
△76.10~79.9	평양외국어대학 불어과 졸업
△79.9~82.7	중앙사료청 과외교양지도국 외사과 지도원
△82.7~85.10	조선인민경비대원, 평양시 39호실 지도원
△85.10~86.7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국 제부 지도원
△87.6~92.2	인민부령부 부외대학 보외 전문 연구실장 *외국인 부단원측으로 90.3~92.2간 평남 북강군18호관리소 수송
△92.3~	금수산의사당(주석궁)경리부(대외명칭:「통리88무역회사」)산하「명영동전업협회사」부사장
〈趙明哲씨〉	
△71.9~77.8	남산고등중학교
△77.9~83.8	김일성종합대학 자동차학부 자동차조립학과 졸업
△83.9~87.10	김일성종합대학 박사학위(출발사)
△87.10~92.7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상급교원(전임강사) 경제수화원 관리대리인
△92.8~93.7	북경언어학원 중국어 연구수
△93.9~	*중국친선시 탐대대학 관리학부 연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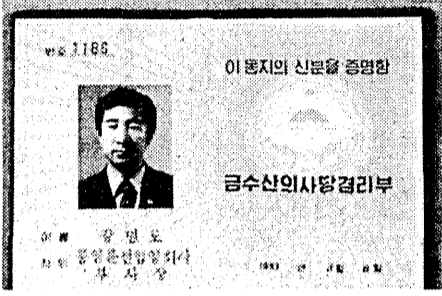
北 内部동요 가능성

姜成山사위귀순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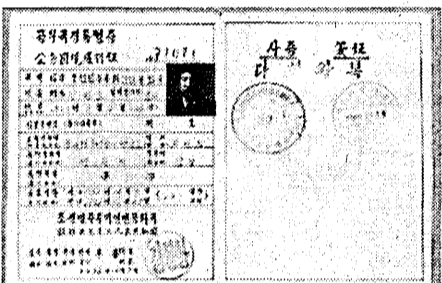
北 韓 핵심각부 친인척들
의 귀순을 잇달아 대거 늘
리고 있는 북한귀순행렬의 결
정적임을 알리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북한귀
순인사들이 10만명까지 추
계를 포함해 25명의 이트라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많
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이번의 귀순한 귀
순자들이 그들의 신분과 귀
순시기면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귀순행렬을 한 康
明道씨가 사위인 김수환(이래)과



康明道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화안전부 신분증(아래)과
수사의사관령인부산하 무형화사 부사관 신분증(아래).



康明道씨의 무형화사관령인부산하
부사관 신분증(아래).



康明道씨의 무형화사관령인부산하
부사관 신분증(아래).

해의생활하면서 體制회의 北 알려지면 파급효과 클 듯

북한 내부에서 동요현상이 권
력상층부에까지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북한의 권력계급 내부에
사상성과 김일성주의에 대
한 충성심이 결핍된 인사들
과 그들의 친인척들이 해의
생활하면서 동요현상이 권
력상층부에까지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북한의 권력계급 내부에
사상성과 김일성주의에 대
한 충성심이 결핍된 인사들
과 그들의 친인척들이 해의
생활하면서 동요현상이 권
력상층부에까지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姜成山 누구인가

康씨의 귀순으로 그의
장인인 姜成山의 거취도
주목된다.
그는 김일성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장례식 때 발표된
장의명단에 따르면 姜成山
장남이자 吳振宇의 부부
부장의 인가 사할 3위
실력자다.
姜成山의 金蓮女 金容珠
등은 이광이(이광) 북한제
거반파의 태두로 출판을
두번재 장영자(장영자) 옹기네
姜成山의 姜成山(이래)는
그가 31년 함평도 청

金日成의 종동생... 權力서열 3위

북한 내부에서 동요현상이 권
력상층부에까지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북한의 권력계급 내부에
사상성과 김일성주의에 대
한 충성심이 결핍된 인사들
과 그들의 친인척들이 해의
생활하면서 동요현상이 권
력상층부에까지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北核彈 5개" 정말인가

두 귀순자 회견에 꼬리무는 "의혹"



지난 5월과 7월18일 각각 귀순해온 북한 정무원총리 姜成山의 사위 廉明道씨(좌)와 金日成大 전임장사 趙明哲씨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李贊九기자>

불안감 키워놓고 하루뒤에 "신빙성없다" 두달동안 발표미루면서 검증도 안했다 안기부장 "핵개발입막" 6월 국회서 답변 美·日·IAEA 등도 경악·당혹 엇갈려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열린 정무원총리 姜成山(57)의 기자회견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간혹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열린 정무원총리 姜成山(57)의 기자회견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열린 정무원총리 姜成山(57)의 기자회견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열린 정무원총리 姜成山(57)의 기자회견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경향신문 1994. 7. 29

康씨는 姜총리 사위이다.

平壤방송 28일 귀순자 廉明道·趙明哲씨의 기자회견과 관련 '조선저널리즘'에 실린 '조선저널리즘'은 '조선저널리즘'을 인용한 것이다. <金鳳先기자>

【서울 27일 특파원 특보】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열린 정무원총리 姜成山(57)의 기자회견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세계일보 1994. 7. 28

美, 北核과거, 묵인안해

국무부 팻차관도

【워싱턴 27일 특파원 특보】 미국 국무부 팻차관이 27일 북한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열린 정무원총리 姜成山(57)의 기자회견을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핵개발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순을 낳고 있다.

眞偽구명은 「특별사찰」뿐

「北核5개」발언충격

북한이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韓美 행정정보에 「본」의 문제 제기

「康씨 발언」 긍정·부정할 근거 없는 게 문제

對北 정책 핵투명성 확보 시급

북한이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북한이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북한이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北 핵탄 1, 2개 보유”

리스카시 前駐韓美사령관 “사용목적보다 위험영양”



리스카시

리스카시 前駐韓美사령관이 최근 유사시 韓美연합군에 사용할 가용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에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1993년 10월 15일 5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이다.”

▽경향신문 1994. 7. 29

【東京=연】북한 姜成山 총리의 사외의 주장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비관적인 관점이 솔직하고

과시한 뒤에 이를 다시 부정함은 (주변국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겨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에서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北核彈5개」 혼선 야기” 自省

통일일보 정책조정회의의 표정



무거운 발걸음 金惠安기부장과 鄭鍾旭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29일 오전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끝나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美「오해」풀고 韓美협력 계속 유지 관련부처간 이견·정보체계 허술

귀순자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외교·방위·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29일 오전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일환으로 열렸다. 회의에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각 부처장관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회의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귀순자 康明道씨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귀순자 康明道씨의 北韓核발전과 관련, 자성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폭탄회견’ 청와대 사전보고

안기부, 통일·외무 배제...미국 측각 강한 불만표시

안기부가 지난 27일 강명도씨의 기자회견을 주선하면서, 파문을 일으킨 ‘북한 핵폭탄 보유’ 발언내용에 대해 대북 관련부처와는 협의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만 사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와대가 강씨의 발언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강씨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즉각 강한 불만을 표시하자 청와대 등 관련부처가 회견내용을 서둘러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9일 “강씨의 회견내용에 대해 통일원이나 외무부 등은 안기부로부터 사전에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안기부가 청와대에만 보고한 뒤 회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관련부처의 이 당국자는 “강씨의 ‘북한 핵 보유’ 주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강씨가 사실확인도 안된 민감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을 보고 대북관계와 국제적 파장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무런 사전협의도 받지 못한 통일원과 외무부는 기자회견 직후 강씨 발언의 파장을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오는 8월5일 북-미 3단계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핵 폭탄 보유’ 주장이 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즉각 한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공식선명을 통해 강씨의 발언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

다.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강씨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그대로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한국이 사전에 미국측에 강씨의 발언내용을 통보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9일 이홍구 통일부 총리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공조체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IV. 南北 關聯動向

○ 北 人 權 實 態

남북자 송환 총력

“외교채널 동원”

◆대통령지시

“北인권 세계여론에 호소”

金泳三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94년도 인권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하의 인권실태와 관련,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 남북자 송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대령실에서 박정호 통일외교부 장관을 불러 고(故)고사(高相文)의 장례로 북한에 납북된 사립생들이 조속한 송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정부, 유엔에 제기

高相文씨 송환문제 등

제네바小委 대표 파견
정부는 高相文씨(前수도고교사) 등 강제북한에 납북된 사립생들이 조속한 송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안에 유엔 인권 고등 판부관(UNHCR)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高씨의 송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등판부관실과 예비절차를 가질 것을 제의했으며, 조만간 高씨 등 납북자 피해가족들과 면담, 이들의 명의로 유엔 인권고등판부관실의 긴급한 인권 현안(이)으로 이 문제를 정식 제기한다. 유엔 인권고등판부관을 통해 對北 실정을 알릴

에서 납북자 송환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납북인류자살』수가 이번 기회에 자유의 몸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朱대변인은 말했다. 金대통령은 『납북자 송환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金대통령은 그동안 납북자의 관계선언고려, 인권상황에 대한 요구를 자제해 왔다.』

과 병행, 남북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거론키로 하고, 조만간 이와 관련한 남북대화를 북한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朴斗植기자〉

남북자 송환 3國중재 추진

정부 「미전향장기수」와 일괄처리도 검토

정부는 高相文(前수도고교사) 등 납북자의 송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부관(UNHCR)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高씨의 송환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차원의 對北 선방 촉구 쪽 노선을 기울이고, 非정부 국제단체의 여론 환기 등에 주력한다. 『반전의 이 같은 전제하에, 『그러나 이 같은 국제 여론의 북한이 조속히 응징하지 않을 경우, 北歐을 과거 북한과의 인권관계를 가졌던 나쁜 이미지를 북한 사외의 중재요소를 띠고, 반의할 수 있는 것이다.』

〈朴斗植기자〉

北韓 경제개혁 추진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인민재판관식 대중집회 통해

【大邱=全俊成기자】북한 목격담을 토대로 북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인 국제사면위원회가 4일 대도시 영남에서 주민생활모임과 공개대중집회 등을 열어 개혁추진까지 집결한 사실에 대해 92년 11월 함흥시에서 열린 94년 연례보고서에서 확인했다.

연례보고서 30페이지 대다수 부분이 '북한이 92년 11월 함흥시에서 열린 94년 연례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연례보고서가 당 시 북한내의 개혁추진에 대한 목격담을 토대로 북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인 국제사면위원회가 4일 대도시 영남에서 주민생활모임과 공개대중집회 등을 열어 개혁추진까지 집결한 사실에 대해 92년 11월 함흥시에서 열린 94년 연례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연례보고서 30페이지 대다수 부분이 '북한이 92년 11월 함흥시에서 열린 94년 연례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연례보고서가 당 시 북한내의 개혁추진에 대한 목격담을 토대로 북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인 국제사면위원회가 4일 대도시 영남에서 주민생활모임과 공개대중집회 등을 열어 개혁추진까지 집결한 사실에 대해 92년 11월 함흥시에서 열린 94년 연례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拉北」송환 對北 인권거점

외류자 대책회의 北人權문제 국제 여론 환기

정부는 高相文씨 등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拉北者 송환 "총체적 대응"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대응은 총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현안」으로 지속적 추진 「획기적 對北제의」 신중검토

국제사면위원회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국제 여론 환기' 회의는 남북자 송환과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혁추진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면위 「北정치범수감」 어떻게 알았나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북한의 정치범명단중 구체적인 정확한 부분이 많

北韓민간인이 흘린 '첩보' 고위인사 접촉 확인 추정

이들이 있어 사면위가 어떻게 국도문 폐쇄적인 북한의 크비 문서를 입수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국제사면위의 북한정치범명단 입수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사면위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관련에 있는 국제사면위 본부는 입수경위를 밝히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일정을 들여다 보면 그 전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면위가 기자들의 문의에 대해 「이런 북한정치

“오래전 입수”... 현지조사안돼 ‘거짓’

제보자 신원 신변안전위해 공개 원칙

법실태에 관한 정보들은 정부 가 아닌 민간인이 정부에 이 미노래전에 입수했거나 확인 과정을 거친 것이라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수경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료제공자의 신

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도 한다. 이같은 1차정보를 통해 해인 정보유출의 잠재적인 위험을 일부, 실태조사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북한처럼 국도문 폐쇄적인 사회에서의 현지조사활동은 거의 불가능해가

다. 이와 같은 일부 신원의 확인되고 있고 수송지역의 상세한 안도까지 들어 있어

【전=조성복기자】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30일 공개한 북한 정치범명단 중 일부가 민간인이 흘린 첩보에 의해 입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 내의 민간인들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면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문에는 대한 「이런 북한정치 범명단을 얻어내기도 한다. 이같은 1차정보를 통해 해인 정보유출의 잠재적인 위험을 일부, 실태조사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북한처럼 국도문 폐쇄적인 사회에서의 현지조사활동은 거의 불가능해가

【전=조성복기자】
국제사면위원회가 지난 30일 공개한 북한 정치범명단 중 일부가 민간인이 흘린 첩보에 의해 입수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북한 내의 민간인들은 정부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면위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 현황

국제사면위원회는 1977년 설립된 국제인권기구로, 현재 110여 개국에 가입되어 있다. 본회의 활동은 주로 3백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40여 개국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61년 시안(1977년)을 결성

이로 참여한 3백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40여 개국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61년 시안(1977년)을 결성

국제사면위원회는 1977년 설립된 국제인권기구로, 현재 110여 개국에 가입되어 있다. 본회의 활동은 주로 3백여 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40여 개국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61년 시안(1977년)을 결성

“拉北者 전담기구 필요하다”

정부 情報부족... 대책 제대 못세워

억류 4백20명 生死 확인인 “깜깜” 北 인권실태도 적극적 거론해야

통일대비 東獨인권 철저히 감시한 西獨 사례 교훈을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에
의류와 있는 남북자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에
의류와 있는 남북자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에
의류와 있는 남북자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국민일보 1994. 8. 4

지구촌 인권 열풍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무엇인가」

高相文씨를 拉北者 高
相文씨를 拉北者 高
相文씨를 拉北者 高
相文씨를 拉北者 高

12월 20일 유엔인권고
등판무관(CNHCH) 48
년 48년 세계인권선언

93년 탄생... 각국 문제 평가·권고 업무

다수의 찬성으로 탄생했
다.

다수의 찬성으로 탄생했
다.

2월 14일 유엔총회
소수국가의 의과도르다사
(8)를 초대 판무관이
인명했다.

2월 14일 유엔총회
소수국가의 의과도르다사
(8)를 초대 판무관이
인명했다.

최고의 인권선
선언을 통해

최고의 인권선
선언을 통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고
탈출자들을 사살하는 등
적행위를 저지르자 서독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
동베를린과 동독내 난치
상인들 정치범들의 대한
비인도적법률 사례를 수
집, 보존키 위해 법무부 산
하에 추진할 기관인 「정치
범기록보존소」를 설치했
다.

〈洪性一기자〉

이 기관은 61년 활동을
개시한 이래 정치범이
로 인한 실인행위 4천4
백44건, 가혹행위 6백25
건, 정치범 투고행위 2천
9백84건, 정치재판 3만7
백52건 등 모두 4만1천3
백90건의 사례와 8만여명
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
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61년 활동을
개시한 이래 정치범이
로 인한 실인행위 4천4
백44건, 가혹행위 6백25
건, 정치범 투고행위 2천
9백84건, 정치재판 3만7
백52건 등 모두 4만1천3
백90건의 사례와 8만여명
에 대한 정보를 수집, 보존
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협약의 내용
규거로 인권문제에 대
권위있는 평가와 권고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정치
범기록보존소, 국제인권
에 있어 국제적 영향력을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협약의 내용
규거로 인권문제에 대
권위있는 평가와 권고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정치
범기록보존소, 국제인권
에 있어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체이다.
또 자신의 활동을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의 매년 보
고토록 되었으며, 별전송시
이후 국제관계에서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된 인권부
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할 수 있는 지체이다.
또 자신의 활동을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의 매년 보
고토록 되었으며, 별전송시
이후 국제관계에서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된 인권부
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趙誠國기자〉

〈趙誠國기자〉

사설

북 인권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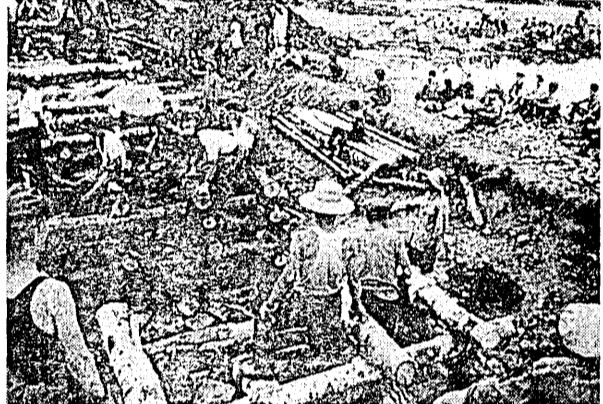
統一院 보고서

..... 統一院 보고서

『88년 인권탄압의 인권사...』 통일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권은 88년 1월 1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유감사상 인권탄압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통일원은 북한인권탄압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88년 1월 1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유감사상 인권탄압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통일원은 북한인권탄압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88년 1월 1일부터 8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걸쳐서 유감사상 인권탄압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金日成 신목소리 빈정대자 사형

「수령」 초상화에 다리미질 주민 추방 주택 재산권행사 불인정... 수시로 무단침입 수색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다 누르며 밟아내다...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수시로 무단침입 수색...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주택 재산권행사 불인정...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수령」 초상화에 다리미질 주민 추방...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수령」 초상화에 다리미질 주민 추방 주택 재산권행사 불인정... 수시로 무단침입 수색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수시로 무단침입 수색...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주택 재산권행사 불인정...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수령」 초상화에 다리미질 주민 추방... 열악한 작업장 항의 광원 공개처형

할당된 직업에 불만 출근거부하자 식량배급 끊어

할당된 직업에 불만 출근거부하자 식량배급 끊어

金正日 "난쟁이 씨 말려라" 특명

재래종관리소 충격

장애자 강제격리 피임 "멸종기도" 등 "남이" 노인·병약자는 "외출금지"

無許여행면 30일수용 노역... 平壤구경한 지방주민 5% 불과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한국일보 1994. 8. 18

북여류자장기수명파
인종차별적 신채장관리
 정보부 17일 장기수명파 대대적 단속... 신채장관리... 인종차별적 신채장관리... 정보부 17일 장기수명파 대대적 단속... 신채장관리... 인종차별적 신채장관리...

한 단속적 단속... 인종차별적 신채장관리... 정보부 17일 장기수명파 대대적 단속... 신채장관리... 인종차별적 신채장관리...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북의 정보부에서 金正日(김정일)의 특명을 받은 안기부장이 북한 북방의 신채장(신채장)의 45%를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단속하여 체제유지를 위한 단속의 목적이라면서, "난쟁이 씨 말려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

한 단속적 단속... 인종차별적 신채장관리... 정보부 17일 장기수명파 대대적 단속... 신채장관리... 인종차별적 신채장관리...

IV. 南北 關聯動向

○ 其 他

남북 인간띠잇기 정부, 자제 요청

“관계개선 도움안돼”...통일운동 규제 조짐

정부는 21일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6개 종단과 경실련·흥사단 등 5개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하는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 행사의 자제를 주최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이후 형성된 최근의 공안 분위기와 맞물려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통일원·내무부·문화체육부 등 3개 부처 공동 명의로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등 지난해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이번 대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대회는 1백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로 확대됨에 따라 인적·물적 소모와 합

계 극심한 교통난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와 공공질서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며, 불순한 정치적 행사와 혼재될 경우 사회혼란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극 자제를 요청해 사실상 행사를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주최측이 지난 1일 이 행사의 남북 공동개최를 위해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16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김 주석 사망 이후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정부 입장도 급변한 것 같다"며 "22일 전국본부 대회장·본부장급 회의를 거쳐 23일 대회본부의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북인간띠잇기대회는 올 8월 15일 '판문점~서울~대전~부산~제주'와 '대전~목포'의 모두 9백 35km 구간에 1백만명의 국민이 참

가해 통일을 기원하는 인간띠를 잇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판문점~서울 구간에 6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박중언 기자

‘인간띠 불허’ 철회를

민주 성명

민주당은 21일 정부가 남북인간띠잇기를 불허기로 한 것과 관련해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은 적극 권장·지원돼야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정부 방침은 통일을 위한 국민들의 순수한 의지와 노력마저도 불온시하는 과거 독재정권의 반통일정책의 연장"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남북간 대화와 화해의 노력이 추진돼야 할 시점에 반이성적 분위기에 편승해 이뤄진 이번 조처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규 기자

박중언 기자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이후 불어닥친 '신공안기류'로 인해 민간통일운동의 위축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 당국이 민간운동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관련 행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바람에 앞으로 적잖은 마찰도 예상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민간통일운동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가 지난 16일 대회 주최측의 북한주민 접촉승인신청을 불허한 데 이어 이날 "이번 대회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단정하면서 행사 자제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또 이 행사가 정치적 성격을 거의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런 입장은 통일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간행사에 대한 금지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통일원·내무부·문화체육부 등 관련부처 공동명의로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관계자들에 따

정부 '인간띠잇기' 자제요청 배경과 의미

신공안기류에 편승 민간통일운동 썩기

범민족대회 마찰 거세 충돌 예고

면 행사 허가 관련해 해당 단체에 구두로 입장을 표명하던 관례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부의 조율된 입장을 서면으로 대외에 천명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할 만큼 1백만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민간 행사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로서는 질서유지의 어려움과 함께 이 행사가 정부와 강경대립 상태에 있는 학생이나 재야 세력의 시위장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주최측에서도 행사축소 움직임을 보였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제요청이라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금지의사를 표명하는 강수를 두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공안분위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주석 사망 이후 조문 논쟁과 주사와 학생운동권 색출 등으로 조성된 공안분위는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민간행사에 미리 썩기를 박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머잖아 남북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민감한 시점에 민간단체들이 대규모 행사를 통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정부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북한과의 접촉에서 '창구 단일화'를 고집해온 정부가 애초부터 이 행사에 대해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온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그동안 주최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불편한 심기를 계속 드러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이 행사를 공

식 후원한 데다 민간통일운동의 활성화라는 당위성 때문에 적극적인 제재 움직임을 보이기 어렵었으며,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는 등 대화분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는 더욱더 불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행사 주최측은 정부의 진의를 면밀히 검토한 뒤 협의를 통해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함으로써 정부의 마찰 우려는 거의 없는 셈이다. 주최측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참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행사중지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성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간띠잇기대회와는 별도로 진행될 '범민족대회'의 경우 정부가 이에 불법행사로 규정해놓고 있어 더욱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이번 범민족대회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60여개 사회단체들이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이들이 공안분위 타파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6일 김 주석 조문을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던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 일행을 구속함으로써 충돌을 예고한 상태이다.

南北산악인 白頭山 같이 오른다

▽한국일보 1994. 8. 7

北발표공인명 또 귀순

부산항해해밀인부

안기부는 7일 시베리아 북한발표장에서 발표된 101로 입회한 북한주민 안송호씨(36)가 제3국 선박에 올래 승선해 부산항을 통해 일부 귀순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안씨는 하역작업을 하던 인부들에 의해 선박 밀항에서 탈진상태로 발견돼 현재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귀순경위와 경위 및 신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1994. 7. 29

北무연회사 간부 歸順

金동훈씨 : 제3국 거쳐 밀입국

국가안전기획부는 28일 북한 무연회사 간부회사 과장 김동훈씨(42)가 제3국을 통해 인천으로 밀입국 귀순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귀순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84년 원산경제대학 교원을 지낸 아버지를 비롯하여 어머니·부인·자녀 1명 등 4명의 가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연회사 무연사라는 발 전산업을 맡게 돼 귀순을 결심, 인천으로 밀입국했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김씨는 북한의 원산경제대학 교원을 지낸 아버지를 비롯하여 어머니·부인·자녀 1명 등 4명의 가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北 1년 끝났다 이례적 허용

北지역서 출발... 오늘 延吉서 접착 협의

【北京=劉尚植특파원】남북한의 산악인들이 26일 중국 延吉에서 26일 延吉에서 만나 북부지역에서 북부지역을 통한 백두산 근방에 방문제를 협의한다.

정전시에 거주하며 남북한 산악인들의 교류를 추진해온 許士雄씨(조선족·중주동맹)가 2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번 하반기의 남북교류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북부지역의 산악인들이 남부지역의 산악인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백두산 근방에 방문제를 협의하는 것 외에도, 양측의 산악인들이 남부지역에서 금강강아치 등 민중교류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악인 교류사업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북한측은 국가체육위원회 관계자 2명의 이날 회담을 위해 함흥에서 25일 延吉에 도착했으며, 남측은 김주산씨 대표로 있는 남측 산악인 2명도 이날 회담에 참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산악인들이 남부지역에서 금강강아치 등 민중교류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악인 교류사업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남한측은 국가체육위원회 관계자 2명의 이날 회담을 위해 함흥에서 25일 延吉에 도착했으며, 북측은 김주산씨 대표로 있는 남측 산악인 2명도 이날 회담에 참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산악인들이 남부지역에서 금강강아치 등 민중교류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악인 교류사업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한국일보 1994. 7. 25

“틀린턴, 金正日 안 만날 것”

다어 美부통령은

【워싱턴=연합】미국 부통령인 다어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NBC의 “인턴”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김정일과 만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어 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김정일과 만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1994. 7. 27

“카터 再訪北 계획없다”

카터전대 대표인

【워싱턴=연합】미국 전대 대표인 카터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카터 재북”에 대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김정일과 만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카터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카터 재북”에 대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김정일과 만나면 안 된다.”고 말했다.

美 「보안법 폐지 요구」 확인 지시

정부, 현지공관에 "眞意 파악 후 외교적 대응"

“미묘한 시기 內政간섭 성격” 韓·美 마찰 조짐

정부는 11일 미국 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한 것과 관련, “정확한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 국무부의 이같이 방미한 미 국무부가 보안법 폐지에 대한 재발견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의 정당한 지적에 응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재발견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한 관계자는 이 와 관련,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 뒤 민중적 기복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美 “보안법 개폐” 타진

北의 핵해결대가 폐지 요청 따르듯

공식 전달받았으나 당국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타진을 공식 전달받았으나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 특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꺼린다는 취지의 타진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안법 준수” 권유

11일, 미국 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가 “보안법 준수를 권유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의 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법과 제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내정간섭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량·소금 등 生必需品 中, 北에 긴급원조

【東京 29일】 중국은 故 金日成의 추도대회가 있던 지난 20일, 전후 밀가루 등 식료품을 북한에 긴급원조했다고 일본 외신이 보도했다.

이 소식은 중국 외신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있다. 북한 외신은 “북한이 식량·소금 등 생필품을 긴급원조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신은 “북한이 식량·소금 등 생필품을 긴급원조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귀순, 중1명 僞裝入境

중거주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러서 北발표(공)인사처 제포공공관외 귀순

16일 귀순한 북한 발표 공관외 귀순(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북한 발표공(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북한 발표공(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북한 발표공(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북한 발표공(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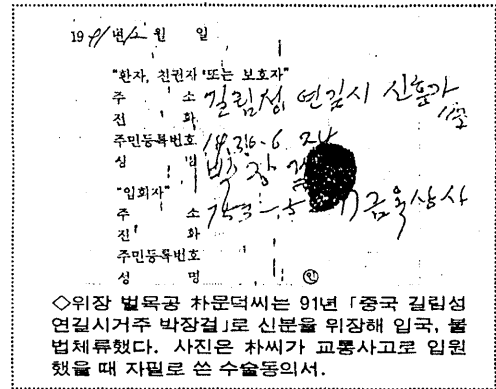
귀순한 북한 발표공(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북한 발표공(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75년 北韓탈출→延邊→91년 서울行 92년 추방→올 再入京 "기구한 인생"

별목공위장 귀순 차문덕씨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귀순한 차문덕(54)은 8월 11일 발표공(54)로 발표된 이 7월 북한에서 중거주 50대 91년 국내不法취업중 中추방 前歷

▽한겨레신문 1994. 8. 16

'평화통일대회' 전국 11곳서

어제 각계인사 33명 남북대화 재개등 촉구 선언문

남북인간대회기 대회본부(심인본부장 김동완)는 15일 입진각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종교·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통일 기원대회'를 개최했다.

이 선언문에서 참석자들은 "남북한 당국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을 약속했던 남북합의서를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민족사회의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당국자가

대화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민간 주도의 대화와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시대 민주주의 국민회의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병삼·한승현·김근태)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한 논평을 내어 "김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을 지

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그러나 "반복적 분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신공안정국을 끝내고,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개폐하는 등 정부가 먼저 자신있고 과감한 민족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민족화해 과감한조처 필요"

국민회의, 8·15경축사 논평

추진위, 8·15경축사 논평

추진위, 8·15경축사 논평

南北정상회담美중재 필요 金正日 위싱턴에 초청토록 金大中씨

【서울 19일 김대중 기자】 남북 정상회담이 17일 남한에서 열릴 경우 미국과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김대중씨가 19일 위싱턴에서 정중히 미국 정부에 초청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날 일본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

김씨는 이날 일본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씨는 이날 일본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국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

美駐韓기업인訪北맨처벌

위험성대두... 실행단계 아니다

【서울 19일 김대중 기자】 미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기업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北탈출범목공신원학인팬

韓國귀순모두 10명

【서울 23일 김대중 기자】 북한에서 탈출한 공신원 학인팬 10명이 귀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공신원 학인팬 10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공신원 학인팬 10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공신원 학인팬 10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공신원 학인팬 10명이다. 이들은 북한에서 탈출한 공신원 학인팬 10명이다.

북한 제네라토-1000 발전용 유입

【서울 22일 김대중 기자】 북한이 제네라토-1000 발전용 유입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제네라토-1000 발전용 유입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제네라토-1000 발전용 유입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경수로 지원 국회동의 거쳐야 이기택대표 주장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7일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북 경수로 지원에는 엄청난 국민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이택 기자

김대중이사장 '통일' 초청강연 내용

“북핵합의 제2해방 출발점”

정상회담 조속히 개최해 주도권 잡아야

김일성 사망이후 대응체계 아쉬운 점도

김종구 기자

정부와의 미묘한 관계를 의식해 남북문제 등에 대해 가급적 침묵을 지켜온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이 제네바 북-미회담 합의 이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례적으로 소상히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이사장은 23일 오후 서울 연희성당에서 가진 '통일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에서 북-미회담 합의의 의미, 김정일 체제의 향후 전망, 국내의 이른바 과거세력 문제, 정부의 남북정책 방향, 언론의 통일문제 보도태도 등 폭넓은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우선 북-미회담 합의를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제2의 해방의 출발점”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타결로 북한-미국-한국이 모두 많은 것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력의 획득, 핵공격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국은 남한에만 갖고 있던 영향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고 김 이사장은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이번 회담에서 소외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합의내용 자체가 한국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남북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평가다.

김 이사장은 “별행에도 김일성 사망 이후 우리의 대응체계는 국민이 아쉽게 생각할 만한 점도 없지 않다”고 정부 정책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우리와의 협력을 기피하는 구실을 주거나 주변국들과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

는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 사회적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주사파 등 과격운동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반미나 미군철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의 변화를 모르는 소치”라고 못박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친미를 하려고 나선 것이 북한이고 미군의 한반도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의 김정일 체제는 우선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 특히 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권위가 없는 그로서는 경제난을 해결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일에게 “미국과의 접근에 치중한 나머지 남북관계를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한-미간에 이간을 꾀해서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연희동 성당에서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진천규 기자

는 안된다. 50년에 걸친 한-미-일 공조체제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 통일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이 일부 언론이 통일논의에 대해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일방적인 매도와 심판을 할 때 통일논의는 발붙일 데가 없다”며 “언론의 공정한 보도 없이는 앞으로도 국민 속에 뿌리내린 통일정책을 가질 수 없으며 국민간에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4. 8. 24

어제統一주제강연
金大中 아태평화재단 이사장 23일 오후 서울 연희성당에서 “통일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강연을 가졌다. 김 이사장은 “북-미회담 합의는 우리 민족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제2의 해방의 출발점”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타결로 북한-미국-한국이 모두 많은 것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우선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 경제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력의 획득, 핵공격 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 획득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국은 남한에만 갖고 있던 영향력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고 김 이사장은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이번 회담에서 소외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합의내용 자체가 한국의 주장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며, 남북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길이 열렸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는 게 김 이사장의 평가다. 김 이사장은 “별행에도 김일성 사망 이후 우리의 대응체계는 국민이 아쉽게 생각할 만한 점도 없지 않다”고 정부 정책의 혼선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우리와의 협력을 기피하는 구실을 주거나 주변국들과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최근 사회적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주사파 등 과격운동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반미나 미군철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고 역사의 변화를 모르는 소치”라고 못박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친미를 하려고 나선 것이 북한이고 미군의 한반도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의 김정일 체제는 우선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 특히 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아버지 김일성과 같은 권위가 없는 그로서는 경제난을 해결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절대적 조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일에게 “미국과의 접근에 치중한 나머지 남북관계를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한-미간에 이간을 꾀해서

北米회담성공 韓半島장래 밝다
金大中
“頂上회담 조기개원 남북관계 주도권 잡아야”

中, 北에 무게 실으며 '등거리 시능'

中國 군사 停戰 委 철수 안판

【중경 2일 한신통신】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경 2일 한신통신】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中, 停戰 委 철수 결정

新華통신

北 韓 새 「평화보장 체제」 지지

北 韓 새 「평화보장 체제」 지지

【중경 2일 한신통신】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경 2일 한신통신】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군사위원회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북 양국에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中國「對北 영향력」유지 포석

停戰委대표 소환 배경과 전망

中國의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은 1994년 8월 25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은 1994년 8월 25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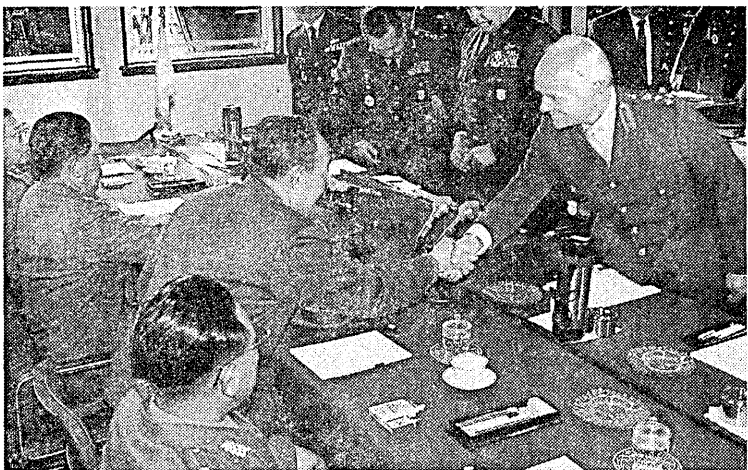
韓國의식 "협정이 아니며, 임박 2중테노 정부" 이미지 "대이철폐" 고심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은 1994년 8월 25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은 1994년 8월 25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은 1994년 8월 25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은 1994년 8월 25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로 임명된 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김성환 대령이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로 임명된 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韓-中관계 미묘한 기록

韓國, 中태도 불만 있지만 강연항의 자체 北美 北中 「평화협정」 불발실종의 추측

國과의 평화협정 체결이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단 수석대표인 김성환 대령이 2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사무실에서 김성환 대령을 소환했다.

“한반도安定 저해” 中國에 항의

停戰委철수에 政府 “韓美공동 대응”... 취소요청

中國 “停戰협정 계속유효”

中國이 군사정전 및 평화협정 철수를 시키겠다고 위협하며,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같이 항의했다.

中國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전쟁의 군사정전협정(이하 정전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 철회를 요구할 경우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中國은 정전협정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행위를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中國은 정전협정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행위를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中國은 정전협정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의 행위를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北韓 대책 고민

中國 정전위 탈퇴 등에 속수무책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안보조정의서 채택하면 실패할 수 있다. 일부선 “韓國만 소외” 우려

▽국민일보 1994. 9. 2

外務部 이감 노면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張基浩의 부대변인이 2일 중국 정부가 군사정전의 자대대표단을 소환키로 결정할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京=柳東福기자】 중국은 지난 53년의 체철펬 한반도 정전협정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沈國放(중외교부 대변인)가 2일 밝혔다. 沈國放은 “미국이 군사정전협정을 철회하면 한반도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지 기자 어제 평양에

정연주 워싱턴 특파원 남쪽 언론사 첫 단독 취재차

북미 전문가회의 · 김주석 사후 북한실상 현지보도

〈한겨레신문〉의 정연주 워싱턴 특파원이 오는 10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북-미 전문가회의와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6일 오후 3시25분(현지시각) 베이징을 출발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갔다.

그동안 남북 고위급회담 등과 같은 공식행사 보도를 위해 남한 기자들이 평양에 들어가 공동취재 활동을 벌인 적은 있으나, 남한 기자가 단독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특파원은 이번 방문을 위해

지난 1일 워싱턴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북한방문 신고서를 제출하고 5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원의 김경웅 대변인은 "정 특파원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아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방북 취재를 위해서는 북한의 초청장이 필요하지만 정 특파원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북한 방문 뒤 소정의 보고서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김 주석 사후 북한의 실상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



정연주 특파원

는 기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 특파원은 베이징에서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방북 취재와 관련해 "분단 시대의 언론인의 중요한 사명은 남·북 사이의 불신이나 대결을 키우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문에서 북-미 전문가회의를 단독 취재하는 외에 김 주석 사후 북한이 외부와의 경제교류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두루 살펴보고 싶다고 밝히고, 자신의 이번 방북 취재가 앞으로 남·북 언론인들의 상호 방문 취재를 점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태선 기자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북한에 관한 소식은 간헐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온 방문객들의 전언이나 불확실한 첩보 등에 국한돼 정확한 정보에의 갈증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통일원 관계자도 "현지 정보가 거의 없어 국민들은 물론 정책담당자들도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보도에

□ 평양 취재 성사되기까지

북한사회 정확한 정보 절감 정부에 신고...북한 비자 받아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의 실상과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북한관련보도는 일부 방문자의 전언이나 부정확한 추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도 언론매체마다 확인할 수 없는 추측성 보도들이 난무해 북한 실상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만을 가중시켜 왔다. 〈한겨레신문〉은 독자들의 객관적인 북한 정보에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현지 취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북한 방문 취재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이에 따라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북-미회담을 비롯해 남북문제를 일관되게 추적해온 정연주 워싱턴 특파원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 지난 75년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운동과 관련해 해직됐던 정 특파원은 8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대학에 유학한 이래 졸업 후 미국에 거주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지난 1일 워싱턴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남북 교류협력법에 따라 방북 신고서를 제출하고 5일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정 특파원의 이번 북한 단독 방문 취재는 남한 기자로서는 처음 있는 일로서 나라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NHK〉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특별한 관심을 내보이며 방북 사실을 취재했고, 국내 일부 언론들도 3일 정 특파원의 방북신고서 제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북 기간중 10일부터 북-미 두 나라 사이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가 열려 〈한겨레신문〉은 한국 언론사 중 유일하게 이 회담의 경과를 현지에서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1994. 9. 11

北韓단국 취재보도
한겨레기자 북서출국
【北京=柳東照 특파원】北
美전문가회의의 취재를 위해
지난 6일 입북했던 한겨
레신문의 鄭淵珠 워싱턴 특
파원(47)이 10일 북한당
국의 취재불허조치에 따라
북경으로 되돌아왔다.
鄭 특파원은 이날 북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북경공항에 도착. 북한
당국이 지난 8일 갑작스
럽게 특파원의 취재만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인턴들을 취재활동을 막아
평양을 떠날 수밖에 없었
다고 밝혔다.

“전문가회의 등 취재 못할바엔 차라리 떠나는게 몇몇한 선택”

북한 '선별입북 오해 우려' 제한취재만 제안

정특파원이 밝힌 북한 자진철수 배경

【베이징=정연주 특파원】“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지금 평양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고려항공 여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살려는 가슴을 안고 평양공항에 발을 내디딘 것이 지난 6일 오후 6시경이었다.

공항 밖의 공기는 상큼했다. 공항 밖 포플러 너머로 무수한 참새 떼들이 날아갔다.

나의 안내를 맡은 주 선생의 도움으로 입국수속을 마쳤다. 숙소인 고려호텔에 여장을 푼 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원래 내 입국사증(비자)은 열흘의 기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우선 사증기간의 연장을 요구했으며 그 다음으로 나의 취재계획을 말해주었다.

우선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승계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때이므로 권력승계에 대한 취재, 바로 다가온 9·9절 행사와 10일부터 평양에서 시작되는 북-미 전문가회의 취재, 김정일 후계자를 비롯한 가능한 한 많은 북한 고위인사들과의 회견, 북한의 경제개방을 위한 여러 준비 그리고 가능하면 나진-선봉 지구 방문 등 '의욕적인 취재계획'을 전해주었다.

안내를 맡은 주 선생은 내일 아침 논의해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 10시경 호텔 방으로 들어서는 주 선생의 얼굴 표정이 말이 아닐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자마자 담배를 빼어 물더니 한동안 말을 못하고 연신 담배만 뿜어냈다.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정 선생, 이것 큰일났는데 어쩌지요?”

나는 그냥 편히 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정 선생, 정말 이해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남조선에서 신문과 방송이 활활 떠든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도저히 정 선생 취재활동에 협조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슨 소리오?”

“남조선 신문과 방송 보도에 의하면 정 선생의 북조선 방문 취재를 마치 선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가 마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정 선생을 부른 것처럼 돼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시기가 아주 민감하고 미묘한 때인데, 마치 우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정 선생을 부른 것처럼 돼 버렸으니 그런 불필요한 오

해와 억측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사태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먼 길을 찾아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오?”

“지금 시기도 그렇고, 불필요한 오해를 정말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올 때 이런 정도의 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입니까?”

“정말이지, 선별입북이니, 우리에게 유리한 기사를 받아들여 무슨 선전공세를 한다느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 선생이 조용히 다녀가서 조용히 보도할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 정말 이해해주시시오.”

나는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역사적인 발걸”이라며 격려해주던 아내의 얼굴도 떠오르고, 서울에 있는 <한겨레신문> 식구들의 얼굴이 눈앞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토의해서 일이 되는 쪽으로 합시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뿐이었다.

“지금 숙단을 내리지 말고, 다시 가서 높은 분들과 의논해 보고 다시 오십시오.”

숙소를 떠난 주 선생은 오후 늦게서야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한 것이었다.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정

말 미안하지만 정 선생이 이해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 평양과 지방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일반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갈등이 생겼다. 이런 ‘제한적인’ 취재라도 해야 할 것인지에 마음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나의 결심을 재촉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9·9절 행사와 10일부터 평양에서 시작되는 북-미 전문가회의에 대한 취재와 보도였다.

나는 9·9절 행사와 전문가회의의 여지를 잡는 것 같았다. <CNN>의 미국 기자가 여기 와서 보도를 하는 마당에 같은 민족의 기자인 내가 평양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취재·보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양새도 여간 좋지 않을 뿐더러 기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곳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서도 그 길 기자로서 몇몇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CNN>의 미국 기자가 여기 와서 보도를 하는 마당에 같은 민족의 기자인 내가 평양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취재·보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모양새도 여간 좋지 않을 뿐더러 기자로서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곳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떠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로서도 그 길 기자로서 몇몇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가능한



10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국내의 보도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정연주 특파원.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 촬영

주 선생은 아쉽다는 듯이 “15일까지 있으면서 평양도 두루 돌아보고 지방에도 가고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해도 좋을 텐데...”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지금 평양에 와서 9·9절 행사와 전문가회의를 편히 지켜보면 서도 취재·보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정 선생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시끄럽게 번져버려서 우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겨레신문> 기자만 불러들였다며 선별적 입북을 허용했다느니 하는 악의적인 보도가 남조선에서 판을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로서도 부당한 오해를 받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얼마나 민감하고 미묘한 시기입니까?”

나는 다시 가서 잘 의논해보라고 부탁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똑같은 것이었다.

더욱이 어느 날은 이흥구 통일부총리의 발언이라면서 “우리 북조선이 마치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정 선생을 불러들인 것처럼 전해지는데 정말 너무 잘못된 이해와 악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취재와 보도협조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가능한

한 빨리 평양을 떠나겠다고 통고하고 특히 전문가회의가 열리기 전에 떠났으면 하는 것이 내 심정이라고 전했다. 눈앞에 벌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취재·보도하지 못한다면 서울에서 또 무슨 억측과 오해들이 일어날지 그것이 싫었다. 가장 이른 비행기편이 10일 오전이라고 전해듣고, 나는 10일 오전 비행기표를 끊어 달라고 부탁한 뒤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국내의 이런저런 보도로 인해 북쪽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10일 평양을 떠나 베이징으로 가니, 서울 본사에 이를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평양에서 서울에 소식을 전하는데 나는 왜 미국에 있는 아내를 통해야 하는가.

평양에서 미국으로 전화할 때는 99번을 누르고 난 뒤 지역번호와 전화번호를 누르면 미국에 있는 아내 목소리를 바로 들을 수 있는데 미국의 아내는 왜 평양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할 수 없는가.

미국으로 전화하는 평양의 문은 열려 있는데 평양으로 하는 미국의 문은 닫혀 있다. 그렇다면 누가 빗장을 잠고 있던 말인가, 북한이 개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이 그들을 봉쇄해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분단의 고통이 가슴 저미게 다가왔다.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도 있는 일인데 분단은 그 사소한 것마저도 사소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멀리 찾아온 발길을 돌려야 하더니... 온갖 생각들이 엉켜왔다. 이제 그 엉킨 생각들, 평양을 떠나기 전 며칠 동안 평양의 이곳저곳을 바삐 다니면서 ‘비공식’ 취재를 한 이야기들을 묶어서 ‘1994년 9월의 평양’을 <한겨레신문>에 연재할 참이다.

□ 북한의 취재거부 비밀된 연합통신 보도

‘한겨레 방북’ 선별입국으로 매도

대남선전 활동 몰아... 특파원기사 내부서 작성 물의

북한이 정연주 특파원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든 ‘남쪽 일부 언론의 보도문제’와 관련된 지난 3일 워싱턴발 <연합통신> 기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이 기사는 3일과 4일 일부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다).

“[워싱턴=연합] 장영섭 특파원=북한은 9·9절 행사와 오는 10일의 미-북 평양 전문가 회담을 앞두고 언론인들의 선별 입국을 추진하는 등 대남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입북취재를 허용했으며 한겨레 특파원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관에 지난 1일 방북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겨레신문 특파원은 내주중 입북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일성 사망 이후 대남 비방의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취해온 북한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언론인들을 선별, 입북 취재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미국 교포사회에 대한 선전공세를 강화, 미국 시

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몇몇 재미 한국계 기자의 방북 취재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끝)

이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단독 방북 취재가 마치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겨 ‘방북 취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방북 취재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한

겨레신문은 즉각 연합통신에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기사는 연합통신의 워싱턴 특파원이 쓴 것이 아니라 편집국 내부에서 작성한 기사로 확인됐다. 연합통신 관계자와 장특파원 등에 따르면 장특파원은 이 기사를 쓰지 않았고 단지 한겨레 특파원의 방북 취재 계획을

회사에 ‘정보 보고’ 차원에서 알려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기사 작성 경위를 묻는 질문에 연합통신 이문호 편집국장은 “그런 것을 꼭 대답해야 하느냐 (장특파원이) 간단한 사실을 연락해서 본사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언론노련은 9월10일자 <언론노보>에서 한 워싱턴 특파원의 말을 따서 “이 기사 때문에 워싱턴 특파원들 사이에 파문이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는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를 병전적 사고로만 파악하려는 고질적인 한국 언론의 병폐와 언론사간의 그릇된 경쟁심리가 빚은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오상석 기자

김우중씨 극비 방북

6·7월 두차례, 김주석 사망당시 평양체류 김정일비서도 만나...정부·대우그룹 부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전인 6월 중순과 7월 초순 두 차례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6월10일 중국 베이징을 통해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18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남포공단 등을 둘러봤다.

김 회장은 또 김 주석 사망(7월 8일) 직전인 7월4, 5일께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 주석 사망 소식을 현지에서 접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월 방북 때는 부인 정 회자씨가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두 차례 방북은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주석의 회담 시기(6월15~18일)와 거



김우중회장

의 일치하는 첫번째 방북에서 김 회장은 지난 92년초 합의했다가 중단된 대우의 남포공단 진출 문제를 북한 고위층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7월25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두 번째 방북에서 김 회장은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경제협력 의제를

협의하다가 김 주석의 사망으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 기간중 김정일 당 비서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주석의 장례식에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회장의 6월 방북 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으나 우리가 아는 한 김 회장이 김 주석의 장례기간에는 결코 평양에 체류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7월 방북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6월 방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통일원은 "김 회장으로 부터 방북 신고서를 접수한 적이 없다"면서 "김 회장의 방북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우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지난 6월10~18일 자동차 부품공장 설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에 머물렀으며, 6월29일~7월 2일에는 한-중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북한을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대북투자 경쟁 주도권 목적

남포공단 투자합의 유효한지 확인...카터 방문때와 일치

김우중 대우회장 방북 배경

김성수 기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두차례 북한 방문은 국내기업의 대북투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대북투자에서 국내기업 가운데 첫발을 내디디기 위해 남다른 의욕을 보여왔다.

김 회장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방북해 김 주석 사망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기 전까지 정부가 김 회장을 남북 경협을 위한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 92년 1월16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 김정일 당비서 등과 만나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를 북한이 허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은 남한 정부로부터도 남북한 시범사업으

로 승인을 받아 92년 7월18일 북한의 김달현 부총리가 서울을 방문했고, 10월6일에는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 실무조사단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 사업은 북한이 이듬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중단됐다.

하지만 그뒤에도 북한은 김 회장과 약속한 가방·메리야스 등 9개 공장의 건립을 계속해 이를 완공했다.

남포공단에 1천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김 회장은 지난 6월10일 대우의 남포공단 투자 합의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의 한 소식통은 "김 회장이 6월2일 평양에서 목격됐

다"며 "당시 김 회장은 서울 힐튼 호텔 회장 부인과 함께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김 회장의 방북 시기는 모하메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시점과 일치한다.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6월 방북 때 앞으로 북한의 경공업 중심지로 떠오를 남포공단에 대우가 다른 기업보다 먼저 들어가는 데 대해 재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의 두번째 방북은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사망 직전인 7월4, 5일께 이뤄졌다. 이때의 방북도 김 회장이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는 7월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어떤 수준의 남북경협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기간중 김 주석이

갑작스레 사망했고 김 회장은 북한에 일주일 동안 머물다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이때 김 회장이 김 주석의 유해가 안치된 곳을 찾아 조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당시 북한은 김 주석의 남남쪽 조문 인사로 김 회장과 박보희 전 세계일보 사장을 지명한 일이 있고, 이에 따라 박씨는 정부와의 협의하에 7월13일 평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전문가들은 당시 북한의 분위기를 감안하고 김 회장이 손님으로 방문한 이상 김 회장이 어필 수 없이 조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경련의 고위 관계자는 "김 회장의 방북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김 회장이 대북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다른 총수들이 김 회장처럼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美軍유해 인도 **北** 가격 줄다리기

1기당 2~3千弗 제시에 北 "3萬弗내라."

1기당 2천~3천 달러를 제시한 미국은 북한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가 넘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유해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美 "기밀해당 믿고 통틀뻔서요"

北선 "아직보수천구었다" "기"라

미국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北美軍유해 '값올리기' 열중

1기 3만弗 제시에 美 난색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작년 2만弗, 유족보상비의 갑절 의화확보 노려 "수천具 더 있다" **北**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해 인도를 위한 비용이 3만 달러를 요구하는 등 양측이 유해 인도 가격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유해 인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천~3천 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남북대화 돌파구 적극 기대”



◇카터전대통령과 韓昇洙주미한국대사가 20일 잭슨빌에 있는 카터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남북대화 중재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애틀랜타AP=연합]

카터중재 정부의 시각

【애틀랜타 20일 AP】 카터전대통령이 남북대화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카터전대통령은 20일 잭슨빌에 있는 카터센터에서 기자들에게 남북대화 중재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터전대통령은 “남북대화 중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카터전대통령은 “남북대화 중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카터전대통령은 “남북대화 중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北「9월합의」계승시사에 이따부여 金正日체제 공식화前 절점이다 신중

【평양 20일 AP】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9월 합의가 계승될 경우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金正日 공식승계돼야 南北 정상회담 가능”

정파 카터에 전갈 “절차 재협의... 1차 平壤 곤란”

【워싱턴 20일 AP】 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을 공식 승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을 공식 승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을 공식 승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을 공식 승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을 공식 승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일을 공식 승계해야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터 “南北 중재 기여에 유감없다”

【애틀랜타 20일 AP】 카터전대통령은 남북대화 중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유감없다고 밝혔다. 카터전대통령은 남북대화 중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유감없다고 밝혔다. 카터전대통령은 남북대화 중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유감없다고 밝혔다.

카터 북핵 추진

南北관계-北核해결 새국면

내달 초 入北유력...가시적成果 기대 정상회담 합의해도 장소異見 예상

카터前美國대통령이 16일 韓北관계의 北核문제에 대해 韓北 정상회담을 위한 北美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카터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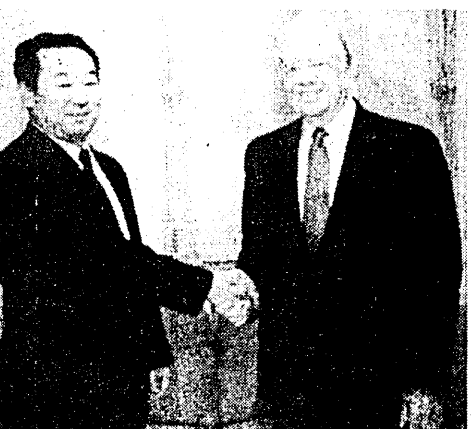
카터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터는 "北美 정상회담을 통해 北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미한국 추진위원장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미시간) 카터 전 대통령을 받기 위해 韓北 정상회담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右: 韓北 정상회담)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미시간) 카터 전 대통령을 받기 위해 韓北 정상회담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右: 韓北 정상회담)

訪美DJ "남북관계개선" 목청

미군을 발령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대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보수파인사들 접촉...카터면담서도 논의할 듯

김대중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수파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보수파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보수파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수파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보수파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은 "보수파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터外交」에 비판과 찬사 교차

“독재자 비호... 국무부와 관계 불편”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 “긍정론도”

美인텔리서 상반된 평가

미국에서 여덟 년을 보낸 뒤 돌아온 미국인들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와 관계가 불편한 인텔리들은 “독재자 비호”를 비난하며, 반면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가운데) 국무부 대북정책 담당관인 데이비드 실버먼(왼쪽)과 인텔리 출신인 데이비드 실버먼(오른쪽)의 대담 모습이다.

카터의 만행 빌리니... 나라 체통 뒤가 됩니까

【이근현 기자 특필】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독재자 비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무부와 인텔리 출신인 데이비드 실버먼의 대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버먼은 “카터 행정부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현 기자

“독재자 비호”라는 비난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인텔리들의 비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국무부와 인텔리 출신인 데이비드 실버먼의 대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버먼은 “카터 행정부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북한강정론자 아닌 열정론자”

한국의 대북 정책은 “독재자 비호”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무부와 인텔리 출신인 데이비드 실버먼의 대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버먼은 “카터 행정부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여덟 년을 보낸 뒤 돌아온 미국인들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와 관계가 불편한 인텔리들은 “독재자 비호”를 비난하며, 반면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여덟 년을 보낸 뒤 돌아온 미국인들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와 관계가 불편한 인텔리들은 “독재자 비호”를 비난하며, 반면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여덟 년을 보낸 뒤 돌아온 미국인들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와 관계가 불편한 인텔리들은 “독재자 비호”를 비난하며, 반면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여덟 년을 보낸 뒤 돌아온 미국인들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와 관계가 불편한 인텔리들은 “독재자 비호”를 비난하며, 반면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여덟 년을 보낸 뒤 돌아온 미국인들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와 관계가 불편한 인텔리들은 “독재자 비호”를 비난하며, 반면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여덟 년을 보낸 뒤 돌아온 미국인들은 카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와 관계가 불편한 인텔리들은 “독재자 비호”를 비난하며, 반면 국제 이해증진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카터, 南北 중재 재량권 유무

金大中씨 면담서 밝혀... 서울 平壤 언제든 방문 가능

【서울 23일 특보】 카터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무부와 인텔리 출신인 데이비드 실버먼의 대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버먼은 “카터 행정부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버먼은 “카터 행정부는 북한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해체 가속화 합의

미-러정상 공동회견...경제·안보협력 협정서명

【워싱턴=AP AFP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 해체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뒤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끝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결산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미-러 두나라는 오는 2003년까지 장거리 핵탄두를 각각 3천5백개와 3천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지난 93년 합의한 제2단계 핵무기감축협정의 일정을 앞당겨 핵탄두 해체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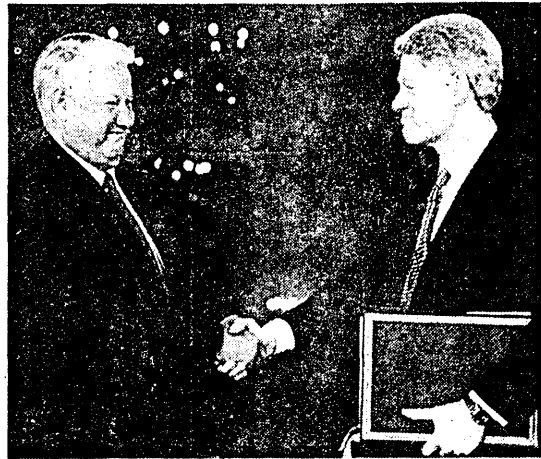
클린턴 대통령은 "핵탄두 해체 작업은 1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발효되고 2단계 협정이 비준되는 대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또 경제·안보

협력을 다짐하는 협정에도 서명했으며, 러시아의 대이란 무기수출 문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클린턴 대통령은 밝혔다.

이에 앞서 두나라 정상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만나 두나라 사이의 무역증진 및 투자합성화 등 경제협력 증진문제와 러시아 핵물질 안전관리 방안 등을 협의해 러시아에 핵물질 저장시설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핵물질 자료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두나라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로버트 스트라우스 전 러시아 주재 미 대사와 잭 스미스 제너럴 모터스 사장을 비롯해 미국 3대 대기업 총수를 배석시킨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 등 경제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8일 미-러간 '경제적 진보를 위한 동반자' 성명을 포함한 몇개 문서에 서명하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美-러 정상회담 결산

지난 27,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결산은 양국간의 전략적 협상관계에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클린턴 미 대통령과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각각 자국의 최대 관심사인 핵무기의 조기감축과 투자 및 무역협력을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협력을 격상시켰다.

러시아는 오는 2003년까지 핵무기 보유량을 3천5백개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한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의 내년도 발효

되던 때부터 지적되었던 핵무기 감축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량을 3천5백개 이하로 줄이기로 합의한 제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의 내년도 발효

美 核조기감축 · 러 투자활성화 성과



◇클린턴-옐친 서명
북-미 정상회담의 결산은 양국간의 전략적 협상관계에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클린턴 외교이미지 만회·옐친 經援 초점

동반자관계 격상 평가

러·北 핵문제 소외엔 유감...적극 참여 표명

양국 정상회담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북-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양국 정상이 핵무기 감축과 경제협력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북-미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양국 정상이 핵무기 감축과 경제협력에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을 위한 협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IV. 南北 關聯 動向

○ 社 說 · 칼 럼

社說

두 歸順者의 종격 證言

金日成이生前에「核을 다루지도 않고 뒤로도 없다」고 한 발언은 역시 완전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북한은 이미 5개의 핵실험을 생산, 보유하고 있고 금일성이 10개를 확보할 계획이며 핵실험은 원형 핵무기를 공개, 南에 대해 위협적 협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康의도씨의 歸順證言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馬脚과 의혹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康씨의 증언은 우리를 계속 놀라게 한다. 그동안 추측해 오고 있는 對美, 對南頂上대화론은 실은 핵개발 완료까지 시기를 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북한과 南의 韓聯協과의 관계는 朴正熙가 말한 것이 사실로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져 있고 북한은 남한의 금으로 자보다도 화폐를 더重視, 원전을 맺고 있다는 증언도 愕然하지 않을 수 없다.

康씨의 증언을 통해 북한은 체제유지, 군사비의 節減, 그리고 對南赤化와 위협을 위해 核을 개발해 오고 있고 남한 체제를 흔들고 혼란시키기 위해 화폐를 화폐로, 원전의 설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

진 것이다.

康씨의 증언으로 그대도 짐작했던 북한의 핵개발은 상당한 수준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금의 對南과 對美이라는 것은 오직 선전과 정치적 협상을 위한 한낱 수단과 장식이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아울러 韓聯協은 南과의 對南 내 세우면서도 수렴하는 對南 선전수용하여 남한사회의 혼란과 체제 전복에 얼마나 위협해 왔는가 한 알과 같고 있는 것이다.

이런 康씨의 증언은 休戰이래 지금까지의 귀순자 중 가장 권위, 핵심인사의 친 南, 즉 현재 북한의 권력사실 3위인 姜成(姜成)의 증언의 사위인데다, 집권 3년 외곽을 이치로 主席官의 總理부 산하부의 인사부사장을 지내고 최근 귀순해온 인사에서 신변의 무개방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康씨의 귀순화장은 우리 국민과 정부에 많은 진상실정을 알려주고 있다. 북한을 무조건 끌어안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진하며 그들과 대화를 통해 不和와 和解, 불협을 제거하고 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나 幻想에 불과한 것인가

관한 것인가.

지들은 同族을 함하고 또 거북하기 위해 核을 개발하고, 核을 가지게 대해 불협하고 있는 양이다. 핵이 있다. 북한은 극단적 행위의 主體思想에 대한 南과 金日成, 姜成, 姜成, 姜成 등으로 인한 南의 혼란에 대해 對南의 미소를 짓고 있으며 南을 위협한다.

정부는 이제 스스로는 물론 국민이 幻想을 깨고 北을 바로 본도록 해야 한다. 북한체제가 붕괴되기 전까지 對南赤化의 용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은 잊어서는 안된다. 北에서 南으로 리를 하고 있는 頂上회담에 대한 미련도 버리고 확고한 對北전략, 統一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겨레신문 1994. 7. 27

사설

‘박보희 딜레마’

〈세계일보〉 발행인이자 통일교의 ‘세계평화정상회의’ 의장인 박보희씨의 방북 조문은, 결국 발행인 해임과 강경한 사법처리선에서 매듭짓기로 결론이 난 모양이다. 그러나 박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서 서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아마 그러한 점도 ‘김일성 사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만난 한국인’에 대한 이런저런 추측과 궁금증을 더해주지 않나 생각된다.

애초 박씨의 평양 도착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정부는 신중해 보였다. ‘단순한 애도 표시나 강요된 조문’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방북 자체는 문제삼지 않는 조심스런 자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조문 시비 및 박흥 총장 발언 공방으로 매카시즘적 분위기가 일고 남북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사법처리 쪽으로 방침이 굳어져갔다. 앞서 평양 조문을 하겠다며 관문점으로 향하던 재야인사 2명을 ‘조문 미수’로 달켜 구속해버린 마당에 ‘조문 기수범’을 묵인할 수 없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검찰의 고민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박보희씨 방북 목적과 관련한 발언에서도 정부의 딜레마는 엿보인다. 본인이 주장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심분 존중하더라도, 그의 방북은 김일성 사후에도 통일교의 대북한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는 당국자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승공’을 앞세우는 통일교가 그 미묘한 시점에 2인자를 평양에 보낸 이유를 달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는 곧 그의 방북이 ‘남북교류 및 협

력에 관한 법’의 적용대상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교류는 상황 따라 정부가 권장할 사항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조문이 곧 김일성주의 찬양인 양 몰아대는 공안적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의 베이징 기자회견 소식과 함께 ‘각하’ 호칭과 ‘구두 메시지’ 발언이 전해지자 정부는 국가보안법 적용이라는 강경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지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때맞춰 박씨의 주민등록을 문제삼아 발행인 결격 통보를 한 것도 이러한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수습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물론 거기에는 “한국 주민등록증으로 언론사 발행인을 하고, 필요하면 미국 영주권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이중적 행동”에 대한 제재의 뜻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국적자 발행인’을 3년 가까이 눈감아온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정부의 망설임이나 고충 또한 적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결국 정부는 발행인 해임이라는 카드로 국민을 의식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보안법 적용방침을 강조함으로써 형식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자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미묘한 사안에 대한 타협적인 미봉책일 뿐이며, 더 크게는 대화 함의와 조문 불가, 화해와 적대, 교류와 단절, 그리고 법과 현실이라는,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모순과 일관성 없는 정책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소란 뒤끝에 우리가 얻은 것은 남북관계의 퇴보 확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너무 공허하기 때문이다.

社說

北韓核 파문의 진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개발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주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었다. 북한 정부는 핵개발을 위한 핵연료인 235U를 생산하는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로의 건설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개발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주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었다. 북한 정부는 핵개발을 위한 핵연료인 235U를 생산하는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로의 건설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연합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연합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社說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對北情報의 混線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핵연료 생산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社說

北韓의 「수용소 群島」

남조선에서 가짜의 면모도 드러나고 있다. 합수용소는 철저한 격리이다. 이산수용소에서의 시베리아 수용소 얘기가 아니다. 「유리사 회주의를 내세우며 스승」 지상나온 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모습이다.

북제교장(亞奈스) (亞奈스)의 정치범수용소 모습이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을 보면 북한의 수용소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 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사면의 발표 중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79년 유럽연수용소로에서 拉北前 수도고 교사 高相文씨가 이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북이 「의지불해 왔다」고 선전했던 高씨가 회유협박의 불행했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었음을 말해준다. 아무리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서도 集團이란 하지만 20세기 문명사회의 이런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은 인류문명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만민간의 얘기가 아니라 유리사 회주의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 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이산수용소의 모습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상환의 구체적으로 북한집안인 상환리도 이전 북한의 인권문제를 당국에게 거론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화를 통해 민족이 살고 있는 반문명적 인권상황을 언제까지 의면할 수는 없다. 아울러 高相文씨와 동진호선원을 남북자해를 구출하기 위한 승환노력을 즉각 벌여야 한다.

다. 李仁模(李仁模)를 인도의 적 차원에서 송환해 주었다면 우리도 북의 인도의 적 송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제사면위가 폭탄을 수용소 실태는 북한정권의 심체가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對北자세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1994. 8. 2

高相文씨와 李仁模노인

金泳三대통령이 高相文씨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 被拉, 억류 중인 인사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나아가 북한 인권을 본격 거론하고 나선 것은 매우 반갑고 당연한 일이다. 이는 북한의 범죄적이고 반인권적인 蠻行을 더 이상 묵과, 방치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보고자 한다.

국제 赦免委가 발표한 북한의 인권상황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비록 극히 제한된 숫자이지만 하나 정치범수용소에 억류 중인 강제 拉北者, 北送者 및 反金父子세 인사의 명단을 밝힌 점이다. 모두가 어울리기 짝이 없지만 前수도고 교사였던 高相文씨의 경우는 너무 나이지 않고 가혹하다. 외국요청을 북한 공판이도 잘못 찾아간 그를 강제 拉北한 후 「自進越北」 「義舉入北」이라며 지금

까지 억류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가족들의 슬픔과 傷心과 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高씨에 대한 북한의 反人倫的 蠻行은 작년 文民정부가 北으로 보낸 李仁模노인의 경우와는 너무나 對照的인 아날 수 있다. 李仁模는 6.25 때 단순한 중군기자라든 북한측 주장과 달리 인민군 소위로 參戰했다가 빨치산에 合流, 良民화살과 과몰소 습격으로 해오다가 검거되어 34년간 未轉向장기수로 복역했었다.

그러나 작년 새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수포한 인도적 정신으로, 痼疾인 그를 눈감기 전 가족과 再會시키기 위해 보냈던 것이다. 오히려 人道主義의 이고 또 反인도주의적이라는 설명의 필요성을 지어다.

화로 曷뵙인자 10명만 명을 강제 拉北한 뒤 1957년 7월 누릴리서 열린 제19차 국제전신자총회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失鄉私民들을 조속히 가족과 상봉시키라」는 결의문이 채택되자 마지못해 거의 無名의 인민인 3백37명의 生存명단만 동고해장을 뿌린다.

이 어 休戰협정이후 일부, 대량학살을 무인, 餓殍을 遺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4백70여명을 강제 拉北해왔으나 단 한명의 송환도 生死화인도 해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87년 1월 백령도 近海에서 강제 拉北한 제27호선호 선원 12명도 한때 「조사 후 송환하겠다」고 했다가 金萬鐵씨一家가 월남권순하사 「간첩행위를 자백했다」고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정부와 정치권의 지극히 단분자 송환문제를 거의 의소적으로 의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북한이 아무가나로 송환을 거부하여 아예 포기한 면도 있지만 대부분 北을 자국, 남북대화와의 파탄을 우려했던 게 사실이다.

社說

拉北者 명단 공개의 뜻

일찍이 스탈린 치하의 舊 소련을 史上 최대규모의 收容所群島라고 했지만 현재 북한수용소로 지구상에 유일하고 압도적인 強制수용소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李洪九부총리가 국회의무통일위에 보고한 「북한의 인권실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모든 주민들을 철저히 통제, 극심한 탄압으로 몰아넣어 인성과 해의 동포들을 강제노역, 억류하고 있는 강제수용소인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유엔憲章(인종·성·언어·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인권을 중시)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인정(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의 주체를 추구하고 있다. 8년 북한도 舊 憲法(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에 관한 國際規約)에서 인권의 중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뿐인가.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북한이 「人權의 天國」임을 규정,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사실상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도, 勞組는 커녕 동화화하며 말을 자유도, 居住移轉의 자유와 정부선택의 자유도 없다. 여기에 50年代 이후 중 앙집단농장사업, 주민再출발사업, 3계층이 계部類구분, 北送운동 및 越北者에

대한 了解사업들을 통해 철저히 선별조사 후 감시하고 反黨父子인사 및 주민 20여 만명을 북한인 12개 독재대살구덩이에 가혹하게 수용하고 있는 한편 불법연행, 고문, 공개處刑을 수시로 행하고 있다. 특히 拉北인사와 北送교포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장기억류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기본권의 존중이 커녕 인권 자체가 없는 나라다. 때문에 북한은 지난 91년 국제사면위 관계자를 잡으려다 죽어 버린 12명, 1993년 2년간 국제사면위가 모든 정치범과 良心囚犯, 억류자 인권 상황回報, 非人道的인 공개총살, 중지, 수용자虐待 등 잔인한 인권유린을 회담조차 거부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李부총리의 보고서에서 休戰이래 북한에 의한 강제 拉北者가 어부, 해군장병, KAL機승과 승무원 등 모두 4백 38명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권이 인권 존중을 커녕 선량한 시민의 납치도 서슴지 않는 불법집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기가 6.25 南侵때 各界 有力인사와

良民들 10만여 명을 끌고 간 뒤 단 한 차례의 서신교환도 不許하는 저를 모시는 4백 38명 정은 숫자만으로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不法의 민행, 非人道, 反人倫의 인권유린과 납치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지금까지 歷代정권이 남북 대화와 관계 槓塞을 이유로 이를 의면화시켜 저들의 만행을 묵인해 온 셈이 됐을 새삼 반성해야 한다. 拉北者 불법행위를 적당히 부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主惠派를 北의 선전대로 북한이 「인권의樂園」이자 「인민의 天國」으로 誤解, 시대착오적인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病에 더욱 빠져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민(한복소리로 北의 인권적 범죄행위를 규탄하고 벌리알려, 송환을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 北에 대해 對南의 납치자의 生死확인 과 송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십자와 면담시키라

북한이 또 속이 들여다보이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 인권보고서로 드러난 拉北者들로 하여금 라디오회견을 통해 그들이 강제납북이 아니라 의거입북임을 주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하라는 賊反荷杖의 역공세로 나오고 있다. 金日成이 죽어도 변한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북한의 반응이다.

지리학연구사라고만 밝힌 高相文씨는 자신이 의거입북자로 잘살고 있다고 말했으며 노동당원으로 과학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을 하며 평양에 살고 있다고 밝힌 俞成根씨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사실이라면 그보다 더 다행스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스로 선택해서 북한으로 갔고 대우받으며 잘살고 있다면 북한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태여 그들의 송환을 요구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북한은 원래 믿을수 없는 상대지만 국제사면위의 보고서에 대한 이번 대응도 의문투성이다. 의거입북해 잘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제사면위의 보고서에선 어떻게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 북한은 왜 보고서 발표 후 10여 일이나 지나서야 그들의 회견을 그것도 TV아닌 라디오로 심야에 보도했을까. 관에 박은 내용도 미심쩍고 절규같은 어색한 고성도 수상하다. 감압회견일 가

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자유의사를 통한 진실과 희망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해 당사자이며 국제신용도 제로상태의 북한이 믿을수 없는 본인들 회견으로 간접해명할 것이 아니라 포로교환때처럼 엄정중립의 제3자, 예컨대 유엔이나 적십자사같은 국제기구의 입회와 보호하에 확인시키면 되는 것이다.

국제사면위 보고서의 高·俞씨 두사람 경우만이 아니다. 우리정부가 밝힌 동진호선원 12명 등 휴전 이후 납북 억류자 4백 29명 전원의 생사·소재 및 자유의사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확인되고 원하는 경우 즉각적인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만을 넘는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강제노동수용소 실태도 사면위같은 국제기구에 모두 공개돼야 한다. 미국등의 압력으로 중국도 최근 감옥실태를 일부 공개한 적이 있다.

지금 당장의 南北관계에서 거창한 통일문제나 核문제보다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더 중요할 수 있고 시급한 문제는 南北離散가족 상봉 및 拉北者들의 송환 같은 人道的 문제라 생각한다. 그것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남북 신뢰관계 발전의 원초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미전향의 李仁模노인과 서해표류사병 송환 등으로 우리는 이미 섬의를 보인바 있다. 이제 북한의 차례인 것이다.

社說

북인블린턴 弱點알았다

수원-북인의 북인블린턴이란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기사에 서론이 담겨 있다. 북인 블린턴의 약점을 알았다. 이 기사에 서론이 담겨 있다. 북인 블린턴의 약점을 알았다.

이 기사에 서론이 담겨 있다. 북인 블린턴의 약점을 알았다. 이 기사에 서론이 담겨 있다. 북인 블린턴의 약점을 알았다.

▽경향신문 1994. 9. 19

「카터仲裁」의 우리의 對備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의 카터仲裁이란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사설

카터 방북에 앞서 남북이 할 일

이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두번째 평양 방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남북대화의 길이 좀처럼 열릴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또다시 그의 행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6월 그가 평양을 다녀오면서 엮어낸 남북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화해 분위기는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장애는 남북한이 뛰어넘기가 그렇게도 어려워 이제 또다시 그의 평양행을 지켜봐야 하는가.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다시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절차까지 마련해 가던 정상회담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정상회담만을 놓고 볼 때, 형식상으로는 아직 문제삼을 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어느쪽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말한 적은 없다. 회담 당사자의 한쪽인 북한의 주석직 승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여간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정부는 조문논쟁을 거치면서 주사파 파동을 틈타 공안정국을 이끌어냈다. 6.25 전쟁 책임론을 들먹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권력승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북한을 의도적이라 할 만큼 비난하고 자극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전에 없는 격렬한 대남비방을 퍼붓고 있다. 신문·방송을 통한 비난의 소리는 입에 담아 읊기기도 민망

할 정도라고 한다. 정부가 늦게나마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리고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기만 하다.

이러한 때에 카터의 방북은 어쩌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이 기존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카터를 맞이한다고 해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정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가시적인 제안이나 조치를 내놓은 바 없다. 스스로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은 채 상대방이 변하기만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도 대남비방을 중지하지 않은 채 남북의 화해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다시피한 대남 비방활동이 기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민족의 균열만을 조장하고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3일 제네바에서 다시 열리는 북-미 3단계 회담 2차회의가 끝나면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길에 오르게 될 것 같다. 그의 방문계획을 취소시킬 만큼 이번 제네바회담이 쉽사리 성공적인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카터의 지난번 평양길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남북문제만을 들고 다시 평양을 찾을 그의 걸음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래서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1994. 9. 24

仲裁없이 끝난다

이미 카터 전(前) 미국 대통령이 9월 24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북대화의 길이 좀처럼 열릴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또다시 그의 행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6월 그가 평양을 다녀오면서 엮어낸 남북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화해 분위기는 값진 것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장애는 남북한이 뛰어넘기가 그렇게도 어려워 이제 또다시 그의 평양행을 지켜봐야 하는가. 카터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다시 성사되기를 바라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절차까지 마련해 가던 정상회담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정상회담만을 놓고 볼 때, 형식상으로는 아직 문제삼을 점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어느쪽도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말한 적은 없다. 회담 당사자의 한쪽인 북한의 주석직 승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여간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정부는 조문논쟁을 거치면서 주사파 파동을 틈타 공안정국을 이끌어냈다. 6.25 전쟁 책임론을 들먹이기도 하고, 정상적인 권력승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북한을 의도적이라 할 만큼 비난하고 자극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전에 없는 격렬한 대남비방을 퍼붓고 있다. 신문·방송을 통한 비난의 소리는 입에 담아 읊기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때에 카터의 방북은 어쩌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일지 모른다. 그러나 남북이 기존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카터를 맞이한다고 해서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대북정책을 수정한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가시적인 제안이나 조치를 내놓은 바 없다. 스스로 양보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은 채 상대방이 변하기만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도 대남비방을 중지하지 않은 채 남북의 화해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다시피한 대남 비방활동이 기실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민족의 균열만을 조장하고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3일 제네바에서 다시 열리는 북-미 3단계 회담 2차회의가 끝나면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 방문길에 오르게 될 것 같다. 그의 방문계획을 취소시킬 만큼 이번 제네바회담이 쉽사리 성공적인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카터의 지난번 평양길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남북문제만을 들고 다시 평양을 찾을 그의 걸음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래서 더욱 착잡할 수밖에 없다.

남북교섭, 북한은 북한군의 북진으로
남측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측은 남측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河龍出

〈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



眞洞칼럼

북한은 남측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남측은 북측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의 종적과 남의 횡적

북한은 종적(縱的)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측은 횡적(橫的)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교섭의 관건은 종적과 횡적의 충돌이다.

寄稿

북한은 종적(縱的)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측은 횡적(橫的)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北韓정치범 수용자 명단을 보고...



金學俊 (남대 이사장)

忠誠派도 마음의 안부를 묻게

북한은 종적(縱的)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측은 횡적(橫的)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58년「조선민족해방투쟁사」저술 李羅英 收監에 잔혹성 재확인

북한은 종적(縱的)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남측은 횡적(橫的)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時論

北 施惠대상 간주

북한의 특이성... 6월 6일... 『북한신문』... 『조선일보』...



朴 鍾 吉

이제 북한은...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이제 북한은...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이...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이...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이...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이...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이...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이...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이...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金父子의 판행 회생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신문』의 판행 회생...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北韓人權 痛恨히 따져야 한다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을바른 對北 인권정책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북한 인권... 『조선일보』... 『북한신문』... 『동아일보』...

아침햇발

변화해야 산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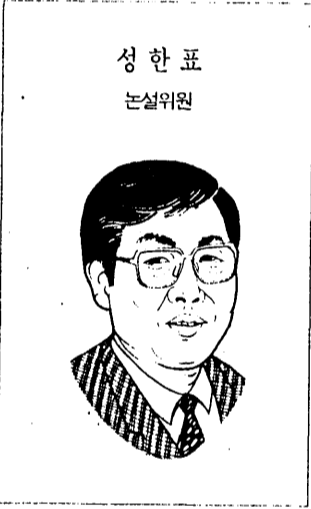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자 합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빛대어,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남한의 영향권 밖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도 남한의 배제로 나타날 것임을 정부가 뻔히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의 강경 분위기에 눌려 이를 국민 앞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신문의 분석은 특이하다.

정부에 책임 떠넘긴 언론

그러나 이 신문도 이러한 강경분위기라는 것이 주로 극우세력을 대변하는 언론의 작품임을 시인하지는 않았다. 김 주석 사망 직후 남북 화해를 열어가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은 한 아담의 원을 상대로 '김일성이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냐'는 식의 저열한 사상논쟁을 시작한 것도 언론이었다. 한 대학 총장의 무책임한 발언을 크게 부각시켜 사상논쟁을 가열시키고 온 사회가 마치 공산화의 위협에 직면한 듯이 과장하여 매카시적 '빨갱이 사냥'을 부추긴 쪽도 언론이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강경분위기를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언론, 그 자신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럴 태세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들은 많다. 정부는 핵사찰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벌였던 '제재 위협'과 '전쟁 불사'의 줄다리기를



성한표
논설위원

특히 한반도 주변에서 놀라운 정도로 가속도가 붙었다.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정착 꽃은 순식간에 피듯이,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도 '순식간에' 우리 앞을 지나쳐 저만치 가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그럴 태세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례들은 많다. 정부는 핵사찰 문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이 벌였던 '제재 위협'과 '전쟁 불사'의 줄다리기를

꽃을 피우기 위한 마지막 진통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실제상황'으로 보고 싶어했다. 그 결과 미국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평양에 가서 '대결'이 아닌 '대화의 길을 트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듣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사망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쪽 주도 아래 남북의 화해를 급진전시키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직된 북한관은 이 기회조차 거부했다. 정부는 난데없이 '북한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고 '갑자기' 올 수도 있는 통일에 대비하자'는 식의 환상에 빠져 현실의 움직임을 바로보지 못했다. 그 사이 북한은 남한이 북방정책으로 처봉은 포위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남한을 짓허두고 미국과의 단독대화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 됐다.

통일정책 크게 후퇴

변화의 윤곽이 드러나자 당황한 언론은 정부가 차츰한 외교적 고립을 소리 높여 질책하고 있다. 그런 비판 가운데서도 이번 북-미 회담의 경우를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寄稿

수 있다. 이가적 분변인 한 남의 후진적성을 변화시켜서 진화시키는 것만이 진화이다. 남의 후진적성을 변화시켜서 진화시키는 것만이 진화이다. 남의 후진적성을 변화시켜서 진화시키는 것만이 진화이다.

停戰委 대표소환과 中·北관계



차두복
〈외교통보외무연구원장〉

한반도 平和體制 전환의 도

북한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질적인 撤收... 美·北관계 개선노력 한국戰에 물린 발빠며 外交제약 벗기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附 錄

남북관계 주요일지

남북관계 주요일지('94. 7. 12~9. 30)

7 월

7. 14.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정상회담 개최 원칙은 유효'하며 북한의 사태진전을 보아가며 유연하게 풀어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임.
7. 18. 이영덕 국무총리, 김일성 조문논쟁 관련 정부입장 발표
- 김일성은 민족분단의 고착과 동족상잔의 전쟁을 비롯한 불행한 사건들의 책임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이미 내려져 있음.
7. 19. 북한, 김일성 영결식(금수산 의사당 안치)
7. 21. 정부, '94 남북인간띠잇기대회 관련 입장 발표
-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됨.
7. 21.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 일정 원칙적 합의(뉴욕)
7. 23. 한·일 정상회담 개최(서울)
- 한반도 정세와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방안 논의
7. 27. 북한 강성산 총리 사위 강명도 귀순 기자회견
- 북한은 현재 최소한 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7. 30. IAEA, 북한 핵탄5개 보유 부인 성명
-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 볼때 강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8 월

8. 1. 국제사면위, 북한 구금 정치범 55명 명단 공개
8. 2. 김영삼 대통령, 남북 억류자 조속 송환 노력 지시
- 인권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
8. 5.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재개(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8. 5.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미·북 회담관련, 종합적 검토 및 대책 논의
8. 12. 한적 강영훈 총재, 남북적십자사 총재 또는 부총재 접촉 제의
- 중단된 회담을 조속히 재개시켜 편지 교환, 상봉, 자유왕래 등 인도의 가교를 놓아야 함.
8. 13.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1차회의 '합의성명' 발표(제네바)
- 쌍방은 '93. 6. 11 조·미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

- 8. 13. 외무부 대변인, 미·북 합의성명 관련 논평
 - 정부는 핵문제의 중국적 해결을 위해 상호 지향해야 할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함.
 - 8. 15. 김영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천명
 - 8. 17. 한·미정상, 미·북 3단계 고위급회담 결과 관련 전화회담
 -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북한에 한국형 경수로 수용 설득키로 함.
 - 8. 23. 독일 외무부 대변인, '김정일 타도' 진단살포 확인
 - 8. 25.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북한 핵투명성 보장이 미·북관계 개선에 필수요건
 - 8. 26. 이홍구 통일부총리 관훈클럽 토론회 연설
 - 김정일 체제 안정이 남북관계에 도움됨.
- ※ 북한 3不현상 ▶대세의 불리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

9 월

- 9. 1. 중국, 군정위 철수결정 통보
- 9. 2. 외무부 대변인, 중국의 군정위 철수결정 관련 유감 논평
 - 현정전협정 체제의 효력 재확인
- 9. 2. 북한 외교부 대변인, 미·북 전문가회의 개최 발표
 - 연락사무소 문제 : 9.10 평양, 경수로 문제 : 9.10 베를린
- 9. 2. 미국무부, 중국 군정위 철수 유감 성명
 - 중국의 결정은 대표단을 소환하는 것이지 철수하는 것은 아님.
- 9. 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남북 당사자원칙에 따라 해결해 나아갈 것임.
- 9. 6. 미·북,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판문점 협상 재개
- 9. 10. 미·북 평양 전문가회의
 -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논의
- 9. 10. 미·북 베를린 전문가회의
 - 경수로 지원문제 등 협의

-
9. 12. IAEA 정기이사회 개막(빈)
- 북핵 토의 '의장요약 성명' 채택
9. 13. 미·북 평양 전문가회의 종료
9. 13.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 '남북정상회담 합의' 원칙 계속 유효
9. 13. 북한, 6.25 실종 미군 유해 14구 인도(판문점)
9. 14. 미·북 베를린 전문가회의 종료
9. 19. 제38차 IAEA 총회 개막(빈)
9. 23. IAEA, 북한 핵협정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찬성 76, 반대 1, 기권 10)
9. 23. 미·북 3단계고위급회담 재개(제네바)
9. 25. 북한 정당·사회단체들, 단군릉 준공식에 남한 정당·단체대표 초청
(22명) 편지 발송 공개
9. 25. 북 외교부 대변인 성명, IAEA 결의안 거부
9. 27.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미 항공모함 동해 배치 비난
9. 27. 미·러 정상회담(백악관)
9. 29. 미·북 3단계 2차회담 종료
※ 9. 24~25 전문가회의, 9. 26~29 수석대표회의

